

연구보고 17-R07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김형주

공동연구원 김정주 김혁진

RESEARCH REPORT 2017

# NYPI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김형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 · 소장)  
김혁진(청소년지원네트워크 · 연구위원)



## 발 간 사 ■ ■ ■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 분야의 최일선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공간 등의 편의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율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특히 대부분 공공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생활권 수련시설로서 지역사회의 실생활과 밀착된 청소년들의 상시적인 이용 공간이므로 공공시설로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국가적 혹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 취미,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교육을 맡고 있는 초·중등학교와 더불어 공익적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기능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표와 지원 정책의 개발과 시행은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가 도모될 때 청소년정책의 본래 목적인 지역사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증대를 환기시키고 그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병국



##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대다수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최근 사회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조사연구, 정책협의회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동향 고찰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를 고찰하였다. 둘째, 유관 사례로서 문화공공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공공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실태 및 인식조사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AHP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5대 영역, 10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10개 정책과제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별 청소년 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배경 및 특성 분석,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 다양성 점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참여 청소년 포용성 분석,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등이다.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시설 자체의 질 관리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운영 지원 역량 강화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수련시설 기본정책 수립과 세부과제 집행이 필요하다.

**주요어**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 운영 활성화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본원의 연구과제심의회에 공식적인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다루기 위해 대다수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로 연구대상을 한정함.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련시설 유형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 시설로 되어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함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최근 사회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과 시설 운영 관련 연구 고찰
  -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고찰
  - 유관분야 시설의 공공성 사례 고찰
-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책지원에 대한 워크숍
- 조사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시설종사자 대상 인식조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청소년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청소년전문가 AHP조사

○ 정책협의회

- 연구방향 관련 정책담당자 협의회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확보 정책방안 관련 정책담당자 협의회

### 3. 주요결과

#### 1)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동향 고찰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고찰
- 유사분야 시설의 공공성 논의 사례 고찰 - 문화공공성을 중심으로

#### 2)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쟁점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실제에 대한 분석

####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실태 및 인식조사

○ 조사설계

- 표본수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400명, 청소년전문가 93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추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청소년학계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가 대상 편의추출

## ○ 조사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대한 시설종사자와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인식조사에서 청소년수련 시설이 공공시설인지에 대해서 93.7%가 공공시설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하여 인식하는 키워드로는 지역사회, 정부지원, 지자체, 서비스, 참여, 전문성, 복지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과 비교할 때 67.5%만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함.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들 각각에 대해서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에 비하여 각 공공성 지표의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로서의 책무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함

## 4)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에 대한 AHP 분석

### ○ 분석개요

- 조사대상 : 청소년학계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가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수 : 37명

### ○ 분석결과

- 공공성 영역 : 타당성(0.237), 편의성(0.249), 형평성(0.161), 포용성(0.148), 지속가능성(0.206)
- 공공성 지표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영역 및 지표에 대한 최종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편의성 영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의 중요도가 0.0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속가능성 영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0.075), ‘타당성 영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0.066)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음

#### 4. 정책제언 : 10대 과제

- 과제 1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예산 및 인력 적정수준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가용 예산 상황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직영, 법인, 위탁운영 등에 따른 가용 인력 지원 여력에 대한 분석
- 과제 2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과정 및 절차 검토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 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유용성에 대한 분석보고서 작성
- 과제 3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종합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최적 입지에 대한 표준안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입지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과제 4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계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설계의 이용편의성 측면의 장단점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건축설계 프로토타입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과제 5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및 전망 분석
  - 지역별 인구 및 청소년인구 실태 분석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역별 청소년인구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도출
- 과제 6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
  - 지역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차이 분석
  - 지역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도출

- 과제 7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실태 분석
  - 지역별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요구 및 수요조사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
- 과제 8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참여 청소년 포용성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참여 청소년 실태 분석
  - 수련시설 참여 청소년들의 요구 및 수요분석
  - 청소년수련시설에 다양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과제 9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예산 실태조사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규모별 적정예산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 과제 10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인력 실태조사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규모별 적정 인력구조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 대비 적정 인력구조 세부지침 마련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	6
3. 연구의 방법 .....	7
II.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및 운영 관련 동향 고찰 .....	9
1.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	11
2.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고찰 .....	15
3. 유관분야 시설의 공공성 논의 사례 : 문화공공성을 중심으로 .....	23
III.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분석 .....	39
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쟁점 분석 .....	41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 .....	42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실제에 대한 분석 .....	51
IV.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인식조사 : 생활권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	59
1. 조사개요 .....	61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인식 조사결과 .....	63
V.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대한 AHP 분석 .....	221
1. 분석개요 .....	223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관한 AHP 분석결과 .....	225

VI. 정책방안 및 결론 .....	233
1. 정책방안 .....	235
2. 결론 및 시사점 .....	246
참고문헌 .....	251
부    록 .....	257

# 표 목 차

〈표 II-1〉 청소년수련시설의 당면 문제 .....	14
〈표 II-2〉 문화시설의 종류 .....	24
〈표 II-3〉 문화공공성 평가를 통한 문예회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시 사례 .....	28
〈표 II-4〉 운영주체별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직원 수(2016.1.1. 기준) .....	34
〈표 III-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형태별 연간 수입 .....	53
〈표 III-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형태별 자체수입 비율 .....	53
〈표 IV-1〉 응답자 특성 .....	62
〈표 IV-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63
〈표 IV-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64
〈표 IV-4〉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65
〈표 IV-5〉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66
〈표 IV-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 - 대상별 차이검증 .....	67
〈표 IV-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68
〈표 IV-8〉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69
〈표 IV-9〉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70
〈표 IV-10〉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	71
〈표 IV-11〉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72
〈표 IV-12〉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	74

〈표 IV-13〉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74
〈표 IV-14〉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	76
〈표 IV-15〉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77
〈표 IV-16〉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	79
〈표 IV-17〉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80
〈표 IV-18〉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82
〈표 IV-19〉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82
〈표 IV-20〉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84
〈표 IV-21〉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85
〈표 IV-22〉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86
〈표 IV-23〉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87
〈표 IV-24〉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88
〈표 IV-25〉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89
〈표 IV-26〉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90

〈표 IV-27〉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91
〈표 IV-28〉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92
〈표 IV-29〉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93
〈표 IV-30〉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94
〈표 IV-31〉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95
〈표 IV-32〉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96
〈표 IV-33〉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97
〈표 IV-34〉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98
〈표 IV-35〉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99
〈표 IV-36〉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100
〈표 IV-37〉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01
〈표 IV-38〉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02
〈표 IV-39〉 ‘타당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	103
〈표 IV-40〉 ‘타당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04
〈표 IV-41〉 ‘타당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05

〈표 IV-42〉 ‘편의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106
〈표 IV-43〉 ‘편의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07
〈표 IV-44〉 ‘편의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08
〈표 IV-45〉 ‘형평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109
〈표 IV-46〉 ‘형평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0
〈표 IV-47〉 ‘형평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1
〈표 IV-48〉 ‘포용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112
〈표 IV-49〉 ‘포용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3
〈표 IV-50〉 ‘포용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4
〈표 IV-51〉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115
〈표 IV-52〉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6
〈표 IV-53〉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7
〈표 IV-54〉 공공성 5가지 영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118
〈표 IV-55〉 공공성 5가지 영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19
〈표 IV-5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대상별 차이검증	120
〈표 IV-5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1
〈표 IV-5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2
〈표 IV-5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 대상별 차이검증	123
〈표 IV-6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4
〈표 IV-6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5
〈표 IV-62〉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26
〈표 IV-63〉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7
〈표 IV-64〉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28

〈표 IV-6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 대상별 차이검증	129
〈표 IV-6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0
〈표 IV-6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1
〈표 IV-6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 대상별 차이검증	132
〈표 IV-6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3
〈표 IV-7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4
〈표 IV-7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 대상별 차이검증	135
〈표 IV-7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6
〈표 IV-7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7
〈표 IV-74〉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견 반영 - 대상별 차이검증	138
〈표 IV-75〉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견 반영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39
〈표 IV-76〉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견 반영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0
〈표 IV-77〉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 대상별 차이검증	141
〈표 IV-78〉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2
〈표 IV-79〉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3
〈표 IV-80〉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 대상별 차이검증	144
〈표 IV-8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5
〈표 IV-8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6

〈표 IV-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47
〈표 IV-8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8
〈표 IV-8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49
〈표 IV-86〉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50
〈표 IV-87〉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1
〈표 IV-88〉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2
〈표 IV-89〉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 대상별 차이검증	153
〈표 IV-9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4
〈표 IV-91〉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5
〈표 IV-92〉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 대상별 차이검증	156
〈표 IV-93〉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7
〈표 IV-94〉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58
〈표 IV-95〉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 대상별 차이검증	159
〈표 IV-96〉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0
〈표 IV-97〉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1
〈표 IV-98〉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62
〈표 IV-99〉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3
〈표 IV-100〉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4

〈표 IV-10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 대상별 차이검증	165
〈표 IV-10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6
〈표 IV-103〉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7
〈표 IV-104〉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 대상별 차이검증	168
〈표 IV-105〉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69
〈표 IV-106〉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0
〈표 IV-107〉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 대상별 차이검증	171
〈표 IV-108〉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2
〈표 IV-109〉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73
〈표 IV-110〉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74
〈표 IV-111〉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5
〈표 IV-112〉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6
〈표 IV-113〉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77
〈표 IV-114〉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78
〈표 IV-115〉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79
〈표 IV-11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80
〈표 IV-11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1
〈표 IV-1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2
〈표 IV-1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183

〈표 IV-12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4
〈표 IV-12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5
〈표 IV-12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 대상별 차이검증	186
〈표 IV-12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87
〈표 IV-12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88
〈표 IV-125〉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 대상별 차이검증	189
〈표 IV-126〉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0
〈표 IV-127〉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1
〈표 IV-128〉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 대상별 차이검증	192
〈표 IV-129〉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3
〈표 IV-130〉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194
〈표 IV-131〉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195
〈표 IV-132〉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6
〈표 IV-133〉 편의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197
〈표 IV-134〉 편의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198
〈표 IV-135〉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200
〈표 IV-136〉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1
〈표 IV-137〉 포용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202
〈표 IV-138〉 포용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3
〈표 IV-139〉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204
〈표 IV-140〉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205
〈표 IV-141〉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필요성 - 대상별 차이검증	207

〈표 IV-142〉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08
〈표 IV-143〉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09
〈표 IV-144〉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 - 대상별 차이검증 .....	210
〈표 IV-145〉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11
〈표 IV-146〉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 - 대상별 차이검증 .....	212
〈표 IV-147〉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13
〈표 IV-148〉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1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	214
〈표 IV-149〉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1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15
〈표 IV-150〉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2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	216
〈표 IV-151〉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2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17
〈표 IV-152〉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3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	218
〈표 IV-153〉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3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	219
〈표 V-1〉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및 지표(안) .....	224
〈표 V-2〉 공공성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	225
〈표 V-3〉 타당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	226
〈표 V-4〉 편의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	227
〈표 V-5〉 형평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	228
〈표 V-6〉 포용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	229
〈표 V-7〉 지속가능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	230
〈표 V-8〉 공공성 영역 및 지표에 대한 통합 분석결과 .....	231

## 그림 목차

【그림 IV-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	63
【그림 IV-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65
【그림 IV-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	67
【그림 IV-4】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69
【그림 IV-5】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71
【그림 IV-6】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73
【그림 IV-7】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76
【그림 IV-8】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79
【그림 IV-9】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81
【그림 IV-10】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85
【그림 IV-11】 ‘보편적인 공공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88
【그림 IV-12】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91
【그림 IV-13】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94
【그림 IV-14】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97
【그림 IV-15】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100
【그림 IV-16】 ‘타당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103
【그림 IV-17】 ‘편의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106
【그림 IV-18】 ‘형평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109

【그림 IV-19】 ‘포용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112
【그림 IV-20】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115
【그림 IV-21】 공공성 5가지 영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118
【그림 IV-2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120
【그림 IV-2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123
【그림 IV-24】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126
【그림 IV-2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지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129
【그림 IV-2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132
【그림 IV-2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135
【그림 IV-28】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견 반영(%)	138
【그림 IV-29】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141
【그림 IV-30】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144
【그림 IV-3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147
【그림 IV-32】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150
【그림 IV-33】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153
【그림 IV-34】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156
【그림 IV-35】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159
【그림 IV-36】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162
【그림 IV-37】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165
【그림 IV-38】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168
【그림 IV-39】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171
【그림 IV-40】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74
【그림 IV-41】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177
【그림 IV-4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180
【그림 IV-4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183
【그림 IV-4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186
【그림 IV-45】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189
【그림 IV-46】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192

【그림 IV-47】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195
【그림 IV-48】	편의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197
【그림 IV-49】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200
【그림 IV-50】	포용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202
【그림 IV-5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204
【그림 IV-52】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필요성(%)	207
【그림 IV-53】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	210
【그림 IV-54】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	212
【그림 IV-55】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1순위)(%)	214
【그림 IV-56】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2순위)(%)	216
【그림 IV-57】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3순위)(%)	218
【그림 V-1】	공공성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225
【그림 V-2】	타당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226
【그림 V-3】	편의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227
【그림 V-4】	형평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228
【그림 V-5】	포용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229
【그림 V-6】	지속가능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230
【그림 VI-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의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235

# 제 I 장

---

##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 제 | 장 서 |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청소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환경은 청소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포함하여 청소년의 생활, 가족구조, 교육 등 전방위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2011)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960년 이후 청소년 인구(9-2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약 940만명 수준이다. 현재의 추세대로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2060년에는 5백만명 수준까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인구에서 청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현재 20%를 하회하고 있다. 참고로 1960년에 청소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8%였으며, 1990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다 1990년대 이후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청소년인구의 비율이 19.0%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청소년인구의 비율도 청소년인구수의 감소에 따라 2060년경에는 11.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자녀 가정의 급증과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으로서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학교교육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였던 청소년기에 대한 관심이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성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로 확대되고 있다. 학교 이외의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역할의 다양성 확대를 통해 지역의 공공 청소년시설로서 재조명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2004년 2월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종전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자연권과 생활권의 구분이 없어지고 청소년특화시설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시설이 추가되었다. 청소년시설은 크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로 분류되었고, 청소년활동시설은 다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었다. 여기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로 세분화되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2016)의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청소년수련이 193개, 청소년수련관이 181개, 청소년문화의집이

245개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99%, 청소년문화의집의 98%가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게 관리 및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지역이나 시설들간에 운영 수준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줄이고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양질의 청소년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인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이 당면한 현안과 문제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공통적인 현안으로는 첫째, 청소년활동이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인지도가 낮다는 현실은 공공성 강화에 대한 여론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불리하게 되어 예산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유형별 운영예산규모, 예산평시기준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세입구조의 일반적 특징은 사업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적정 예산규모, 예산편성기준, 운영원가의 산정 등이 필요하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최근의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운영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수련관 내의 수영장 시설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다. 수영장의 기능과 전문성 때문에 체육지도사를 투입하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으로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혹은 연수가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숙박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향 정립이 요구된다. 법적기준에 의하면 숙박시설은 청소년수련원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기능과 수련원 기능을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다수 있어 민간 청소년수련원과의 마찰을 빚기도 한다. 최근 숙박형 청소년수련관을 정책적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는 등 시설유형에 맞게 전환하려는 시도들이 있으나 법적 문제로 인해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최근 현안과 문제점은 첫째, 기본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각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보편적이며 적극적인 서비스를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충하여야 한다. 높은 땅값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보다는 소규모 이면서 청소년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설로의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분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어 기본적인 운영지원과 배치기준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문화의집의 설립목적 및 기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중점 프로그램의 영역 제시와 이를 위한 운영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청소년수련관과의 기능상 유사성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은 최근들어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에 있어서 교육연계, 지역 자원의 활용, 진로활동과 진로선택의 지원 등으로 그 내용적·형식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 분야의 혁신학교의 예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지역자원의 연계와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도 학교 내 자원 활용에 머물지 않고 교육과정의 유연하고 다양한 적용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12)에서도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한계와 향후과제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다양한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취업 및 진로에 대한 고민은 커져가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은 부족한 수준인데, 2012년 5월 현재 신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48건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4건으로 8.3% 정도로 진로 및 직업체험 등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적·시대적 요구를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의 당면 현황으로서 인성교육과 체험활동 증진을 위해 청소년 시기에 꼭 필요한 건전한 성장활동 여건 조성과 더불어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활동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첫 번째 중점과제(1-1)로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 종합 체험활동의 장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건립 확대와 지역 유휴 기관(주민자치센터, 아파트관리 사무소, 지역복지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5개년간 시·군·구별 최소 4개소 이상을 확대 설치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에 대한 중점과제 5-2에서도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활동의 특성화와 전문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자세히 다루고 있듯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이 직접적으로 실천되는 지역의 장이며, 지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국가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대부분 공공시설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연구과제심의회의 공식적인 권고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다루기 위해 대다수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로 연구대상을 한정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수련시설 유형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 민간 시설로 되어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활동에 대한 최근 사회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와 의견을 조사하며,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를 반영한 공공성 제고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동향 고찰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
-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고찰

둘째, 유관분야의 공공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사례 분석

- 유관분야 시설의 공공성 논의 사례 고찰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쟁점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실제에 대한 분석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실태 및 인식조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 관련 실태 및 인식조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에 대한 AHP 분석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 정책 비전 및 전략 도출
- 세부 정책방안 및 시사점 도출

### 3. 연구의 방법

앞서 제시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활용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문헌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과 운영 관련 연구 고찰
-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고찰
- 유관분야 공공성 사례 고찰

#### 둘째,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책지원에 대한 워크숍

#### 셋째, 조사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시설종사자 대상 인식조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 대한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청소년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의 중요도에 대한 청소년전문가 AHP조사

#### 넷째, 정책협의회

- 연구방향 관련 정책담당자 협의회
-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확보 정책방안 관련 정책담당자 협의회



## 제 II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및 운영 관련 동향 고찰

1.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
2.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고찰
3. 유관분야 시설의 공공성 논의 사례  
: 문화공공성을 중심으로



# 제 II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및 운영 관련 동향 고찰

### 1.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sup>1)</sup>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운영목적(영리인가 비영리인가), 서비스제공자(운영주체, 운영형식)가 누구인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은 어떠한가, 서비스 이용자가 누구인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시설이며,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당연할 것이다. 단,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과 같이 시설 운영의 주체가 민간일 경우 이를 공공적 성격을 띤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운영주체를 들 수 있다. 현행 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할 수도 있지만, 청소년단체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종교법인 등과 같이 운영단체가 청소년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체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둘째, 운영비(또는 비용)를 들 수 있다. 운영비를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관에게 전가할 경우, 위탁기관은 영리목적의 사업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공공성의 구성요건의 관점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셋째,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건 가운데 개방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정 대상만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1) 이 절은 강영배(대구한의대학교)가 집필하였음

공공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넷째, 이용방식을 들 수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각 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은 운영, 관리상의 이유로 인해 그렇게 운영하기 힘들다. 이에 사전허가제 또는 등록제의 형식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다루고 있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병모(2003)는 운영주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설립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설립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와 같은 민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공적 자금을 통해 조달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재학(2004)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육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필요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공공성적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중립성, 자주성 그리고 독자성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운영주체와 상관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본다. 유경희(2016)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단체로 전환(위탁)되는 과정에서 시설의 공공적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성격을 띠는 시설이란 전제하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단체(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위탁기관의 적정성 심사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심사요소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다음으로, 조혜영(2012)과 양범모(2003)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부담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공공성이 갖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비영리성(nonprofitness)'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상당수의 청소년수련시설, 특히 민간단체 또는 종교법인 등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부족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강좌 등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 등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관련하여, 김학춘(2006)은 실적 위주의 운영방식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공공성의 구성요건 가운데 이용자의 개방성과 공익성(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고려하기 보다는 정책상의 필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족한 운영비의 확충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보다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최진희(2013)는 지역적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경우 지역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며 공간설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역사회의 자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성의 관점에서 볼 때 타당한 접근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학춘(2006)을 비롯한 다수의 선행연구(유진이, 2009; 윤준선, 정현균, 김지훈, 2009; 조혜영, 2012)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설치, 운영중인 상당수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이용 접근성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이 갖는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허가요건 가운데 시설 이용의 접근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당시 이용자의 접근상의 용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현재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못한 채 소수의 제한된 이용자들만이 이용하는 소위 ‘그들만의’ 시설로 전락한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환범, 이수창, 이완교(2006)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가 청소년수련시설이 갖는 공익성(公益性)적 요소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비스의 질(SERVQUAL, Service Quality)의 측면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여러 가지 요소로 측정이 가능한데, 이 연구에서는 감정이입(수련시설 이용의 즐거움 정도 등), 유형성(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 대응성(시설의 개방 및 이용시간 등), 보증성(프로그램의 내적 가치 수준 등), 신뢰성(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 등)과 같은 요소로 서비스의 질을 측정하고 있다.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의 편리성과 매력성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생활권 수련시설에 대해서 기관운영, 조직, 프로그램, 연계 및 협력, 시설 및 공간 측면에서 최근 청소년수련 시설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음 <표 II-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다.

**표 II-1** 청소년수련시설의 당면 문제

영역	당면 문제
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이용자층이 제한적이며, 지역내 전체 청소년 가운데 일부 청소년만 시설이용</li> <li>• 다수 시설의 경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중심, 문화강좌의 경우 성인 중심</li> <li>• 시설 책임자의 경영적 전문성 부족</li> <li>• 지자체와 시설 수탁법인간의 협력 부족</li> <li>•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시설 개보수에 어려움</li> <li>• 수익사업에 치중</li> <li>• 다수의 민영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이용자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li> <li>•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정체성 혼란</li> <li>• 지자체의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독립성, 자율성 보장 미흡</li> </ul>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적 차원에서 시설의 운영할 담당할 부서 부재</li> <li>• 운영비 조달을 위해 문화강좌 담당 부서 확충으로 인해 청소년활동 분야 위축</li> <li>• 청소년지도자(사)의 전문성 부족</li> <li>• 청소년지도에 대한 급여를 포함한 복리후생 제도 미흡</li> <li>• 청소년지도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 미흡</li> <li>• 청소년지도사의 법적 배치기준이 현실 반영 부족</li> </ul>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제공 부족</li> <li>• 단조로우며, 획일화된 프로그램</li> <li>•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부족</li> <li>• 만족도 중심의 평가로 인해 내용의 효과성 확인 부족</li> <li>•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요구를 이끌어낼 프로그램 부족</li> <li>•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부족</li> <li>• 특성화된 프로그램의 부족</li> </ul>
연계 및 협력 (홍보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을 비롯한 지역내 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부족</li> <li>• 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와의 연계 사업 부족</li> <li>•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정보제공 노력 부족</li> <li>•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홍보 노력 부족</li> </ul>

영역	당면 문제
시설 및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설계 및 배치에 있어 청소년활동의 특성, 편의성 반영 부족</li> <li>• 공간구성의 개방성 및 융통성 부족</li> <li>•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제약성</li> <li>• 낮은 접근용의성(accessability)</li> <li>• 시설의 특성화를 위한 설비, 장비 부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시간의 절대적 부족</li> </ul>

## 2. 공공성 측면에서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고찰<sup>2)</sup>

2006년부터 시작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모든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쉼터,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95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이민희, 김정준, 황진구, 최창욱, 성운숙, 2006).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사업은 2000년도에 수행된 우수청소년시설 선정사업에서 시작되었다(김형주, 2011a). 200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이전까지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평가는 단순 실태조사나 안전등급 평가 또는 시범청소년수련시설 평가나 방과 후 사업 평가 등 일부 분야에 한정하여 추진되어 결과적으로 평가 간의 연계성과 평가결과 활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져왔으며, 청소년활동 분야 평가의 체계성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김경화, 조용하, 2005; 구세운, 2008).

청소년수련시설평가의 필요성은 청소년시설의 효과적,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청소년시설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김형주, 2011a, 2011b). 또한 평가는 청소년시설의 운영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등 일정부분 컨설팅 기능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현장에서는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준비 등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지자체 등과의 부정적 관계 등으로 인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자체를 힘들어하는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소년관련 대형사고 이후 2014년 청소년활동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이전 3년 단위로 시설 유형별로 시행되어오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는 2년 주기로 단축되어 청소년현장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2) 이 절은 조남익(광운대학교)이 집필하였음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종합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시설평가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봄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평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청소년현장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1)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경과와 문제점

### (1) 청소년시설평가 지표의 변화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지표는 평가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이민희, 2007; 김호순, 2011; 김형주, 2011a; 2011b).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지표는 청소년 시설에 대한 하드웨어 영역(공간, 설비 등)와 함께 청소년들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용 청소년 대상의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참여도 및 만족도의 수준, 양질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는 지 등에 대한 소프트웨어 영역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어느 한쪽이 우선되어야 한다기 보다는 지표의 구성에 있어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이민희, 2007).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지표에 대한 기본 방향은 첫째, 청소년정책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정체성 확보와 기능 유지를 확인하고, 둘째, 평가지표별 평가요소의 구체화를 통한 시설운영 기준의 명료화, 셋째,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의 유형, 운영특성을 고려한 평정기준으로 형평성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가.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 변화

2000년에서 2004년에 시행된 시범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지표(2002년 기준)는 ‘목표 및 발전계획, 시설경영, 수련활동기반, 이용수준, 시설의 안전과 위생, 조직 및 환경 관리, 종합심사’라는 총 7개 분야에서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총 35개이다. 가장 많은 지표가 반영된 분야는 수련활동기반의 ‘청소년지도자 및 프로그램’ 8개 지표 ‘시설운영 및 관리’ 5개 지표로 총 13개 지표가 반영되어 이는 수련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핵심을 둔 평가지표로 볼 수 있다.

이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도된 첫해인 2006년도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는 2005년 「시범청소년 시설 지정 및 인센티브 부여사업」 관련 「5개년 평가 및 평가지표 개발 보고서」에서 제시된 평가지표

체계 및 평가방식을 조사·분석·평가·검토하여 최종 보완사항에 대하여 「종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여 사용하였다(이민희, 김경준, 황진구, 최창욱, 성운숙, 2006). 이전 평가지표에 비해 2006년의 평가지표는 5개영역과 14개의 핵심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이전 평가지표에 비해 간소화 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없었던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를 평가영역으로 새롭게 반영된 반면, 이전 평가지표에서 평가항목이었던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 핵심평가지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청소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서비스의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평가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핵심평가지표에서 ‘수련활동 인증제에 대한 준비 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실적’과 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을 평가지표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되면서 청소년수련관만 단독적으로 실시된 2009년과 2012년의 지표를 보면 외형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2009년의 6개 영역 15개 항목 36개 평가지표가 2012년에는 6개 영역 14개 항목 29개 지표로 일부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평가영역의 순서를 보면 2009년의 경우 ‘경영기획-재무조직지도인력-청소년-프로그램-시설활용안전위생-종합평가’의 순서라면, 2012년에는 ‘운영계획-청소년-청소년활동프로그램-조직 및 시설-대외협력-정책협력’ 순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2009년에는 시설의 경영과 운영적인 측면에 강조점을 둔 반면 2012년에는 청소년의 실제적인 참여와 프로그램 등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배점에서 2009년에는 재무조직지도인력의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2012년에는 청소년(25)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20)의 배점이 합쳐서 45점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2009년의 평가지표에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에 핵심가치를 두었다면, 2012년에는 청소년수련관의 사회적 책무와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지표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법적준수나 발전노력에 대한 영역을 2009년에는 ‘종합평가’로 10점을 반영한 반면, 2012년에는 ‘정책협력’이라는 영역으로 15점을 반영하면서 ‘지자체의 시설발전 지원노력 수준’이라는 지표를 새롭게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평가지표에 반영되었다.

### 나.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지표 변화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지표 역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2007년 청소년문화의집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활용한 지표는 <표-4>와 같다. 평가영역은 조직 및 인력운영, 프로그램, 수요자, 안전과 위생, 대외협력과 지역사회 연계 등 5개 영역과 14개 세부평가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지표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2007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지표의 경우 간단한 지표로 구성되어 평가의 편익을 제공했지만, 평가지표를 통해 성과의 변별력을 갖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김호순, 2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지표는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에 비해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청소년의 이용 및 만족도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고유한 역할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우수성과 같이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지표를 무리하게 측정가능한 지표로 객관화 시키면서 지표가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후 2010년과 2013년의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지표를 비교해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0년의 평가지표는 2007년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수준으로 제시되었다면, 2013년의 평가지표는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와 영역을 거의 일치시킴으로써 평가지표의 표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2년의 경우 그동안 청소년문화의집 지표에는 없었던 ‘운영 및 관리체계’ 평가영역이 신설되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간운영계획 등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법적 기준 준수와 운영발전 노력 정도를 보는 ‘종합평가’의 배점을 10점으로 하였으나, 2013년에는 ‘정책협력 및 발전노력’으로 평가영역을 확대하여 기존의 지표 외에 정책지침 협력 수준, 지자체의 시설발전 지원노력을 추가하여 배점도 20점으로 올리는 등 간단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역 청소년 이용 시설의 의미를 넘어 주요 정책사업의 적극적 수행기관으로 보고자하는 것이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 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함께 평가한 2015년 평가지표

201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동시에 종합평가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평가지표도 함께 개발되어 제시되었다. <표-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2015년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지표는 평가영역과 항목, 지표까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차이 단지 청소년 이용률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영역과 배점 모두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세부지표로 들어가면 지도자 배치기준이나 공간 등 법적으로 다른 영역은 당연히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평가지표가 이와 같이 동일하게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을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면은 평가지표가 일치됨으로써 시설유형간의 상호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가자들이 각 지표의 이해를 쉽게 함으로써 평가의 편차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면으로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고유한 목적과 역할이 평가항목이 일치된 상태에서 해당지표의 세부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각 시설유형별로 필요한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2)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의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평가가 정기적으로 시행된 지도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시설 평가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모형의 부족이다. 김형주(2011b)는 평가가 청소년활동시설의 질적, 양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나,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 시설의 운영상황을 양적, 질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체계적 평가모형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부합한 평가체계와 지표가 필요하며, 이를 포괄하여 운영 가능한 평가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임지연, 송병국, 이교, 김영석(2010)의 연구에서 논리중심의 평가모형으로 10단계 핵심내용체계를 제안한 바 있지만, 현실에 부합하고 간소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모형의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평가의 목적에 대한 모호성이다. 임지연, 송병국, 이교, 김영석(2010)은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평가의 주관자인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실무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진행되면서 평가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는 평가실무 우선의 평가, 사업결과보고서 형식의 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평가지표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지표에서 정책사업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본질적인 기능, 역할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든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지표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어 시설유형별 본질적인 목적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평가하는 것인지 등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있고 지엽적인 것에 몰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인력의 한계와 편차이다. 청소년수련시설평가는 주로 관련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2인 1조로 구성하여 이동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청소년관련학과 교수라고 하여 청소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고 해당 분야 평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개인적 전공에 관련된 사업을 핵심적으로 체크하는 등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을 확인하고 점검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현장과의 갈등을 보이는 경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 간의 보는 시각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편차도 심각하다. 물론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평가지표를 최대한 객관화 시켰다고 하나 여전히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야할 영역이 많은 현실에서 평가자에 따라 해당 실적이나 성과의 인정여부가 달라진다는 건 현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가인력의 절대적인 수를 확보를 위해 청소년 관련 학과 중심의 청소년전문가 뿐만 아니라 평가전문가 또는 현장 전문가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과 더불어 평가인력에 대한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온라인 심사를 활성화하고 현장 실사를 간소화 하는 등 평가인력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종합시설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 부족인데 정부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 및 전문성 확보 시설운영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평가를 의무화하였지만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5). 시설평가 준비를 위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게 된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거나 평과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등의 과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의무평가이니 평가를 받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평가의 결과를 현재와 같이 일정 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학생수련활동 불가와 같이 부정적(또는 징벌적) 형태의 평가결과 활용(또는 적용)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현장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수련시설평가의 공공성과 운영 활성화 관련한 시사점

### (1) 실적 평가에서 성장 중심의 평가로의 전환 모색

현재의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는 실적에 대한 평가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2년간의 실적(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지표에 부합하는 정도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지표는 영역별 관련 법 준수 여부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기 보다는 평가지표에 적절한 수준으로 관련 실적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적 위주의 평가는 시설운영의 기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지역에 부합하고 의미 있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기는 어렵고,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의 변화도 지표에 얽매일 경우 오히려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실적 위주의 평가를 성장 위주의 평가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성장 위주의 평가는 절대 기준이 아닌 각 시설에 따른 상대적 기준으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일반적 실적이 아닌 시설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영역을 이렇게 평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균형 있게 제시함으로써 평가지표를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지표의 일반적 실적은 상시 보고 되고 있는 내용(지자체 실적 보고 등)을 기초로 판단하거나 다른 평가의 결과와 호환하여 최소화하고, 개별지표는 각 시설이 어떠한 성장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결과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성장의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2) 평가지표의 표준화와 특성화(전문화)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지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가지표는 평가의 지향점과 내용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평가의 핵심이 된다. 그동안 평가지표의 표준화에 대한 몇 가지 연구를 통해 평가지표의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이민희(2007)는 표준화를 위해서는 평가지표와 영역에 대한 용어와 분류가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이민희, 2007).

평가지표와 영역의 표준화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고집하여 시설운영의 목표나 방향이 고착화되고, 결국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의 표준화와 더불어 특성화(또는 전문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앞서 성장 중심의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통지표(표준화)와 개별지표(특성화)를 활용하거나, 현재 정량적 평가 위주의 지표 산정 방식을 과감히 변화하여 정량적 평가(표준화)와 정성적 평가(특성화)를 균형있게 적용함으로써, 평가를 통해 청소년시설의 적극적인 자기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가를 의무적인 과정이 아닌 새로운 기회 창출의 기회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평가지표는 시설의 유형과 운영 목적과 가치에 맞게 차별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동일한 평가항목과 영역 지표를 적용하는 것은 향후 두 시설의 운영방식과 내용이 같다고 인식할 우려도 있어, 각 시설 유형에 맞는 지표개발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 (3) 평가운영(시기, 방식, 위원 등)의 개선

현재 청소년수련시설평가는 주로 7, 8월에 이루어진다. 이 시기 청소년시설은 방학 중으로 가장 캠프 등으로 바쁠 때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교직에 있어 방학 중에 시간을 활용하기 쉽고, 평가사업 주관 기관은 사업을 해당 년에 마무리해야하기 때문에 개별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 보고서 작성 까지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이다. 현장에서는 청소년 사업이라는 본질적인 일로 정신이 없는데 평가를 위해 또 다시 에너지를 소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문평가 시기를 상반기(4-5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 대상이 지금과 같이 이전 실적(최근 2년)을 가지고 평가하게 된다면 굳이 여름방학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교직으로 인해 학기 중 이동이 어렵다면 평가기간을 충분히 하거나 국가자격시험 출제와 같이 집중평가 기간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평가 시기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서면심사와 현장실사의 평가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현장에 가보면 너무 많은 서류가 인위적으로 제본되어 제시된다. 시간과 자원의 낭비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준비해야 평가가 수월하다는 생각에 현장에서는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평가지표에 맞춰 서류철을 평소에 준비하고 운영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그 역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평가위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2-3곳 많게는 3-4곳의 시설을 방문하기 때문에 실제 평가의 공정성과 질적인 부분도 편차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평가운영의 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평가 모델의 개발과 적용이 시급해 보이며,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호환가능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시설에 부합하고 현장을 고려한 평가 운영방식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를 통한 공공성의 확대**

공익적 관점은 공공성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비롯하여 재구조화를 시킴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향하게 하는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조남익, 2010).

이와 같은 개념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일부 청소년에게 집중되거나 독점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공공복리적 과제(사업)을 발굴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청소년 현안에 적극 개입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역에 나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성과를 지역이나 청소년과 어떻게 나누고 공유하고 있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통해 나타난 공공적 이익과 성과를 조직과 기관을 넘어 사회(특히 지역 청소년 및 주민 등)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평가는 이러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기반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보편성과 절차의 공정성 그리고 성과의 공유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고 실제적인 역할을 찾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수련시설평가를 기반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 유관분야 시설의 공공성 논의 사례 : 문화공공성을 중심으로<sup>3)</sup>**

**1) 문화예술시설의 가치에 대한 논쟁 : 공공성과 효율성**

문화예술 분야에서 제기된 공공성에 관한 논쟁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된 논의의 방향설정과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실천전략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화적 가치에 대해 공공적인 지원의 타당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공공성의 이념과 기관의 경영관리 관점에서 효율성의 이념이 대립하고 병행하면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시설의

3) 이 절은 김혁진(청소년지원네트워크)이 집필하였음

유형에 관한 법적인 기준은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설립 주체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주제인 ‘공공성’ 관점에서 본다면 주된 대상은 일차적으로 공공시설이 될 것이다. 특히 문화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지역사회 기반 구조, 서비스 내용 측면에서 가장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대표적이다.

표 II-2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기반시설	문화시설의 유형별 종류
공연시설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야외음악당 영화상영관(영화상영관, 비상설상영장)
전시시설	박물관, 화랑, 미술관, 조각공원
도서시설	문고,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체육센터, 문화의집, 청소년활동시설, 복지회관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지방문화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공연시설과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등의 복합시설
그 밖의 문화시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 출처 : 법제처, www.law.go.kr.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별표1 시설 종류 요약 정리. 2017. 5. 25검색

설립주체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공공성의 가치와 효율성의 가치에 대한 갈등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공공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충실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립 경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예술성을 지향하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도 공공기관 경영의 관점에서는 문화적 가치에 충실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가치를 강조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평가정책과 맞물리면서 국·공립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도 예술성 보다는 경영 성과가 강조되어 온 부분도 공공성 관점에서는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재정 지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예술시설이 그 본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확보해야 할 예술적인 전문성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위기 의식도 포함된 문제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성과 효율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고 이 두 가치가 양립하기에는 갈등의 요소가 불가피한 점이 있다. 실제로 공공예술 분야의 경우에도 경영관리의 효율성이나 재정 확보에 관한 문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효율성의 추구로 인한 지나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자립을 위한 재정 확보를 통해 고유목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더 많은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경영효율성이 공공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경영효율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의 전제로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수익구조나 재정자립 관점에서 경영효율성의 가치가 실현 가능하고 의미가 있으며 문화예술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는데 역효과가 될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예술경제학 관점에서 미국의 역사적 상황이나 연구의 흐름은 현재 우리의 논의와 유사하며, 이를 통해 핵심적인 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이재희, 2009). 초기 연구시기인 1960년대에는 공연예술의 재정적자의 불가피성과 경제적 위기에 대하여 공공지원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공지원의 감소와 맞물려 경제적 관점에서 공연예술과 경제의 관계를 연구하게 되었고, 고용효과·부가가치·공연과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경영과 마케팅영역으로 연구의 관심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영리기관인 공연예술기관은 예술적 수준보다는 수익과 재정 증대가 운영목표로 중요하게 되었으나, 실체는 관객이 더 확대되지도 못하고 예술성 측면에서도 공연예술기관의 정체성 위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관객 중심의 공연예술의 관점에서 수요자의 참여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는 생산자 중심의 공연예술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대중의 접근성 제고와 경험의 신장이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문화예술의 공공성은 수요자의 접근성과 참여의 주체성을 기반으로 수요기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 2) 문화공공성의 개념과 가치 요소

### (1) 문화공공성의 개념에 대한 논의

문화공공성은 공공성 개념에 문화의 특성을 결합하여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공공성의 개념이나 요소는 하나로 정의되거나 명확하게 구체화되기 어렵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구분도 일관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공공성의 개념도 접근 관점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문화공공성의 개념 정의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고려사항은 문화의 향유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혜택이 아니라, 시민들이 개인적 조건의 차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이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다. 즉, 문화공공성은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또는 문화권의

관점에서 그 가치와 이념의 토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문화현장(2006년 5월 제정)’은 제1조에 시민의 기본권리로서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제5조 등에 규정된 문화적 권리는 공공성의 개념을 설정하거나 타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와 함께 문화공공성은 문화불평등 또는 문화격차의 해소를 통해 문화복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도 문화는 시민의 권리라는 특성이 문화공공성 개념 정의나 접근의 전제가 될 수 있다.

문화공공성 개념 정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이토 준이치의 공공성에 대한 세 가지 요소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김웅천, 김재범, 2014; 김지혜, 2014; 박신의, 2009). 첫째는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으로 국민에게 법이나 정책을 통해 실시하는 활동이며 공교육 등이 해당된다. 둘째는 모두에게 연관된 공통적인 것으로 공공재나 공통의 규범 등과 같이 특정 계층이나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셋째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으로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는 실제 작동과정에서는 서로 상충될 수도 있고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공통의 이익에 배반하거나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라 일부의 소수 집단이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문화예술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공정책 영역에서 접근할 경우 주로 정부의 주도에 의한 사업이 공공성을 대표하거나 주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문화공공성의 공통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문화공공성이 집합적인 힘을 통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압력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개성을 억누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이나 개인의 자율성의 가치와 충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공행정에 의해 공공성으로 제한되는 문화공공성이 아니라, 다양한 논쟁과 담론을 통해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으로서 공공적인 공간·영역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개념에 접근하기도 한다. 즉 공공성은 공공적인 주제나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의 주체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곳이라는 관점을 의미한다. 김웅천 등은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기초로 예술적 공론장으로서의 공공성을 정의하고 있다(김웅천, 김재범, 2014). 예술 자체는 사적인 영역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미적 가치의 공유와 소통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전환되고 이를 통해 공공성이 형성된다. 예술의 공공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성을 토대로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공론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예술공론장은 예술가 중심의

순수예술과 시민들의 일상과 생활예술을 연계하는 일종의 네트워크이며 공공예술은 장소중심에서 시민참여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공공성 개념에 관한 대안적 논의는 정책적 관심에 의한 실용적 개념 정의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예술 공간 중심의 소통은 개인의 사적인 관심과 기호를 인정하면서 누구나 참여하여 소통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예술계와 대중이, 정책과 예술계가 그리고 정책과 대중이 모두 소통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집단적인 힘으로서의 공통성이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지평을 확장하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을 개인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공공성의 개념에는 공영 방식의 체제도 포함하되 공적인 가치와 목표, 공통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접근성, 수요자 참여 중심의 소통과 공유의 관점이 반영된다. 특히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인식 전환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김창수 등은 문화공공성을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문화자원과 시설에 접근하여 문화향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창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창수, 김준호, 2013). 이는 수요의 주체로서 개인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정책적 요소까지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성에서 공적기관의 역할이 공공성 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갖는 것이지 배타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내포하고 있다.

## (2) 문화공공성의 가치 요소

공공성의 개념은 누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다양해질 수 있는 다소 논쟁적인 특징이 있다. 앞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문화공공성은 일반적인 공공성 개념에 문화예술의 가치와 특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개념적 정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공공성의 개념 이해와 관련하여 그 특성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은 다양한 논의나 연구에 제시된 공공성과 관련된 요소나 특성을 키워드로 추출해보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성은 학문적이고 담론적인 논의 수준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지향하는 실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II-3 문화공공성 평가를 통한 문예회관의 공공성 제고방안 제시 사례**

구 분	기본방향	시설 공공성 제고방안(2개시설 종합)
개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친화형 시설 도입</li> <li>• 시민참여 제도 도입, 시민평가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위원회 구성</li> <li>•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li> <li>• 편의시설 확충, 안내체계 개선</li> <li>• 관람객 감소 대책 수립</li> <li>• 홈페이지 이용 감소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li> </ul>
평등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자의 시설이용 편의성 증대</li> <li>• 맞춤형 입장료/관람료 체계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수자 배려 시설 개선</li> <li>• 지역편중 현상 대책 수립</li> <li>• 소수자 대상 프로그램 개발</li> <li>• 저소득층 대상 사업 강화</li> <li>• 문화사랑방 연계사업 강화</li> </ul>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유산 재창조 사업 확대</li> <li>• 기초예술 및 실험예술 우선 원칙</li> <li>• 지역간·문화권간 교류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참여예술 사례 확대</li> <li>• 장르 편중현상 개선</li> <li>• 지역 정체성과 문화자원 발굴 및 재창안 시도</li> </ul>
지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확충</li> <li>• 안정적 예산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성 제고 계획 수립</li> <li>• 전문인력 확충 방안 모색</li> <li>• 안정적 예산 확보</li> </ul>

※ 출처 : 김창수, 김준호(2013), 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p.93.

### 3)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성 관련 주요 논점

#### (1) 공공지원의 근거와 타당성 확보에 대한 논쟁

문화예술시설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공공성 제고와 관련하여 공적인 지원 또는 공공지원이 가능하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근거로는 공익성 관점에서 공공재로서의 가치와 공평성 관점에서 가치재로서의 가치를 들 수 있다(이재희, 2009).

우선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문제는 문화예술시설을 포함한 문화예술이 ‘공공재’로서의 두 가지 특성인 ‘비경합성(비경쟁성)’과 ‘비배타성(비배제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김창수, 김준호, 2013; 양지연, 2016).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소비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배제성’이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요자의 비용 지불이 있는 경우 비배제성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공재를 찾기는 어려우며 문화예술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결합된 혼합재의

성격을 갖는다는 보기도 한다. 또는 비경합성은 있지만 비배제성은 없는 준공공재로 보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가치재’로서 특성은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예술시설을 포함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의 근거가 된다. 가치재란 용어 그대로 가치가 있는, 즉 좋은 것으로 공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합의되는 재화를 말한다. 그 특징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 둘 경우 바람직한 수준 이하로 소비가 되는 재화라는 점인데 이 때문에 개인의 수요 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사회적으로 결정한 재화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논쟁점은 공공성의 역설과 관련된 문제인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최소화하여 문화활동에 대한 비용을 저렴하게 또는 무료화할 경우 일반인들의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고 창작자들이 문화상품의 생산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민간의 창작 콘텐츠 중 공공적 가치가 큰 경우 공적 생산의 영역으로 흡수하여 접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제시된다. 또한 공공지원은 예술 창작자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지원에 기대게 됨으로써 자립성이나 자생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 (2) 문화예술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시장실패의 문제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선택에 의해 재화나 용역이 배분되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잡는 기능을 하며 시장원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소비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떠한 서비스는 경제성의 부족으로 인해 수요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시장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비영리기관이나 공공서비스의 근거는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에 있으며 정부의 개입 또는 공공지원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개입 또는 공공지원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그 근거를 경제성에 두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연예술 투자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로 공연예술 시설을 건립하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편익의 효과는 소비자들이 공연시설이 없더라도 예술활동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지출의 대체가능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외부편익의 관점에서라면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문화적 유산과 같은 편익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는 것이지 경제적 효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이재희, 2009).

소득 분배의 형평성 관점에서 공공지원의 근거에 접근할 수도 있다(양지연, 2016). 시장의 원리만으로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배분할 수 없는 이유는 소비자의 문화적, 경제적 격차에 따른 접근성의 차이 때문이다. 이는 가치재로서의 문화예술의 특성과도 연계되며 문화복지 측면에서 문화격차, 문화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통한 개입, 즉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공공성은 평등성, 형평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문화소외 계층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기관 운영주체 유형에 따른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의 관계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시설의 운영 주체에 따른 효과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논의는 국·공립 시설의 민영화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우려를 통해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국립 문화예술시설의 성격과 관련하여 국가의 직접 운영이 아닌 법인화(특수법인, 재단법인)라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를 국립시설의 민영화 관점으로 접근하면, 국가의 책무성이나 공공성 보다는 수익성, 더 나아가서는 상업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즉, 국가의 직영이 아닌 특수법인화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적인 접근 또는 공익시설의 수익시설화를 위한 시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운영형태에 따른 효과성과 관련하여 순수 민간위탁 보다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제시한 두 가지 사례를 보고자 한다.

이은미, 정영기(201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역공연장들의 문제점으로 수익성 중시, 프로그램 미흡, 공간이 지역주민이나 예술가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운영 주체 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이은미, 정영기, 2010). 운영유형은 직접운영·시설관리공단(지자체 출연)재단법인·민간위탁의 네 가지로 나누고, 2008년 기준으로 총 167개의 지역공연장을 평균 공연가동률(공공성), 기획공연 비율(예술성), 재정자립도(경영효율성), 전문인력 구성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4가지 기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운영이 비교우위에 있었다고 보고한다. 일부 개선할 문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단법인 형태가 다른 유형에 비해 예술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예술성 있는 기획공연 유치와 함께 자체수입 확대 노력도 더 적극적이었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철, 고수정, 장철영(2006)의 연구에서는 민간위탁이 직영방식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대한 연구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광역단위 문화예술회관 19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주체 유형에 따른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이상철, 고수정, 장철영, 2006). 우선 운영주체 유형에 대해서는 공익성과 수익성·전문성을 기준으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정부관리방식은 행정부서관리형과 사업소형이 있고, 혼합관리방식은 책임운영기관형이 있으며, 간접/민간관리방식은 공단(공사)형과 민간위탁형이 있다. 참고로 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특수법인의 설립이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의 위탁 등 법인형은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접/민간관리방식의 경우 공단이나 지자체 설립 재단법인 위탁은 사실상 공공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순수한 민간단체 위탁과는 유형을 나눌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대상 시설 19개중 연구자의 분류기준에 따른 민간위탁 시설은 5개소였으며,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효율성 평가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보다는 직영 형태의 운영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기간의 시차가 있지만 유형에 따른 연구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는 비효율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의 과다 투입에 비해 자체 수입이나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민간위탁의 도입 보다는 과다한 인력은 축소하되, 문화행정 전문직력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인력양성과 채용관련 제도를 마련하며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효과적인 평가 시스템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서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공공성의 원리와 자립의 두 가지 가치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으나 정책과 현실적인 접점이 필요하다. 문제는 수익자 부담, 시장원리, 경쟁성, 민영화, 평가관리 등 경제적 효율성을 개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공공성의 가치를 매몰시킨 점은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강황성 등의 연구에서는 공공성의 실현과 경영의 자립화를 위해 공공시설의 사용료,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원가분석 방법과 사용료 부담 기준을 제시하였다(강황선, 주운현, 2009).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공익성의 정도와 수익발생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축으로 하여 비용부담 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두 가지 기준의 세부기준으로 경쟁성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경쟁성은 민간부문과의 경쟁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공공시설이 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정도에 따른 기준이다. 예를 들어 공익성이 강하고 수익은 발생하기 어려운 서비스, 즉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부문으로 대체시킬 수 없는 비경쟁적인 부문은 정부의 부담을 확대하는 것이다. 반대로 민간시설에서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비공익적인 경우는 사용자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이다. 공공시설 이용자의 책임성 측면에서 본다면 일정한 비용 부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공공지원 또는 공공기관의 자체 수입확충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일방적인 정부 지원이나 수익성 중심의 상업화된 사업의 틀을 벗어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책임에 관한 균형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민간위탁이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명분으로 삼아 효율성이나 수익성을 강조하였지만, 설립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회피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공공시설의 고유목적은 달성하지 못하여 공공성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직영, 공공법인 운영, 민간위탁 등 유형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고 연구에 따라 상대적 효과성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어떠한 유형이든지 설립주체가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4) 수요자의 주체성과 참여 중심의 공공성 재개념화

문화공공성의 개념 정의 및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수요자 참여 중심의 공공성은 문화예술시설 공공성의 핵심 가치이자 공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실행 원리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개개인의 예술적 역량 제고와 주체성의 강화는 ‘문화향유자 중심의 정책’을 위한 기반이며 공공지원의 체계 측면에서도 공급자 지원보다 소비자 지원 방식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 공공성의 가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통적인 문화체험과 창작 경험의 장이며 여기에서 ‘누구’는 집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콘텐츠 선택의 주체로서 개별적인 개인 수요자를 의미한다. 이는 공공의 의미가 결국 시민의 소유와 공유의 가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유물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점과 시민의 공유물인 문화예술시설에 주인이 배제된다면 공공시설로서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시설의 경우에도 수요자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관객 자원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의 관점에서 수요자란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하며 예술활동의 과정에 창작과 경험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의 생산자로서의 개인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요자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 대중의 참여를 통한 예술활동으로 예술가의 순수한 예술활동을 대체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중과

예술가들은 공론의 장에서 만나고 소통하고 논쟁하며 교류하면서 함께 문화예술을 창출하고 확산시키게 된다. 공급 측면의 지원체제보다 콘텐츠를 선택하는 수요자 기반의 확충이 공공서비스로서 문화예술시설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며 공공성과 수익성 논쟁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친밀감 형성과 일상적 향유가 필요한데 문화예술 교육은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된다.

한편 수요자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공공지원의 방식 측면에서도 예술단체 대상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보다 서비스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공평하고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재희, 2009). 공급자와 수요자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술단체로 대표되는 공급자·생산자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수요자·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의 개념과 원리, 이념측면에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계층,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에 대한 지원은 수요자의 경제적 차이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기에 적절한 여건을 갖춘 계층에게 유리하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소비자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가 사례로 제시된다. 수요자·소비자 대상의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한 것은 공급자·생산자인 예술단체 대상의 직접적인 지원 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참여의 편차로 인한 소비의 역진성, 수요기반 확대의 한계와 편중성 문제, 예술단체 선정의 정치성, 좋은 예술의 판단 기준의 문제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시설의 공간적 특성과 관련하여 물리적 공간의 요소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건축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축의 공공성 개념도 결국은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시설은 입지 조건 측면에서 수요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며, 내부 공간은 쾌적하고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장애 등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용에 제한성이 없어야 한다. 공간의 물리적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 요소를 줄이는 것도 문화예술시설이 수요자 중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 (5) 문화예술시설 전문인력 확보 수준과 문제점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전문인력의 부족 또는 부재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문화시설 중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공공시설의 인력확보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는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현황 중 직원 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경우로, 최근 시설 수는 양적으로는 팽창하였지만 인력의 확보는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콘텐츠 기획과 운영 측면에서 핵심인력이 되어야 할 학예인력이 국립박물관의 경우 1기관당 평균 1.25명, 국립미술관의 경우 1기관당 평균 2.57명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 II-4 운영주체별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직원 수(2016.1.1. 기준)

운영주체	박물관 현황			미술관 현황		
	박물관 수	직원 수 (평균)	학예인력 수(평균)	미술관 수	직원 수 (평균)	학예인력 수(평균)
국립박물관	40	46.75	8.65	1	248	44
공립박물관	339	8.64	1.25	54	13.19	2.57
사립박물관	351	8.82	1.72	150	6.67	1.53
대학박물관	97	7.18	2.10	14	7.00	1.43
총 계	826	10.38	1.90	219	8.27	1.78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p25 및 p27 자료 재편집

문화예술시설이 예술 전문기관으로서의 독자적 운영역량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경영합리화 또는 수익관리 관점에서 일종의 대관 방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는 예술 전문인력의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공공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성은 인력의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데, 내부 인력의 전문성에 기초한 자체 기획 콘텐츠 보다 외부 대관 중심의 사업이 수익중심으로 운영될 때 결과적으로 ‘공공사업의 명분을 앞세운 시장 행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신의, 2009). 예술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 시설에서는 자체 기획 또는 자체 제작 콘텐츠가 설 자리가 없어짐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예술 전문인력은 예술가 또는 기획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시설대관 관리자나 초청 프로그램의 관리자가 된다. 결과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약화시키고 수익관리가 경영효율성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공공성 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수한 콘텐츠, 특히 자체적인 기획과 제작을 통해 확보한 콘텐츠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관의 설립목표나 가치 실현도 어렵게 한다. 자체기획에 의한 선별적 초청 수준도 아닌 신청에 의한 시설대관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예술성의

확보나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시설 개관 초반에는 이용을 상승 효과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용을 저하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술성에 기초하여 수요자의 요구나 흥미, 참여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전문인력의 부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예술 전문인력의 부족은 일종의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문화예술시설의 경쟁력은 예술의 수월성 확보를 전제로 하며 예술성 자체의 경쟁력 기반 위에 운영 자율성을 위한 자원이나 경영 원리가 접목되어야 한다. 공공성의 가치가 약화되면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성만 강조되고 상품판매 중심의 공간이 되어 결과적으로 고유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술활동 자체의 품질도 저하될 것이다. 문화예술시설의 경영관점에서도 자체 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 시장논리도 구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공공성을 위해서는 기반 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설 자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전문인력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강내희, 2003).

#### (6) 문화예술시설 평가가 공공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

공립형 시설로 설립된 문화예술시설의 경우 대부분 공공기관 평가정책과 연동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경영평가의 대상이 된다. 경영관리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시설 또한 경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경영효율성이 재정 자립도에 초점을 두면서 수익시설로서의 성격이 강조되고, 이를 각 시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영 목표로 반영하고 기관장의 경영실적이나 평가대상으로 활용될 때 문제가 된다. 공익성과 수익성의 갈등 속에서 문화예술시설이 본래의 고유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감소되면 일반 민간시설 또는 수익사업체와 다를 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하여 이은미, 정영기(2009)는 비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민영화의 흐름 속에 있는 공공 문화예술시설들이 경영평가를 통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관 미션 수립이며, 이에 따라 중장기계획·연간계획이 수립되고 이의 실행에 대한 평가가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져 함을 지적한다(이은미, 정영기, 2009). 이러한 논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향하는 공공적인 가치를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면 평가에도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승준(2016)의 연구는 문화예술기관 평가는 문화예술의 무형적 특성으로 인해 기업성(경영

효율성) 중심의 공공기관 평가 체제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한승준, 2016). 공공기관은 시장실패를 시정하고 공공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공적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지표를 공공성과 기업성 지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2013년에서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공성 지표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기업성 지표가 더 중요시됨으로써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성 지표는 2013년에 4개 지표에서 2015년은 8개로, 공공성 지표는 2013년에 4개 지표에서 2015년에 5개 지표로 변화되었고 배점을 기준으로 보면 기업성 대 공공성 배점 비율이 2013년은 48.5:51.5였으나 2015년은 53.5:46.5로 역전이 되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기관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수, 김준호(2013)의 연구에서는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평가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표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된다(김창수, 김준호, 2013). 이 연구에 따른 평가지표는 기본지표와 보조지표(설문평가-시민·직원대상, 전문가평가) 영역 전체를 기준으로 세부평가지표는 총 51개이다. 기본지표는 문예회관의 운영 체제나 성과에 대한 측정을 전제로 계량적 지표로 개발되었고, 보조지표는 5점 척도를 활용한 설문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접근성을 포함한 개방성 영역의 평가지표를 예로 들어 보면, 기본지표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개방성,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 시민만족도 조사의 실시 및 반영, 사업접근성의 4가지 평가지표에 9개의 세부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 4)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정립을 위한 시사점 분석

첫째, 접근 관점 측면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권리로서의 공공성과 주체로서의 수요자 중심성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시혜 차원의 서비스가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로서 국가의 책무성을 요구해야 한다. 공공지원과 관련하여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나, 주체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하여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기관의 성격 정립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수익사업체의 이미지를 벗어내고 공공재와 가치재로서 공공시설의 본질적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청소년수련원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도 공공재원의 부족에 따라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대도시 지역은 공공적인 목적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비중이 줄고 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실제적인 공공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설립주체의 책무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운영 형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를 추진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을 설정해야 한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도 시설 유형의 특성만으로 적합한 운영 주체 모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나 지원 체제, 지역의 인구 및 환경 여건, 운영 단체의 확보 여부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

넷째, 내적 역량과 관련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둔다. 청소년수련시설 또한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인력확보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 지역보다 시·군 단위 지역은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나 시설만의 계획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전문인력의 확보는 단순히 청소년수련시설의 법적 기준 충족이 목표가 아니라 이후의 콘텐츠 품질 확보나 대외적인 연계 등 경영 관점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장기적 대안과 지역단위의 현실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공공성 유지전략과 관련하여 공공성 평가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공공의 가치를 유지하고 실제 기관 경영에 반영하고 실천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종합적인 경영평가와 별도로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별도의 공공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적인 공공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과정 자체도 공공성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공공성 평가지표는 각 시설의 운영과 지자체의 관리 입장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종합평가에 내부 요소로 반영시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평가를 통해 공공성 제고를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발굴해야 한다.



## 제 Ⅲ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분석

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쟁점  
분석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실제에  
대한 분석



# 제 III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분석

### 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안 및 쟁점 분석<sup>4)</sup>

이상의 문헌 고찰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통적인 현안 및 쟁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 각종 세제관련 점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조세정책은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6조(조세 감면 등) 규정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 업종으로 간주되어 영리목적 업종과 같은 조세를 납부하고 있어 운영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등 과세의 공평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사회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시설이며,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 지원과 더불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청소년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청소년 업계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명감으로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청소년 및 학부모, 일반인들에게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제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정책에서는 청소년정책이 우선순위에 진입하기 힘든데다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제도개선 및 예산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요구보다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법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수련활동비용(1인 50만원)

4) 이 절은 김인규(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집필하였음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 추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의 예산지원 부담을 덜어주고 수요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 참여율 증대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운영형태별 운영기준 및 예산규모, 예산편성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 시설의 운영은 경제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은 세입구조의 일반적 특징은 사업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형태는 국가직영, 공공직영 및 위탁, 민간직영으로서 청소년단체 및 시설관리공단, 지자체설립 재단법인 등으로 다양하다. 시설유형별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적정 운영인력을 도출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운영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개념화

### 1)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공성의 개념에 관한 논의<sup>5)</sup>

#### (1) 조직 소유의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공공성은 일반적인 개념만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성이 ‘공공가치’를 추구한다는 전제하에서 공적부문(public share)과 사적부문(private)으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하고 공공영역의 조직과 민간영역의 조직들 사이에 공공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조직은 시민공동체에 의해서 공동으로 소유되며,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규제 등 정치적 힘에 의해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반면에 민간조직은 특정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시장경제의 힘 또는 소비자의 요구와 경쟁의 압력을 받는다(양성욱, 2015).

핵심론적 관점에서는 조직의 소유권과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며

5) 이 소절은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가 집필하였음

공공조직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공공성이라 보고, 반면에 민간조직은 공공성을 갖지 않는다고 본다. 이 관점은 조직의 소유 관계로만 공공성을 보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청소년수련시설에 적용한다면, 공공 청소년수련시설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로 구분하여 공공성을 논의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에 의해서 소유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자체로서 공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민간이 소유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조직만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이전과는 달리 문화나 사회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나 민간조직들이 공공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민간조직이 갖는 특성과 대비되는 공공조직의 특성을 기준으로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되면서 다차원적 접근(dimensional approach)이 핵심론적 접근의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이 접근 방식에 따르면 정치적 특성으로서 조직의 소유권과 경제적 특성으로 활용하는 재원 조달을 기준으로 조직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조직의 소유를 정부 등 공공이 소유하는지와 민간이 소유하는지에 따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 활용하는 재원 조달은 정부 재원을 활용하는지와 시장을 통해 조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도 국가 및 지자체 등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공-공공 유형, 정부가 소유하고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에는 공공-민간 유형, 민간이 설립하고 정부 예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민간-정부 유형, 민간이 설립하고 시장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민간-민간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유와 재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민간 위탁여부와는 관계없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수련시설, 정부가 설치하여 위탁을 준 시설, 민간이 설치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공공성을 갖게 된다. 정부가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한 시설의 경우에도 재정지원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공공성을 갖게 마련이다. 반면에 민간이 소유하고 정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수련시설은 그 자체로서는 공공성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2) 정부통제의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관계없이 모두 정치적 권한의 영향력 아래 있으므로, 모든 조직은 공공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조직이 얼마나 의사소통을 하는지, 조직의 미션과 목표가 정부의 것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조직의 생존에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등에서 정부의 통제가 많을수록 공공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조직의 설립을 허가하고 운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정부통제가 매우 높은 조직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지침 시달, 청소년수련시설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청소년활동신고제 운영 등 매우 많은 정부의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소유 관계 및 위탁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정부 통제가 매우 높은 조직이다. 따라서 정부통제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공공영역에서 사적 이익을 배제하고 공공가치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부통제를 공공성의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공공서비스에 참여가 확산된 상황에서 공공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통제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공공가치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부통제 뿐만 아니라 정부 이외의 환경과의 관계, 조직 내부의 문화 등을 통해서도 공공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3) 공공가치의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공공성에 관련한 규범적 시각은 공공영역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하고 공공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이다(양성욱, 2015). 이 관점은 공공영역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써 공공가치의 실현이나 공공 이익의 추구가 중요하고 이것이 공공성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관점은 공공조직은 공공가치와 공공 이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공공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영리, 영리, 시민사회 등 민간영역이 활동하는 것도 공공성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 조직이 공공성을 지닌다는 것은 공공가치나 공공 이익에 동의하는 정도, 공공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규제 준수 등이 높을수록 공공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게 된다.

한편, 공공가치는 무엇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공공가치는 크게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와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가치로 구분해볼 수 있다(양성욱, 2015).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는 공공영역의 활동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공공가치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 청소년 비행률 감소 등과 같이 공공영역의 활동결과로서 얻어지는 공공가치성과(public value outcome)들이며, 공공영역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청소년수련시설에 적용하면, 공공가치의 실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공공가치의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추구해야 할 공공가치를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와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가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가. 사회적 결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가치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산출이 갖는 사회적인 의미이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을 통하여 제시된 가정, 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써 청소년육성과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을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장치를 통하여 규정하였다. 이것이 청소년수련시설이 갖는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으로 청소년의 역량증진, 민주시민성 함양, 비행률 감소, 행복감 증진 등과 같은 의미 있는 산출들이 나타날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를 지니게 된다. 실제로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2013)이 청소년체험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145편의 문헌을 메타 분석한 결과 청소년활동이 청소년들의 인지적 발달, 정의적 발달, 신체적 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학교교육 활동과 연계협력이 부각되는 것도 청소년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를 논의할 때에는 산출되는 공공가치성과 뿐만 아니라, 이를 창출하고 공공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가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과 조직의 운영역량 등이 포함된다.

우선, 조직의 형태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간에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된 시민대표나 시민사회로부터의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공공가치를 산출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정이나 인력 등을 확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가 가지는 운영역량 또한 공공가치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청소년수련시설에 종사하는 인력의 공공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공공성을 구현해나갈 전문성과 역량, 책무성, 운영인력 확보 등과 같은 요인들도 공공가치성과를 산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 나. 사회적 규범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가치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가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이다. 여기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성, 시설운영의 투명성, 시설이용의 공평성, 청소년의 자율성, 시설운영의 개방성, 시설이용의 형평성,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신뢰성, 조직운영에 대한 책무성, 조직의 효율성 등과 같은 수많은 가치들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가치는 실제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가고 있다.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으로 시민사회 및 청소년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과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나 외부감사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 청소년과 시민 및 정책결정자 등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시설 종사자들이 청소년의 권리와 행복에 대한 책무성을 갖는 것 등도 사회 규범적인 공공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실제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실현해 가는데 있어서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두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핵심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헌장, 유엔아동권리 협약 등을 통해서 그 핵심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삶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 보장,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청소년의 자질향상, 인격체로서의 존중,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과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들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가치를 논의하는데 의미 있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이다.

## 2)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의 개념화

본 연구의 중요한 개념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지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쟁점에 대해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장시간의 토론을 통해 공공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워크숍에는 청소년학계, 청소년수련시설 기관장,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관련 연구자 등 총 12명이 참여하였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이란 무엇을 뜻하고 이러한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개념화를 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각 전문가의 의견들을 몇 가지로 축약하여 정리해 보고, 최종적인 개념에 대해 조작적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첫째, 공공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건으로서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의 개념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청소년들이 그 지역의 정주민 의식을 갖도록 돕는 곳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곳이자 공동체적인 삶을 체득하는 곳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촉진하여 꿈과 진로를 지지받는 곳이란 측면에서의 공공적 시설이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역점을 둔 준비된 시설이자 헌신적인 지도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시설로서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찾고 이행하는 곳이다.

넷째,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발달과업 수행, 문화 향수, 인권 보장의 목표를 갖추고, 실천 과정이 숙의민주주의에 의하여 합의된 공공의 가치를 따르며,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국가나 지방의 정부 재정을 통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는 것이 공공성의 주요 요소이다.

다섯째, 운영 주체의 특성보다는 그 이상의 보편적 가치를 내재하고 공공시설로 지역 청소년과 함께 나누려는 자산의식, 그리고 시설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연대와 협업 등을 공공적 가치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시설의 운영과 관리, 유지에 따른 비용 지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비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민주적 통제가능성을 내포한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활동을 통한 균형적인 발달을 주요 목적을 두어야 하며,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운영방식에서도 청소년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여덟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은 일반적인 이익의 영역에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하며 특히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적 과제를 발굴하여 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정리된 주요 논의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포함되어야 할 가치, 요인, 내용,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조작적으로 개념화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이란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방식을 통해 그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다.”

###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에서 개념화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주체의 마인드와 철학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목적 설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시설의 역할과 기능 등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운영비 측면에서 적정하고 안정적인 운영비 지원이 없이 운영기관에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면 영리추구라는 현실적 필요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셋째, 운영의 효율성으로 인해 특정 청소년 집단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경우 청소년들의 대상 무제한성과 접근성에서 제한이 될 수 있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목적이 정치적 성과 혹은 이해관계적 의사결정에 머문다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등 청소년들에게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지역자원을 조정·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시설운영과 서비스 제공 등의 전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한 대처와 책임에 대한 매뉴얼과 구체적인 지침을 갖추었는가는 공공시설로서 기본적인 책무이다.

일곱째,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평가의 지표들이 수련시설의 공익적 혹은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 그에 부합하는 평가결과의 활용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여덟째, 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사회 여타의 기관·단체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이를 통한 연대와 협력의 수준은 지역의 공공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에서 정리해 본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본 연구에서 향후 현장 의견조사를 비롯하여 이를 토대로 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준거로 삼게 될 것이다.

#### 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성 지표 설정

이상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가치와 규범에 관한 논의,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개념화,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기초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관련 동향 고찰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 종합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평가지표는 수련시설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중요한 참조가 되었다.

앞서 개념화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보다 현실화 그리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공성 지표를 구조화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의 평가지표와 김형주, 임지연, 한도희, 김영애, 김혁진, 김인규(2011), 김형주, 황진구, 김정주, 권순달(2012)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서의 평가체계와 지표, 그리고 김창수, 김준호(2013)의 문화공공성 연구의 지표 등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지표를 상세화·구조화 하였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 대하여 5가지로 대영역을 구분하였다. 첫째, ‘정당성’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설립되었는가, 둘째, ‘개방성’으로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편리한가, 셋째, ‘형평성’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운영되는가, 넷째, ‘다양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다섯째, ‘지속가능성’

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 등이다.

정당성 영역의 공공성 지표로는 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②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③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④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으로 구성하였다. 개방성 영역의 공공성 지표로는 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④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으로 구성하였다. 형평성 영역의 공공성 지표로는 ①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②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③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④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⑤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으로 구성하였다. 다양성 영역의 공공성 지표로는 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②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③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④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⑤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으로 구성하였다. 지속가능성 영역의 공공성 지표로는 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③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④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⑤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의 적절성과 실제적인 현실상황, 그리고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등에 관한 조사결과와 AHP분석 등은 4장과 5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실체에 대한 분석<sup>6)</sup>

#### 1)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문제 제기

공공성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직을 의미하는 것에서 정부 통제를 받는 정도로, 그리고 공식화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가치, 성과를 포함하는 공공 정책 내지 제도를 포함하는 관점으로 발전해 왔다(양성욱, 2015).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조직 소유의 관점, 정부통제의 관점, 공공가치의 관점 등에서 따라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자체로서 공공성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진숙(2012)은 공공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행위주체, 행위목적, 공적 가치와 속성, 자원으로서의 공공성 등 네 가지 측면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는데, “첫째, 행위주체로의 공공성은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공공 정책의 수행 등이 공공 부문인 정부 또는 국가를 통해 확보되는 것, 둘째, 행위목적으로서의 공공성은 공익 실현, 공익의 달성 혹은 공공 성과로 표현되며, 셋째, 공적 가치와 속성으로서의 민주성, 형평성 등과 같은 절차적인 성격과 추구하는 가치가 공공적인 속성들로 표현되며, 넷째, 자원으로서의 공공성은 재화나 서비스 생산과 정책수행과정에서 행위 주체들이 활용하는 자원이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이진숙, 2012).

이와 같이 관점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행위주체로서 정부와의 관련성, 행위목적 으로서 공공성과, 행위절차에서의 공적 가치, 공적목적 달성을 위한 자원 활용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실제적인 배경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충실하게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에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대부분은 특히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청소년수련시설도 국가로부터 시설설치 허가와 시설 등록을 마친 후에 운영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운영 과정에서는 정부의 운영지침 하달, 평가제도 운영, 인증제 및 신고제 운영 등 다양한 정부 통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가치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부지원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6) 이 절은 김정주(모든학교체험학습연구소)가 집필하였음

더 나아가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중으로부터 정당성과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관점도 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정당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시민대표 등 공중으로부터 충분하게 인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된 시민대표들의 재정투자 우선순위에서 항상 뒤처지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주 이용자인 청소년이 선거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선출된 시민대표들이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주장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결과로서 공공가치성과라는 관점에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과 사회적 가치를 시민사회나 공중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공성에 사회적 규범의 관점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의견존중, 청소년참여, 청소년 자율활동,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 등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수련시설 평가나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원칙으로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이러한 원칙들을 사회적 규범으로서 공공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과정 및 절차상에서 추구해나가야 할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규명하는 것도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데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 2) 재정지원에 따른 공공성의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의 문제로 귀결되고,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은 다음의 <표 III-1>과 <표 III-2>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표 III-1>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과 설치 및 운영형태별로 연간수입과 연간수입 중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을 통하여 조달한 자체수입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자체수입은 청소년수련시설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비, 시설이용료, 시설 대관료, 국가 및 지자체를 제외한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조달한 사업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표 III-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형태별 연간 수입

(단위: 천원)

구분	시설종류	공공 직영		공공 위탁		민간		계	
		시설수	금액	시설수	금액	시설수	금액	시설수	금액
총수입	청소년수련관	32	779,609.0	91	1,571,277.6			123	1,365,315.0
	청소년문화의집	43	78,186.9	104	303,295.2	2	186,838.5	149	236,767.9
	청소년수련원	4	1,743,845.3	12	894,418.8	15	1,160,395.6	31	1,132,720.7
자체수입	청소년수련관	32	180,675.6	91	706,830.9			123	569,945.0
	청소년문화의집	43	1,541.1	104	37,472.3	2	84,838.5	149	27,738.7
	청소년수련원	4	460,293.8	12	642,057.1	15	1,066,301.5	31	823,883.3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5)7)

<표 III-2>에 나타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수입률은 전체수입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수입의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수입률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에서 되지 않는 비율이다.

표 III-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형태별 자체수입 비율

시설종류	공공 직영		공공 위탁		민간		계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청소년수련관	32	14.2	91	37.4	0	0	123	31.4
청소년문화의집	43	1.0	104	8.7	2	41.5	149	6.9
청소년수련원	4	41.9	12	69.1	15	90.3	31	75.9

※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5)8)

<표 III-1>과 <표 III-2>를 통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평균 연간 총수입이 1,365,315천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569,945천원이다. 청소년수련관 전체의 자체수입 비율은 31.4%이다. 설치 및 운영형태별로는 청소년수련관을 지자체가 설립하여 직영하는 경우에는 자체수입이 14.22%인데 비하여, 위탁 운영하는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37.49%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공위탁시설인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자체의

7)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5: 27)의 <표2-16>의 내용을 재편집하였음

8)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5: 27)의 <표2-16>의 내용을 토대로 계산하여 작성하였음

재정보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정책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청소년수련관의 자체수입은 주로 성인과 유아 대상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영장 운영,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 시설 대관 및 시설이용료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체수입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참가비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연간총수입이 평균 236,767천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평균 27,738천원이다. <표 III-2>에 나타난 청소년문화의집의 자체수입률은 평균 6.9%이다. 설치 및 운영형태별로는 지자체 직영하는 공공직영시설의 자체수입률은 1.0%인데 비하여 위탁 운영하는 공공위탁의 경우에는 자체수입률이 8.7%이고,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41.5%에 달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의 자체수입률은 평균 6.9%로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 청소년문화의집의 시설공간의 규모가 적어,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운영, 체육시설 운영, 대관 등과 같은 자체수입을 발생시킬 여지가 적다. 따라서 청소년수련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자체수입률을 보인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는 연간 총수입이 평균 1,132,720천원이며, 그중 자체수입은 823,883천원이다. <표 III-2>에 나타난 전체 자체수입률은 75.9%에 달한다. 설치 및 운영형태별로 공공직영의 경우에는 자체수입률이 41.9%인데 비하여, 공공 위탁의 경우에는 자체수입률이 69.1%,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자체수입률이 90.3%이다. 청소년수련원은 주로 자연권에 위치하면서 단체 숙박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여서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자체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수련원의 자체수입률에서 특이한 점은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공공직영 시설의 경우에는 자체수입률이 41.9%인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 위탁이나 민간시설은 자체수입률이 매우 높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지만, 공공위탁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전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수련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부분의 청소년수련원들은 학교단체수련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교육 정책에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지침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몇 차례 발생한 이후로 학교수련활동이 위축되어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자체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조직, 인력, 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자체수입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수익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청소년수련시설의 본질적인 기능과 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 수입 창출을 위해 청소년이 아닌 성인과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활용에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온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가치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이 모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의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특성을 살려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청소년전용공간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체성과 그에 맞게 가져야할 공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둘째, 수익사업 중심의 운영은 시설이용의 접근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체수입의 비율이 높은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수익형 사업에 공간활용 비율을 높임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공간 이용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동아리 가입하거나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시설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진다. 즉, 청소년수련 시설의 이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개방성이 낮아짐으로써,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의 접근성을 제약하게 된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재정지원으로 수익사업의 의존도를 낮추면,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학교연계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수련시설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형 사업 운영은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에서 비용과 기회균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수익형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청소년이 참가하는 청소년활동이 활성화 되어 자체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존재가치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참가비의 문제가 수련시설의 이용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계층과 특성에 따라 참가비가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약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함으로써 청소년의 시설이용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3) 공공가치 측면에서의 공공성의 문제점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가치 측면에서 공공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보육 및 유아교육, 평생교육, 문화예술,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에서 공공성의 구성요소를 구명하고 평가하는 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의 양미선, 정주영, 임지희(2013)의 연구에서는 보육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모든 영유아가 동일한 출발선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이 보장되는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양미선, 정주영, 임지희, 2013).

평생교육분야에서 이경아, 허준, 김창엽, 노경란, 박진영(2007)의 연구에서는 공공성은 공익을 추구하지만 공익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평생교육에서 공공성의 개념은 끊임없는 담론을 통해서 확보 가능한 개념으로 동태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이경아, 허준, 김창엽, 노경란, 박진영, 2007).

그리고 문화공공성의 핵심가치로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으로 구성하고, 핵심가치에 따라 문화공공성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인천지역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을 평가하였다(김창수, 2013).

사회복지분야에서 김진석, 민소영, 유동철, 홍영준(2015)의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형식적 공공성과 내용적 공공성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형식적 공공성은 정부나 공적기관이 재정책임과 운영주체로서 참여하거나 개입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내용적 공공성은 다수의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필요한 투명성, 민주성/공개성, 책임성/효율성/효과성, 공익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제시하였다(김진석, 민소영, 유동철, 홍영준, 2015). 특히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관리감독과 같은 통제기제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들 연구에서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공통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관계에서 정부역할의 개입과 동시에 정부역할의 제한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에 공공성에 대한 관점이 각 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정부의 재정투자에 의한 평등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이, 평생교육분야에서는 정부실패 및 시장한계에 따른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가, 문화예술에서는 사회구성원이 문화 창조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 주체의 책무성 강화가 공공성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각 부문별로

공공가치의 측면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나 공공성의 조건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보편성, 공개성, 투명성, 참여성을, 평생교육분야에서는 평등, 차이, 자율을, 문화예술분야에서는 개방성, 평등성, 다양성, 지속성을,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투명성, 민주성/공개성, 책임성/효율성/효과성, 공익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 분야의 공공성의 논의가 청소년활동분야에서의 매우 복합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리통제의 문제,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문제, 청소년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주도성 및 주체성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직의 책무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심도 깊은 담론 형성을 위한 사회적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공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어떠한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공공의 이익의 측면에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운영이 본질적으로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그것이 사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공익적 가치가 명확하게 입증되고 그것이 공중과 시민의 대표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에서의 청소년의 기회균등, 이용절차의 공정성,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의 자율성과 주도성 등 여러 가지 관점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핵심가치가 명료하게 정의되고, 그것이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 공공성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주체로서 청소년지도자들의 책무성과 전문성, 운영조직의 역량과 투명성, 개방성 등과 같은 다양한 가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지도자가 가져야할 공공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에 대한 인식, 청소년문제에 대한 책무성, 청소년지도의 전문성 등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조직들의 역량과 전문성, 공공성에 대한 책무성과 투명성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리감독의 문제점이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시설운영에 대한 정부통제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해 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수익사업 의존도가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은 많았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논의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공공의 재정투자가 매우 취약한 현실에 대해서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제 IV 장

.....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인식조사 : 생활권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1. 조사개요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인식 조사결과



## 제 IV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인식조사 : 생활권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 1. 조사개요

#### 1) 모집단

이 연구의 조사 모집단은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관장, 간부, 직원)와 청소년학계 및 청소년 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 설계

- 표본수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400명, 청소년전문가 93명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추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청소년학계 및 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전문가 대상 편의추출
- 조사기간 : 2017년 7월 19일 ~ 8월 11일
- 조사내용
  -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인식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와 실제에 대한 인식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운영 관련 기타 인식

### 3)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응답자 특성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IV-1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
시설종사자 전체		400	100.0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0.3
	경상권	86	21.5
	충청권	42	10.5
	전라권	41	10.3
	강원 제주권	70	17.5
수련시설입지특징별	대도시	129	32.3
	중소도시	169	42.3
	농산어촌	102	25.5
수련시설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53.3
	청소년문화의집	187	46.8
수련시설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9.8
	법인	109	27.3
	민간위탁	116	29.0
	지자체산하공단	51	12.8
	기타	5	1.3
직위별	관장	35	8.8
	간부	119	29.8
	일반직원	246	61.5
경력별	5년 미만	134	33.5
	5~10년 미만	118	29.5
	10년 이상	148	37.0
청소년지도사자격증보유별	1급	81	20.3
	2급	270	67.5
	3급	19	4.8
	자격증없음	30	7.5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00.0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35.5
	비수도권	60	64.5
소속 직장별	대학	50	53.8
	공공기관/법인	43	46.2
직무별	교수직	53	57.0
	연구/사업직	40	43.0
경력별	5년 미만	25	26.9
	5~10년 미만	7	7.5
	10년 이상	61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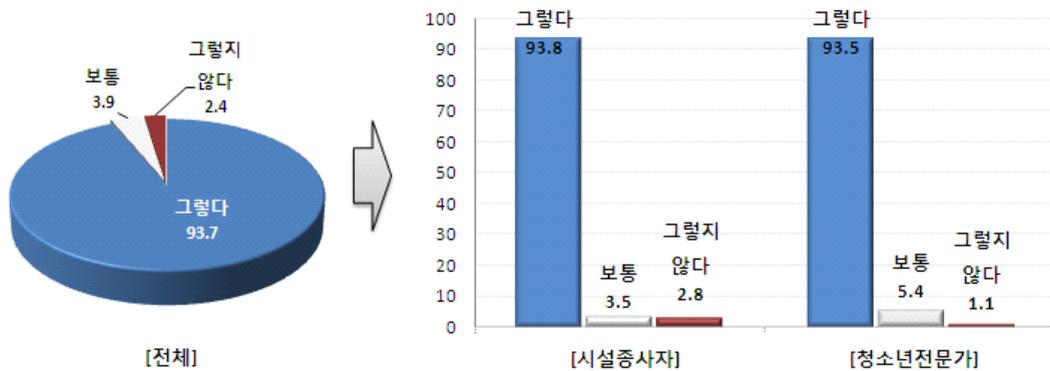
##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인식 조사결과

### 1)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 (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인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93.7%(매우: 72.4% + 조금: 21.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2.4%(전혀: 0.4% + 별로: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3.8%) 및 청소년전문가(93.5%) 응답은 93%대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

표 IV-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전체	493	357(72.4)	105(21.3)	19(3.9)	10(2.0)	2(0.4)	-
시설종사자	400	297(74.3)	78(19.5)	14(3.5)	9(2.3)	2(0.5)	0.945 (0.331)
청소년전문가	93	60(64.5)	27(29.0)	5(5.4)	1(1.1)	0(0.0)	

\*p<.05, \*\*p<.01, \*\*\*p<.001

공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100.0%)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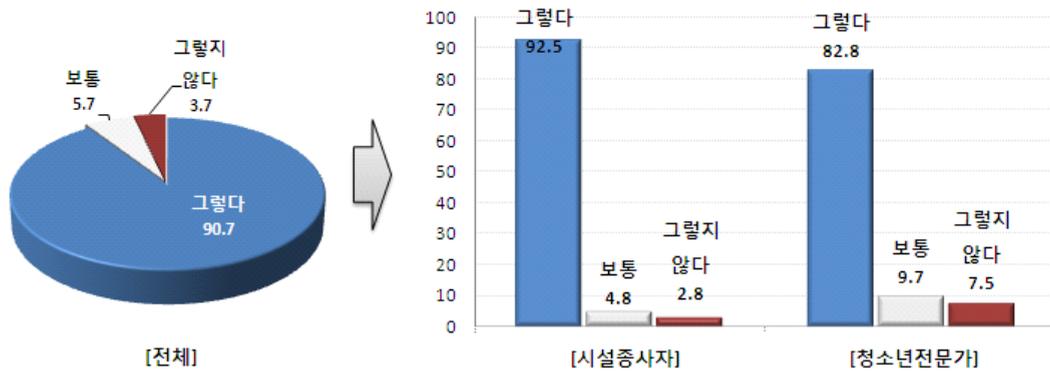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97(74.3)	78(19.5)	14(3.5)	9(2.3)	2(0.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22(75.8)	31(19.3)	2(1.2)	5(3.1)	1(0.6)	0.398 (0.810)
	경상권	86	62(72.1)	20(23.3)	1(1.2)	2(2.3)	1(1.2)	
	충청권	42	31(73.8)	8(19.0)	3(7.1)	0(0.0)	0(0.0)	
	전라권	41	32(78.0)	7(17.1)	2(4.9)	0(0.0)	0(0.0)	
	강원 제주권	70	50(71.4)	12(17.1)	6(8.6)	2(2.9)	0(0.0)	
수련시설유 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59(74.6)	40(18.8)	5(2.3)	7(3.3)	2(0.9)	0.311 (0.577)
	청소년문화의집	187	138(73.8)	38(20.3)	9(4.8)	2(1.1)	0(0.0)	
수련시설운 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86(72.3)	23(19.3)	7(5.9)	3(2.5)	0(0.0)	0.453 (0.770)
	법인	109	80(73.4)	25(22.9)	2(1.8)	2(1.8)	0(0.0)	
	민간위탁	116	86(74.1)	23(19.8)	2(1.7)	4(3.4)	1(0.9)	
	지자체산하공단	51	42(82.4)	6(11.8)	2(3.9)	0(0.0)	1(2.0)	
	기타	5	3(60.0)	1(2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33(94.3)	2(5.7)	0(0.0)	0(0.0)	0(0.0)	4.558* (0.011)
	간부	119	93(78.2)	19(16.0)	4(3.4)	3(2.5)	0(0.0)	
	일반직원	246	171(69.5)	57(23.2)	10(4.1)	6(2.4)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93(69.4)	33(24.6)	3(2.2)	4(3.0)	1(0.7)	2.516 (0.082)
	5~10년 미만	118	80(67.8)	30(25.4)	6(5.1)	1(0.8)	1(0.8)	
	10년 이상	148	124(83.8)	15(10.1)	5(3.4)	4(2.7)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0(64.5)	27(29.0)	5(5.4)	1(1.1)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0(60.6)	10(30.3)	2(6.1)	1(3.0)	0(0.0)	1.614 (0.205)
	비수도권	60	40(66.7)	17(28.3)	3(5.0)	0(0.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5(70.0)	13(26.0)	2(4.0)	0(0.0)	0(0.0)	2.107 (0.150)
	공공기관/법인	43	25(58.1)	14(32.6)	3(7.0)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7(69.8)	14(26.4)	2(3.8)	0(0.0)	0(0.0)	2.430 (0.123)
	연구/사업직	40	23(57.5)	13(32.5)	3(7.5)	1(2.5)	0(0.0)	

\*p<.05, \*\*p<.01, \*\*\*p<.001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90.7%(매우: 61.7% + 조금: 29.0%)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3.7%(전혀: 0.6% + 별로: 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가 92.5%로 청소년전문가(82.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표 IV-4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전체	493	304(61.7)	143(29.0)	28(5.7)	15(3.0)	3(0.6)	-
시설종사자	400	246(61.5)	124(31.0)	19(4.8)	9(2.3)	2(0.5)	2.458 (0.118)
청소년전문가	93	58(62.4)	19(20.4)	9(9.7)	6(6.5)	1(1.1)	

\*p<.05, \*\*p<.01, \*\*\*p<.001

공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97.1%), 10년 이상(95.3%)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대학(94.0%), 교수직(90.6%)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 및 경력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소속직장 및 직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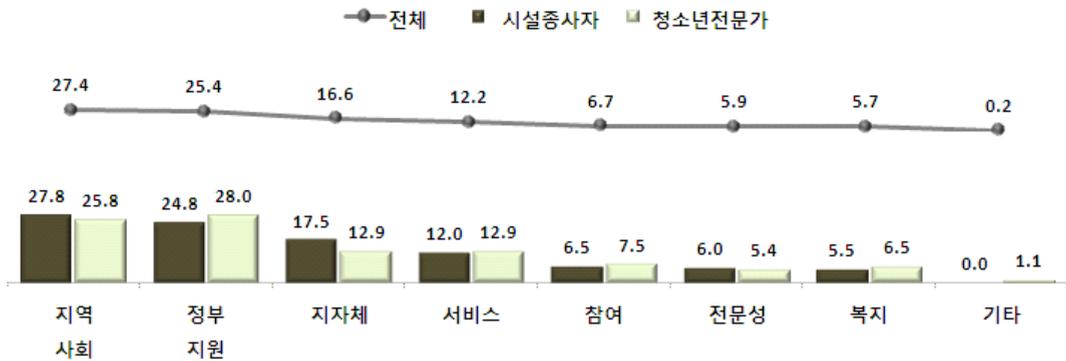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46(61.5)	124(31.0)	19(4.8)	9(2.3)	2(0.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7(60.2)	54(33.5)	6(3.7)	3(1.9)	1(0.6)	1.505 (0.200)
	경상권	86	50(58.1)	31(36.0)	3(3.5)	1(1.2)	1(1.2)	
	충청권	42	31(73.8)	10(23.8)	1(2.4)	0(0.0)	0(0.0)	
	전라권	41	28(68.3)	10(24.4)	1(2.4)	2(4.9)	0(0.0)	
	강원 제주권	70	40(57.1)	19(27.1)	8(11.4)	3(4.3)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34(62.9)	64(30.0)	7(3.3)	6(2.8)	2(0.9)	0.015 (0.902)
	청소년문화의집	187	112(59.9)	60(32.1)	12(6.4)	3(1.6)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0(58.8)	39(32.8)	5(4.2)	5(4.2)	0(0.0)	0.506 (0.731)
	법인	109	64(58.7)	36(33.0)	6(5.5)	2(1.8)	1(0.9)	
	민간위탁	116	74(63.8)	36(31.0)	4(3.4)	2(1.7)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35(68.6)	12(23.5)	3(5.9)	0(0.0)	1(2.0)	
	기타	5	3(60.0)	1(2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7(77.1)	7(20.0)	1(2.9)	0(0.0)	0(0.0)	6.904** (0.001)
	간부	119	85(71.4)	29(24.4)	3(2.5)	2(1.7)	0(0.0)	
	일반직원	246	134(54.5)	88(35.8)	15(6.1)	7(2.8)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78(58.2)	45(33.6)	9(6.7)	1(0.7)	1(0.7)	5.738** (0.003)
	5~10년 미만	118	62(52.5)	44(37.3)	5(4.2)	6(5.1)	1(0.8)	
	10년 이상	148	106(71.6)	35(23.6)	5(3.4)	2(1.4)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8(62.4)	19(20.4)	9(9.7)	6(6.5)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3(69.7)	8(24.2)	2(6.1)	0(0.0)	0(0.0)	1.383 (0.240)
	비수도권	60	35(58.3)	11(18.3)	7(11.7)	6(10.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8(76.0)	9(18.0)	2(4.0)	1(2.0)	0(0.0)	12.653** (0.001)
	공공기관/법인	43	20(46.5)	10(23.3)	7(16.3)	5(11.6)	1(2.3)	
직무별	교수직	53	38(71.7)	10(18.9)	4(7.5)	1(1.9)	0(0.0)	7.895** (0.006)
	연구사업직	40	20(50.0)	9(22.5)	5(12.5)	5(12.5)	1(2.5)	

\*p<.05, \*\*p<.01, \*\*\*p<.001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가 27.4%, ‘정부지원’ 25.4%, ‘지자체’ 16.6%, ‘서비스’ 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는 ‘지역사회’(27.8%), ‘정부지원’(24.8%) 등의 순인 반면, 청소년전문가는 ‘정부지원’(28.0%), ‘지역사회’(2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

표 IV-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정부 지원	지자체	지역 사회	참여	전문성	서비스	복지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125(25.4)	82(16.6)	135(27.4)	33(6.7)	29(5.9)	60(12.2)	28(5.7)	1(0.2)	-
시설종사자	400	99(24.8)	70(17.5)	111(27.8)	26(6.5)	24(6.0)	48(12.0)	22(5.5)	0(0.0)	6.009 (0.539)
청소년전문가	93	26(28.0)	12(12.9)	24(25.8)	7(7.5)	5(5.4)	12(12.9)	6(6.5)	1(1.1)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지역사회’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민간위탁(36.2%)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응답은 청소년전문가의 수도권(36.4%)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 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키워드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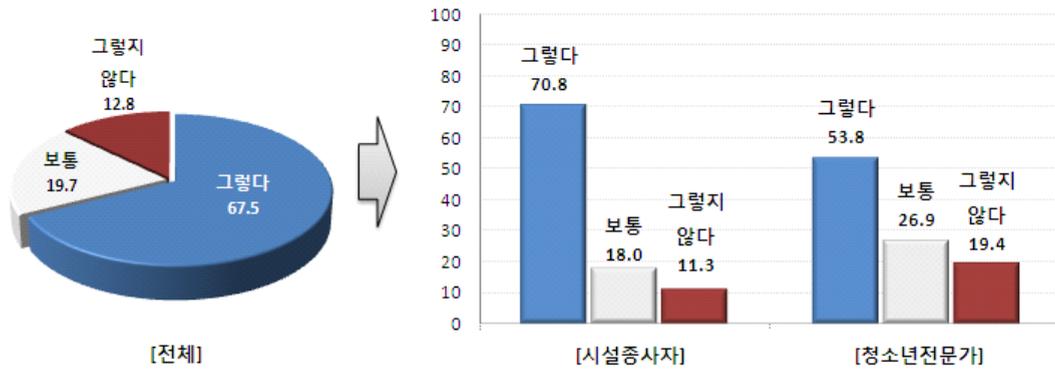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명]	정부 지원	지자체	지역 사회	참여	전문성	서비스	복지	기타	$\chi^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99(24.8)	70(17.5)	111(27.8)	26(6.5)	24(6.0)	48(12.0)	22(5.5)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9(18.0)	28(17.4)	55(34.2)	10(6.2)	13(8.1)	15(9.3)	11(6.8)	0(0.0)	27.884 (0.265)
	경상권	86	27(31.4)	13(15.1)	23(26.7)	6(7.0)	3(3.5)	10(11.6)	4(4.7)	0(0.0)	
	충청권	42	10(23.8)	11(26.2)	13(31.0)	1(2.4)	2(4.8)	4(9.5)	1(2.4)	0(0.0)	
	전라권	41	15(36.6)	5(12.2)	7(17.1)	5(12.2)	2(4.9)	5(12.2)	2(4.9)	0(0.0)	
	강원 제주권	70	18(25.7)	13(18.6)	13(18.6)	4(5.7)	4(5.7)	14(20.0)	4(5.7)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49(23.0)	41(19.2)	65(30.5)	12(5.6)	13(6.1)	25(11.7)	8(3.8)	0(0.0)	5.694 (0.458)
	청소년문화의집	187	50(26.7)	29(15.5)	46(24.6)	14(7.5)	11(5.9)	23(12.3)	14(7.5)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8(23.5)	30(25.2)	24(20.2)	6(5.0)	7(5.9)	15(12.6)	9(7.6)	0(0.0)	39.014* (0.027)
	법인	109	26(23.9)	19(17.4)	29(26.6)	9(8.3)	5(4.6)	16(14.7)	5(4.6)	0(0.0)	
	민간위탁	116	34(29.3)	12(10.3)	42(36.2)	5(4.3)	9(7.8)	9(7.8)	5(4.3)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11(21.6)	7(13.7)	15(29.4)	6(11.8)	1(2.0)	8(15.7)	3(5.9)	0(0.0)	
	기타	5	0(0.0)	2(40.0)	1(20.0)	0(0.0)	2(4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8(22.9)	5(14.3)	8(22.9)	0(0.0)	4(11.4)	5(14.3)	5(14.3)	0(0.0)	15.135 (0.234)
	간부	119	34(28.6)	17(14.3)	37(31.1)	6(5.0)	6(5.0)	15(12.6)	4(3.4)	0(0.0)	
	일반직원	246	57(23.2)	48(19.5)	66(26.8)	20(8.1)	14(5.7)	28(11.4)	13(5.3)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28(20.9)	31(23.1)	37(27.6)	12(9.0)	7(5.2)	12(9.0)	7(5.2)	0(0.0)	17.884 (0.119)
	5~10년 미만	118	31(26.3)	18(15.3)	41(34.7)	6(5.1)	4(3.4)	14(11.9)	4(3.4)	0(0.0)	
	10년 이상	148	40(27.0)	21(14.2)	33(22.3)	8(5.4)	13(8.8)	22(14.9)	11(7.4)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6(28.0)	12(12.9)	24(25.8)	7(7.5)	5(5.4)	12(12.9)	6(6.5)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2(36.4)	3(9.1)	4(12.1)	2(6.1)	2(6.1)	5(15.2)	4(12.1)	1(3.0)	22.713** (0.002)
	비수도권	60	14(23.3)	9(15.0)	20(33.3)	5(8.3)	3(5.0)	7(11.7)	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14(28.0)	7(14.0)	11(22.0)	5(10.0)	4(8.0)	6(12.0)	2(4.0)	1(2.0)	4.907 (0.671)
	공공기관/법인	43	12(27.9)	5(11.6)	13(30.2)	2(4.7)	1(2.3)	6(14.0)	4(9.3)	0(0.0)	
직무별	교수직	53	15(28.3)	7(13.2)	12(22.6)	5(9.4)	5(9.4)	6(11.3)	2(3.8)	1(1.9)	7.225 (0.406)
	연구/사업직	40	11(27.5)	5(12.5)	12(30.0)	2(5.0)	0(0.0)	6(15.0)	4(10.0)	0(0.0)	

\*p<.05, \*\*p<.01, \*\*\*p<.001

(4)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시설로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7.5%(매우: 31.2% + 조금: 36.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2.8%(전혀: 2.2% + 별로: 10.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가 70.8%로 청소년전문가(5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표 IV-8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전체	493	154(31.2)	179(36.3)	97(19.7)	52(10.5)	11(2.2)	-
시설종사자	400	143(35.8)	140(35.0)	72(18.0)	36(9.0)	9(2.3)	16.821*** (0.000)
청소년전문가	93	11(11.8)	39(41.9)	25(26.9)	16(17.2)	2(2.2)	

\*p<.05, \*\*p<.01, \*\*\*p<.001

공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80.1%) 지역, 지자체산하 공단(92.2%)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58.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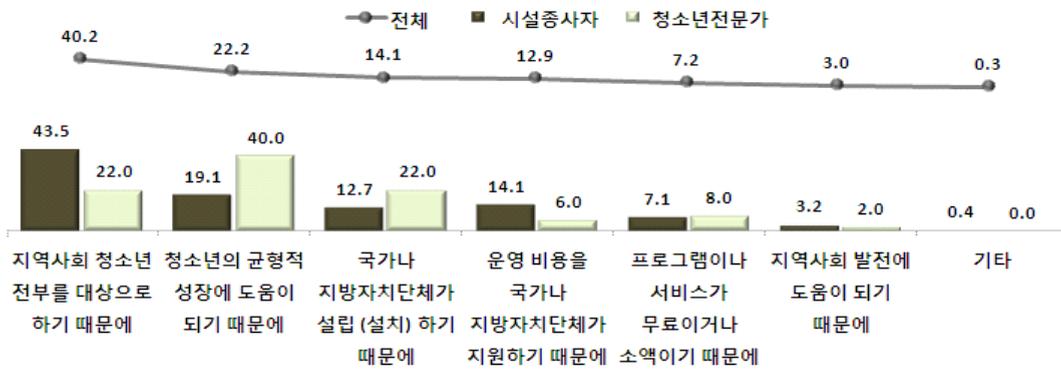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43(35.8)	140(35.0)	72(18.0)	36(9.0)	9(2.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9(36.6)	70(43.5)	19(11.8)	10(6.2)	3(1.9)	3.438** (0.009)
	경상권	86	36(41.9)	28(32.6)	13(15.1)	7(8.1)	2(2.3)	
	충청권	42	17(40.5)	8(19.0)	14(33.3)	2(4.8)	1(2.4)	
	전라권	41	8(19.5)	13(31.7)	11(26.8)	8(19.5)	1(2.4)	
	강원 제주권	70	23(32.9)	21(30.0)	15(21.4)	9(12.9)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7(36.2)	78(36.6)	33(15.5)	18(8.5)	7(3.3)	0.033 (0.855)
	청소년문화의집	187	66(35.3)	62(33.2)	39(20.9)	18(9.6)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2(35.3)	34(28.6)	24(20.2)	16(13.4)	3(2.5)	4.314** (0.002)
	법인	109	37(33.9)	43(39.4)	19(17.4)	7(6.4)	3(2.8)	
	민간위탁	116	36(31.0)	42(36.2)	23(19.8)	12(10.3)	3(2.6)	
	지자체산하공단	51	27(52.9)	20(39.2)	4(7.8)	0(0.0)	0(0.0)	
	기타	5	1(20.0)	1(2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1(31.4)	16(45.7)	5(14.3)	2(5.7)	1(2.9)	2.271 (0.105)
	간부	119	47(39.5)	46(38.7)	18(15.1)	6(5.0)	2(1.7)	
	일반직원	246	85(34.6)	78(31.7)	49(19.9)	28(11.4)	6(2.4)	
경력별	5년 미만	134	48(35.8)	43(32.1)	26(19.4)	14(10.4)	3(2.2)	0.233 (0.792)
	5~10년 미만	118	38(32.2)	42(35.6)	29(24.6)	9(7.6)	0(0.0)	
	10년 이상	148	57(38.5)	55(37.2)	17(11.5)	13(8.8)	6(4.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1(11.8)	39(41.9)	25(26.9)	16(17.2)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14(42.4)	8(24.2)	10(30.3)	0(0.0)	14.101*** (0.000)
	비수도권	60	10(16.7)	25(41.7)	17(28.3)	6(10.0)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9(18.0)	19(38.0)	13(26.0)	9(18.0)	0(0.0)	1.598 (0.209)
	공공기관/법인	43	2(4.7)	20(46.5)	12(27.9)	7(16.3)	2(4.7)	
직무별	교수직	53	9(17.0)	21(39.6)	14(26.4)	9(17.0)	0(0.0)	2.020 (0.159)
	연구/사업직	40	2(5.0)	18(45.0)	11(27.5)	7(17.5)	2(5.0)	

\*p<.05, \*\*p<.01, \*\*\*p<.001

①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40.2%),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22.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설치)하기 때문에’(1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는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43.5%), 청소년 전문가는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40.0%)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표 IV-10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1순위 기준	사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 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설치)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전체	333	134(40.2)	74(22.2)	24(7.2)	47(14.1)	43(12.9)	10(3.0)	1(0.3)	-
시설종사자	283	123(43.5)	54(19.1)	20(7.1)	36(12.7)	40(14.1)	9(3.2)	1(0.4)	18.427**
청소년전문가	50	11(22.0)	20(40.0)	4(8.0)	11(22.0)	3(6.0)	1(2.0)	0(0.0)	(0.005)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프로그램/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전라권(61.9%)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응답은 청소년전문가의 수도권(46.7%)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도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1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 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 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설치)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283	123(43.5)	54(19.1)	20(7.1)	36(12.7)	40(14.1)	9(3.2)	1(0.4)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29	50(38.8)	30(23.3)	6(4.7)	23(17.8)	16(12.4)	4(3.1)	0(0.0)
	경상권	64	24(37.5)	14(21.9)	9(14.1)	6(9.4)	10(15.6)	1(1.6)	0(0.0)
	충청권	25	10(40.0)	1(4.0)	1(4.0)	3(12.0)	9(36.0)	1(4.0)	0(0.0)
	전라권	21	13(61.9)	5(23.8)	1(4.8)	0(0.0)	1(4.8)	1(4.8)	0(0.0)
	강원 제주권	44	26(59.1)	4(9.1)	3(6.8)	4(9.1)	4(9.1)	2(4.5)	1(2.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155	63(40.6)	28(18.1)	12(7.7)	21(13.5)	27(17.4)	4(2.6)	0(0.0)
	청소년문화의집	128	60(46.9)	26(20.3)	8(6.3)	15(11.7)	13(10.2)	5(3.9)	1(0.8)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76	38(50.0)	7(9.2)	10(13.2)	9(11.8)	9(11.8)	2(2.6)	1(1.3)
	법인	80	33(41.3)	13(16.3)	6(7.5)	10(12.5)	14(17.5)	4(5.0)	0(0.0)
	민간위탁	78	33(42.3)	19(24.4)	3(3.8)	11(14.1)	10(12.8)	2(2.6)	0(0.0)
	지자체산하공단	47	18(38.3)	14(29.8)	1(2.1)	6(12.8)	7(14.9)	1(2.1)	0(0.0)
	기타	2	1(50.0)	1(50.0)	0(0.0)	0(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27	15(55.6)	6(22.2)	0(0.0)	3(11.1)	3(11.1)	0(0.0)	0(0.0)
	간부	93	34(36.6)	21(22.6)	3(3.2)	14(15.1)	17(18.3)	4(4.3)	0(0.0)
	일반직원	163	74(45.4)	27(16.6)	17(10.4)	19(11.7)	20(12.3)	5(3.1)	1(0.6)
경력별	5년 미만	91	48(52.7)	12(13.2)	7(7.7)	13(14.3)	7(7.7)	3(3.3)	1(1.1)
	5~10년 미만	80	30(37.5)	14(17.5)	7(8.8)	13(16.3)	13(16.3)	3(3.8)	0(0.0)
	10년 이상	112	45(40.2)	28(25.0)	6(5.4)	10(8.9)	20(17.9)	3(2.7)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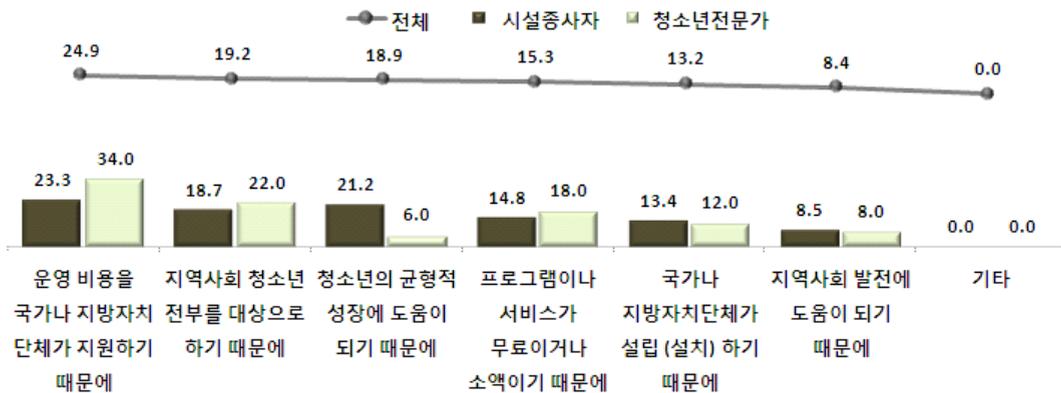
구분[%] 1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 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설치)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청소년전문가 전체		50	11(22.0)	20(40.0)	4(8.0)	11(22.0)	3(6.0)	1(2.0)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5	1(6.7)	7(46.7)	1(6.7)	6(40.0)	0(0.0)	0(0.0)	0(0.0)	18.634**
	비수도권	35	10(28.6)	13(37.1)	3(8.6)	5(14.3)	3(8.6)	1(2.9)	0(0.0)	(0.005)
소속 직장별	대학	28	3(10.7)	14(50.0)	2(7.1)	5(17.9)	3(10.7)	1(3.6)	0(0.0)	8,973
	공공기관/법인	22	8(36.4)	6(27.3)	2(9.1)	6(27.3)	0(0.0)	0(0.0)	0(0.0)	(0.110)
직무별	교수직	30	4(13.3)	15(50.0)	2(6.7)	5(16.7)	3(10.0)	1(3.3)	0(0.0)	8,239
	연구/사업직	20	7(35.0)	5(25.0)	2(10.0)	6(30.0)	0(0.0)	0(0.0)	0(0.0)	(0.144)

\*p<.05, \*\*p<.01, \*\*\*p<.001

①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 (2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24.9%),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19.2%),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1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6]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표 IV-12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2순위 기준	사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 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설치)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전체	333	64(19.2)	63(18.9)	51(15.3)	44(13.2)	83(24.9)	28(8.4)	0(0.0)	-
시설종사자	283	53(18.7)	60(21.2)	42(14.8)	38(13.4)	66(23.3)	24(8.5)	0(0.0)	7.725 (0.172)
청소년전문가	50	11(22.0)	3(6.0)	9(18.0)	6(12.0)	17(34.0)	4(8.0)	0(0.0)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응답은 시설종사자에서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60.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2순위 기준	사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 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설치)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283	53(18.7)	60(21.2)	42(14.8)	38(13.4)	66(23.3)	24(8.5)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29	25(19.4)	22(17.1)	19(14.7)	15(11.6)	34(26.4)	14(10.9)	0(0.0)	31.203 (0.053)
	경상권	64	16(25.0)	21(32.8)	5(7.8)	11(17.2)	6(9.4)	5(7.8)	0(0.0)	
	충청권	25	6(24.0)	6(24.0)	2(8.0)	3(12.0)	8(32.0)	0(0.0)	0(0.0)	
	전라권	21	2(9.5)	2(9.5)	5(23.8)	4(19.0)	7(33.3)	1(4.8)	0(0.0)	
	강원 제주권	44	4(9.1)	9(20.5)	11(25.0)	5(11.4)	11(25.0)	4(9.1)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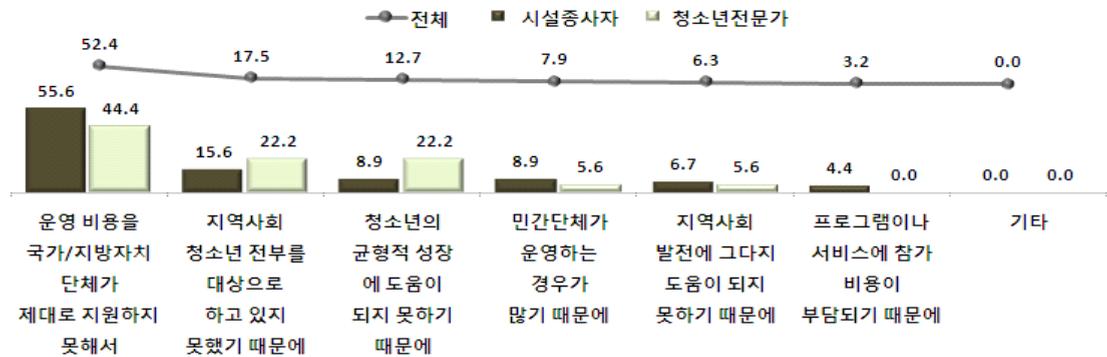
구분[%] 2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 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 (설치) 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155	27(17.4)	32(20.6)	26(16.8)	26(16.8)	31(20.0)	13(8.4)	0(0.0)	5.709 (0.336)
	청소년문화의집	128	26(20.3)	28(21.9)	16(12.5)	12(9.4)	35(27.3)	11(8.6)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76	11(14.5)	20(26.3)	14(18.4)	10(13.2)	16(21.1)	5(6.6)	0(0.0)	22.121 (0.334)
	법인	80	13(16.3)	12(15.0)	12(15.0)	10(12.5)	24(30.0)	9(11.3)	0(0.0)	
	민간위탁	78	17(21.8)	17(21.8)	10(12.8)	12(15.4)	16(20.5)	6(7.7)	0(0.0)	
	지자체산하공단	47	12(25.5)	11(23.4)	4(8.5)	6(12.8)	10(21.3)	4(8.5)	0(0.0)	
	기타	2	0(0.0)	0(0.0)	2(100.0)	0(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27	5(18.5)	5(18.5)	3(11.1)	2(7.4)	8(29.6)	4(14.8)	0(0.0)	11.783 (0.300)
	간부	93	20(21.5)	15(16.1)	9(9.7)	17(18.3)	25(26.9)	7(7.5)	0(0.0)	
	일반직원	163	28(17.2)	40(24.5)	30(18.4)	19(11.7)	33(20.2)	13(8.0)	0(0.0)	
경력별	5년 미만	91	14(15.4)	25(27.5)	15(16.5)	8(8.8)	21(23.1)	8(8.8)	0(0.0)	8.893 (0.542)
	5~10년 미만	80	14(17.5)	15(18.8)	12(15.0)	10(12.5)	20(25.0)	9(11.3)	0(0.0)	
	10년 이상	112	25(22.3)	20(17.9)	1(13.4)	20(17.9)	25(22.3)	7(6.3)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50	11(22.0)	3(6.0)	9(18.0)	6(12.0)	17(34.0)	4(8.0)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5	3(20.0)	0(0.0)	1(6.7)	0(0.0)	9(60.0)	2(13.3)	0(0.0)	14.025* (0.015)
	비수도권	35	8(22.9)	3(8.6)	8(22.9)	6(17.1)	8(22.9)	2(5.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28	7(25.0)	2(7.1)	4(14.3)	2(7.1)	9(32.1)	4(14.3)	0(0.0)	5.345 (0.375)
	공공기관/법인	22	4(18.2)	1(4.5)	5(22.7)	4(18.2)	8(36.4)	0(0.0)	0(0.0)	
직무별	교수직	30	8(26.7)	2(6.7)	5(16.7)	2(6.7)	9(30.0)	4(13.3)	0(0.0)	5.669 (0.340)
	연구/사업직	20	3(15.0)	1(5.0)	4(20.0)	4(20.0)	8(40.0)	0(0.0)	0(0.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52.4%),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17.5%),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1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7]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표 IV-14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1순위 기준	사례 수 [명]	프로그램/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서비스에 참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전체	63	11(17.5)	8(12.7)	2(3.2)	5(7.9)	33(52.4)	4(6.3)	0(0.0)	-
시설종사자	45	7(15.6)	4(8.9)	2(4.4)	4(8.9)	25(55.6)	3(6.7)	0(0.0)	3.435 (0.633)
청소년전문가	18	4(22.2)	4(22.2)	0(0.0)	1(5.6)	8(44.4)	1(5.6)	0(0.0)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5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1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1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에 참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5	7(15.6)	4(8.9)	2(4.4)	4(8.9)	25(55.6)	3(6.7)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3	2(15.4)	1(7.7)	1(7.7)	2(15.4)	5(38.5)	2(15.4)	0(0.0)	20.464 (0.429)
	경상권	9	0(0.0)	2(22.2)	1(11.1)	0(0.0)	6(66.7)	0(0.0)	0(0.0)	
	충청권	3	0(0.0)	0(0.0)	0(0.0)	0(0.0)	2(66.7)	1(33.3)	0(0.0)	
	전라권	9	1(11.1)	0(0.0)	0(0.0)	1(11.1)	7(77.8)	0(0.0)	0(0.0)	
	강원 제주권	11	4(36.4)	1(9.1)	0(0.0)	1(9.1)	5(45.5)	0(0.0)	0(0.0)	
수련시설유 형별	청소년수련관	25	4(16.0)	2(8.0)	1(4.0)	2(8.0)	14(56.0)	2(8.0)	0(0.0)	0.284 (0.998)
	청소년문화의집	20	3(15.0)	2(10.0)	1(5.0)	2(10.0)	11(55.0)	1(5.0)	0(0.0)	
수련시설은 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9	3(15.8)	4(21.1)	1(5.3)	1(5.3)	9(47.4)	1(5.3)	0(0.0)	9.219 (0.866)
	법인	10	2(20.0)	0(0.0)	1(10.0)	1(10.0)	5(50.0)	1(10.0)	0(0.0)	
	민간위탁	15	2(13.3)	0(0.0)	0(0.0)	2(13.3)	10(66.7)	1(6.7)	0(0.0)	
	자주체산하공단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1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	1(33.3)	0(0.0)	0(0.0)	0(0.0)	1(33.3)	1(33.3)	0(0.0)	7.652 (0.663)
	간부	8	1(12.5)	1(12.5)	0(0.0)	0(0.0)	5(62.5)	1(12.5)	0(0.0)	
	일반직원	34	5(14.7)	3(8.8)	2(5.9)	4(11.8)	19(55.9)	1(2.9)	0(0.0)	
경력별	5년 미만	17	4(23.5)	1(5.9)	1(5.9)	3(17.6)	8(47.1)	0(0.0)	0(0.0)	9.609 (0.475)
	5~10년 미만	9	1(11.1)	1(11.1)	0(0.0)	0(0.0)	7(77.8)	0(0.0)	0(0.0)	
	10년 이상	19	2(10.5)	2(10.5)	1(5.3)	1(5.3)	10(52.6)	3(15.8)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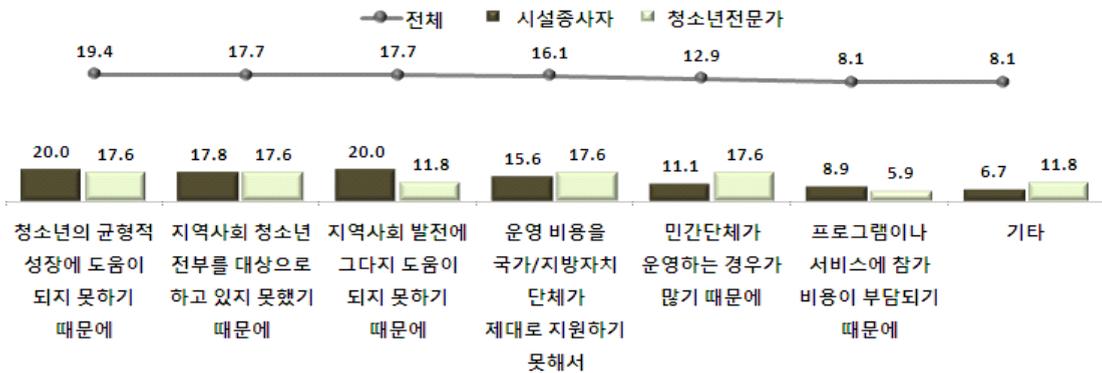
구분[%] 1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에 참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청소년전문가 전체		18	4(22.2)	4(22.2)	0(0.0)	1(5.6)	8(44.4)	1(5.6)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0	0(0.0)	2(20.0)	0(0.0)	1(10.0)	6(60.0)	1(10.0)	0(0.0)	3.397
	비수도권	8	4(50.0)	2(25.0)	0(0.0)	0(0.0)	2(25.0)	0(0.0)	0(0.0)	(0.639)
소속 직장별	대학	9	1(11.1)	2(22.2)	0(0.0)	1(11.1)	5(55.6)	0(0.0)	0(0.0)	3.500
	공공기관/법인	9	3(33.3)	2(22.2)	0(0.0)	0(0.0)	3(33.3)	1(11.1)	0(0.0)	(0.478)
직무별	교수직	9	1(11.1)	2(22.2)	0(0.0)	1(11.1)	5(55.6)	0(0.0)	0(0.0)	3.500
	연구/사업직	9	(33.3)	2(22.2)	0(0.0)	0(0.0)	3(33.3)	1(11.1)	0(0.0)	(0.571)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19.4%),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17.7%),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17.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에서, 청소년전문가는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8】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표 IV-16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2순위 기준	사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에 참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전체	62	11(17.7)	12(19.4)	5(8.1)	8(12.9)	10(16.1)	11(17.7)	5(8.1)	-
시설종사자	45	8(17.8)	9(20.0)	4(8.9)	5(11.1)	7(15.6)	9(20.0)	3(6.7)	1.485
청소년전문가	17	3(17.6)	3(17.6)	1(5.9)	3(17.6)	3(17.6)	2(11.8)	2(11.8)	(0.960)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프로그램/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청소년수련관(24.0%)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전문가에서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7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한 이유(2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2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프로그램/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서비스에 참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5	8(17.8)	9(20.0)	4(8.9)	5(11.1)	7(15.6)	9(20.0)	3(6.7)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3	2(15.4)	2(15.4)	3(23.1)	1(7.7)	3(23.1)	2(15.4)	0(0.0)	20.488 (0.669)
	경상권	9	1(11.1)	2(22.2)	0(0.0)	2(22.2)	1(11.1)	2(22.2)	1(11.1)	
	충청권	3	1(33.3)	2(66.7)	0(0.0)	0(0.0)	0(0.0)	0(0.0)	0(0.0)	
	전라권	9	1(11.1)	2(22.2)	1(11.1)	2(22.2)	0(0.0)	2(22.2)	1(11.1)	
	강원 제주권	11	3(27.3)	1(9.1)	0(0.0)	0(0.0)	3(27.3)	3(27.3)	1(9.1)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5	3(12.0)	6(24.0)	4(16.0)	5(20.0)	2(8.0)	5(20.0)	0(0.0)	14.521* (0.024)
	청소년문화의집	20	5(25.0)	3(15.0)	0(0.0)	0(0.0)	5(25.0)	4(20.0)	3(15.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9	5(26.3)	4(21.1)	1(5.3)	1(5.3)	3(15.8)	5(26.3)	0(0.0)	12.956 (0.794)
	법인	10	1(10.0)	2(20.0)	1(10.0)	1(10.0)	1(10.0)	2(20.0)	2(20.0)	
	민간위탁	15	2(13.3)	2(13.3)	2(13.3)	3(20.0)	3(20.0)	2(13.3)	1(6.7)	
	지자체산하공단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1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	1(33.3)	1(33.3)	0(0.0)	0(0.0)	1(33.3)	0(0.0)	0(0.0)	9.274 (0.679)
	간부	8	1(12.5)	1(12.5)	2(25.0)	1(12.5)	2(25.0)	0(0.0)	1(12.5)	
	일반직원	34	6(17.6)	7(20.6)	2(5.9)	4(11.8)	4(11.8)	9(26.5)	2(5.9)	
경력별	5년 미만	17	3(17.6)	3(17.6)	0(0.0)	1(5.9)	2(11.8)	5(29.4)	3(17.6)	17.020 (0.149)
	5~10년 미만	9	2(22.2)	1(11.1)	0(0.0)	2(22.2)	1(11.1)	3(33.3)	0(0.0)	
	10년 이상	19	3(15.8)	5(26.3)	4(21.1)	2(10.5)	4(21.1)	1(5.3)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17	3(17.6)	3(17.6)	1(5.9)	3(17.6)	3(17.6)	2(11.8)	2(11.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9	2(22.2)	1(11.1)	0(0.0)	2(22.2)	2(22.2)	0(0.0)	2(22.2)	6.773 (0.342)
	비수도권	8	1(12.5)	2(25.0)	1(12.5)	1(12.5)	1(12.5)	2(25.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8	2(25.0)	2(25.0)	0(0.0)	1(12.5)	1(12.5)	0(0.0)	2(25.0)	6.296 (0.391)
	공공기관/법인	9	1(11.1)	1(11.1)	1(11.1)	2(22.2)	2(22.2)	2(22.2)	0(0.0)	
직무별	교수직	8	2(25.0)	2(25.0)	0(0.0)	1(12.5)	1(12.5)	0(0.0)	2(25.0)	6.296 (0.391)
	연구/사업직	9	1(11.1)	1(11.1)	1(11.1)	2(22.2)	2(22.2)	2(22.2)	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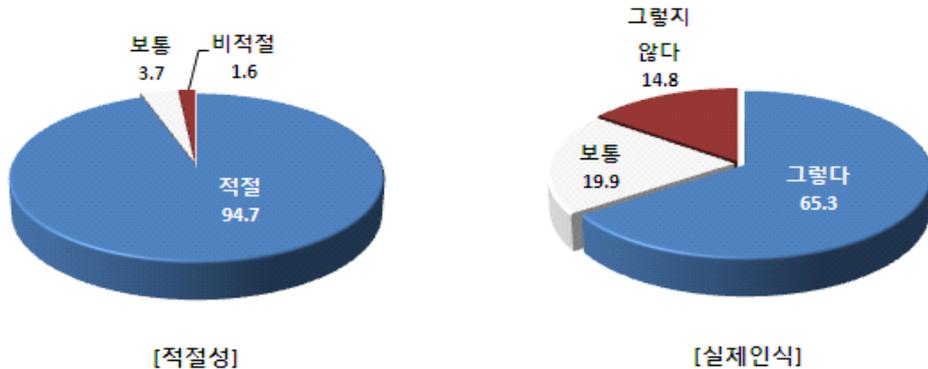
##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인식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합리적 운영방식을 통해 그 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으로 정의하였다.

### (1) 공공성 정의 중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4.7%(매우: 76.5% + 조금: 1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5.3%(매우: 39.1% + 조금: 26.2%)로 적절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4.8%) 및 청소년전문가(94.6%) 응답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70.3%)가 청소년전문가(44.1%)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18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77(76.5)	90(18.3)	18(3.7)	7(1.4)	1(0.2)	-
	시설종사자	400	306(76.5)	73(18.3)	13(3.3)	7(1.8)	1(0.3)	0.074 (0.786)
	청소년전문가	93	71(76.3)	17(18.3)	5(5.4)	0(0.0)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93(39.1)	129(26.2)	98(19.9)	58(11.8)	15(3.0)	-
	시설종사자	400	174(43.5)	107(26.8)	70(17.5)	38(9.5)	11(2.8)	24.821*** (0.000)
	청소년전문가	93	19(20.4)	22(23.7)	28(30.1)	20(21.5)	4(4.3)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97.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 례 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306(76.5)	73(18.3)	13(3.3)	7(1.8)	1(0.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21(75.2)	30(18.6)	5(3.1)	4(2.5)	1(0.6)	0.924 (0.450)
	경상권	86	64(74.4)	16(18.6)	4(4.7)	2(2.3)	0(0.0)	
	충청권	42	31(73.8)	9(21.4)	1(2.4)	1(2.4)	0(0.0)	
	전라권	41	31(75.6)	9(22.0)	1(2.4)	0(0.0)	0(0.0)	
	강원 제주권	70	59(84.3)	9(12.9)	2(2.9)	0(0.0)	0(0.0)	
수련시설유 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60(75.1)	43(20.2)	6(2.8)	3(1.4)	1(0.5)	0.094 (0.760)
	청소년문화의집	187	146(78.1)	30(16.0)	7(3.7)	4(2.1)	0(0.0)	

구분[%]		사 례 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수련시설운 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97(81.5)	18(15.1)	4(3.4)	0(0.0)	0(0.0)	1.403 (0.232)
	법인	109	80(73.4)	20(18.3)	5(4.6)	3(2.8)	1(0.9)	
	민간위탁	116	84(72.4)	26(22.4)	3(2.6)	3(2.6)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42(82.4)	7(13.7)	1(2.0)	1(2.0)	0(0.0)	
	기타	5	3(60.0)	2(4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9(82.9)	5(14.3)	0(0.0)	1(2.9)	0(0.0)	0.315 (0.730)
	간부	119	92(77.3)	20(16.8)	5(4.2)	1(0.8)	1(0.8)	
	일반직원	246	185(75.2)	48(19.5)	8(3.3)	5(2.0)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101(75.4)	27(20.1)	4(3.0)	2(1.5)	0(0.0)	0.091 (0.913)
	5~10년 미만	118	90(76.3)	21(17.8)	3(2.5)	4(3.4)	0(0.0)	
	10년 이상	148	115(77.7)	25(16.9)	6(4.1)	1(0.7)	1(0.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71(76.3)	17(18.3)	5(5.4)	0(0.0)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4(72.7)	8(24.2)	1(3.0)	0(0.0)	0(0.0)	14.101** * (0.000)
	비수도권	60	47(78.3)	9(15.0)	4(6.7)	0(0.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1(82.0)	7(14.0)	2(4.0)	0(0.0)	0(0.0)	1.700 (0.196)
	공공기관/법인	43	30(69.8)	10(23.3)	3(7.0)	0(0.0)	0(0.0)	
직무별	교수직	53	43(81.1)	8(15.1)	2(3.8)	0(0.0)	0(0.0)	1.598 (0.209)
	연구/사업직	40	28(70.0)	9(22.5)	3(7.5)	0(0.0)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48.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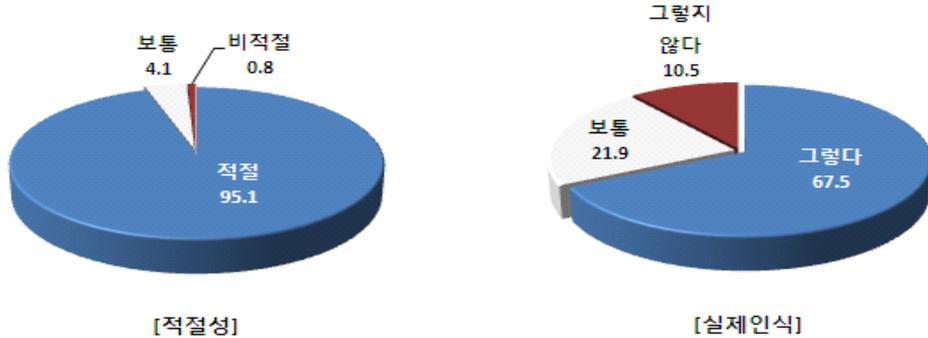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74(43.5)	107(26.8)	70(17.5)	38(9.5)	11(2.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3(39.1)	51(31.7)	30(18.6)	11(6.8)	6(3.7)	2.342 (0.054)
	경상권	86	39(45.3)	22(25.6)	14(16.3)	10(11.6)	1(1.2)	
	충청권	42	18(42.9)	11(26.2)	8(19.0)	5(11.9)	0(0.0)	
	전라권	41	14(34.1)	8(19.5)	10(24.4)	6(14.6)	3(7.3)	
	강원 제주권	70	40(57.1)	15(21.4)	8(11.4)	6(8.6)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91(42.7)	57(26.8)	39(18.3)	21(9.9)	5(2.3)	0.044 (0.834)
	청소년문화의집	187	83(44.4)	50(26.7)	31(16.6)	17(9.1)	6(3.2)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9(49.6)	27(22.7)	15(12.6)	12(10.1)	6(5.0)	1.718 (0.145)
	법인	109	43(39.4)	26(23.9)	22(20.2)	15(13.8)	3(2.8)	
	민간위탁	116	43(37.1)	37(31.9)	25(21.6)	9(7.8)	2(1.7)	
	지자체산하공단	51	26(51.0)	16(31.4)	7(13.7)	2(3.9)	0(0.0)	
	기타	5	3(60.0)	1(2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5(42.9)	9(25.7)	8(22.9)	2(5.7)	1(2.9)	1.395 (0.249)
	간부	119	54(45.4)	37(31.1)	17(14.3)	11(9.2)	0(0.0)	
	일반직원	246	105(42.7)	61(24.8)	45(18.3)	25(10.2)	10(4.1)	
경력별	5년 미만	134	62(46.3)	32(23.9)	24(17.9)	10(7.5)	6(4.5)	0.294 (0.745)
	5~10년 미만	118	48(40.7)	31(26.3)	22(18.6)	16(13.6)	1(0.8)	
	10년 이상	148	64(43.2)	44(29.7)	24(16.2)	12(8.1)	4(2.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9(20.4)	22(23.7)	28(30.1)	20(21.5)	4(4.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6(18.2)	6(18.2)	10(30.3)	9(27.3)	2(6.1)	14.052*** (0.000)
	비수도권	60	13(21.7)	16(26.7)	18(30.0)	11(18.3)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11(22.0)	12(24.0)	15(30.0)	10(20.0)	2(4.0)	0.251 (0.618)
	공공기관/법인	43	8(18.6)	10(23.3)	13(30.2)	10(23.3)	2(4.7)	
직무별	교수직	53	12(22.6)	12(22.6)	17(32.1)	10(18.9)	2(3.8)	0.462 (0.498)
	연구/사업직	40	7(17.5)	10(25.0)	11(27.5)	10(25.0)	2(5.0)	

\*p<.05, \*\*p<.01, \*\*\*p<.001

(2) 공공성 정의 중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5.1%(매우: 76.9% + 조금: 1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7.5%(매우: 38.3% + 조금: 29.2%)로 적절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5.5%) 및 청소년전문가(94.6%) 응답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71.5%)가 청소년전문가(50.5%)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0】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21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79(76.9)	90(18.3)	20(4.1)	4(0.8)	0(0.0)	-
	시설종사자	400	307(76.8)	75(18.8)	15(3.8)	3(0.8)	0(0.0)	0.058
	청소년전문가	93	72(77.4)	15(16.1)	5(5.4)	1(1.1)	0(0.0)	(0.81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 제 인 식	전체	493	189(38.3)	144(29.2)	108(21.9)	42(8.5)	10(2.0)	-
	시설종사자	400	172(43.0)	114(28.5)	76(19.0)	30(7.5)	8(2.0)	18.360***
	청소년전문가	93	17(18.3)	30(32.3)	32(34.4)	12(12.9)	2(2.2)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2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307(76.8)	75(18.8)	15(3.8)	3(0.8)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21(75.2)	33(20.5)	4(2.5)	3(1.9)	0(0.0)	0.282 (0.890)
	경상권	86	67(77.9)	15(17.4)	4(4.7)	0(0.0)	0(0.0)	
	충청권	42	35(83.3)	5(11.9)	2(4.8)	0(0.0)	0(0.0)	
	전라권	41	32(78.0)	7(17.1)	2(4.9)	0(0.0)	0(0.0)	
	강원 제주권	70	52(74.3)	15(21.4)	3(4.3)	0(0.0)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70(79.8)	36(16.9)	5(2.3)	2(0.9)	0(0.0)	2.352 (0.126)
	청소년문화의집	187	137(73.3)	39(20.9)	10(5.3)	1(0.5)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90(75.6)	25(21.0)	4(3.4)	0(0.0)	0(0.0)	0.378 (0.825)
	법인	109	83(76.1)	18(16.5)	5(4.6)	3(2.8)	0(0.0)	
	민간위탁	116	90(77.6)	22(19.0)	4(3.4)	0(0.0)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40(78.4)	9(17.6)	2(3.9)	0(0.0)	0(0.0)	
	기타	5	4(80.0)	1(2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4(68.6)	9(25.7)	2(5.7)	0(0.0)	0(0.0)	0.908 (0.404)
	간부	119	97(81.5)	18(15.1)	2(1.7)	2(1.7)	0(0.0)	
	일반직원	246	186(75.6)	48(19.5)	11(4.5)	1(0.4)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99(73.9)	30(22.4)	5(3.7)	0(0.0)	0(0.0)	0.292 (0.747)
	5~10년 미만	118	89(75.4)	23(19.5)	5(4.2)	1(0.8)	0(0.0)	
	10년 이상	148	119(80.4)	22(14.9)	5(3.4)	2(1.4)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72(77.4)	15(16.1)	5(5.4)	1(1.1)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3(69.7)	7(21.2)	3(9.1)	0(0.0)	0(0.0)	0.001 (0.975)
	비수도권	60	49(81.7)	8(13.3)	2(3.3)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0(80.0)	5(10.0)	5(10.0)	0(0.0)	0(0.0)	0.000 (0.986)
	공공기관/법인	43	32(74.4)	10(23.3)	0(0.0)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42(79.2)	6(11.3)	5(9.4)	0(0.0)	0(0.0)	0.000 (0.989)
	연구/사업직	40	30(75.0)	9(22.5)	0(0.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80.0%)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51.5%)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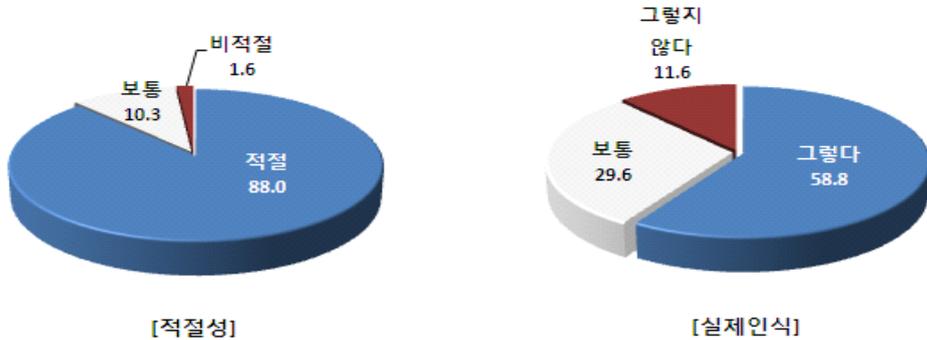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72(43.0)	114(28.5)	76(19.0)	30(7.5)	8(2.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77(47.8)	43(26.7)	26(16.1)	10(6.2)	5(3.1)	0.868 (0.483)
	경상권	86	38(44.2)	26(30.2)	15(17.4)	5(5.8)	2(2.3)	
	충청권	42	19(45.2)	11(26.2)	6(14.3)	5(11.9)	1(2.4)	
	전라권	41	13(31.7)	12(29.3)	10(24.4)	6(14.6)	0(0.0)	
	강원 제주권	70	25(35.7)	22(31.4)	19(27.1)	4(5.7)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96(45.1)	61(28.6)	34(16.0)	17(8.0)	5(2.3)	0.398 (0.529)
	청소년문화의집	187	76(40.6)	53(28.3)	42(22.5)	13(7.0)	3(1.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2(35.3)	36(30.3)	25(21.0)	15(12.6)	1(0.8)	1.843 (0.120)
	법인	109	46(42.2)	33(30.3)	18(16.5)	8(7.3)	4(3.7)	
	민간위탁	116	52(44.8)	32(27.6)	25(21.6)	5(4.3)	2(1.7)	
	지자체산하공단	51	29(56.9)	13(25.5)	6(11.8)	2(3.9)	1(2.0)	
	기타	5	3(60.0)	0(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3(37.1)	15(42.9)	5(14.3)	2(5.7)	0(0.0)	5.115** (0.006)
	간부	119	64(53.8)	31(26.1)	17(14.3)	6(5.0)	1(0.8)	
	일반직원	246	95(38.6)	68(27.6)	54(22.0)	22(8.9)	7(2.8)	
경력별	5년 미만	134	50(37.3)	36(26.9)	34(25.4)	12(9.0)	2(1.5)	2.764 (0.064)
	5~10년 미만	118	47(39.8)	39(33.1)	19(16.1)	10(8.5)	3(2.5)	
	10년 이상	148	75(50.7)	39(26.4)	23(15.5)	8(5.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7(18.3)	30(32.3)	32(34.4)	12(12.9)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6(18.2)	11(33.3)	11(33.3)	5(15.2)	0(0.0)	4.765* (0.030)
	비수도권	60	11(18.3)	19(31.7)	21(35.0)	7(11.7)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14(28.0)	14(28.0)	14(28.0)	8(16.0)	0(0.0)	2.926 (0.091)
	공공기관/법인	43	3(7.0)	16(37.2)	18(41.9)	4(9.3)	2(4.7)	
직무별	교수직	53	15(28.3)	14(26.4)	16(30.2)	8(15.1)	0(0.0)	3.317 (0.072)
	연구/사업직	40	2(5.0)	16(40.0)	16(40.0)	4(10.0)	2(5.0)	

\*p<.05, \*\*p<.01, \*\*\*p<.001

(3) 공공성 정의 중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8.0%(매우: 61.3% + 조금: 2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8.8%(매우: 27.0% + 조금: 31.8%)로 적절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88.3%) 및 청소년전문가(87.1%)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62.3%)가 청소년전문가(44.1%)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24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02(61.3)	132(26.8)	51(10.3)	8(1.6)	0(0.0)	-
	시설종사자	400	251(62.8)	102(25.5)	40(10.0)	7(1.8)	0(0.0)	0.957 (0.328)
	청소년전문가	93	51(54.8)	30(32.3)	11(11.8)	1(1.1)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33(27.0)	157(31.8)	146(29.6)	50(10.1)	7(1.4)	-
	시설종사자	400	124(31.0)	125(31.3)	110(27.5)	36(9.0)	5(1.3)	16.992*** (0.000)
	청소년전문가	93	9(9.7)	32(34.4)	36(38.7)	14(15.1)	2(2.2)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5 '보편적인 공공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51(62.8)	102(25.5)	40(10.0)	7(1.8)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5(59.0)	43(26.7)	19(11.8)	4(2.5)	0(0.0)	0.669 (0.614)
	경상권	86	54(62.8)	23(26.7)	8(9.3)	1(1.2)	0(0.0)	
	충청권	42	29(69.0)	7(16.7)	5(11.9)	1(2.4)	0(0.0)	
	전라권	41	26(63.4)	12(29.3)	3(7.3)	0(0.0)	0(0.0)	
	강원 제주권	70	47(67.1)	17(24.3)	5(7.1)	1(1.4)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39(65.3)	50(23.5)	19(8.9)	5(2.3)	0(0.0)	0.468 (0.494)
	청소년문화의집	187	112(59.9)	52(27.8)	21(11.2)	2(1.1)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84(70.6)	24(20.2)	11(9.2)	0(0.0)	0(0.0)	2.327 (0.056)
	법인	109	67(61.5)	26(23.9)	12(11.0)	4(3.7)	0(0.0)	
	민간위탁	116	61(52.6)	39(33.6)	13(11.2)	3(2.6)	0(0.0)	
	지자체신탁공단	51	36(70.6)	11(21.6)	4(7.8)	0(0.0)	0(0.0)	
	기타	5	3(60.0)	2(4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4(68.6)	8(22.9)	2(5.7)	1(2.9)	0(0.0)	0.219 (0.803)
	간부	119	72(60.5)	34(28.6)	11(9.2)	2(1.7)	0(0.0)	
	일반직원	246	155(63.0)	60(24.4)	27(11.0)	4(1.6)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82(61.2)	30(22.4)	20(14.9)	2(1.5)	0(0.0)	2.214 (0.111)
	5~10년 미만	118	69(58.5)	34(28.8)	12(10.2)	3(2.5)	0(0.0)	
	10년 이상	148	100(67.6)	38(25.7)	8(5.4)	2(1.4)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1(54.8)	30(32.3)	11(11.8)	1(1.1)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8(54.5)	10(30.3)	4(12.1)	1(3.0)	0(0.0)	1.183 (0.277)
	비수도권	60	33(55.0)	20(33.3)	7(11.7)	0(0.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9(58.0)	18(36.0)	2(4.0)	1(2.0)	0(0.0)	1.658 (0.201)
	공공기관/법인	43	22(51.2)	12(27.9)	9(20.9)	0(0.0)	0(0.0)	
직무별	교수직	53	30(56.6)	19(35.8)	3(5.7)	1(1.9)	0(0.0)	0.893 (0.347)
	연구/사업직	40	21(52.5)	11(27.5)	8(20.0)	0(0.0)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6 '보편적인 공공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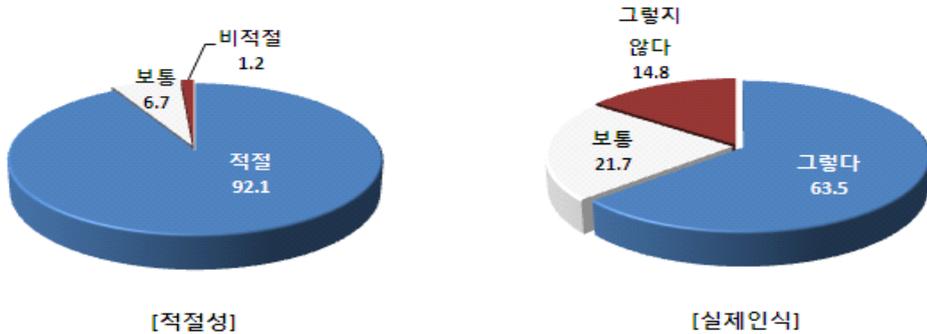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24(31.0)	125(31.3)	110(27.5)	36(9.0)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1(31.7)	58(36.0)	39(24.2)	11(6.8)	2(1.2)	1.941 (0.103)
	경상권	86	28(32.6)	30(34.9)	22(25.6)	4(4.7)	2(2.3)	
	충청권	42	14(33.3)	9(21.4)	11(26.2)	7(16.7)	1(2.4)	
	전라권	41	9(22.0)	10(24.4)	13(31.7)	9(22.0)	0(0.0)	
	강원 제주권	70	22(31.4)	18(25.7)	25(35.7)	5(7.1)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2(29.1)	74(34.7)	58(27.2)	15(7.0)	4(1.9)	0.007 (0.931)
	청소년문화의집	187	62(33.2)	51(27.3)	52(27.8)	21(11.2)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9(32.8)	35(29.4)	32(26.9)	11(9.2)	2(1.7)	1.284 (0.276)
	법인	109	37(33.9)	33(30.3)	26(23.9)	12(11.0)	1(0.9)	
	민간위탁	116	27(23.3)	37(31.9)	40(34.5)	11(9.5)	1(0.9)	
	지자체산하공단	51	19(37.3)	19(37.3)	10(19.6)	2(3.9)	1(2.0)	
	기타	5	2(40.0)	1(2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3(37.1)	11(31.4)	7(20.0)	4(11.4)	0(0.0)	0.801 (0.450)
	간부	119	39(32.8)	37(31.1)	34(28.6)	8(6.7)	1(0.8)	
	일반직원	246	72(29.3)	77(31.3)	69(28.0)	24(9.8)	4(1.6)	
경력별	5년 미만	134	44(32.8)	29(21.6)	42(31.3)	18(13.4)	1(0.7)	0.928 (0.396)
	5~10년 미만	118	32(27.1)	47(39.8)	29(24.6)	8(6.8)	2(1.7)	
	10년 이상	148	48(32.4)	49(33.1)	39(26.4)	10(6.8)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4(15.1)	37(39.8)	18(19.4)	18(19.4)	6(6.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14(42.4)	5(15.2)	8(24.2)	4(12.1)	3.868 (0.050)
	비수도권	60	12(20.0)	23(38.3)	13(21.7)	10(16.7)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9(18.0)	17(34.0)	9(18.0)	11(22.0)	4(8.0)	1.161 (0.284)
	공공기관/법인	43	5(11.6)	20(46.5)	9(20.9)	7(16.3)	2(4.7)	
직무별	교수직	53	10(18.9)	19(35.8)	9(17.0)	11(20.8)	4(7.5)	2.372 (0.127)
	연구/사업직	40	4(10.0)	18(45.0)	9(22.5)	7(17.5)	2(5.0)	

\*p<.05, \*\*p<.01, \*\*\*p<.001

(4) 공공성 정의 중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2.1%(매우: 72.6% + 조금: 19.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63.5%(매우: 37.1% + 조금: 26.4%)로 적절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1.8%) 및 청소년전문가(93.5%) 응답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65.5%)가 청소년전문가(5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2]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27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58(72.6)	96(19.5)	33(6.7)	4(0.8)	2(0.4)	-
	시설종사자	400	298(74.5)	69(17.3)	30(7.5)	2(0.5)	1(0.3)	2.146
	청소년전문가	93	60(64.5)	27(29.0)	3(3.2)	2(2.2)	1(1.1)	(0.328)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83(37.1)	130(26.4)	107(21.7)	54(11.0)	19(3.9)	-
	시설종사자	400	169(42.3)	93(23.3)	89(22.3)	36(9.0)	13(3.3)	17.310***
	청소년전문가	93	14(15.1)	37(39.8)	18(19.4)	18(19.4)	6(6.5)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전라권(97.6%) 지역, 5~10년 미만(94.9%)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경력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8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면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98(74.5)	69(17.3)	30(7.5)	2(0.5)	1(0.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7(66.5)	37(23.0)	14(8.7)	2(1.2)	1(0.6)	2.479* (0.044)
	경상권	86	68(79.1)	11(12.8)	7(8.1)	0(0.0)	0(0.0)	
	충청권	42	35(83.3)	3(7.1)	4(9.5)	0(0.0)	0(0.0)	
	전라권	41	35(85.4)	5(12.2)	1(2.4)	0(0.0)	0(0.0)	
	강원 제주권	70	53(75.7)	13(18.6)	4(5.7)	0(0.0)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64(77.0)	32(15.0)	16(7.5)	0(0.0)	1(0.5)	0.830 (0.363)
	청소년문화의집	187	134(71.7)	37(19.8)	14(7.5)	2(1.1)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88(73.9)	19(16.0)	11(9.2)	1(0.8)	0(0.0)	0.613 (0.654)
	법인	109	80(73.4)	19(17.4)	8(7.3)	1(0.9)	1(0.9)	
	민간위탁	116	93(80.2)	15(12.9)	8(6.9)	0(0.0)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34(66.7)	14(27.5)	3(5.9)	0(0.0)	0(0.0)	
	기타	5	3(60.0)	2(4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9(82.9)	3(8.6)	3(8.6)	0(0.0)	0(0.0)	0.769 (0.464)
	간부	119	94(79.0)	14(11.8)	10(8.4)	1(0.8)	0(0.0)	
	일반직원	246	175(71.1)	52(21.1)	17(6.9)	1(0.4)	1(0.4)	
경력별	5년 미만	134	89(66.4)	30(22.4)	13(9.7)	1(0.7)	1(0.7)	3.535* (0.030)
	5~10년 미만	118	89(75.4)	23(19.5)	6(5.1)	0(0.0)	0(0.0)	
	10년 이상	148	120(81.1)	16(10.8)	11(7.4)	1(0.7)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0(64.5)	27(29.0)	3(3.2)	2(2.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2(66.7)	7(21.2)	2(6.1)	1(3.0)	1(3.0)	0.814 (0.367)
	비수도권	60	38(63.3)	20(33.3)	1(1.7)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5(70.0)	10(20.0)	2(4.0)	2(4.0)	1(2.0)	0.058 (0.811)
	공공기관/법인	43	25(58.1)	17(39.5)	1(2.3)	0(0.0)	0(0.0)	
직무별	교수직	53	36(67.9)	12(22.6)	2(3.8)	2(3.8)	1(1.9)	0.168 (0.683)
	연구/사업직	40	24(60.0)	15(37.5)	1(2.5)	0(0.0)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강원 제주권(74.3%) 지역, 청소년문화의집(69.5%) 유형, 지자체산하공단(80.4%) 및 지자체직영(79.8%)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58.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1% 수준에서,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시설의 운영은 국가 재정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면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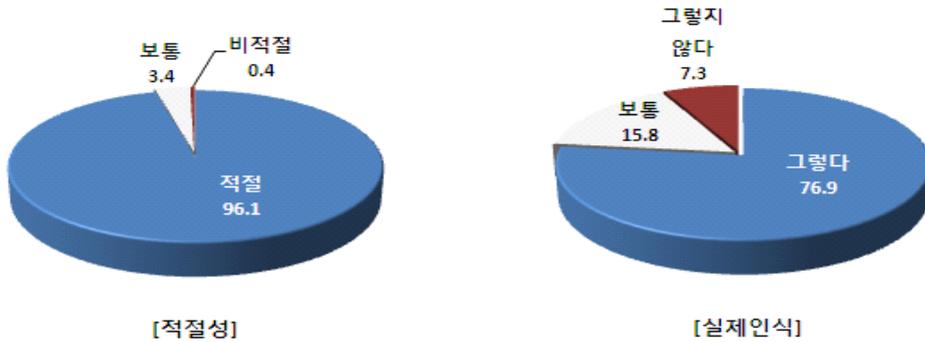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69(42.3)	93(23.3)	89(22.3)	36(9.0)	13(3.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0(37.3)	39(24.2)	36(22.4)	19(11.8)	7(4.3)	4.179** (0.003)
	경상권	86	37(43.0)	24(27.9)	21(24.4)	3(3.5)	1(1.2)	
	충청권	42	22(52.4)	6(14.3)	11(26.2)	3(7.1)	0(0.0)	
	전라권	41	11(26.8)	11(26.8)	9(22.0)	6(14.6)	4(9.8)	
	강원 제주권	70	39(55.7)	13(18.6)	12(17.1)	5(7.1)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9(37.1)	53(24.9)	47(22.1)	24(11.3)	10(4.7)	6.845** (0.009)
	청소년문화의집	187	90(48.1)	40(21.4)	42(22.5)	12(6.4)	3(1.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0(58.8)	25(21.0)	16(13.4)	4(3.4)	4(3.4)	8.369*** (0.000)
	법인	109	38(34.9)	24(22.0)	27(24.8)	17(15.6)	3(2.8)	
	민간위탁	116	34(29.3)	28(24.1)	33(28.4)	15(12.9)	6(5.2)	
	지자체산하공단	51	25(49.0)	16(31.4)	10(19.6)	0(0.0)	0(0.0)	
	기타	5	2(40.0)	0(0.0)	3(6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0(28.6)	10(28.6)	13(37.1)	2(5.7)	0(0.0)	0.936 (0.393)
	간부	119	48(40.3)	27(22.7)	22(18.5)	20(16.8)	2(1.7)	
	일반직원	246	111(45.1)	56(22.8)	54(22.0)	14(5.7)	11(4.5)	
경력별	5년 미만	134	66(49.3)	28(20.9)	27(20.1)	8(6.0)	5(3.7)	1.578 (0.208)
	5~10년 미만	118	43(36.4)	35(29.7)	28(23.7)	8(6.8)	4(3.4)	
	10년 이상	148	60(40.5)	30(20.3)	34(23.0)	20(13.5)	4(2.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4(15.1)	37(39.8)	18(19.4)	18(19.4)	6(6.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14(42.4)	5(15.2)	8(24.2)	4(12.1)	15.612*** (0.000)
	비수도권	60	12(20.0)	23(38.3)	13(21.7)	10(16.7)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9(18.0)	17(34.0)	9(18.0)	11(22.0)	4(8.0)	0.257 (0.613)
	공공기관/법인	43	5(11.6)	20(46.5)	9(20.9)	7(16.3)	2(4.7)	
직무별	교수직	53	10(18.9)	19(35.8)	9(17.0)	11(20.8)	4(7.5)	0.000 (0.992)
	연구/사업직	40	4(10.0)	18(45.0)	9(22.5)	7(17.5)	2(5.0)	

\*p<.05, \*\*p<.01, \*\*\*p<.001

(5) 공공성 정의 중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6.1%(매우: 83.8% + 조금: 12.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6.9%(매우: 55.6% + 조금: 21.3%)로 적절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7.3%)가 청소년전문가(91.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인식에서도 시설종사자(83.5%)가 청소년전문가(48.4%)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30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413(83.8)	61(12.4)	17(3.4)	2(0.4)	0(0.0)	-
	시설종사자	400	348(87.0)	41(10.3)	10(2.5)	1(0.3)	0(0.0)	17.174*** (0.000)
	청소년전문가	93	65(69.9)	20(21.5)	7(7.5)	1(1.1)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274(55.6)	105(21.3)	78(15.8)	22(4.5)	14(2.8)	-
	시설종사자	400	265(66.3)	69(17.3)	45(11.3)	11(2.8)	10(2.5)	87.867*** (0.000)
	청소년전문가	93	9(9.7)	36(38.7)	33(35.5)	11(11.8)	4(4.3)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95.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348(87.0)	41(10.3)	10(2.5)	1(0.3)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37(85.1)	21(13.0)	2(1.2)	1(0.6)	0(0.0)	0.576 (0.680)
	경상권	86	74(86.0)	8(9.3)	4(4.7)	0(0.0)	0(0.0)	
	충청권	42	38(90.5)	3(7.1)	1(2.4)	0(0.0)	0(0.0)	
	전라권	41	35(85.4)	4(9.8)	2(4.9)	0(0.0)	0(0.0)	
	강원 제주권	70	64(91.4)	5(7.1)	1(1.4)	0(0.0)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87(87.8)	22(10.3)	3(1.4)	1(0.5)	0(0.0)	0.476 (0.491)
	청소년문화의집	187	161(86.1)	19(10.2)	7(3.7)	0(0.0)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03(86.6)	11(9.2)	5(4.2)	0(0.0)	0(0.0)	0.077 (0.989)
	법인	109	96(88.1)	11(10.1)	1(0.9)	1(0.9)	0(0.0)	
	민간위탁	116	100(86.2)	14(12.1)	2(1.7)	0(0.0)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45(88.2)	4(7.8)	2(3.9)	0(0.0)	0(0.0)	
	기타	5	4(80.0)	1(2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32(91.4)	2(5.7)	1(2.9)	0(0.0)	0(0.0)	0.404 (0.668)
	간부	119	106(89.1)	10(8.4)	2(1.7)	1(0.8)	0(0.0)	
	일반직원	246	210(85.4)	29(11.8)	7(2.8)	0(0.0)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112(83.6)	18(13.4)	4(3.0)	0(0.0)	0(0.0)	0.610 (0.544)
	5~10년 미만	118	104(88.1)	12(10.2)	2(1.7)	0(0.0)	0(0.0)	
	10년 이상	148	132(89.2)	11(7.4)	4(2.7)	1(0.7)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5(69.9)	20(21.5)	7(7.5)	1(1.1)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3(69.7)	5(15.2)	5(15.2)	0(0.0)	0(0.0)	8.723** (0.003)
	비수도권	60	42(70.0)	15(25.0)	2(3.3)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4(68.0)	11(22.0)	5(10.0)	0(0.0)	0(0.0)	0.114 (0.736)
	공공기관/법인	43	31(72.1)	9(20.9)	2(4.7)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6(67.9)	11(20.8)	6(11.3)	0(0.0)	0(0.0)	0.347 (0.557)
	연구/사업직	40	29(72.5)	9(22.5)	1(2.5)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직위가 높을수록 (관장: 91.4%)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50.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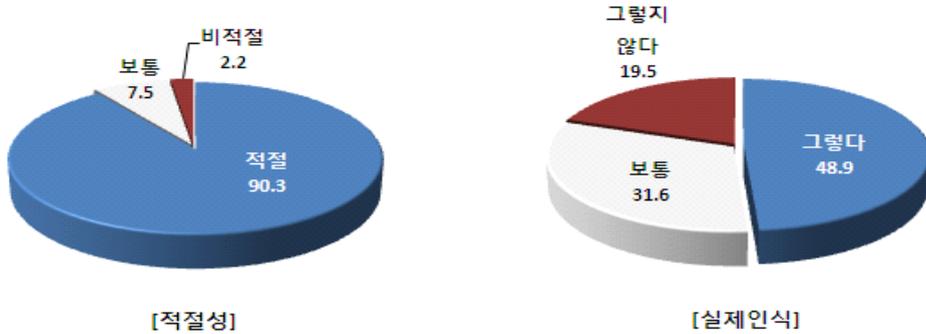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65(66.3)	69(17.3)	45(11.3)	11(2.8)	10(2.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2(63.4)	29(18.0)	20(12.4)	5(3.1)	5(3.1)	1.537 (0.191)
	경상권	86	60(69.8)	17(19.8)	7(8.1)	0(0.0)	2(2.3)	
	충청권	42	30(71.4)	5(11.9)	4(9.5)	2(4.8)	1(2.4)	
	전라권	41	23(56.1)	9(22.0)	4(9.8)	3(7.3)	2(4.9)	
	강원 제주권	70	50(71.4)	9(12.9)	10(14.3)	1(1.4)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39(65.3)	40(18.8)	21(9.9)	6(2.8)	7(3.3)	0.213 (0.645)
	청소년문화의집	187	126(67.4)	29(15.5)	24(12.8)	5(2.7)	3(1.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6(63.9)	22(18.5)	14(11.8)	3(2.5)	4(3.4)	0.837 (0.502)
	법인	109	71(65.1)	16(14.7)	14(12.8)	5(4.6)	3(2.8)	
	민간위탁	116	79(68.1)	21(18.1)	10(8.6)	3(2.6)	3(2.6)	
	지자체신탁공단	51	36(70.6)	10(19.6)	5(9.8)	0(0.0)	0(0.0)	
	기타	5	3(60.0)	0(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9(82.9)	3(8.6)	3(8.6)	0(0.0)	0(0.0)	4.056* (0.018)
	간부	119	85(71.4)	20(16.8)	9(7.6)	2(1.7)	3(2.5)	
	일반직원	246	151(61.4)	46(18.7)	33(13.4)	9(3.7)	7(2.8)	
경력별	5년 미만	134	83(61.9)	23(17.2)	17(12.7)	7(5.2)	4(3.0)	1.711 (0.182)
	5~10년 미만	118	77(65.3)	25(21.2)	11(9.3)	2(1.7)	3(2.5)	
	10년 이상	148	105(70.9)	21(14.2)	17(11.5)	2(1.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9(9.7)	36(38.7)	33(35.5)	11(11.8)	4(4.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3(9.1)	12(36.4)	12(36.4)	5(15.2)	1(3.0)	26.777*** (0.000)
	비수도권	60	6(10.0)	24(40.0)	21(35.0)	6(10.0)	3(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7(14.0)	16(32.0)	20(40.0)	6(12.0)	1(2.0)	0.467 (0.496)
	공공기관/법인	43	2(4.7)	20(46.5)	13(30.2)	5(11.6)	3(7.0)	
직무별	교수직	53	7(13.2)	18(34.0)	21(39.6)	6(11.3)	1(1.9)	0.771 (0.382)
	연구사업직	40	2(5.0)	18(45.0)	12(30.0)	5(12.5)	3(7.5)	

\*p<.05, \*\*p<.01, \*\*\*p<.001

(6) 공공성 정의 중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0.3%(매우: 64.3% + 조금: 2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8.9%(매우: 24.9% + 조금: 23.9%)로 적절성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0.5%) 및 청소년전문가(89.2%)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3.3%)가 청소년전문가(30.1%)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4】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33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17(64.3)	128(26.0)	37(7.5)	9(1.8)	2(0.4)	-
	시설종사자	400	265(66.3)	97(24.3)	31(7.8)	5(1.3)	2(0.5)	2.519
	청소년전문가	93	52(55.9)	31(33.3)	6(6.5)	4(4.3)	0(0.0)	(0.113)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23(24.9)	118(23.9)	156(31.6)	71(14.4)	25(5.1)	-
	시설종사자	400	118(29.5)	95(23.8)	113(28.3)	52(13.0)	22(5.5)	14.507***
	청소년전문가	93	5(5.4)	23(24.7)	43(46.2)	19(20.4)	3(3.2)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4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65(66.3)	97(24.3)	31(7.8)	5(1.3)	2(0.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9(61.5)	43(26.7)	15(9.3)	3(1.9)	1(0.6)	1.008 (0.403)
	경상권	86	63(73.3)	15(17.4)	7(8.1)	1(1.2)	0(0.0)	
	충청권	42	30(71.4)	8(19.0)	4(9.5)	0(0.0)	0(0.0)	
	전라권	41	28(68.3)	11(26.8)	2(4.9)	0(0.0)	0(0.0)	
	강원 제주권	70	45(64.3)	20(28.6)	3(4.3)	1(1.4)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3(67.1)	52(24.4)	15(7.0)	3(1.4)	0(0.0)	0.651 (0.420)
	청소년문화의집	187	122(65.2)	45(24.1)	16(8.6)	2(1.1)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6(63.9)	31(26.1)	11(9.2)	1(0.8)	0(0.0)	0.205 (0.936)
	법인	109	75(68.8)	26(23.9)	6(5.5)	1(0.9)	1(0.9)	
	민간위탁	116	78(67.2)	25(21.6)	9(7.8)	3(2.6)	1(0.9)	
	지자체산하공단	51	33(64.7)	14(27.5)	4(7.8)	0(0.0)	0(0.0)	
	기타	5	3(60.0)	1(2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8(80.0)	6(17.1)	1(2.9)	0(0.0)	0(0.0)	2.533 (0.081)
	간부	119	86(72.3)	21(17.6)	9(7.6)	2(1.7)	1(0.8)	
	일반직원	246	151(61.4)	70(28.5)	21(8.5)	3(1.2)	1(0.4)	
경력별	5년 미만	134	83(61.9)	36(26.9)	12(9.0)	2(1.5)	1(0.7)	1.249 (0.288)
	5~10년 미만	118	76(64.4)	32(27.1)	8(6.8)	1(0.8)	1(0.8)	
	10년 이상	148	106(71.6)	29(19.6)	11(7.4)	2(1.4)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2(55.9)	31(33.3)	6(6.5)	4(4.3)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1(63.6)	8(24.2)	2(6.1)	2(6.1)	0(0.0)	0.265 (0.607)
	비수도권	60	31(51.7)	23(38.3)	4(6.7)	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9(58.0)	17(34.0)	3(6.0)	1(2.0)	0(0.0)	0.866 (0.355)
	공공기관/법인	43	23(53.5)	14(32.6)	3(7.0)	3(7.0)	0(0.0)	
직무별	교수직	53	31(58.5)	17(32.1)	4(7.5)	1(1.9)	0(0.0)	0.770 (0.383)
	연구/사업직	40	21(52.5)	14(35.0)	2(5.0)	3(7.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70.6%) 주체별,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74.3%)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5.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 및 직위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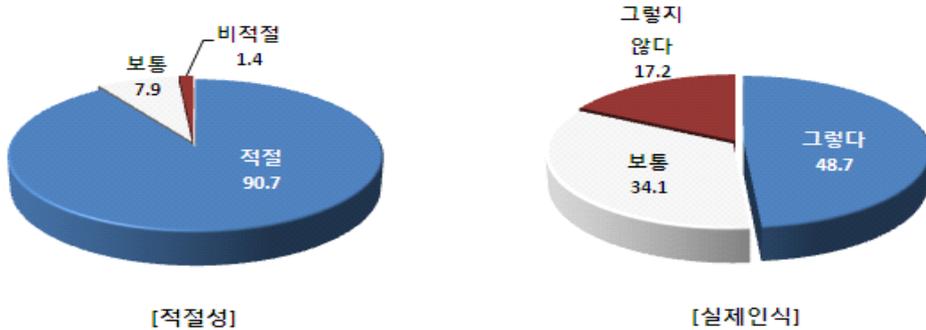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18(29.5)	95(23.8)	113(28.3)	52(13.0)	22(5.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5(28.0)	43(26.7)	45(28.0)	22(13.7)	6(3.7)	1.171 (0.323)
	경상권	86	32(37.2)	19(22.1)	21(24.4)	8(9.3)	6(7.0)	
	충청권	42	15(35.7)	9(21.4)	10(23.8)	3(7.1)	5(11.9)	
	전라권	41	12(29.3)	7(17.1)	16(39.0)	5(12.2)	1(2.4)	
	강원 제주권	70	14(20.0)	17(24.3)	21(30.0)	14(20.0)	4(5.7)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59(27.7)	51(23.9)	62(29.1)	28(13.1)	13(6.1)	0.723 (0.396)
	청소년문화의집	187	59(31.6)	44(23.5)	51(27.3)	24(12.8)	9(4.8)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5(21.0)	20(16.8)	42(35.3)	22(18.5)	10(8.4)	5.014** (0.001)
	법인	109	35(32.1)	32(29.4)	24(22.0)	13(11.9)	5(4.6)	
	민간위탁	116	37(31.9)	27(23.3)	33(28.4)	12(10.3)	7(6.0)	
	지자체산하공단	51	20(39.2)	16(31.4)	11(21.6)	4(7.8)	0(0.0)	
	기타	5	1(20.0)	0(0.0)	3(6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5(42.9)	11(31.4)	8(22.9)	1(2.9)	0(0.0)	6.958** (0.001)
	간부	119	37(31.1)	37(31.1)	28(23.5)	11(9.2)	6(5.0)	
	일반직원	246	66(26.8)	47(19.1)	77(31.3)	40(16.3)	16(6.5)	
경력별	5년 미만	134	36(26.9)	23(17.2)	43(32.1)	27(20.1)	5(3.7)	1.926 (0.147)
	5~10년 미만	118	35(29.7)	32(27.1)	32(27.1)	8(6.8)	11(9.3)	
	10년 이상	148	47(31.8)	40(27.0)	38(25.7)	17(11.5)	6(4.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4)	23(24.7)	43(46.2)	19(20.4)	3(3.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6(18.2)	16(48.5)	9(27.3)	1(3.0)	9.117** (0.003)
	비수도권	60	4(6.7)	17(28.3)	27(45.0)	10(16.7)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1(22.0)	21(42.0)	12(24.0)	2(4.0)	0.091 (0.764)
	공공기관/법인	43	1(2.3)	12(27.9)	22(51.2)	7(16.3)	1(2.3)	
직무별	교수직	53	4(7.5)	12(22.6)	23(43.4)	12(22.6)	2(3.8)	0.017 (0.896)
	연구/사업직	40	1(2.5)	11(27.5)	20(50.0)	7(17.5)	1(2.5)	

\*p<.05, \*\*p<.01, \*\*\*p<.001

(7) 공공성 정의 중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0.7% (매우: 63.3% + 조금: 27.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48.7%(매우: 23.3% + 조금: 25.4%)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92.5%)가 시설종사자(9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5.0%)가 청소년전문가(21.5%)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5】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36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절성	전체	493	312(63.3)	135(27.4)	39(7.9)	5(1.0)	2(0.4)	-
	시설종사자	400	252(63.0)	109(27.3)	34(8.5)	3(0.8)	2(0.5)	0.162 (0.688)
	청소년전문가	93	60(64.5)	26(28.0)	5(5.4)	2(2.2)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인식	전체	493	115(23.3)	125(25.4)	168(34.1)	65(13.2)	20(4.1)	-
	시설종사자	400	109(27.3)	111(27.8)	121(30.3)	43(10.8)	16(4.0)	29.957*** (0.000)
	청소년전문가	93	6(6.5)	14(15.1)	47(50.5)	22(23.7)	4(4.3)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7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52(63.0)	109(27.3)	34(8.5)	3(0.8)	2(0.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4(64.6)	43(26.7)	11(6.8)	2(1.2)	1(0.6)	0.336 (0.854)
	경상권	86	53(61.6)	26(30.2)	7(8.1)	0(0.0)	0(0.0)	
	충청권	42	27(64.3)	11(26.2)	3(7.1)	0(0.0)	1(2.4)	
	전라권	41	27(65.9)	10(24.4)	4(9.8)	0(0.0)	0(0.0)	
	강원 제주권	70	41(58.6)	19(27.1)	9(12.9)	1(1.4)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37(64.3)	53(24.9)	19(8.9)	2(0.9)	2(0.9)	0.055 (0.815)
	청소년문화의집	187	115(61.5)	56(29.9)	15(8.0)	1(0.5)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4(62.2)	32(26.9)	12(10.1)	1(0.8)	0(0.0)	0.415 (0.798)
	법인	109	66(60.6)	32(29.4)	8(7.3)	1(0.9)	2(1.8)	
	민간위탁	116	74(63.8)	30(25.9)	12(10.3)	0(0.0)	0(0.0)	
	지자체신탁공단	51	35(68.6)	13(25.5)	2(3.9)	1(2.0)	0(0.0)	
	기타	5	3(60.0)	2(4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6(74.3)	7(20.0)	2(5.7)	0(0.0)	0(0.0)	1.322 (0.268)
	간부	119	76(63.9)	32(26.9)	10(8.4)	1(0.8)	0(0.0)	
	일반직원	246	150(61.0)	70(28.5)	22(8.9)	2(0.8)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80(59.7)	41(30.6)	11(8.2)	1(0.7)	1(0.7)	0.627 (0.535)
	5~10년 미만	118	73(61.9)	33(28.0)	10(8.5)	1(0.8)	1(0.8)	
	10년 이상	148	99(66.9)	35(23.6)	13(8.8)	1(0.7)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0(64.5)	26(28.0)	5(5.4)	2(2.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5(75.8)	7(21.2)	0(0.0)	1(3.0)	0(0.0)	2.110 (0.147)
	비수도권	60	35(58.3)	19(31.7)	5(8.3)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4(68.0)	12(24.0)	3(6.0)	1(2.0)	0(0.0)	0.219 (0.641)
	공공기관/법인	43	26(60.5)	14(32.6)	2(4.7)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6(67.9)	13(24.5)	3(5.7)	1(1.9)	0(0.0)	0.333 (0.565)
	연구/사업직	40	24(60.0)	13(32.5)	2(5.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74.5%) 주체별, 간부(65.5%) 직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24.2%)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5% 수준에서, 수련시설운영 주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8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09(27.3)	111(27.8)	121(30.3)	43(10.8)	16(4.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8(29.8)	49(30.4)	41(25.5)	17(10.6)	1.418 (0.227)
	경상권	86	27(31.4)	25(29.1)	22(25.6)	9(10.5)	
	충청권	42	11(26.2)	11(26.2)	12(28.6)	6(14.3)	
	전라권	41	9(22.0)	13(31.7)	14(34.1)	3(7.3)	
	강원 제주권	70	14(20.0)	13(18.6)	32(45.7)	8(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52(24.4)	60(28.2)	69(32.4)	20(9.4)	1.897 (0.169)
	청소년문화의집	187	57(30.5)	51(27.3)	52(27.8)	23(12.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0(25.2)	26(21.8)	37(31.1)	18(15.1)	3.797** (0.005)
	법인	109	31(28.4)	27(24.8)	32(29.4)	14(12.8)	
	민간위탁	116	27(23.3)	40(34.5)	39(33.6)	7(6.0)	
	지자체산하공단	51	20(39.2)	18(35.3)	11(21.6)	2(3.9)	
	기타	5	1(20.0)	0(0.0)	2(40.0)	2(40.0)	
직위별	관장	35	10(28.6)	11(31.4)	11(31.4)	3(8.6)	3.203* (0.042)
	간부	119	33(27.7)	45(37.8)	30(25.2)	8(6.7)	
	일반직원	246	66(26.8)	55(22.4)	80(32.5)	32(13.0)	
경력별	5년 미만	134	41(30.6)	29(21.6)	42(31.3)	17(12.7)	0.046 (0.955)
	5~10년 미만	118	29(24.6)	41(34.7)	32(27.1)	11(9.3)	
	10년 이상	148	39(26.4)	41(27.7)	47(31.8)	15(10.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6.5)	14(15.1)	47(50.5)	22(23.7)	4(4.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6(18.2)	14(42.4)	10(30.3)	9.457** (0.002)
	비수도권	60	4(6.7)	8(13.3)	33(55.0)	12(2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9(18.0)	24(48.0)	11(22.0)	0.903 (0.344)
	공공기관/법인	43	2(4.7)	5(11.6)	23(53.5)	11(25.6)	
직무별	교수직	53	4(7.5)	10(18.9)	25(47.2)	12(22.6)	0.975 (0.326)
	연구사업직	40	2(5.0)	4(10.0)	22(55.0)	10(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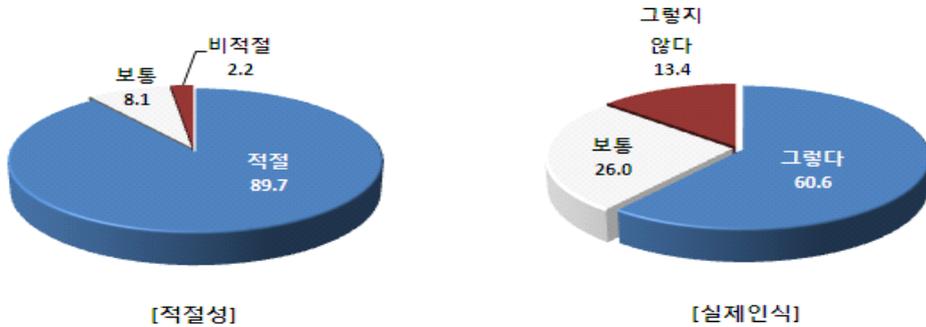
\*p<.05, \*\*p<.01, \*\*\*p<.001

###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과 실제에 대한 인식

#### (1) 공공성 영역으로 ‘정당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수련시설 공공성의 주요영역인 ‘정당성’을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설립이 적절성으로 정의하여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9.7%(매우: 63.5% + 조금: 26.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60.6%(매우: 30.6% + 조금: 30.0%)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89.8%) 및 청소년전문가(89.2%)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63.3%)가 청소년전문가(49.5%)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 ‘정당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39 ‘정당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13(63.5)	129(26.2)	40(8.1)	8(1.6)	3(0.6)	-
	시설종사자	400	257(64.3)	102(25.5)	33(8.3)	5(1.3)	3(0.8)	0.324
	청소년전문가	93	56(60.2)	27(29.0)	7(7.5)	3(3.2)	0(0.0)	(0.569)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51(30.6)	148(30.0)	128(26.0)	56(11.4)	10(2.0)	-
	시설종사자	400	133(33.3)	120(30.0)	97(24.3)	41(10.3)	9(2.3)	6.481*
	청소년전문가	93	18(19.4)	28(30.1)	31(33.3)	15(16.1)	1(1.1)	(0.01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민간위탁(94.0%) 주체별,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94.3%)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 및 직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0 '정당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57(64.3)	102(25.5)	33(8.3)	5(1.3)	3(0.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4(64.6)	43(26.7)	12(7.5)	2(1.2)	0(0.0)	0.468 (0.759)
	경상권	86	56(65.1)	20(23.3)	7(8.1)	3(3.5)	0(0.0)	
	충청권	42	29(69.0)	9(21.4)	4(9.5)	0(0.0)	0(0.0)	
	전라권	41	22(53.7)	16(39.0)	2(4.9)	0(0.0)	1(2.4)	
	강원 제주권	70	46(65.7)	14(20.0)	8(11.4)	0(0.0)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37(64.3)	54(25.4)	16(7.5)	4(1.9)	2(0.9)	0.081 (0.777)
	청소년문화의집	187	120(64.2)	48(25.7)	17(9.1)	1(0.5)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67(56.3)	37(31.1)	11(9.2)	2(1.7)	2(1.7)	2.412* (0.049)
	법인	109	66(60.6)	29(26.6)	11(10.1)	2(1.8)	1(0.9)	
	민간위탁	116	82(70.7)	27(23.3)	6(5.2)	1(0.9)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38(74.5)	9(17.6)	4(7.8)	0(0.0)	0(0.0)	
	기타	5	4(80.0)	0(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12(34.3)	2(5.7)	0(0.0)	0(0.0)	4.555* (0.011)
	간부	119	90(75.6)	21(17.6)	7(5.9)	1(0.8)	0(0.0)	
	일반직원	246	146(59.3)	69(28.0)	24(9.8)	4(1.6)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83(61.9)	36(26.9)	12(9.0)	1(0.7)	2(1.5)	1.149 (0.318)
	5~10년 미만	118	70(59.3)	37(31.4)	8(6.8)	2(1.7)	1(0.8)	
	10년 이상	148	104(70.3)	29(19.6)	13(8.8)	2(1.4)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6(60.2)	27(29.0)	7(7.5)	3(3.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8(54.5)	12(36.4)	3(9.1)	0(0.0)	0(0.0)	0.142 (0.706)
	비수도권	60	38(63.3)	15(25.0)	4(6.7)	3(5.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0(60.0)	15(30.0)	3(6.0)	2(4.0)	0(0.0)	0.001 (0.975)
	공공기관/법인	43	26(60.5)	12(27.9)	4(9.3)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2(60.4)	16(30.2)	3(5.7)	2(3.8)	0(0.0)	0.018 (0.894)
	연구/사업직	40	24(60.0)	11(27.5)	4(10.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1 '정당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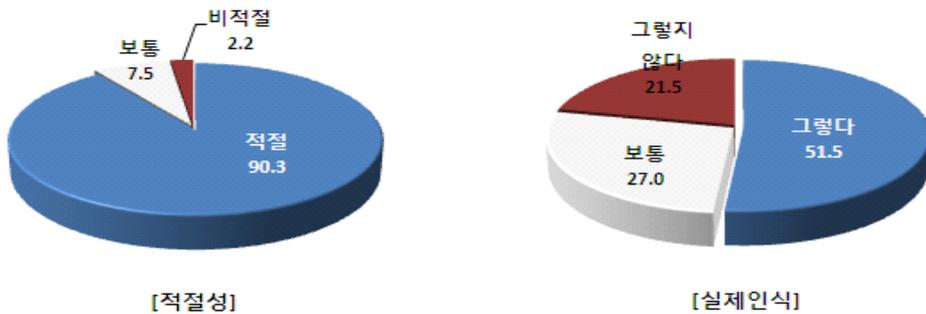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33(33.3)	120(30.0)	97(24.3)	41(10.3)	9(2.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3(39.1)	50(31.1)	33(20.5)	12(7.5)	3(1.9)	1.913 (0.107)
	경상권	86	28(32.6)	24(27.9)	21(24.4)	12(14.0)	1(1.2)	
	충청권	42	11(26.2)	14(33.3)	11(26.2)	6(14.3)	0(0.0)	
	전라권	41	11(26.8)	11(26.8)	10(24.4)	7(17.1)	2(4.9)	
	강원 제주권	70	20(28.6)	21(30.0)	22(31.4)	4(5.7)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2(33.8)	64(30.0)	49(23.0)	22(10.3)	6(2.8)	0.000 (0.991)
	청소년문화의집	187	61(32.6)	56(29.9)	48(25.7)	19(10.2)	3(1.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4(28.6)	36(30.3)	32(26.9)	12(10.1)	5(4.2)	2.187 (0.070)
	법인	109	33(30.3)	34(31.2)	26(23.9)	15(13.8)	1(0.9)	
	민간위탁	116	43(37.1)	34(29.3)	25(21.6)	11(9.5)	3(2.6)	
	지자체산하공단	51	22(43.1)	16(31.4)	11(21.6)	2(3.9)	0(0.0)	
	기타	5	1(20.0)	0(0.0)	3(6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0(28.6)	13(37.1)	6(17.1)	5(14.3)	1(2.9)	1.820 (0.163)
	간부	119	48(40.3)	34(28.6)	23(19.3)	14(11.8)	0(0.0)	
	일반직원	246	75(30.5)	73(29.7)	68(27.6)	22(8.9)	8(3.3)	
경력별	5년 미만	134	44(32.8)	40(29.9)	35(26.1)	12(9.0)	3(2.2)	0.050 (0.951)
	5~10년 미만	118	38(32.2)	36(30.5)	33(28.0)	9(7.6)	2(1.7)	
	10년 이상	148	51(34.5)	44(29.7)	29(19.6)	20(13.5)	4(2.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8(19.4)	28(30.1)	31(33.3)	15(16.1)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5(15.2)	10(30.3)	12(36.4)	6(18.2)	0(0.0)	3.465 (0.063)
	비수도권	60	13(21.7)	18(30.0)	19(31.7)	9(15.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14(28.0)	12(24.0)	14(28.0)	10(20.0)	0(0.0)	0.935 (0.336)
	공공기관/법인	43	4(9.3)	16(37.2)	17(39.5)	5(11.6)	1(2.3)	
직무별	교수직	53	15(28.3)	12(22.6)	16(30.2)	10(18.9)	0(0.0)	1.154 (0.285)
	연구/사업직	40	3(7.5)	16(40.0)	15(37.5)	5(12.5)	1(2.5)	

\*p<.05, \*\*p<.01, \*\*\*p<.001

(2) 공공성 영역으로 ‘개방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수련시설 공공성의 주요영역인 ‘개방성’을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편리성으로 정의하여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0.3%(매우: 67.5% + 조금: 2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1.5%(매우: 23.7% + 조금: 27.8%)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92.5%)가 시설종사자(89.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5.0%)가 청소년전문가(36.6%)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개방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42 ‘개방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33(67.5)	112(22.7)	37(7.5)	6(1.2)	5(1.0)	-
	시설종사자	400	270(67.5)	89(22.3)	31(7.8)	5(1.3)	5(1.3)	0.404 (0.526)
	청소년전문가	93	63(67.7)	23(24.7)	6(6.5)	1(1.1)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17(23.7)	137(27.8)	133(27.0)	82(16.6)	24(4.9)	-
	시설종사자	400	108(27.0)	112(28.0)	100(25.0)	56(14.0)	24(6.0)	8.055** (0.005)
	청소년전문가	93	9(9.7)	25(26.9)	33(35.5)	26(28.0)	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3 '개방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70(67.5)	89(22.3)	31(7.8)	5(1.3)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12(69.6)	35(21.7)	12(7.5)	1(0.6)	1(0.6)	1.043 (0.385)
	경상권	86	58(67.4)	19(22.1)	6(7.0)	3(3.5)	0(0.0)	
	충청권	42	31(73.8)	7(16.7)	4(9.5)	0(0.0)	0(0.0)	
	전라권	41	23(56.1)	13(31.7)	4(9.8)	0(0.0)	1(2.4)	
	강원 제주권	70	46(65.7)	15(21.4)	5(7.1)	1(1.4)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4(67.6)	44(20.7)	16(7.5)	4(1.9)	5(2.3)	1.278 (0.259)
	청소년문화의집	187	126(67.4)	45(24.1)	15(8.0)	1(0.5)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1(59.7)	34(28.6)	10(8.4)	3(2.5)	1(0.8)	0.889 (0.471)
	법인	109	80(73.4)	16(14.7)	10(9.2)	1(0.9)	2(1.8)	
	민간위탁	116	82(70.7)	26(22.4)	7(6.0)	0(0.0)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4(66.7)	12(23.5)	3(5.9)	1(2.0)	1(2.0)	
	기타	5	3(60.0)	1(2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10(28.6)	4(11.4)	0(0.0)	0(0.0)	0.670 (0.512)
	간부	119	85(71.4)	27(22.7)	3(2.5)	2(1.7)	2(1.7)	
	일반직원	246	164(66.7)	52(21.1)	24(9.8)	3(1.2)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89(66.4)	29(21.6)	13(9.7)	1(0.7)	2(1.5)	0.337 (0.714)
	5~10년 미만	118	83(70.3)	24(20.3)	9(7.6)	1(0.8)	1(0.8)	
	10년 이상	148	98(66.2)	36(24.3)	9(6.1)	3(2.0)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3(67.7)	23(24.7)	6(6.5)	1(1.1)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1(63.6)	9(27.3)	3(9.1)	0(0.0)	0(0.0)	0.000 (0.999)
	비수도권	60	42(70.0)	14(23.3)	3(5.0)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1(62.0)	13(26.0)	6(12.0)	0(0.0)	0(0.0)	2.077 (0.153)
	공공기관/법인	43	32(74.4)	10(23.3)	0(0.0)	(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3(62.3)	14(26.4)	6(11.3)	0(0.0)	0(0.0)	1.900 (0.171)
	연구/사업직	40	30(75.0)	9(22.5)	0(0.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문화의집(60.4%)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43.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개방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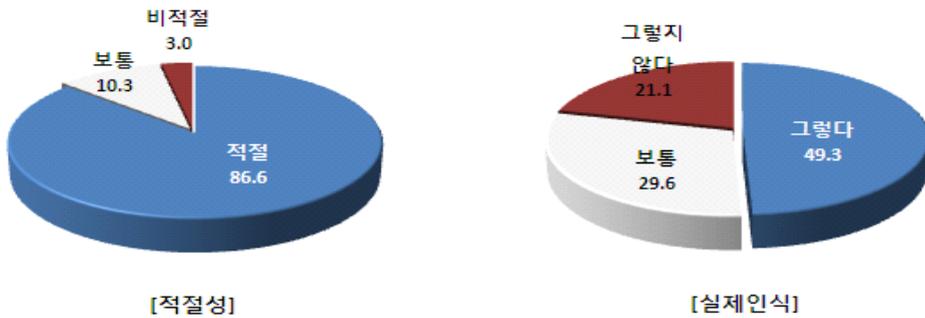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08(27.0)	112(28.0)	100(25.0)	56(14.0)	24(6.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6(28.6)	44(27.3)	46(28.6)	21(13.0)	4(2.5)	1.082 (0.365)
	경상권	86	22(25.6)	27(31.4)	19(22.1)	14(16.3)	4(4.7)	
	충청권	42	10(23.8)	11(26.2)	13(31.0)	5(11.9)	3(7.1)	
	전라권	41	8(19.5)	13(31.7)	7(17.1)	7(17.1)	6(14.6)	
	강원 제주권	70	22(31.4)	17(24.3)	15(21.4)	9(12.9)	7(1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54(25.4)	53(24.9)	56(26.3)	34(16.0)	16(7.5)	4.173* (0.042)
	청소년문화의집	187	54(28.9)	59(31.6)	44(23.5)	22(11.8)	8(4.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0(25.2)	30(25.2)	26(21.8)	26(21.8)	7(5.9)	1.278 (0.278)
	법인	109	28(25.7)	31(28.4)	29(26.6)	15(13.8)	6(5.5)	
	민간위탁	116	34(29.3)	32(27.6)	29(25.0)	12(10.3)	9(7.8)	
	자주체산하공단	51	15(29.4)	18(35.3)	14(27.5)	3(5.9)	1(2.0)	
	기타	5	1(20.0)	1(20.0)	2(40.0)	0(0.0)	1(20.0)	
직위별	관장	35	11(31.4)	7(20.0)	10(28.6)	6(17.1)	1(2.9)	0.530 (0.589)
	간부	119	32(26.9)	38(31.9)	29(24.4)	15(12.6)	5(4.2)	
	일반직원	246	65(26.4)	67(27.2)	61(24.8)	35(14.2)	18(7.3)	
경력별	5년 미만	134	39(29.1)	35(26.1)	33(24.6)	17(12.7)	10(7.5)	0.239 (0.788)
	5~10년 미만	118	27(22.9)	36(30.5)	31(26.3)	17(14.4)	7(5.9)	
	10년 이상	148	42(28.4)	41(27.7)	36(24.3)	22(14.9)	7(4.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9(9.7)	25(26.9)	33(35.5)	26(28.0)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6(18.2)	13(39.4)	12(36.4)	0(0.0)	8.010** (0.005)
	비수도권	60	7(11.7)	19(31.7)	20(33.3)	14(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6(12.0)	13(26.0)	19(38.0)	12(24.0)	0(0.0)	0.705 (0.403)
	공공기관/법인	43	3(7.0)	12(27.9)	14(32.6)	14(32.6)	0(0.0)	
직무별	교수직	53	6(11.3)	13(24.5)	21(39.6)	13(24.5)	0(0.0)	0.255 (0.615)
	연구/사업직	40	3(7.5)	12(30.0)	12(30.0)	13(32.5)	0(0.0)	

\*p<.05, \*\*p<.01, \*\*\*p<.001

(3) 공공성 영역으로 ‘형평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수련시설 공공성의 주요영역인 ‘형평성’을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사회 내 운영의 평등성으로 정의하여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6.6%(매우: 59.4% + 조금: 2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9.3%(매우: 21.9% + 조금: 27.4%)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86.5%) 및 청소년전문가(87.1%)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2.5%)가 청소년전문가(35.5%)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8] ‘형평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45 ‘형평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93(59.4)	134(27.2)	51(10.3)	10(2.0)	5(1.0)	-
	시설종사자	400	237(59.3)	109(27.3)	41(10.3)	8(2.0)	5(1.3)	0.166 (0.684)
	청소년전문가	93	56(60.2)	25(26.9)	10(10.8)	2(2.2)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08(21.9)	135(27.4)	146(29.6)	73(14.8)	31(6.3)	-
	시설종사자	400	105(26.3)	105(26.3)	109(27.3)	52(13.0)	29(7.3)	8.755** (0.003)
	청소년전문가	93	3(3.2)	30(32.3)	37(39.8)	21(22.6)	2(2.2)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6 '형평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37(59.3)	109(27.3)	41(10.3)	8(2.0)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3(57.8)	49(30.4)	16(9.9)	1(0.6)	2(1.2)	0.339 (0.851)
	경상권	86	52(60.5)	22(25.6)	8(9.3)	4(4.7)	0(0.0)	
	충청권	42	25(59.5)	12(28.6)	4(9.5)	1(2.4)	0(0.0)	
	전라권	41	22(53.7)	11(26.8)	6(14.6)	1(2.4)	1(2.4)	
	강원 제주권	70	45(64.3)	15(21.4)	7(10.0)	1(1.4)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3(57.7)	60(28.2)	22(10.3)	5(2.3)	3(1.4)	0.479 (0.489)
	청소년문화의집	187	114(61.0)	49(26.2)	19(10.2)	3(1.6)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67(56.3)	33(27.7)	13(10.9)	4(3.4)	2(1.7)	0.347 (0.846)
	법인	109	66(60.6)	30(27.5)	10(9.2)	1(0.9)	2(1.8)	
	민간위탁	116	69(59.5)	34(29.3)	10(8.6)	2(1.7)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2(62.7)	11(21.6)	7(13.7)	1(2.0)	0(0.0)	
	기타	5	3(60.0)	1(2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3(65.7)	8(22.9)	3(8.6)	0(0.0)	1(2.9)	0.208 (0.813)
	간부	119	71(59.7)	33(27.7)	11(9.2)	3(2.5)	1(0.8)	
	일반직원	246	143(58.1)	68(27.6)	27(11.0)	5(2.0)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80(59.7)	36(26.9)	14(10.4)	3(2.2)	1(0.7)	0.184 (0.832)
	5~10년 미만	118	66(55.9)	35(29.7)	13(11.0)	3(2.5)	1(0.8)	
	10년 이상	148	91(61.5)	38(25.7)	14(9.5)	2(1.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6(60.2)	25(26.9)	10(10.8)	2(2.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7(51.5)	13(39.4)	3(9.1)	0(0.0)	0(0.0)	0.001 (0.975)
	비수도권	60	39(65.0)	12(20.0)	7(11.7)	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9(58.0)	15(30.0)	5(10.0)	1(2.0)	0(0.0)	0.024 (0.877)
	공공기관/법인	43	27(62.8)	10(23.3)	5(11.6)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1(58.5)	16(30.2)	5(9.4)	1(1.9)	0(0.0)	0.000 (0.986)
	연구/사업직	40	25(62.5)	9(22.5)	5(12.5)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강원 제주권(60.0%) 지역, 지자체산하공단(66.7%)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7** '형평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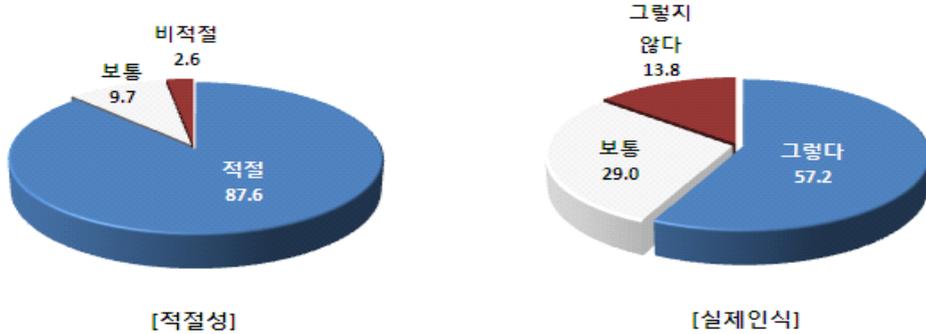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05(26.3)	105(26.3)	109(27.3)	52(13.0)	29(7.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1(31.7)	42(26.1)	39(24.2)	21(13.0)	8(5.0)	3.127* (0.015)
	경상권	86	20(23.3)	21(24.4)	29(33.7)	10(11.6)	6(7.0)	
	충청권	42	9(21.4)	10(23.8)	13(31.0)	7(16.7)	3(7.1)	
	전라권	41	3(7.3)	12(29.3)	13(31.7)	7(17.1)	6(14.6)	
	강원 제주권	70	22(31.4)	20(28.6)	15(21.4)	7(10.0)	6(8.6)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57(26.8)	52(24.4)	58(27.2)	27(12.7)	19(8.9)	0.453 (0.501)
	청소년문화의집	187	48(25.7)	53(28.3)	51(27.3)	25(13.4)	10(5.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2(26.9)	26(21.8)	34(28.6)	14(11.8)	13(10.9)	2.720* (0.029)
	법인	109	29(26.6)	27(24.8)	29(26.6)	18(16.5)	6(5.5)	
	민간위탁	116	23(19.8)	37(31.9)	29(25.0)	17(14.7)	10(8.6)	
	지자체산하공단	51	20(39.2)	14(27.5)	15(29.4)	2(3.9)	0(0.0)	
	기타	5	1(20.0)	1(2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9(25.7)	11(31.4)	6(17.1)	5(14.3)	4(11.4)	0.064 (0.938)
	간부	119	29(24.4)	33(27.7)	35(29.4)	17(14.3)	5(4.2)	
	일반직원	246	67(27.2)	61(24.8)	68(27.6)	30(12.2)	20(8.1)	
경력별	5년 미만	134	37(27.6)	33(24.6)	43(32.1)	13(9.7)	8(6.0)	0.358 (0.699)
	5~10년 미만	118	29(24.6)	33(28.0)	28(23.7)	19(16.1)	9(7.6)	
	10년 이상	148	39(26.4)	39(26.4)	38(25.7)	20(13.5)	12(8.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30(32.3)	37(39.8)	21(22.6)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9(27.3)	14(42.4)	9(27.3)	0(0.0)	3.726 (0.054)
	비수도권	60	2(3.3)	21(35.0)	23(38.3)	12(20.0)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2(4.0)	17(34.0)	21(42.0)	10(20.0)	0(0.0)	1.485 (0.226)
	공공기관/법인	43	1(2.3)	13(30.2)	16(37.2)	11(25.6)	2(4.7)	
직무별	교수직	53	2(3.8)	18(34.0)	22(41.5)	11(20.8)	0(0.0)	1.300 (0.257)
	연구/사업직	40	1(2.5)	12(30.0)	15(37.5)	10(25.0)	2(5.0)	

\*p<.05, \*\*p<.01, \*\*\*p<.001

(4) 공공성 영역으로 '다양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수련시설 공공성의 주요영역인 '다양성'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 제공성으로 정의하여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7.6%(매우: 61.1% + 조금: 26.6%)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7.2%(매우: 23.3% + 조금: 33.9%)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87.5%) 및 청소년전문가(88.2%)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62.0%)가 청소년전문가(36.6%)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9] '다양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48 '다양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절성	전체	493	301(61.1)	131(26.6)	48(9.7)	11(2.2)	2(0.4)	-
	시설종사자	400	246(61.5)	104(26.0)	44(11.0)	4(1.0)	2(0.5)	0.626
	청소년전문가	93	55(59.1)	27(29.0)	4(4.3)	7(7.5)	0(0.0)	(0.429)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인식	전체	493	115(23.3)	167(33.9)	143(29.0)	54(11.0)	14(2.8)	-
	시설종사자	400	109(27.3)	139(34.8)	109(27.3)	31(7.8)	12(3.0)	27.649***
	청소년전문가	93	6(6.5)	28(30.1)	34(36.6)	23(24.7)	2(2.2)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49 '다양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46(61.5)	104(26.0)	44(11.0)	4(1.0)	2(0.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1(62.7)	42(26.1)	15(9.3)	2(1.2)	1(0.6)	0.120 (0.975)
	경상권	86	51(59.3)	26(30.2)	7(8.1)	2(2.3)	0(0.0)	
	충청권	42	27(64.3)	9(21.4)	6(14.3)	0(0.0)	0(0.0)	
	전라권	41	23(56.1)	12(29.3)	6(14.6)	0(0.0)	0(0.0)	
	강원 제주권	70	44(62.9)	15(21.4)	10(14.3)	0(0.0)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0(65.7)	48(22.5)	22(10.3)	3(1.4)	0(0.0)	2.412 (0.121)
	청소년문화의집	187	106(56.7)	56(29.9)	22(11.8)	1(0.5)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0(58.8)	31(26.1)	15(12.6)	2(1.7)	1(0.8)	0.422 (0.792)
	법인	109	71(65.1)	24(22.0)	12(11.0)	1(0.9)	1(0.9)	
	민간위탁	116	67(57.8)	38(32.8)	10(8.6)	1(0.9)	0(0.0)	
	자주체산하공단	51	34(66.7)	11(21.6)	6(11.8)	0(0.0)	0(0.0)	
	기타	5	4(80.0)	0(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9(54.3)	11(31.4)	4(11.4)	1(2.9)	0(0.0)	0.824 (0.439)
	간부	119	78(65.5)	28(23.5)	12(10.1)	1(0.8)	0(0.0)	
	일반직원	246	149(60.6)	65(26.4)	28(11.4)	2(0.8)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78(58.2)	36(26.9)	19(14.2)	1(0.7)	0(0.0)	0.647 (0.524)
	5~10년 미만	118	75(63.6)	34(28.8)	7(5.9)	1(0.8)	1(0.8)	
	10년 이상	148	93(62.8)	34(23.0)	18(12.2)	2(1.4)	1(0.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59.1)	27(29.0)	4(4.3)	7(7.5)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9(57.6)	11(33.3)	1(3.0)	2(6.1)	0(0.0)	0.058 (0.809)
	비수도권	60	36(60.0)	16(26.7)	3(5.0)	5(8.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9(58.0)	14(28.0)	3(6.0)	4(8.0)	0(0.0)	0.195 (0.659)
	공공기관/법인	43	26(60.5)	13(30.2)	1(2.3)	3(7.0)	0(0.0)	
직무별	교수직	53	31(58.5)	15(28.3)	3(5.7)	4(7.5)	0(0.0)	0.065 (0.799)
	연구/사업직	40	24(60.0)	12(30.0)	1(2.5)	3(7.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68.3%) 지역, 지자체산하공단(76.5%) 주체별, 간부(68.1%) 직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40.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 및 직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다양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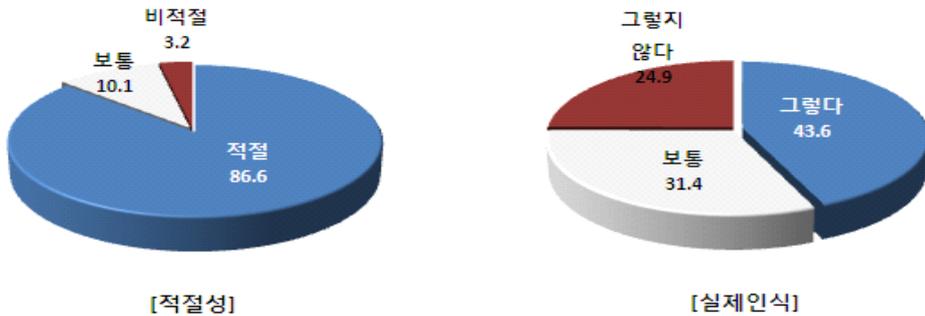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09(27.3)	139(34.8)	109(27.3)	31(7.8)	12(3.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1(31.7)	59(36.6)	42(26.1)	6(3.7)	3(1.9)	3.231* (0.013)
	경상권	86	21(24.4)	32(37.2)	22(25.6)	9(10.5)	2(2.3)	
	충청권	42	11(26.2)	12(28.6)	13(31.0)	4(9.5)	2(4.8)	
	전라권	41	7(17.1)	12(29.3)	13(31.7)	5(12.2)	4(9.8)	
	강원 제주권	70	19(27.1)	24(34.3)	19(27.1)	7(10.0)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1(28.6)	76(35.7)	51(23.9)	17(8.0)	8(3.8)	0.164 (0.685)
	청소년문화의집	187	48(25.7)	63(33.7)	58(31.0)	14(7.5)	4(2.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8(23.5)	37(31.1)	34(28.6)	14(11.8)	6(5.0)	3.052* (0.017)
	법인	109	31(28.4)	40(36.7)	27(24.8)	8(7.3)	3(2.8)	
	민간위탁	116	29(25.0)	42(36.2)	35(30.2)	7(6.0)	3(2.6)	
	지자체산하공단	51	20(39.2)	19(37.3)	11(21.6)	1(2.0)	0(0.0)	
	기타	5	1(20.0)	1(2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7(20.0)	16(45.7)	11(31.4)	0(0.0)	1(2.9)	3.068* (0.048)
	간부	119	40(33.6)	41(34.5)	31(26.1)	5(4.2)	2(1.7)	
	일반직원	246	62(25.2)	82(33.3)	67(27.2)	26(10.6)	9(3.7)	
경력별	5년 미만	134	33(24.6)	42(31.3)	40(29.9)	16(11.9)	3(2.2)	1.486 (0.228)
	5~10년 미만	118	33(28.0)	48(40.7)	28(23.7)	6(5.1)	3(2.5)	
	10년 이상	148	43(29.1)	49(33.1)	41(27.7)	9(6.1)	6(4.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6.5)	28(30.1)	34(36.6)	23(24.7)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8(24.2)	15(45.5)	7(21.2)	1(3.0)	9.932** (0.002)
	비수도권	60	4(6.7)	20(33.3)	19(31.7)	16(26.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6(12.0)	13(26.0)	22(44.0)	8(16.0)	1(2.0)	3.222 (0.076)
	공공기관/법인	43	0(0.0)	15(34.9)	12(27.9)	15(34.9)	1(2.3)	
직무별	교수직	53	6(11.3)	13(24.5)	24(45.3)	9(17.0)	1(1.9)	2.188 (0.143)
	연구/사업직	40	0(0.0)	15(37.5)	10(25.0)	14(35.0)	1(2.5)	

\*p<.05, \*\*p<.01, \*\*\*p<.001

(5) 공공성 영역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수련시설 공공성의 주요영역인 ‘지속가능성’을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안정성으로 정의하여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6.6%(매우: 66.5% + 조금: 20.1%)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3.6%(매우: 19.1% + 조금: 24.5%)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86.5%) 및 청소년전문가(87.1%)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7.8%)가 청소년전문가(25.8%)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0】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표 IV-51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28(66.5)	99(20.1)	50(10.1)	13(2.6)	3(0.6)	-
	시설종사자	400	268(67.0)	78(19.5)	43(10.8)	8(2.0)	3(0.8)	0.156 (0.693)
	청소년전문가	93	60(64.5)	21(22.6)	7(7.5)	5(5.4)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94(19.1)	121(24.5)	155(31.4)	90(18.3)	33(6.7)	-
	시설종사자	400	91(22.8)	100(25.0)	117(29.3)	63(15.8)	29(7.3)	13.530*** (0.000)
	청소년전문가	93	3(3.2)	21(22.6)	38(40.9)	27(29.0)	4(4.3)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2 '지속가능성'에 대한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68(67.0)	78(19.5)	43(10.8)	8(2.0)	3(0.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7(66.5)	32(19.9)	18(11.2)	3(1.9)	1(0.6)	1.202 (0.309)
	경상권	86	60(69.8)	14(16.3)	10(11.6)	2(2.3)	0(0.0)	
	충청권	42	32(76.2)	8(19.0)	2(4.8)	0(0.0)	0(0.0)	
	전라권	41	25(61.0)	12(29.3)	1(2.4)	2(4.9)	1(2.4)	
	강원 제주권	70	44(62.9)	12(17.1)	12(17.1)	1(1.4)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51(70.9)	33(15.5)	22(10.3)	5(2.3)	2(0.9)	0.626 (0.429)
	청소년문화의집	187	117(62.6)	45(24.1)	21(11.2)	3(1.6)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3(61.3)	26(21.8)	15(12.6)	3(2.5)	2(1.7)	1.117 (0.348)
	법인	109	86(78.9)	9(8.3)	10(9.2)	3(2.8)	1(0.9)	
	민간위탁	116	71(61.2)	33(28.4)	11(9.5)	1(0.9)	0(0.0)	
	자주체산하공단	51	34(66.7)	10(19.6)	6(11.8)	1(2.0)	0(0.0)	
	기타	5	4(80.0)	0(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5(71.4)	8(22.9)	1(2.9)	1(2.9)	0(0.0)	0.548 (0.578)
	간부	119	82(68.9)	23(19.3)	8(6.7)	5(4.2)	1(0.8)	
	일반직원	246	161(65.4)	47(19.1)	34(13.8)	2(0.8)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85(63.4)	27(20.1)	21(15.7)	1(0.7)	0(0.0)	0.293 (0.746)
	5~10년 미만	118	81(68.6)	22(18.6)	13(11.0)	2(1.7)	0(0.0)	
	10년 이상	148	102(68.9)	29(19.6)	9(6.1)	5(3.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0(64.5)	21(22.6)	7(7.5)	5(5.4)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1(63.6)	7(21.2)	2(6.1)	3(9.1)	0(0.0)	0.505 (0.478)
	비수도권	60	39(65.0)	14(23.3)	5(8.3)	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2(64.0)	10(20.0)	5(10.0)	3(6.0)	0(0.0)	0.264 (0.609)
	공공기관/법인	43	28(65.1)	11(25.6)	2(4.7)	2(4.7)	0(0.0)	
직무별	교수직	53	34(64.2)	11(20.8)	5(9.4)	3(5.7)	0(0.0)	0.135 (0.714)
	연구/사업직	40	26(65.0)	10(25.0)	2(5.0)	2(5.0)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 (72.5%)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3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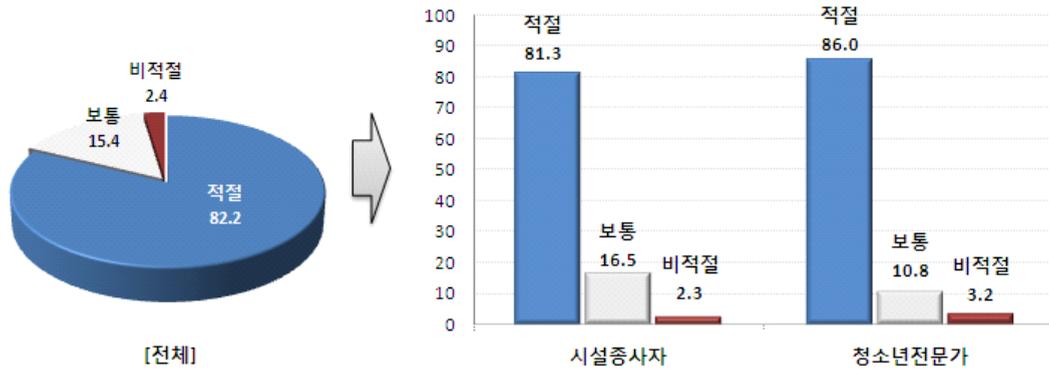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91(22.8)	100(25.0)	117(29.3)	63(15.8)	29(7.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0(24.8)	39(24.2)	48(29.8)	23(14.3)	11(6.8)	1.621 (0.168)
	경상권	86	19(22.1)	24(27.9)	29(33.7)	11(12.8)	3(3.5)	
	충청권	42	9(21.4)	10(23.8)	12(28.6)	9(21.4)	2(4.8)	
	전라권	41	6(14.6)	10(24.4)	10(24.4)	7(17.1)	8(19.5)	
	강원 제주권	70	17(24.3)	17(24.3)	18(25.7)	13(18.6)	5(7.1)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50(23.5)	47(22.1)	60(28.2)	36(16.9)	20(9.4)	1.506 (0.220)
	청소년문화의집	187	41(21.9)	53(28.3)	57(30.5)	27(14.4)	9(4.8)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6(21.8)	30(25.2)	29(24.4)	24(20.2)	10(8.4)	5.487*** (0.000)
	법인	109	24(22.0)	30(27.5)	34(31.2)	14(12.8)	7(6.4)	
	민간위탁	116	20(17.2)	23(19.8)	40(34.5)	21(18.1)	12(10.3)	
	지자체산하공단	51	20(39.2)	17(33.3)	11(21.6)	3(5.9)	0(0.0)	
	기타	5	1(20.0)	0(0.0)	3(6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5(14.3)	12(34.3)	11(31.4)	5(14.3)	2(5.7)	0.886 (0.413)
	간부	119	24(20.2)	23(19.3)	43(36.1)	21(17.6)	8(6.7)	
	일반직원	246	62(25.2)	65(26.4)	63(25.6)	37(15.0)	19(7.7)	
경력별	5년 미만	134	34(25.4)	33(24.6)	39(29.1)	22(16.4)	6(4.5)	1.023 (0.360)
	5~10년 미만	118	28(23.7)	31(26.3)	30(25.4)	21(17.8)	8(6.8)	
	10년 이상	148	29(19.6)	36(24.3)	48(32.4)	20(13.5)	15(10.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21(22.6)	38(40.9)	27(29.0)	4(4.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3(9.1)	5(15.2)	14(42.4)	10(30.3)	1(3.0)	3.019 (0.083)
	비수도권	60	0(0.0)	16(26.7)	24(40.0)	17(28.3)	3(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0)	12(24.0)	20(40.0)	13(26.0)	2(4.0)	1.493 (0.225)
	공공기관/법인	43	0(0.0)	9(20.9)	18(41.9)	14(32.6)	2(4.7)	
직무별	교수직	53	3(5.7)	12(22.6)	22(41.5)	14(26.4)	2(3.8)	1.115 (0.294)
	연구/사업직	40	0(0.0)	9(22.5)	16(40.0)	13(32.5)	2(5.0)	

\*p<.05, \*\*p<.01, \*\*\*p<.001

(6) 공공성 5가지 영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주요영역으로 ‘정당성, 개방성, 형평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조사 결과, ‘적절’ 응답이 82.2%(매우: 36.7% + 조금: 45.4%)로 ‘비적절’ 응답 2.4%(전혀: 0.2% + 다소: 2.2%)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가 86.0%로 시설종사자(8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1】 공공성 5가지 영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표 IV-54 공공성 5가지 영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전체	493	181(36.7)	224(45.4)	76(15.4)	11(2.2)	1(0.2)	-
시설종사자	400	143(35.8)	182(45.5)	66(16.5)	9(2.3)	0(0.0)	0.766
청소년전문가	93	38(40.9)	42(45.2)	10(10.8)	2(2.2)	1(1.1)	(0.382)

\*p<.05, \*\*p<.01, \*\*\*p<.001

공정 응답에 대해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5 공공성 5가지 영역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43(35.8)	182(45.5)	66(16.5)	9(2.3)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6(34.8)	78(48.4)	23(14.3)	4(2.5)	0(0.0)	0.218 (0.928)
	경상권	86	33(38.4)	38(44.2)	14(16.3)	1(1.2)	0(0.0)	
	충청권	42	13(31.0)	20(47.6)	8(19.0)	1(2.4)	0(0.0)	
	전라권	41	15(36.6)	18(43.9)	6(14.6)	2(4.9)	0(0.0)	
	강원 제주권	70	26(37.1)	28(40.0)	15(21.4)	1(1.4)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6(35.7)	94(44.1)	37(17.4)	6(2.8)	0(0.0)	0.330 (0.566)
	청소년문화의집	187	67(35.8)	88(47.1)	29(15.5)	3(1.6)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0(33.6)	55(46.2)	23(19.3)	1(0.8)	0(0.0)	1.000 (0.407)
	법인	109	45(41.3)	45(41.3)	15(13.8)	4(3.7)	0(0.0)	
	민간위탁	116	36(31.0)	56(48.3)	21(18.1)	3(2.6)	0(0.0)	
	자주체산하공단	51	21(41.2)	24(47.1)	5(9.8)	1(2.0)	0(0.0)	
	기타	5	1(20.0)	2(4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3(37.1)	15(42.9)	6(17.1)	1(2.9)	0(0.0)	0.021 (0.979)
	간부	119	42(35.3)	57(47.9)	17(14.3)	3(2.5)	0(0.0)	
	일반직원	246	88(35.8)	110(44.7)	43(17.5)	5(2.0)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54(40.3)	54(40.3)	25(18.7)	1(0.7)	0(0.0)	0.537 (0.585)
	5~10년 미만	118	40(33.9)	57(48.3)	18(15.3)	3(2.5)	0(0.0)	
	10년 이상	148	49(33.1)	71(48.0)	23(15.5)	5(3.4)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8(40.9)	42(45.2)	10(10.8)	2(2.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1(33.3)	15(45.5)	6(18.2)	1(3.0)	0(0.0)	0.298 (0.585)
	비수도권	60	27(45.0)	27(45.0)	4(6.7)	1(1.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4(48.0)	17(34.0)	8(16.0)	1(2.0)	0(0.0)	0.482 (0.489)
	공공기관/법인	43	14(32.6)	25(58.1)	2(4.7)	1(2.3)	1(2.3)	
직무별	교수직	53	25(47.2)	19(35.8)	8(15.1)	1(1.9)	0(0.0)	0.613 (0.436)
	연구/사업직	40	13(32.5)	23(57.5)	2(5.0)	1(2.5)	1(2.5)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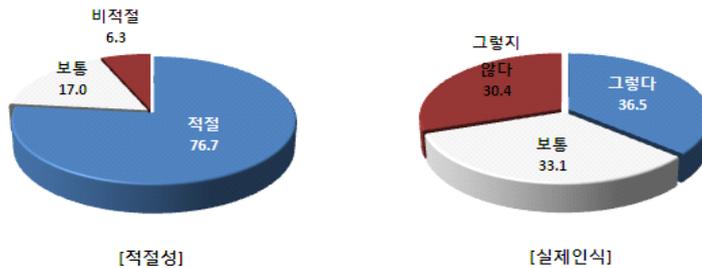
#### 4)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1) 정당성 영역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6.7% (매우: 43.8% + 조금: 32.9%)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36.5%(매우: 11.8% + 조금: 24.7%)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3.9%)가 시설종사자(75.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39.0%)가 청소년전문가(25.8%)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표 IV-5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절성	전체	493	216(43.8)	162(32.9)	84(17.0)	26(5.3)	5(1.0)	-
	시설종사자	400	170(42.5)	130(32.5)	72(18.0)	23(5.8)	5(1.3)	3.687 (0.055)
	청소년전문가	93	46(49.5)	32(34.4)	12(12.9)	3(3.2)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인식	전체	493	58(11.8)	122(24.7)	163(33.1)	109(22.1)	41(8.3)	-
	시설종사자	400	52(13.0)	104(26.0)	119(29.8)	91(22.8)	34(8.5)	1.237 (0.267)
	청소년전문가	93	6(6.5)	18(19.4)	44(47.3)	18(19.4)	7(7.5)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70(42.5)	130(32.5)	72(18.0)	23(5.8)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5(40.4)	59(36.6)	29(18.0)	6(3.7)	2(1.2)	0.764 (0.549)
	경상권	86	39(45.3)	29(33.7)	13(15.1)	4(4.7)	1(1.2)	
	충청권	42	20(47.6)	13(31.0)	6(14.3)	3(7.1)	0(0.0)	
	전라권	41	14(34.1)	15(36.6)	8(19.5)	4(9.8)	0(0.0)	
	강원 제주권	70	32(45.7)	14(20.0)	16(22.9)	6(8.6)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94(44.1)	68(31.9)	38(17.8)	12(5.6)	1(0.5)	0.922 (0.338)
	청소년문화의집	187	76(40.6)	62(33.2)	34(18.2)	11(5.9)	4(2.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7(39.5)	40(33.6)	25(21.0)	5(4.2)	2(1.7)	0.903 (0.462)
	법인	109	51(46.8)	32(29.4)	17(15.6)	8(7.3)	1(0.9)	
	민간위탁	116	48(41.4)	39(33.6)	20(17.2)	8(6.9)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24(47.1)	16(31.4)	9(17.6)	1(2.0)	1(2.0)	
	기타	5	0(0.0)	3(6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5(42.9)	7(20.0)	8(22.9)	4(11.4)	1(2.9)	1.013 (0.364)
	간부	119	52(43.7)	42(35.3)	18(15.1)	5(4.2)	2(1.7)	
	일반직원	246	103(41.9)	81(32.9)	46(18.7)	14(5.7)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52(38.8)	44(32.8)	28(20.9)	9(6.7)	1(0.7)	1.681 (0.188)
	5~10년 미만	118	55(46.6)	40(33.9)	19(16.1)	3(2.5)	1(0.8)	
	10년 이상	148	63(42.6)	46(31.1)	25(16.9)	11(7.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6(49.5)	32(34.4)	12(12.9)	3(3.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6(48.5)	12(36.4)	3(9.1)	2(6.1)	0(0.0)	0.784 (0.376)
	비수도권	60	30(50.0)	20(33.3)	9(15.0)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5(50.0)	17(34.0)	6(12.0)	2(4.0)	0(0.0)	0.000 (0.989)
	공공기관/법인	43	21(48.8)	15(34.9)	6(14.0)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27(50.9)	17(32.1)	7(13.2)	2(3.8)	0(0.0)	0.000 (0.991)
	연구/사업직	40	19(47.5)	15(37.5)	5(12.5)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54.9%)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5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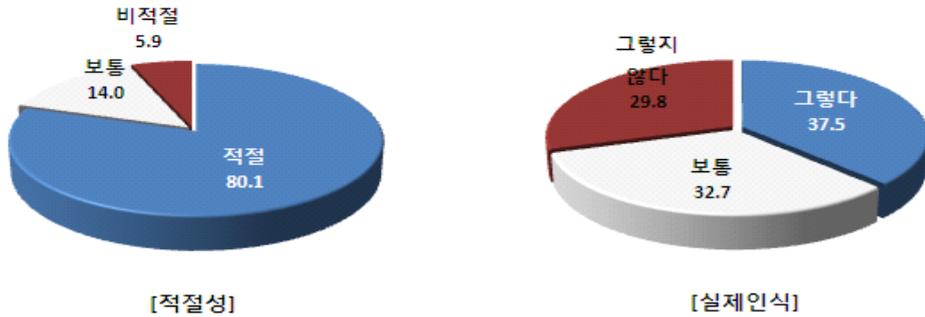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52(13.0)	104(26.0)	119(29.8)	91(22.8)	34(8.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4(14.9)	54(33.5)	41(25.5)	28(17.4)	14(8.7)	1.694 (0.150)
	경상권	86	11(12.8)	21(24.4)	28(32.6)	20(23.3)	6(7.0)	
	충청권	42	5(11.9)	4(9.5)	19(45.2)	12(28.6)	2(4.8)	
	전라권	41	3(7.3)	11(26.8)	11(26.8)	12(29.3)	4(9.8)	
	강원 제주권	70	9(12.9)	14(20.0)	20(28.6)	19(27.1)	8(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27(12.7)	52(24.4)	66(31.0)	50(23.5)	18(8.5)	0.279 (0.598)
	청소년문화의집	187	25(13.4)	52(27.8)	53(28.3)	41(21.9)	16(8.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4(11.8)	24(20.2)	38(31.9)	30(25.2)	13(10.9)	2.990* (0.019)
	법인	109	13(11.9)	33(30.3)	28(25.7)	27(24.8)	8(7.3)	
	민간위탁	116	13(11.2)	31(26.7)	39(33.6)	23(19.8)	10(8.6)	
	지자체산하공단	51	12(23.5)	16(31.4)	12(23.5)	9(17.6)	2(3.9)	
	기타	5	0(0.0)	0(0.0)	2(40.0)	2(40.0)	1(20.0)	
직위별	관장	35	3(8.6)	12(34.3)	9(25.7)	7(20.0)	4(11.4)	0.061 (0.941)
	간부	119	15(12.6)	30(25.2)	39(32.8)	28(23.5)	7(5.9)	
	일반직원	246	34(13.8)	62(25.2)	71(28.9)	56(22.8)	23(9.3)	
경력별	5년 미만	134	21(15.7)	30(22.4)	36(26.9)	37(27.6)	10(7.5)	0.687 (0.504)
	5~10년 미만	118	15(12.7)	35(29.7)	37(31.4)	23(19.5)	8(6.8)	
	10년 이상	148	16(10.8)	39(26.4)	46(31.1)	31(20.9)	16(10.8)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6.5)	18(19.4)	44(47.3)	18(19.4)	7(7.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5(15.2)	17(51.5)	6(18.2)	4(12.1)	2.651 (0.104)
	비수도권	60	5(8.3)	13(21.7)	27(45.0)	12(20.0)	3(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0(20.0)	20(40.0)	10(20.0)	6(12.0)	0.384 (0.537)
	공공기관/법인	43	2(4.7)	8(18.6)	24(55.8)	8(18.6)	1(2.3)	
직무별	교수직	53	4(7.5)	10(18.9)	23(43.4)	10(18.9)	6(11.3)	0.373 (0.543)
	연구/사업직	40	2(5.0)	8(20.0)	21(52.5)	8(20.0)	1(2.5)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0.1% (매우: 50.5% + 조금: 29.6%)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37.5%(매우: 11.6% + 조금: 26.0%)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9.2%)가 시설종사자(7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39.8%)가 청소년전문가(28.0%)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표 IV-5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49(50.5)	146(29.6)	69(14.0)	23(4.7)	6(1.2)	-
	시설종사자	400	196(49.0)	116(29.0)	60(15.0)	22(5.5)	6(1.5)	6.105*
	청소년전문가	93	53(57.0)	30(32.3)	9(9.7)	1(1.1)	0(0.0)	(0.014)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57(11.6)	128(26.0)	161(32.7)	105(21.3)	42(8.5)	-
	시설종사자	400	51(12.8)	108(27.0)	117(29.3)	85(21.3)	39(9.8)	0.167
	청소년전문가	93	6(6.5)	20(21.5)	44(47.3)	20(21.5)	3(3.2)	(0.683)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96(49.0)	116(29.0)	60(15.0)	22(5.5)	6(1.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79(49.1)	44(27.3)	31(19.3)	5(3.1)	2(1.2)	1.702 (0.149)
	경상권	86	48(55.8)	24(27.9)	9(10.5)	5(5.8)	0(0.0)	
	충청권	42	25(59.5)	9(21.4)	5(11.9)	2(4.8)	1(2.4)	
	전라권	41	14(34.1)	19(46.3)	3(7.3)	5(12.2)	0(0.0)	
	강원 제주권	70	30(42.9)	20(28.6)	12(17.1)	5(7.1)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09(51.2)	61(28.6)	28(13.1)	12(5.6)	3(1.4)	0.770 (0.381)
	청소년문화의집	187	87(46.5)	55(29.4)	32(17.1)	10(5.3)	3(1.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7(47.9)	33(27.7)	20(16.8)	6(5.0)	3(2.5)	0.833 (0.505)
	법인	109	51(46.8)	30(27.5)	19(17.4)	7(6.4)	2(1.8)	
	민간위탁	116	56(48.3)	37(31.9)	15(12.9)	8(6.9)	0(0.0)	
	자주체산하공단	51	30(58.8)	14(27.5)	5(9.8)	1(2.0)	1(2.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0(57.1)	5(14.3)	5(14.3)	4(11.4)	1(2.9)	0.108 (0.898)
	간부	119	59(49.6)	35(29.4)	16(13.4)	8(6.7)	1(0.8)	
	일반직원	246	117(47.6)	76(30.9)	39(15.9)	10(4.1)	4(1.6)	
경력별	5년 미만	134	59(44.0)	40(29.9)	27(20.1)	5(3.7)	3(2.2)	1.310 (0.271)
	5~10년 미만	118	62(52.5)	35(29.7)	15(12.7)	6(5.1)	0(0.0)	
	10년 이상	148	75(50.7)	41(27.7)	18(12.2)	11(7.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3(57.0)	30(32.3)	9(9.7)	1(1.1)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5(45.5)	14(42.4)	4(12.1)	0(0.0)	0(0.0)	0.383 (0.537)
	비수도권	60	38(63.3)	16(26.7)	5(8.3)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8(56.0)	18(36.0)	4(8.0)	0(0.0)	0(0.0)	0.169 (0.682)
	공공기관/법인	43	25(58.1)	12(27.9)	5(11.6)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0(56.6)	18(34.0)	5(9.4)	0(0.0)	0(0.0)	0.096 (0.757)
	연구/사업직	40	23(57.5)	12(30.0)	4(10.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 (62.7%)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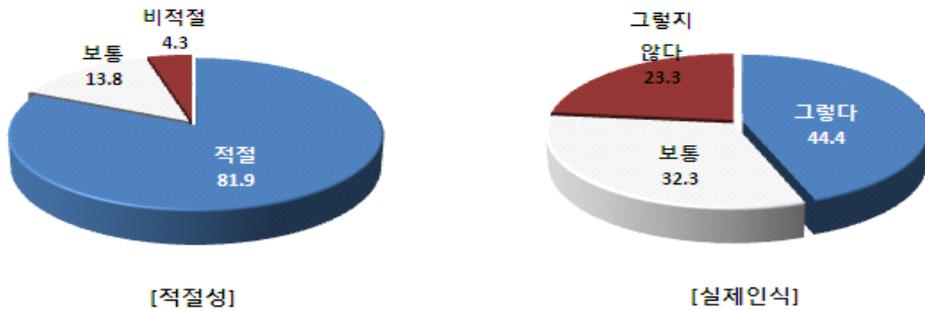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51(12.8)	108(27.0)	117(29.3)	85(21.3)	39(9.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3(14.3)	54(33.5)	44(27.3)	28(17.4)	12(7.5)	1.864 (0.116)
	경상권	86	10(11.6)	24(27.9)	24(27.9)	18(20.9)	10(11.6)	
	충청권	42	6(14.3)	5(11.9)	18(42.9)	11(26.2)	2(4.8)	
	전라권	41	4(9.8)	8(19.5)	14(34.1)	9(22.0)	6(14.6)	
	강원 제주권	70	8(11.4)	17(24.3)	17(24.3)	19(27.1)	9(1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27(12.7)	56(26.3)	66(31.0)	42(19.7)	22(10.3)	0.008 (0.930)
	청소년문화의집	187	24(12.8)	52(27.8)	51(27.3)	43(23.0)	17(9.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4(11.8)	22(18.5)	34(28.6)	30(25.2)	19(16.0)	5.274*** (0.000)
	법인	109	13(11.9)	30(27.5)	35(32.1)	19(17.4)	12(11.0)	
	민간위탁	116	11(9.5)	37(31.9)	33(28.4)	29(25.0)	6(5.2)	
	지자체산하공단	51	13(25.5)	19(37.3)	12(23.5)	5(9.8)	2(3.9)	
	기타	5	0(0.0)	0(0.0)	3(60.0)	2(40.0)	0(0.0)	
직위별	관장	35	3(8.6)	12(34.3)	9(25.7)	9(25.7)	2(5.7)	0.490 (0.613)
	간부	119	14(11.8)	36(30.3)	35(29.4)	28(23.5)	6(5.0)	
	일반직원	246	34(13.8)	60(24.4)	73(29.7)	48(19.5)	31(12.6)	
경력별	5년 미만	134	19(14.2)	32(23.9)	42(31.3)	28(20.9)	13(9.7)	0.028 (0.972)
	5~10년 미만	118	14(11.9)	33(28.0)	37(31.4)	23(19.5)	11(9.3)	
	10년 이상	148	18(12.2)	43(29.1)	38(25.7)	34(23.0)	15(10.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6.5)	20(21.5)	44(47.3)	20(21.5)	3(3.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6(18.2)	12(36.4)	12(36.4)	1(3.0)	1.462 (0.227)
	비수도권	60	4(6.7)	14(23.3)	32(53.3)	8(13.3)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0(20.0)	22(44.0)	13(26.0)	1(2.0)	0.003 (0.959)
	공공기관/법인	43	2(4.7)	10(23.3)	22(51.2)	7(16.3)	2(4.7)	
직무별	교수직	53	4(7.5)	10(18.9)	25(47.2)	13(24.5)	1(1.9)	0.009 (0.923)
	연구/사업직	40	2(5.0)	10(25.0)	19(47.5)	7(17.5)	2(5.0)	

\*p<.05, \*\*p<.01, \*\*\*p<.001

### ③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1.9%(매우: 54.2% + 조금: 2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4.4%(매우: 16.6% + 조금: 27.8%)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4.9%)가 시설종사자(8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7.5%)가 청소년전문가(31.2%)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4]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

표 IV-62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67(54.2)	137(27.8)	68(13.8)	15(3.0)	6(1.2)	-
	시설종사자	400	217(54.3)	108(27.0)	60(15.0)	10(2.5)	5(1.3)	0.004
	청소년전문가	93	50(53.8)	29(31.2)	8(8.6)	5(5.4)	1(1.1)	(0.948)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82(16.6)	137(27.8)	159(32.3)	77(15.6)	38(7.7)	-
	시설종사자	400	77(19.3)	113(28.3)	117(29.3)	58(14.5)	35(8.8)	3.612
	청소년전문가	93	5(5.4)	24(25.8)	42(45.2)	19(20.4)	3(3.2)	(0.058)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97.1%)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3 운영주체 선정의 적절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17(54.3)	108(27.0)	60(15.0)	10(2.5)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0(55.9)	42(26.1)	26(16.1)	3(1.9)	0(0.0)	0.593 (0.668)
	경상권	86	49(57.0)	22(25.6)	12(14.0)	2(2.3)	1(1.2)	
	충청권	42	25(59.5)	9(21.4)	4(9.5)	3(7.1)	1(2.4)	
	전라권	41	15(36.6)	19(46.3)	7(17.1)	0(0.0)	0(0.0)	
	강원 제주권	70	38(54.3)	16(22.9)	11(15.7)	2(2.9)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17(54.9)	63(29.6)	26(12.2)	5(2.3)	2(0.9)	1.243
	청소년문화의집	187	100(53.5)	45(24.1)	34(18.2)	5(2.7)	3(1.6)	(0.26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9(49.6)	30(25.2)	22(18.5)	4(3.4)	4(3.4)	1.975 (0.098)
	법인	109	61(56.0)	32(29.4)	13(11.9)	2(1.8)	1(0.9)	
	민간위탁	116	66(56.9)	33(28.4)	16(13.8)	1(0.9)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29(56.9)	12(23.5)	8(15.7)	2(3.9)	0(0.0)	
	기타	5	2(40.0)	1(2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24(68.6)	10(28.6)	1(2.9)	0(0.0)	0(0.0)	4.035* (0.018)
	간부	119	67(56.3)	33(27.7)	16(13.4)	2(1.7)	1(0.8)	
	일반직원	246	126(51.2)	65(26.4)	43(17.5)	8(3.3)	4(1.6)	
경력별	5년 미만	134	68(50.7)	33(24.6)	26(19.4)	6(4.5)	1(0.7)	1.405 (0.247)
	5~10년 미만	118	65(55.1)	34(28.8)	18(15.3)	1(0.8)	0(0.0)	
	10년 이상	148	84(56.8)	41(27.7)	16(10.8)	3(2.0)	4(2.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0(53.8)	29(31.2)	8(8.6)	5(5.4)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6(48.5)	13(39.4)	2(6.1)	1(3.0)	1(3.0)	0.049
	비수도권	60	34(56.7)	16(26.7)	6(10.0)	4(6.7)	0(0.0)	(0.826)
소속 직장별	대학	50	26(52.0)	18(36.0)	2(4.0)	3(6.0)	1(2.0)	0.018
	공공기관/법인	43	24(55.8)	11(25.6)	6(14.0)	2(4.7)	0(0.0)	(0.895)
직무별	교수직	53	28(52.8)	18(34.0)	2(3.8)	4(7.5)	1(1.9)	0.120
	연구/사업직	40	22(55.0)	11(27.5)	6(15.0)	1(2.5)	0(0.0)	(0.73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54.0%) 지역, 지자체산하공단(64.7%) 주체별,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65.7%)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직위에 따라 1% 수준에서,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4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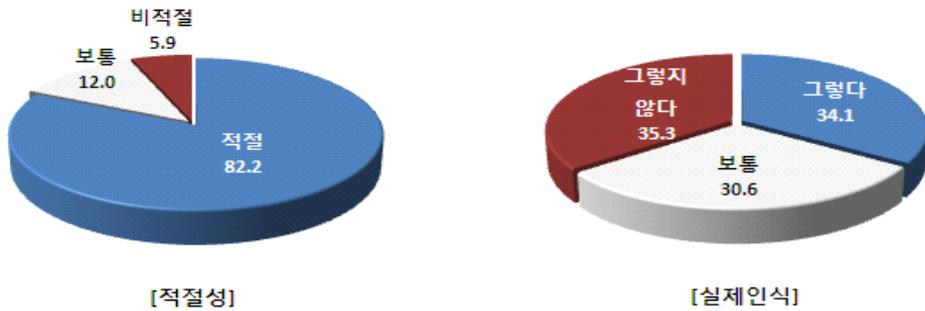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77(19.3)	113(28.3)	117(29.3)	58(14.5)	35(8.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9(24.2)	48(29.8)	41(25.5)	21(13.0)	12(7.5)	3.460** (0.009)
	경상권	86	18(20.9)	27(31.4)	24(27.9)	11(12.8)	6(7.0)	
	충청권	42	7(16.7)	10(23.8)	12(28.6)	8(19.0)	5(11.9)	
	전라권	41	6(14.6)	13(31.7)	16(39.0)	4(9.8)	2(4.9)	
	강원 제주권	70	7(10.0)	15(21.4)	24(34.3)	14(20.0)	10(1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42(19.7)	63(29.6)	60(28.2)	29(13.6)	19(8.9)	0.251 (0.617)
	청소년문화의집	187	35(18.7)	50(26.7)	57(30.5)	29(15.5)	16(8.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4(11.8)	28(23.5)	31(26.1)	26(21.8)	20(16.8)	7.161*** (0.000)
	법인	109	22(20.2)	36(33.0)	33(30.3)	11(10.1)	7(6.4)	
	민간위탁	116	25(21.6)	31(26.7)	39(33.6)	15(12.9)	6(5.2)	
	지자체산하공단	51	15(29.4)	18(35.3)	12(23.5)	5(9.8)	1(2.0)	
	기타	5	1(20.0)	0(0.0)	2(40.0)	1(20.0)	1(20.0)	
직위별	관장	35	10(28.6)	13(37.1)	8(22.9)	4(11.4)	0(0.0)	7.570** (0.001)
	간부	119	27(22.7)	34(28.6)	41(34.5)	13(10.9)	4(3.4)	
	일반직원	246	40(16.3)	66(26.8)	68(27.6)	41(16.7)	31(12.6)	
경력별	5년 미만	134	25(18.7)	32(23.9)	41(30.6)	26(19.4)	10(7.5)	0.439 (0.645)
	5~10년 미만	118	23(19.5)	35(29.7)	35(29.7)	14(11.9)	11(9.3)	
	10년 이상	148	29(19.6)	46(31.1)	41(27.7)	18(12.2)	14(9.5)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4)	24(25.8)	42(45.2)	19(20.4)	3(3.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7(21.2)	16(48.5)	7(21.2)	2(6.1)	3.505 (0.062)
	비수도권	60	4(6.7)	17(28.3)	26(43.3)	12(20.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3(26.0)	19(38.0)	13(26.0)	1(2.0)	0.072 (0.790)
	공공기관/법인	43	1(2.3)	11(25.6)	23(53.5)	6(14.0)	2(4.7)	
직무별	교수직	53	4(7.5)	13(24.5)	22(41.5)	13(24.5)	1(1.9)	0.041 (0.840)
	연구/사업직	40	1(2.5)	11(27.5)	20(50.0)	6(15.0)	2(5.0)	

\*p<.05, \*\*p<.01, \*\*\*p<.001

④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지자체는 인적·물적자원을 준비도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2.2%(매우: 54.8% + 조금: 27.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34.1%(매우: 12.4% + 조금: 21.7%)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9.2%)가 시설종사자(8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35.8%)가 청소년전문가(26.9%)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표 IV-6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70(54.8)	135(27.4)	59(12.0)	25(5.1)	4(0.8)	-
	시설종사자	400	214(53.5)	108(27.0)	52(13.0)	22(5.5)	4(1.0)	3.461
	청소년전문가	93	56(60.2)	27(29.0)	7(7.5)	3(3.2)	0(0.0)	(0.063)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61(12.4)	107(21.7)	151(30.6)	126(25.6)	48(9.7)	-
	시설종사자	400	56(14.0)	87(21.8)	120(30.0)	91(22.8)	46(11.5)	1.038
	청소년전문가	93	5(5.4)	20(21.5)	31(33.3)	35(37.6)	2(2.2)	(0.309)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14(53.5)	108(27.0)	52(13.0)	22(5.5)	4(1.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88(54.7)	48(29.8)	17(10.6)	7(4.3)	1(0.6)	1.053 (0.379)
	경상권	86	46(53.5)	22(25.6)	13(15.1)	4(4.7)	1(1.2)	
	충청권	42	25(59.5)	10(23.8)	5(11.9)	2(4.8)	0(0.0)	
	전라권	41	18(43.9)	16(39.0)	5(12.2)	1(2.4)	1(2.4)	
	강원·제주권	70	37(52.9)	12(17.1)	12(17.1)	8(11.4)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15(54.0)	62(29.1)	27(12.7)	7(3.3)	2(0.9)	1.480 (0.224)
	청소년문화의집	187	99(52.9)	46(24.6)	25(13.4)	15(8.0)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7(47.9)	33(27.7)	20(16.8)	7(5.9)	2(1.7)	0.776 (0.542)
	법인	109	62(56.9)	25(22.9)	15(13.8)	5(4.6)	2(1.8)	
	민간위탁	116	63(54.3)	35(30.2)	12(10.3)	6(5.2)	0(0.0)	
	자주체산하공단	51	30(58.8)	13(25.5)	4(7.8)	4(7.8)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9(25.7)	3(8.6)	1(2.9)	1(2.9)	0.644 (0.526)
	간부	119	67(56.3)	31(26.1)	14(11.8)	6(5.0)	1(0.8)	
	일반직원	246	126(51.2)	68(27.6)	35(14.2)	15(6.1)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68(50.7)	39(29.1)	17(12.7)	10(7.5)	0(0.0)	0.130 (0.878)
	5~10년 미만	118	64(54.2)	31(26.3)	16(13.6)	7(5.9)	0(0.0)	
	10년 이상	148	82(55.4)	38(25.7)	19(12.8)	5(3.4)	4(2.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6(60.2)	27(29.0)	7(7.5)	3(3.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8(54.5)	11(33.3)	4(12.1)	0(0.0)	0(0.0)	0.616 (0.433)
	비수도권	60	38(63.3)	16(26.7)	3(5.0)	3(5.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1(62.0)	12(24.0)	5(10.0)	2(4.0)	0(0.0)	0.089 (0.766)
	공공기관/법인	43	25(58.1)	15(34.9)	2(4.7)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33(62.3)	13(24.5)	5(9.4)	2(3.8)	0(0.0)	0.019 (0.892)
	연구/사업직	40	23(57.5)	14(35.0)	2(5.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52.9%)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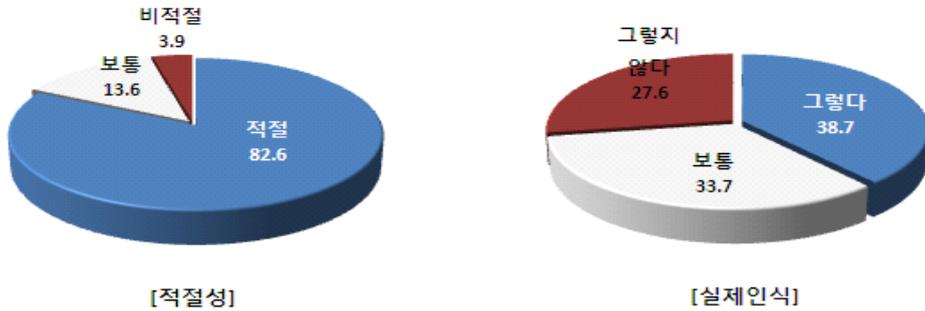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56(14.0)	87(21.8)	120(30.0)	91(22.8)	46(11.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6(16.1)	41(25.5)	44(27.3)	30(18.6)	20(12.4)	1.279 (0.277)
	경상권	86	16(18.6)	18(20.9)	25(29.1)	17(19.8)	10(11.6)	
	충청권	42	5(11.9)	5(11.9)	14(33.3)	14(33.3)	4(9.5)	
	전라권	41	2(4.9)	8(19.5)	17(41.5)	9(22.0)	5(12.2)	
	강원·제주권	70	7(10.0)	15(21.4)	20(28.6)	21(30.0)	7(1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0(14.1)	43(20.2)	64(30.0)	50(23.5)	26(12.2)	0.387 (0.534)
	청소년문화의집	187	26(13.9)	44(23.5)	56(29.9)	41(21.9)	20(10.7)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4(11.8)	24(20.2)	32(26.9)	32(26.9)	17(14.3)	4.422** (0.002)
	법인	109	16(14.7)	23(21.1)	37(33.9)	25(22.9)	8(7.3)	
	민간위탁	116	11(9.5)	27(23.3)	31(26.7)	29(25.0)	18(15.5)	
	지자체산하공단	51	14(27.5)	13(25.5)	17(33.3)	5(9.8)	2(3.9)	
	기타	5	1(20.0)	0(0.0)	3(60.0)	0(0.0)	1(20.0)	
직위별	관장	35	3(8.6)	13(37.1)	8(22.9)	9(25.7)	2(5.7)	0.257 (0.774)
	간부	119	18(15.1)	25(21.0)	33(27.7)	31(26.1)	12(10.1)	
	일반직원	246	35(14.2)	49(19.9)	79(32.1)	51(20.7)	32(13.0)	
경력별	5년 미만	134	20(14.9)	30(22.4)	38(28.4)	32(23.9)	14(10.4)	0.290 (0.749)
	5~10년 미만	118	16(13.6)	25(21.2)	40(33.9)	26(22.0)	11(9.3)	
	10년 이상	148	20(13.5)	32(21.6)	42(28.4)	33(22.3)	21(14.2)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4)	20(21.5)	31(33.3)	35(37.6)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4(12.1)	12(36.4)	14(42.4)	1(3.0)	1.716 (0.191)
	비수도권	60	3(5.0)	16(26.7)	19(31.7)	21(35.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5(10.0)	10(20.0)	13(26.0)	21(42.0)	1(2.0)	0.162 (0.688)
	공공기관/법인	43	0(0.0)	10(23.3)	18(41.9)	14(32.6)	1(2.3)	
직무별	교수직	53	5(9.4)	10(18.9)	16(30.2)	21(39.6)	1(1.9)	0.221 (0.640)
	연구/사업직	40	0(0.0)	10(25.0)	15(37.5)	14(35.0)	1(2.5)	

\*p<.05, \*\*p<.01, \*\*\*p<.001

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2.6%(매우: 51.3% + 조금: 3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38.7%(매우: 12.6% + 조금: 26.2%)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8.2%)가 시설종사자(8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2.3%)가 청소년전문가(23.7%)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표 IV-6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53(51.3)	154(31.2)	67(13.6)	15(3.0)	4(0.8)	-
	시설종사자	400	201(50.3)	124(31.0)	58(14.5)	13(3.3)	4(1.0)	2.450 (0.118)
	청소년전문가	93	52(55.9)	30(32.3)	9(9.7)	2(2.2)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62(12.6)	129(26.2)	166(33.7)	104(21.1)	32(6.5)	-
	시설종사자	400	58(14.5)	111(27.8)	125(31.3)	79(19.8)	27(6.8)	6.959** (0.009)
	청소년전문가	93	4(4.3)	18(19.4)	41(44.1)	25(26.9)	5(5.4)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01(50.3)	124(31.0)	58(14.5)	13(3.3)	4(1.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84(52.2)	53(32.9)	18(11.2)	6(3.7)	0(0.0)	0.841 (0.500)
	경상권	86	42(48.8)	24(27.9)	17(19.8)	2(2.3)	1(1.2)	
	충청권	42	24(57.1)	11(26.2)	5(11.9)	2(4.8)	0(0.0)	
	전라권	41	16(39.0)	17(41.5)	6(14.6)	1(2.4)	1(2.4)	
	강원 제주권	70	35(50.0)	19(27.1)	12(17.1)	2(2.9)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13(53.1)	64(30.0)	28(13.1)	6(2.8)	2(0.9)	1.544 (0.215)
	청소년문화의집	187	88(47.1)	60(32.1)	30(16.0)	7(3.7)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5(46.2)	35(29.4)	23(19.3)	3(2.5)	3(2.5)	1.585 (0.177)
	법인	109	58(53.2)	35(32.1)	12(11.0)	3(2.8)	1(0.9)	
	민간위탁	116	59(50.9)	37(31.9)	18(15.5)	2(1.7)	0(0.0)	
	자주체산하공단	51	28(54.9)	15(29.4)	4(7.8)	4(7.8)	0(0.0)	
	기타	5	1(20.0)	2(4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23(65.7)	7(20.0)	3(8.6)	1(2.9)	1(2.9)	1.549 (0.214)
	간부	119	59(49.6)	44(37.0)	13(10.9)	3(2.5)	0(0.0)	
	일반직원	246	119(48.4)	73(29.7)	42(17.1)	9(3.7)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61(45.5)	41(30.6)	26(19.4)	6(4.5)	0(0.0)	1.460 (0.234)
	5~10년 미만	118	64(54.2)	37(31.4)	14(11.9)	2(1.7)	1(0.8)	
	10년 이상	148	76(51.4)	46(31.1)	18(12.2)	5(3.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2(55.9)	30(32.3)	9(9.7)	2(2.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0(60.6)	9(27.3)	4(12.1)	0(0.0)	0(0.0)	1.732 (0.189)
	비수도권	60	32(53.3)	21(35.0)	5(8.3)	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7(54.0)	16(32.0)	6(12.0)	1(2.0)	0(0.0)	0.290 (0.591)
	공공기관/법인	43	25(58.1)	14(32.6)	3(7.0)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29(54.7)	16(30.2)	7(13.2)	1(1.9)	0(0.0)	0.377 (0.541)
	연구/사업직	40	23(57.5)	14(35.0)	2(5.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60.8%)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25.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0**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58(14.5)	111(27.8)	125(31.3)	79(19.8)	27(6.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9(18.0)	54(33.5)	39(24.2)	30(18.6)	9(5.6)	1.812 (0.126)
	경상권	86	13(15.1)	23(26.7)	26(30.2)	18(20.9)	6(7.0)	
	충청권	42	6(14.3)	9(21.4)	16(38.1)	9(21.4)	2(4.8)	
	전라권	41	4(9.8)	11(26.8)	13(31.7)	8(19.5)	5(12.2)	
	강원 제주권	70	6(8.6)	14(20.0)	31(44.3)	14(20.0)	5(7.1)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1(14.6)	59(27.7)	64(30.0)	43(20.2)	16(7.5)	0.129 (0.719)
	청소년문화의집	187	27(14.4)	52(27.8)	61(32.6)	36(19.3)	11(5.9)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2(10.1)	22(18.5)	44(37.0)	29(24.4)	12(10.1)	5.175*** (0.000)
	법인	109	18(16.5)	37(33.9)	30(27.5)	20(18.3)	4(3.7)	
	민간위탁	116	14(12.1)	34(29.3)	38(32.8)	20(17.2)	10(8.6)	
	지자체산하공단	51	14(27.5)	17(33.3)	11(21.6)	8(15.7)	1(2.0)	
	기타	5	0(0.0)	1(20.0)	2(40.0)	2(40.0)	0(0.0)	
직위별	관장	35	6(17.1)	14(40.0)	11(31.4)	2(5.7)	2(5.7)	2.814 (0.061)
	간부	119	18(15.1)	38(31.9)	34(28.6)	23(19.3)	6(5.0)	
	일반직원	246	34(13.8)	59(24.0)	80(32.5)	54(22.0)	19(7.7)	
경력별	5년 미만	134	17(12.7)	33(24.6)	44(32.8)	31(23.1)	9(6.7)	1.438 (0.239)
	5~10년 미만	118	21(17.8)	34(28.8)	36(30.5)	22(18.6)	5(4.2)	
	10년 이상	148	20(13.5)	44(29.7)	45(30.4)	26(17.6)	13(8.8)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4.3)	18(19.4)	41(44.1)	25(26.9)	5(5.4)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5(15.2)	12(36.4)	12(36.4)	2(6.1)	4.359* (0.037)
	비수도권	60	2(3.3)	13(21.7)	29(48.3)	13(21.7)	3(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2(24.0)	14(28.0)	17(34.0)	3(6.0)	0.171 (0.681)
	공공기관/법인	43	0(0.0)	6(14.0)	27(62.8)	8(18.6)	2(4.7)	
직무별	교수직	53	4(7.5)	12(22.6)	17(32.1)	17(32.1)	3(5.7)	0.232 (0.631)
	연구/사업직	40	0(0.0)	6(15.0)	24(60.0)	8(20.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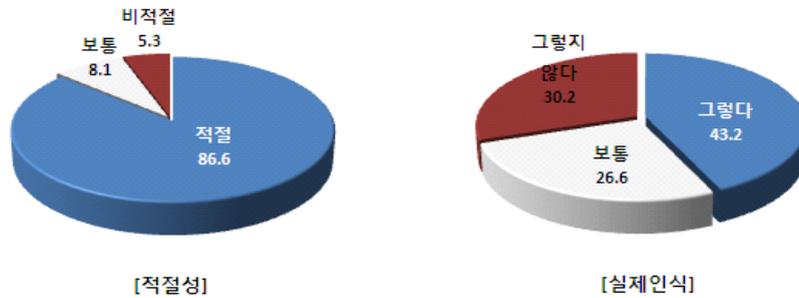
\*p<.05, \*\*p<.01, \*\*\*p<.001

(2) 개방성 영역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접근성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6.6% (매우: 65.7% + 조금: 2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3.2%(매우: 16.0% + 조금: 27.2%)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91.4%)가 시설종사자(85.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6.3%)가 청소년전문가(30.1%)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2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표 IV-7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절성	전체	493	324(65.7)	103(20.9)	40(8.1)	15(3.0)	11(2.2)	-
	시설종사자	400	257(64.3)	85(21.3)	34(8.5)	13(3.3)	11(2.8)	3.625
	청소년전문가	93	67(72.0)	18(19.4)	6(6.5)	2(2.2)	0(0.0)	(0.058)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인식	전체	493	79(16.0)	134(27.2)	131(26.6)	103(20.9)	46(9.3)	-
	시설종사자	400	74(18.5)	111(27.8)	96(24.0)	76(19.0)	43(10.8)	3.054
	청소년전문가	93	5(5.4)	23(24.7)	35(37.6)	27(29.0)	3(3.2)	(0.08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57(64.3)	85(21.3)	34(8.5)	13(3.3)	11(2.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3(64.0)	37(23.0)	13(8.1)	5(3.1)	3(1.9)	0.644 (0.631)
	경상권	86	53(61.6)	19(22.1)	8(9.3)	2(2.3)	4(4.7)	
	충청권	42	28(66.7)	9(21.4)	4(9.5)	1(2.4)	0(0.0)	
	전라권	41	29(70.7)	6(14.6)	4(9.8)	2(4.9)	0(0.0)	
	강원 제주권	70	44(62.9)	14(20.0)	5(7.1)	3(4.3)	4(5.7)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0(65.7)	45(21.1)	17(8.0)	4(1.9)	7(3.3)	0.475 (0.491)
	청소년문화의집	187	117(62.6)	40(21.4)	17(9.1)	9(4.8)	4(2.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1(59.7)	29(24.4)	12(10.1)	2(1.7)	5(4.2)	0.484 (0.748)
	법인	109	73(67.0)	18(16.5)	11(10.1)	4(3.7)	3(2.8)	
	민간위탁	116	79(68.1)	24(20.7)	7(6.0)	4(3.4)	2(1.7)	
	자주체산하공단	51	31(60.8)	13(25.5)	4(7.8)	2(3.9)	1(2.0)	
	기타	5	3(60.0)	1(20.0)	0(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27(77.1)	3(8.6)	3(8.6)	1(2.9)	1(2.9)	0.577 (0.562)
	간부	119	78(65.5)	24(20.2)	10(8.4)	6(5.0)	1(0.8)	
	일반직원	246	152(61.8)	58(23.6)	21(8.5)	6(2.4)	9(3.7)	
경력별	5년 미만	134	79(59.0)	30(22.4)	17(12.7)	4(3.0)	4(3.0)	1.387 (0.251)
	5~10년 미만	118	83(70.3)	22(18.6)	7(5.9)	3(2.5)	3(2.5)	
	10년 이상	148	95(64.2)	33(22.3)	10(6.8)	6(4.1)	4(2.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7(72.0)	18(19.4)	6(6.5)	2(2.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2(66.7)	9(27.3)	2(6.1)	0(0.0)	0(0.0)	1.022 (0.313)
	비수도권	60	45(75.0)	9(15.0)	4(6.7)	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7(74.0)	9(18.0)	4(8.0)	0(0.0)	0(0.0)	0.476 (0.492)
	공공기관/법인	43	30(69.8)	9(20.9)	2(4.7)	2(4.7)	0(0.0)	
직무별	교수직	53	39(73.6)	10(18.9)	4(7.5)	0(0.0)	0(0.0)	0.552 (0.459)
	연구/사업직	40	28(70.0)	8(20.0)	2(5.0)	2(5.0)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8.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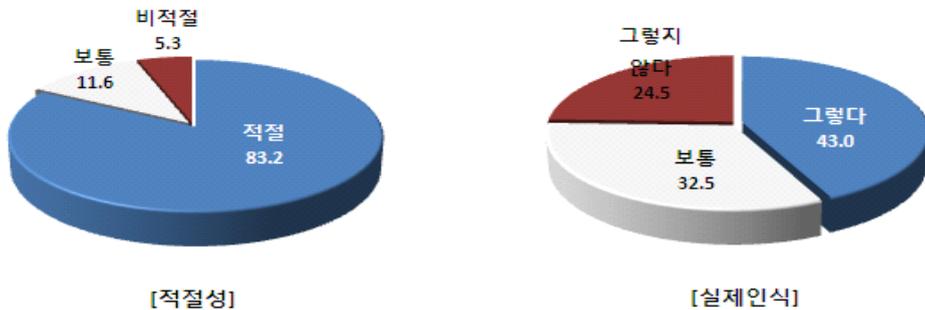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74(18.5)	111(27.8)	96(24.0)	76(19.0)	43(10.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0(18.6)	48(29.8)	37(23.0)	31(19.3)	15(9.3)	0.348 (0.845)
	경상권	86	14(16.3)	30(34.9)	18(20.9)	14(16.3)	10(11.6)	
	충청권	42	7(16.7)	9(21.4)	12(28.6)	9(21.4)	5(11.9)	
	전라권	41	10(24.4)	9(22.0)	9(22.0)	9(22.0)	4(9.8)	
	강원 제주권	70	13(18.6)	15(21.4)	20(28.6)	13(18.6)	9(1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3(15.5)	57(26.8)	54(25.4)	43(20.2)	26(12.2)	3.573 (0.059)
	청소년문화의집	187	41(21.9)	54(28.9)	42(22.5)	33(17.6)	17(9.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1(17.6)	32(26.9)	28(23.5)	26(21.8)	12(10.1)	1.427 (0.224)
	법인	109	20(18.3)	26(23.9)	25(22.9)	25(22.9)	13(11.9)	
	민간위탁	116	23(19.8)	33(28.4)	31(26.7)	14(12.1)	15(12.9)	
	지자체산하공단	51	10(19.6)	20(39.2)	10(19.6)	8(15.7)	3(5.9)	
	기타	5	0(0.0)	0(0.0)	2(40.0)	3(60.0)	0(0.0)	
직위별	관장	35	7(20.0)	11(31.4)	5(14.3)	8(22.9)	4(11.4)	0.113 (0.893)
	간부	119	22(18.5)	33(27.7)	31(26.1)	23(19.3)	10(8.4)	
	일반직원	246	45(18.3)	67(27.2)	60(24.4)	45(18.3)	29(11.8)	
경력별	5년 미만	134	22(16.4)	37(27.6)	40(29.9)	19(14.2)	16(11.9)	0.747 (0.475)
	5~10년 미만	118	29(24.6)	32(27.1)	21(17.8)	24(20.3)	12(10.2)	
	10년 이상	148	23(15.5)	42(28.4)	35(23.6)	33(22.3)	15(10.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4)	23(24.7)	35(37.6)	27(29.0)	3(3.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3(9.1)	14(42.4)	13(39.4)	1(3.0)	4.710* (0.030)
	비수도권	60	3(5.0)	20(33.3)	21(35.0)	14(23.3)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2(24.0)	15(30.0)	18(36.0)	1(2.0)	0.000 (1.000)
	공공기관/법인	43	1(2.3)	11(25.6)	20(46.5)	9(20.9)	2(4.7)	
직무별	교수직	53	7(7.5)	13(24.5)	16(30.2)	19(35.8)	1(1.9)	0.000 (1.000)
	연구/사업직	40	1(2.5)	10(25.0)	19(47.5)	8(20.0)	2(5.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에 지역의견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3.2%(매우: 52.1% + 조금: 31.0%)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3.0%(매우: 13.4% + 조금: 29.6%)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4.9%)가 시설종사자(82.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7.5%)가 청소년전문가(23.7%)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8]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견 반영(%)

표 IV-74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견 반영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57(52.1)	153(31.0)	57(11.6)	22(4.5)	4(0.8)	-
	시설종사자	400	209(52.3)	122(30.5)	47(11.8)	18(4.5)	4(1.0)	0.132 (0.716)
	청소년전문가	93	48(51.6)	31(33.3)	10(10.8)	4(4.3)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66(13.4)	146(29.6)	160(32.5)	89(18.1)	32(6.5)	-
	시설종사자	400	63(15.8)	127(31.8)	120(30.0)	66(16.5)	24(6.0)	15.938*** (0.000)
	청소년전문가	93	3(3.2)	19(20.4)	40(43.0)	23(24.7)	8(8.6)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5~10년 미만(90.7%)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경력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5**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의견 반영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09(52.3)	122(30.5)	47(11.8)	18(4.5)	4(1.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2(57.1)	50(31.1)	15(9.3)	4(2.5)	0(0.0)	1.753 (0.138)
	경상권	86	46(53.5)	20(23.3)	14(16.3)	4(4.7)	2(2.3)	
	충청권	42	19(45.2)	16(38.1)	3(7.1)	4(9.5)	0(0.0)	
	전라권	41	16(39.0)	17(41.5)	5(12.2)	3(7.3)	0(0.0)	
	강원 제주권	70	36(51.4)	19(27.1)	10(14.3)	3(4.3)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1(56.8)	63(29.6)	17(8.0)	9(4.2)	3(1.4)	3.227 (0.073)
	청소년문화의집	187	88(47.1)	59(31.6)	30(16.0)	9(4.8)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3(44.5)	41(34.5)	20(16.8)	2(1.7)	3(2.5)	1.359 (0.247)
	법인	109	64(58.7)	29(26.6)	11(10.1)	5(4.6)	0(0.0)	
	민간위탁	116	60(51.7)	37(31.9)	12(10.3)	6(5.2)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0(58.8)	14(27.5)	3(5.9)	4(7.8)	0(0.0)	
	기타	5	2(40.0)	1(2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10(28.6)	2(5.7)	2(5.7)	0(0.0)	1.696 (0.185)
	간부	119	61(51.3)	45(37.8)	10(8.4)	3(2.5)	0(0.0)	
	일반직원	246	127(51.6)	67(27.2)	35(14.2)	13(5.3)	4(1.6)	
경력별	5년 미만	134	63(47.0)	34(25.4)	28(20.9)	8(6.0)	1(0.7)	4.224* (0.015)
	5~10년 미만	118	70(59.3)	37(31.4)	6(5.1)	4(3.4)	1(0.8)	
	10년 이상	148	76(51.4)	51(34.5)	13(8.8)	6(4.1)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8(51.6)	31(33.3)	10(10.8)	4(4.3)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5(45.5)	13(39.4)	3(9.1)	2(6.1)	0(0.0)	0.108 (0.742)
	비수도권	60	33(55.0)	18(30.0)	7(11.7)	2(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8(56.0)	16(32.0)	3(6.0)	3(6.0)	0(0.0)	0.507 (0.478)
	공공기관/법인	43	20(46.5)	15(34.9)	7(16.3)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29(54.7)	17(32.1)	4(7.5)	3(5.7)	0(0.0)	0.225 (0.636)
	연구/사업직	40	19(47.5)	14(35.0)	6(15.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5~10년 미만(55.9%)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25.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경력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6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의견 반영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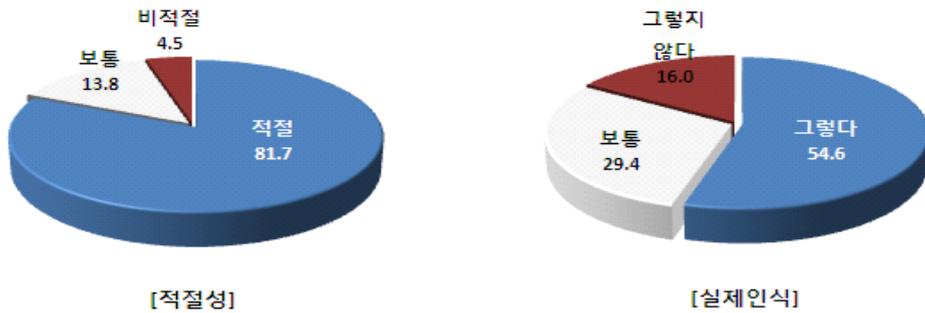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63(15.8)	127(31.8)	120(30.0)	66(16.5)	24(6.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9(18.0)	63(39.1)	36(22.4)	28(17.4)	5(3.1)	2.007 (0.093)
	경상권	86	17(19.8)	18(20.9)	34(39.5)	11(12.8)	6(7.0)	
	충청권	42	5(11.9)	15(35.7)	12(28.6)	7(16.7)	3(7.1)	
	전라권	41	3(7.3)	10(24.4)	19(46.3)	6(14.6)	3(7.3)	
	강원 제주권	70	9(12.9)	21(30.0)	19(27.1)	14(20.0)	7(1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8(17.8)	66(31.0)	55(25.8)	39(18.3)	15(7.0)	0.008 (0.927)
	청소년문화의집	187	25(13.4)	61(32.6)	65(34.8)	27(14.4)	9(4.8)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5(12.6)	32(26.9)	40(33.6)	22(18.5)	10(8.4)	2.391 (0.050)
	법인	109	18(16.5)	39(35.8)	26(23.9)	22(20.2)	4(3.7)	
	민간위탁	116	17(14.7)	37(31.9)	38(32.8)	17(14.7)	7(6.0)	
	자주체산하공단	51	12(23.5)	19(37.3)	14(27.5)	4(7.8)	2(3.9)	
	기타	5	1(20.0)	0(0.0)	2(40.0)	1(20.0)	1(20.0)	
직위별	관장	35	8(22.9)	13(37.1)	7(20.0)	5(14.3)	2(5.7)	0.973 (0.379)
	간부	119	16(13.4)	43(36.1)	35(29.4)	20(16.8)	5(4.2)	
	일반직원	246	39(15.9)	71(28.9)	78(31.7)	41(16.7)	17(6.9)	
경력별	5년 미만	134	18(13.4)	44(32.8)	43(32.1)	24(17.9)	5(3.7)	3.831* (0.022)
	5~10년 미만	118	25(21.2)	41(34.7)	32(27.1)	15(12.7)	5(4.2)	
	10년 이상	148	20(13.5)	42(28.4)	45(30.4)	27(18.2)	14(9.5)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19(20.4)	40(43.0)	23(24.7)	8(8.6)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6(18.2)	14(42.4)	9(27.3)	3(9.1)	6.408* (0.012)
	비수도권	60	2(3.3)	13(21.7)	26(43.3)	14(23.3)	5(8.3)	
소속 직장별	대학	50	2(4.0)	13(26.0)	18(36.0)	12(24.0)	5(10.0)	0.301 (0.585)
	공공기관/법인	43	1(2.3)	6(14.0)	22(51.2)	11(25.6)	3(7.0)	
직무별	교수직	53	2(3.8)	13(24.5)	20(37.7)	13(24.5)	5(9.4)	0.187 (0.667)
	연구/사업직	40	1(2.5)	6(15.0)	20(50.0)	10(25.0)	3(7.5)	

\*p<.05, \*\*p<.01, \*\*\*p<.001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1.7%(매우: 51.7% + 조금: 30.0%)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4.6%(매우: 19.9% + 조금: 34.7%)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7.1%)가 시설종사자(8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60.0%)가 청소년전문가(31.2%)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9】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표 IV-77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55(51.7)	148(30.0)	68(13.8)	17(3.4)	5(1.0)	-
	시설종사자	400	206(51.5)	116(29.0)	59(14.8)	14(3.5)	5(1.3)	1.042 (0.308)
	청소년전문가	93	49(52.7)	32(34.4)	9(9.7)	3(3.2)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98(19.9)	171(34.7)	145(29.4)	63(12.8)	16(3.2)	-
	시설종사자	400	93(23.3)	147(36.8)	108(27.0)	37(9.3)	15(3.8)	26.055*** (0.000)
	청소년전문가	93	5(5.4)	24(25.8)	37(39.8)	26(28.0)	1(1.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8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06(51.5)	116(29.0)	59(14.8)	14(3.5)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82(50.9)	48(29.8)	24(14.9)	4(2.5)	3(1.9)	0.589 (0.671)
	경상권	86	44(51.2)	28(32.6)	11(12.8)	2(2.3)	1(1.2)	
	충청권	42	25(59.5)	10(23.8)	6(14.3)	1(2.4)	0(0.0)	
	전라권	41	20(48.8)	12(29.3)	8(19.5)	1(2.4)	0(0.0)	
	강원 제주권	70	35(50.0)	18(25.7)	10(14.3)	6(8.6)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11(52.1)	60(28.2)	30(14.1)	8(3.8)	4(1.9)	0.067 (0.796)
	청소년문화의집	187	95(50.8)	56(29.9)	29(15.5)	6(3.2)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7(47.9)	41(34.5)	17(14.3)	4(3.4)	0(0.0)	1.240 (0.293)
	법인	109	60(55.0)	23(21.1)	20(18.3)	4(3.7)	2(1.8)	
	민간위탁	116	59(50.9)	37(31.9)	15(12.9)	2(1.7)	3(2.6)	
	자주체산하공단	51	29(56.9)	14(27.5)	5(9.8)	3(5.9)	0(0.0)	
	기타	5	1(20.0)	1(2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6(17.1)	7(20.0)	1(2.9)	0(0.0)	0.749 (0.473)
	간부	119	65(54.6)	35(29.4)	13(10.9)	5(4.2)	1(0.8)	
	일반직원	246	120(48.8)	75(30.5)	39(15.9)	8(3.3)	4(1.6)	
경력별	5년 미만	134	66(49.3)	39(29.1)	22(16.4)	7(5.2)	0(0.0)	1.276 (0.280)
	5~10년 미만	118	70(59.3)	29(24.6)	15(12.7)	1(0.8)	3(2.5)	
	10년 이상	148	70(47.3)	48(32.4)	22(14.9)	6(4.1)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9(52.7)	32(34.4)	9(9.7)	3(3.2)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5(45.5)	12(36.4)	4(12.1)	2(6.1)	0(0.0)	0.201 (0.654)
	비수도권	60	34(56.7)	20(33.3)	5(8.3)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8(56.0)	17(34.0)	3(6.0)	2(4.0)	0(0.0)	0.509 (0.477)
	공공기관/법인	43	21(48.8)	15(34.9)	6(14.0)	1(2.3)	0(0.0)	
직무별	교수직	53	29(54.7)	18(34.0)	4(7.5)	2(3.8)	0(0.0)	0.183 (0.670)
	연구/사업직	40	20(50.0)	14(35.0)	5(12.5)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문화의집(63.1%)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6.7%)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9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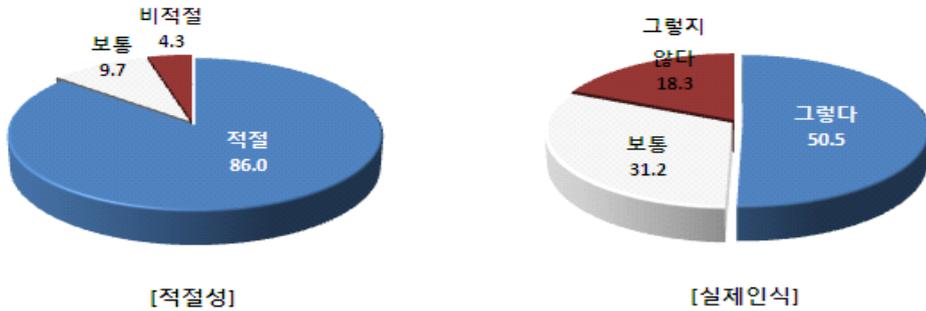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93(23.3)	147(36.8)	108(27.0)	37(9.3)	15(3.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2(26.1)	58(36.0)	41(25.5)	14(8.7)	6(3.7)	0.767 (0.547)
	경상권	86	21(24.4)	30(34.9)	29(33.7)	4(4.7)	2(2.3)	
	충청권	42	7(16.7)	23(54.8)	6(14.3)	3(7.1)	3(7.1)	
	전라권	41	8(19.5)	15(36.6)	12(29.3)	4(9.8)	2(4.9)	
	강원 제주권	70	15(21.4)	21(30.0)	20(28.6)	12(17.1)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9(18.3)	83(39.0)	56(26.3)	23(10.8)	12(5.6)	7.080** (0.008)
	청소년문화의집	187	54(28.9)	64(34.2)	52(27.8)	14(7.5)	3(1.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5(21.0)	39(32.8)	37(31.1)	12(10.1)	6(5.0)	1.892 (0.111)
	법인	109	28(25.7)	41(37.6)	26(23.9)	10(9.2)	4(3.7)	
	민간위탁	116	24(20.7)	45(38.8)	33(28.4)	9(7.8)	5(4.3)	
	지자체산하공단	51	15(29.4)	22(43.1)	10(19.6)	4(7.8)	0(0.0)	
	기타	5	1(20.0)	0(0.0)	2(40.0)	2(40.0)	0(0.0)	
직위별	관장	35	12(34.3)	11(31.4)	9(25.7)	3(8.6)	0(0.0)	2.008 (0.136)
	간부	119	25(21.0)	54(45.4)	28(23.5)	9(7.6)	3(2.5)	
	일반직원	246	56(22.8)	82(33.3)	71(28.9)	25(10.2)	12(4.9)	
경력별	5년 미만	134	35(26.1)	42(31.3)	38(28.4)	16(11.9)	3(2.2)	0.437 (0.646)
	5~10년 미만	118	30(25.4)	47(39.8)	26(22.0)	9(7.6)	6(5.1)	
	10년 이상	148	28(18.9)	58(39.2)	44(29.7)	12(8.1)	6(4.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4)	24(25.8)	37(39.8)	26(28.0)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5(15.2)	16(48.5)	9(27.3)	1(3.0)	12.363*** (0.000)
	비수도권	60	3(5.0)	19(31.7)	21(35.0)	17(28.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5(30.0)	18(36.0)	12(24.0)	1(2.0)	1.818 (0.181)
	공공기관/법인	43	1(2.3)	9(20.9)	19(44.2)	14(32.6)	0(0.0)	
직무별	교수직	53	4(7.5)	15(28.3)	19(35.8)	14(26.4)	1(1.9)	0.701 (0.405)
	연구/사업직	40	1(2.5)	9(22.5)	18(45.0)	12(30.0)	0(0.0)	

\*p<.05, \*\*p<.01, \*\*\*p<.001

④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6.0%(매우: 63.1% + 조금: 22.9%)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0.5%(매우: 17.6% + 조금: 32.9%)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9.2%)가 시설종사자(85.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4.8%)가 청소년전문가(32.3%)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0]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표 IV-80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11(63.1)	113(22.9)	48(9.7)	17(3.4)	4(0.8)	-
	시설종사자	400	251(62.8)	90(22.5)	42(10.5)	13(3.3)	4(1.0)	0.455 (0.500)
	청소년전문가	93	60(64.5)	23(24.7)	6(6.5)	4(4.3)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87(17.6)	162(32.9)	154(31.2)	68(13.8)	22(4.5)	-
	시설종사자	400	83(20.8)	136(34.0)	109(27.3)	50(12.5)	22(5.5)	8.081** (0.005)
	청소년전문가	93	4(4.3)	26(28.0)	45(48.4)	18(19.4)	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8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51(62.8)	90(22.5)	42(10.5)	13(3.3)	4(1.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2(63.4)	37(23.0)	16(9.9)	5(3.1)	1(0.6)	0.113 (0.978)
	경상권	86	53(61.6)	21(24.4)	7(8.1)	3(3.5)	2(2.3)	
	충청권	42	27(64.3)	8(19.0)	6(14.3)	1(2.4)	0(0.0)	
	전라권	41	25(61.0)	10(24.4)	5(12.2)	1(2.4)	0(0.0)	
	강원 제주권	70	44(62.9)	14(20.0)	8(11.4)	3(4.3)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36(63.8)	44(20.7)	23(10.8)	6(2.8)	4(1.9)	0.055 (0.815)
	청소년문화의집	187	115(61.5)	46(24.6)	19(10.2)	7(3.7)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2(60.5)	30(25.2)	13(10.9)	2(1.7)	2(1.7)	0.194 (0.942)
	법인	109	68(62.4)	24(22.0)	11(10.1)	5(4.6)	1(0.9)	
	민간위탁	116	76(65.5)	24(20.7)	12(10.3)	3(2.6)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3(64.7)	10(19.6)	5(9.8)	3(5.9)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5(71.4)	6(17.1)	1(2.9)	3(8.6)	0(0.0)	0.215 (0.807)
	간부	119	71(59.7)	31(26.1)	12(10.1)	4(3.4)	1(0.8)	
	일반직원	246	155(63.0)	53(21.5)	29(11.8)	6(2.4)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84(62.7)	29(21.6)	16(11.9)	4(3.0)	1(0.7)	0.407 (0.666)
	5~10년 미만	118	78(66.1)	25(21.2)	10(8.5)	4(3.4)	1(0.8)	
	10년 이상	148	89(60.1)	36(24.3)	16(10.8)	5(3.4)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0(64.5)	23(24.7)	6(6.5)	4(4.3)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1(63.6)	7(21.2)	2(6.1)	3(9.1)	0(0.0)	0.101 (0.751)
	비수도권	60	39(65.0)	16(26.7)	4(6.7)	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1(62.0)	14(28.0)	4(8.0)	1(2.0)	0(0.0)	0.005 (0.945)
	공공기관/법인	43	29(67.4)	9(20.9)	2(4.7)	3(7.0)	0(0.0)	
직무별	교수직	53	33(62.3)	14(26.4)	4(7.5)	2(3.8)	0(0.0)	0.100 (0.753)
	연구/사업직	40	27(67.5)	9(22.5)	2(5.0)	2(5.0)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8.3%) 지역, 교수직(41.5%)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직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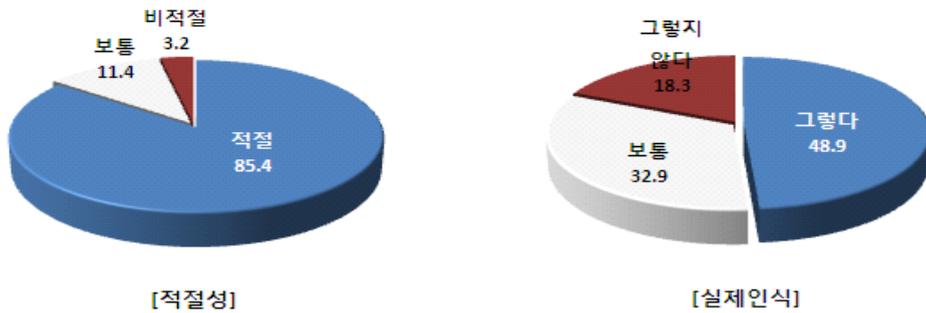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83(20.8)	136(34.0)	109(27.3)	50(12.5)	22(5.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4(21.1)	50(31.1)	48(29.8)	21(13.0)	8(5.0)	0.571 (0.684)
	경상권	86	18(20.9)	33(38.4)	25(29.1)	7(8.1)	3(3.5)	
	충청권	42	9(21.4)	15(35.7)	10(23.8)	5(11.9)	3(7.1)	
	전라권	41	6(14.6)	14(34.1)	12(29.3)	6(14.6)	3(7.3)	
	강원 제주권	70	16(22.9)	24(34.3)	14(20.0)	11(15.7)	5(7.1)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6(16.9)	77(36.2)	56(26.3)	28(13.1)	16(7.5)	3.838 (0.051)
	청소년문화의집	187	47(25.1)	59(31.6)	53(28.3)	22(11.8)	6(3.2)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6(21.8)	35(29.4)	34(28.6)	14(11.8)	10(8.4)	2.110 (0.079)
	법인	109	21(19.3)	36(33.0)	26(23.9)	23(21.1)	3(2.8)	
	민간위탁	116	24(20.7)	41(35.3)	35(30.2)	9(7.8)	7(6.0)	
	지자체산하공단	51	12(23.5)	24(47.1)	10(19.6)	4(7.8)	1(2.0)	
	기타	5	0(0.0)	0(0.0)	4(80.0)	0(0.0)	1(20.0)	
직위별	관장	35	7(20.0)	13(37.1)	7(20.0)	6(17.1)	2(5.7)	0.243 (0.784)
	간부	119	22(18.5)	45(37.8)	36(30.3)	12(10.1)	4(3.4)	
	일반직원	246	54(22.0)	78(31.7)	66(26.8)	32(13.0)	16(6.5)	
경력별	5년 미만	134	35(26.1)	39(29.1)	35(26.1)	18(13.4)	7(5.2)	1.421 (0.243)
	5~10년 미만	118	25(21.2)	47(39.8)	27(22.9)	13(11.0)	6(5.1)	
	10년 이상	148	23(15.5)	50(33.8)	47(31.8)	19(12.8)	9(6.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4.3)	26(28.0)	45(48.4)	18(19.4)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3(9.1)	4(12.1)	16(48.5)	10(30.3)	0(0.0)	6.437* (0.011)
	비수도권	60	1(1.7)	22(36.7)	29(48.3)	8(13.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7(34.0)	20(40.0)	9(18.0)	0(0.0)	3.925 (0.051)
	공공기관/법인	43	0(0.0)	9(20.9)	25(58.1)	9(20.9)	0(0.0)	
직무별	교수직	53	4(7.5)	18(34.0)	22(41.5)	9(17.0)	0(0.0)	4.548* (0.036)
	연구/사업직	40	0(0.0)	8(20.0)	23(57.5)	9(22.5)	0(0.0)	

\*p<.05, \*\*p<.01, \*\*\*p<.001

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절성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5.4%(매우: 57.2% + 조금: 2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8.9%(매우: 15.8% + 조금: 33.1%)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90.3%)가 시설종사자(84.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3.5%)가 청소년전문가(29.0%)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절성(%)

표 IV-8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절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82(57.2)	139(28.2)	56(11.4)	13(2.6)	3(0.6)	-
	시설종사자	400	227(56.8)	110(27.5)	52(13.0)	8(2.0)	3(0.8)	0.469 (0.494)
	청소년전문가	93	55(59.1)	29(31.2)	4(4.3)	5(5.4)	0(0.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78(15.8)	163(33.1)	162(32.9)	75(15.2)	15(3.0)	-
	시설종사자	400	75(18.8)	139(34.8)	123(30.8)	49(12.3)	14(3.5)	19.252*** (0.000)
	청소년전문가	93	3(3.2)	24(25.8)	39(41.9)	26(28.0)	1(1.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8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27(56.8)	110(27.5)	52(13.0)	8(2.0)	3(0.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6(59.6)	41(25.5)	21(13.0)	2(1.2)	1(0.6)	0.336 (0.854)
	경상권	86	49(57.0)	22(25.6)	12(14.0)	1(1.2)	2(2.3)	
	충청권	42	21(50.0)	16(38.1)	4(9.5)	1(2.4)	0(0.0)	
	전라권	41	22(53.7)	15(36.6)	3(7.3)	1(2.4)	0(0.0)	
	강원 제주권	70	39(55.7)	16(22.9)	12(17.1)	3(4.3)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5(58.7)	59(27.7)	21(9.9)	5(2.3)	3(1.4)	0.373 (0.542)
	청소년문화의집	187	102(54.5)	51(27.3)	31(16.6)	3(1.6)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61(51.3)	36(30.3)	20(16.8)	1(0.8)	1(0.8)	1.113 (0.350)
	법인	109	64(58.7)	29(26.6)	11(10.1)	4(3.7)	1(0.9)	
	민간위탁	116	67(57.8)	33(28.4)	14(12.1)	1(0.9)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4(66.7)	10(19.6)	5(9.8)	2(3.9)	0(0.0)	
	기타	5	1(20.0)	2(4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12(34.3)	1(2.9)	1(2.9)	0(0.0)	0.526 (0.592)
	간부	119	63(52.9)	40(33.6)	13(10.9)	2(1.7)	1(0.8)	
	일반직원	246	143(58.1)	58(23.6)	38(15.4)	5(2.0)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76(56.7)	33(24.6)	22(16.4)	3(2.2)	0(0.0)	0.283 (0.754)
	5~10년 미만	118	70(59.3)	31(26.3)	15(12.7)	1(0.8)	1(0.8)	
	10년 이상	148	81(54.7)	46(31.1)	15(10.1)	4(2.7)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59.1)	29(31.2)	4(4.3)	5(5.4)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8(54.5)	12(36.4)	1(3.0)	2(6.1)	0(0.0)	0.002 (0.963)
	비수도권	60	37(61.7)	17(28.3)	3(5.0)	3(5.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0(60.0)	17(34.0)	0(0.0)	3(6.0)	0(0.0)	0.248 (0.620)
직무별	공공기관/법인	43	25(58.1)	12(27.9)	4(9.3)	2(4.7)	0(0.0)	0.009 (0.926)
	교수직	53	31(58.5)	18(34.0)	0(0.0)	4(7.5)	0(0.0)	
	연구/사업직	40	24(60.0)	11(27.5)	4(10.0)	1(2.5)	0(0.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74.5%)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0.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75(18.8)	139(34.8)	123(30.8)	49(12.3)	14(3.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0(18.6)	54(33.5)	49(30.4)	20(12.4)	8(5.0)	0.554 (0.696)
	경상권	86	19(22.1)	30(34.9)	28(32.6)	7(8.1)	2(2.3)	
	충청권	42	6(14.3)	19(45.2)	10(23.8)	6(14.3)	1(2.4)	
	전라권	41	7(17.1)	12(29.3)	15(36.6)	5(12.2)	2(4.9)	
	강원 제주권	70	13(18.6)	24(34.3)	21(30.0)	11(15.7)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9(18.3)	74(34.7)	65(30.5)	27(12.7)	8(3.8)	0.140 (0.708)
	청소년문화의집	187	36(19.3)	65(34.8)	58(31.0)	22(11.8)	6(3.2)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5(21.0)	32(26.9)	40(33.6)	17(14.3)	5(4.2)	2.699* (0.030)
	법인	109	21(19.3)	35(32.1)	28(25.7)	21(19.3)	4(3.7)	
	민간위탁	116	15(12.9)	47(40.5)	41(35.3)	8(6.9)	5(4.3)	
	지자체산하공단	51	14(27.5)	24(47.1)	10(19.6)	3(5.9)	0(0.0)	
	기타	5	0(0.0)	1(20.0)	4(8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5(14.3)	15(42.9)	9(25.7)	6(17.1)	0(0.0)	1.315 (0.270)
	간부	119	22(18.5)	48(40.3)	39(32.8)	6(5.0)	4(3.4)	
	일반직원	246	48(19.5)	76(30.9)	75(30.5)	37(15.0)	10(4.1)	
경력별	5년 미만	134	32(23.9)	41(30.6)	39(29.1)	18(13.4)	4(3.0)	0.900 (0.407)
	5~10년 미만	118	19(16.1)	48(40.7)	35(29.7)	14(11.9)	2(1.7)	
	10년 이상	148	24(16.2)	50(33.8)	49(33.1)	17(11.5)	8(5.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24(25.8)	39(41.9)	26(28.0)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7(21.2)	15(45.5)	9(27.3)	0(0.0)	4.729* (0.030)
	비수도권	60	1(1.7)	17(28.3)	24(40.0)	17(28.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0)	16(32.0)	18(36.0)	13(26.0)	0(0.0)	3.909 (0.051)
	공공기관/법인	43	0(0.0)	8(18.6)	21(48.8)	13(30.2)	1(2.3)	
직무별	교수직	53	3(5.7)	16(30.2)	21(39.6)	13(24.5)	0(0.0)	3.900 (0.051)
	연구/사업직	40	0(0.0)	8(20.0)	18(45.0)	13(32.5)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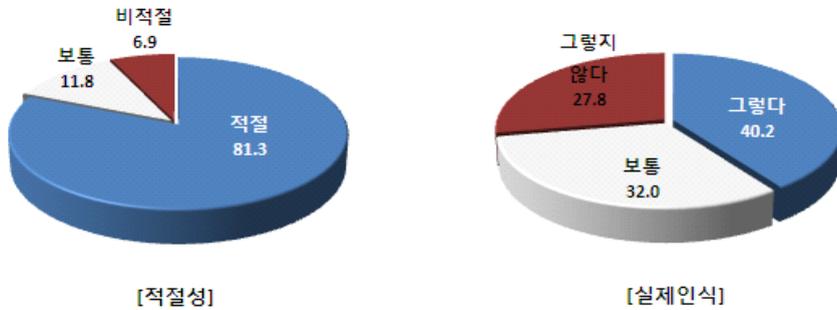
\*p<.05, \*\*p<.01, \*\*\*p<.001

(3) 형평성 영역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①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1.3% (매우: 52.7% + 조금: 28.6%)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0.2%(매우: 15.2% + 조금: 24.9%)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90.3%)가 시설종사자(79.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2.8%)가 청소년전문가(29.0%)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32】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표 IV-86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절성	전체	493	260(52.7)	141(28.6)	58(11.8)	22(4.5)	12(2.4)	-
	시설종사자	400	215(53.8)	102(25.5)	53(13.3)	20(5.0)	10(2.5)	0.657
	청소년전문가	93	45(48.4)	39(41.9)	5(5.4)	2(2.2)	2(2.2)	(0.418)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인식	전체	493	75(15.2)	123(24.9)	158(32.0)	96(19.5)	41(8.3)	-
	시설종사자	400	73(18.3)	98(24.5)	117(29.3)	73(18.3)	39(9.8)	2.494
	청소년전문가	93	2(2.2)	25(26.9)	41(44.1)	23(24.7)	2(2.2)	(0.115)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5~10년 미만(86.4%)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경력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87**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15(53.8)	102(25.5)	53(13.3)	20(5.0)	10(2.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87(54.0)	49(30.4)	17(10.6)	7(4.3)	1(0.6)	0.662 (0.618)
	경상권	86	43(50.0)	20(23.3)	17(19.8)	4(4.7)	2(2.3)	
	충청권	42	25(59.5)	7(16.7)	5(11.9)	3(7.1)	2(4.8)	
	전라권	41	20(48.8)	13(31.7)	3(7.3)	4(9.8)	1(2.4)	
	강원 제주권	70	40(57.1)	13(18.6)	11(15.7)	2(2.9)	4(5.7)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19(55.9)	58(27.2)	23(10.8)	8(3.8)	5(2.3)	2.473 (0.117)
	청소년문화의집	187	96(51.3)	44(23.5)	30(16.0)	12(6.4)	5(2.7)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8(48.7)	30(25.2)	23(19.3)	4(3.4)	4(3.4)	0.994 (0.411)
	법인	109	64(58.7)	24(22.0)	13(11.9)	6(5.5)	2(1.8)	
	민간위탁	116	62(53.4)	31(26.7)	13(11.2)	6(5.2)	4(3.4)	
	지자체산하공단	51	30(58.8)	15(29.4)	2(3.9)	4(7.8)	0(0.0)	
	기타	5	1(20.0)	2(4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6(74.3)	4(11.4)	1(2.9)	3(8.6)	1(2.9)	1.458 (0.234)
	간부	119	65(54.6)	34(28.6)	11(9.2)	7(5.9)	2(1.7)	
	일반직원	246	124(50.4)	64(26.0)	41(16.7)	10(4.1)	7(2.8)	
경력별	5년 미만	134	63(47.0)	34(25.4)	24(17.9)	10(7.5)	3(2.2)	3.732* (0.025)
	5~10년 미만	118	72(61.0)	30(25.4)	12(10.2)	2(1.7)	2(1.7)	
	10년 이상	148	80(54.1)	38(25.7)	17(11.5)	8(5.4)	5(3.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5(48.4)	39(41.9)	5(5.4)	2(2.2)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39.4)	18(54.5)	0(0.0)	1(3.0)	1(3.0)	0.001 (0.976)
	비수도권	60	32(53.3)	21(35.0)	5(8.3)	1(1.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3(46.0)	21(42.0)	3(6.0)	2(4.0)	1(2.0)	0.585 (0.446)
	공공기관/법인	43	22(51.2)	18(41.9)	2(4.7)	0(0.0)	1(2.3)	
직무별	교수직	53	24(45.3)	23(43.4)	3(5.7)	2(3.8)	1(1.9)	0.581 (0.448)
	연구/사업직	40	21(52.5)	16(40.0)	2(5.0)	0(0.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70.6%)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3.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8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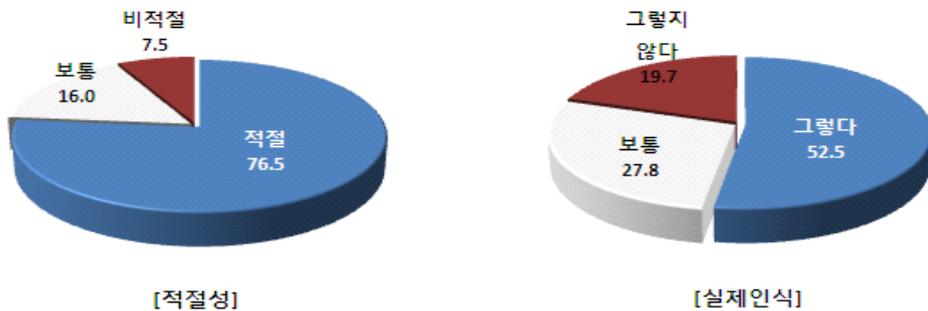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73(18.3)	98(24.5)	117(29.3)	73(18.3)	39(9.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2(19.9)	47(29.2)	39(24.2)	32(19.9)	11(6.8)	0.923 (0.450)
	경상권	86	12(14.0)	18(20.9)	32(37.2)	13(15.1)	11(12.8)	
	충청권	42	7(16.7)	8(19.0)	16(38.1)	6(14.3)	5(11.9)	
	전라권	41	7(17.1)	11(26.8)	7(17.1)	11(26.8)	5(12.2)	
	강원 제주권	70	15(21.4)	14(20.0)	23(32.9)	11(15.7)	7(1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9(18.3)	52(24.4)	65(30.5)	35(16.4)	22(10.3)	0.015 (0.904)
	청소년문화의집	187	34(18.2)	46(24.6)	52(27.8)	38(20.3)	17(9.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1(17.6)	23(19.3)	40(33.6)	21(17.6)	14(11.8)	3.898** (0.004)
	법인	109	22(20.2)	28(25.7)	28(25.7)	20(18.3)	11(10.1)	
	민간위탁	116	13(11.2)	27(23.3)	39(33.6)	25(21.6)	12(10.3)	
	지자체산하공단	51	16(31.4)	20(39.2)	6(11.8)	7(13.7)	2(3.9)	
	기타	5	1(20.0)	0(0.0)	4(8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9(25.7)	3(8.6)	10(28.6)	7(20.0)	6(17.1)	0.422 (0.656)
	간부	119	17(14.3)	35(29.4)	34(28.6)	24(20.2)	9(7.6)	
	일반직원	246	47(19.1)	60(24.4)	73(29.7)	42(17.1)	24(9.8)	
경력별	5년 미만	134	23(17.2)	33(24.6)	47(35.1)	21(15.7)	10(7.5)	2.350 (0.097)
	5~10년 미만	118	24(20.3)	36(30.5)	29(24.6)	19(16.1)	10(8.5)	
	10년 이상	148	26(17.6)	29(19.6)	41(27.7)	33(22.3)	19(12.8)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2.2)	25(26.9)	41(44.1)	23(24.7)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6(18.2)	12(36.4)	12(36.4)	2(6.1)	4.997* (0.026)
	비수도권	60	1(1.7)	19(31.7)	29(48.3)	11(18.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4.0)	15(30.0)	18(36.0)	13(26.0)	2(4.0)	0.053 (0.819)
	공공기관/법인	43	0(0.0)	10(23.3)	23(53.5)	10(23.3)	0(0.0)	
직무별	교수직	53	2(3.8)	15(28.3)	21(39.6)	13(24.5)	2(3.8)	0.046 (0.830)
	연구/사업직	40	0(0.0)	10(25.0)	20(50.0)	10(25.0)	0(0.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들은 참가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6.5%(매우: 49.1% + 조금: 27.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7.2%(매우: 25.4% + 조금: 27.2%)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3.9%)가 시설종사자(74.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3.3%)가 청소년전문가(49.5%)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33]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표 IV-89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42(49.1)	135(27.4)	79(16.0)	22(4.5)	15(3.0)	-
	시설종사자	400	194(48.5)	105(26.3)	67(16.8)	20(5.0)	14(3.5)	2.778 (0.096)
	청소년전문가	93	48(51.6)	30(32.3)	12(12.9)	2(2.2)	1(1.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 제 인 식	전체	493	125(25.4)	134(27.2)	137(27.8)	57(11.6)	40(8.1)	-
	시설종사자	400	117(29.3)	96(24.0)	104(26.0)	44(11.0)	39(9.8)	0.517 (0.473)
	청소년전문가	93	8(8.6)	38(40.9)	33(35.5)	13(14.0)	1(1.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9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94(48.5)	105(26.3)	67(16.8)	20(5.0)	14(3.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73(45.3)	39(24.2)	37(23.0)	8(5.0)	4(2.5)	0.357 (0.839)
	경상권	86	43(50.0)	25(29.1)	12(14.0)	3(3.5)	3(3.5)	
	충청권	42	22(52.4)	11(26.2)	5(11.9)	3(7.1)	1(2.4)	
	전라권	41	17(41.5)	15(36.6)	5(12.2)	2(4.9)	2(4.9)	
	강원 제주권	70	39(55.7)	15(21.4)	8(11.4)	4(5.7)	4(5.7)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13(53.1)	48(22.5)	34(16.0)	12(5.6)	6(2.8)	1.476 (0.225)
	청소년문화의집	187	81(43.3)	57(30.5)	33(17.6)	8(4.3)	8(4.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8(48.7)	35(29.4)	15(12.6)	6(5.0)	5(4.2)	1.000 (0.408)
	법인	109	56(51.4)	24(22.0)	22(20.2)	3(2.8)	4(3.7)	
	민간위탁	116	52(44.8)	31(26.7)	22(19.0)	6(5.2)	5(4.3)	
	자주체산하공단	51	27(52.9)	14(27.5)	6(11.8)	4(7.8)	0(0.0)	
	기타	5	1(20.0)	1(2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6(45.7)	6(17.1)	8(22.9)	2(5.7)	3(8.6)	1.090 (0.337)
	간부	119	57(47.9)	36(30.3)	16(13.4)	4(3.4)	6(5.0)	
	일반직원	246	121(49.2)	63(25.6)	43(17.5)	14(5.7)	5(2.0)	
경력별	5년 미만	134	63(47.0)	31(23.1)	26(19.4)	10(7.5)	4(3.0)	1.836 (0.161)
	5~10년 미만	118	61(51.7)	35(29.7)	17(14.4)	3(2.5)	2(1.7)	
	10년 이상	148	70(47.3)	39(26.4)	24(16.2)	7(4.7)	8(5.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8(51.6)	30(32.3)	12(12.9)	2(2.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2(36.4)	13(39.4)	6(18.2)	2(6.1)	0(0.0)	0.261 (0.610)
	비수도권	60	36(60.0)	17(28.3)	6(10.0)	0(0.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4(48.0)	18(36.0)	7(14.0)	1(2.0)	0(0.0)	0.020
	공공기관/법인	43	24(55.8)	12(27.9)	5(11.6)	1(2.3)	1(2.3)	(0.887)
직무별	교수직	53	25(47.2)	19(35.8)	8(15.1)	1(1.9)	0(0.0)	0.137
	연구/사업직	40	23(57.5)	11(27.5)	4(10.0)	1(2.5)	1(2.5)	(0.712)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대학(66.0%), 교수직(62.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소속직장 및 직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1**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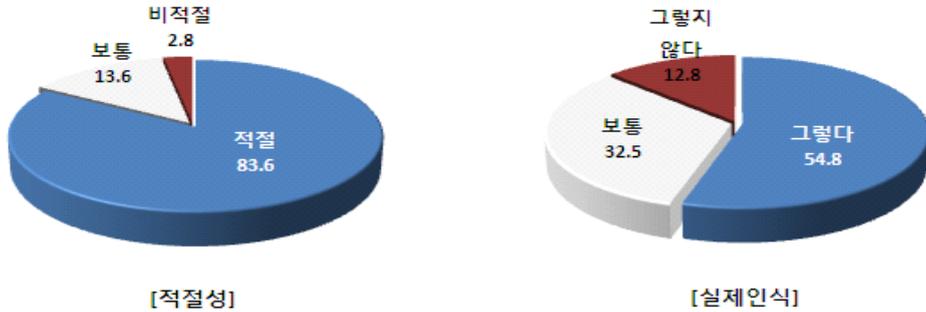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17(29.3)	96(24.0)	104(26.0)	44(11.0)	39(9.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2(26.1)	42(26.1)	44(27.3)	17(10.6)	16(9.9)	0.518 (0.722)
	경상권	86	30(34.9)	20(23.3)	22(25.6)	7(8.1)	(8.1)	
	충청권	42	13(31.0)	9(21.4)	9(21.4)	7(16.7)	4(9.5)	
	전라권	41	11(26.8)	9(22.0)	10(24.4)	7(17.1)	4(9.8)	
	강원 제주권	70	21(30.0)	16(22.9)	19(27.1)	6(8.6)	8(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8(31.9)	44(20.7)	51(23.9)	29(13.6)	21(9.9)	0.019 (0.891)
	청소년문화의집	187	49(26.2)	52(27.8)	53(28.3)	15(8.0)	18(9.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9(24.4)	30(25.2)	36(30.3)	12(10.1)	12(10.1)	0.784 (0.536)
	법인	109	34(31.2)	20(18.3)	30(27.5)	15(13.8)	10(9.2)	
	민간위탁	116	36(31.0)	25(21.6)	30(25.9)	12(10.3)	13(11.2)	
	지자체산하공단	51	17(33.3)	18(35.3)	7(13.7)	5(9.8)	4(7.8)	
	기타	5	1(20.0)	3(6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8(22.9)	11(31.4)	6(17.1)	3(8.6)	7(20.0)	0.640 (0.528)
	간부	119	41(34.5)	24(20.2)	26(21.8)	14(11.8)	14(11.8)	
	일반직원	246	68(27.6)	61(24.8)	72(29.3)	27(11.0)	18(7.3)	
경력별	5년 미만	134	37(27.6)	31(23.1)	38(28.4)	16(11.9)	12(9.0)	0.076 (0.927)
	5~10년 미만	118	35(29.7)	28(23.7)	31(26.3)	14(11.9)	10(8.5)	
	10년 이상	148	45(30.4)	3(25.0)	35(23.6)	14(9.5)	17(11.5)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8(8.6)	38(40.9)	33(35.5)	13(14.0)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3(9.1)	13(39.4)	10(30.3)	7(21.2)	0(0.0)	0.451 (0.502)
	비수도권	60	5(8.3)	25(41.7)	23(38.3)	6(10.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7(14.0)	26(52.0)	12(24.0)	5(10.0)	0(0.0)	12.475** (0.001)
	공공기관/법인	43	1(2.3)	12(27.9)	21(48.8)	8(18.6)	1(2.3)	
직무별	교수직	53	7(13.2)	26(49.1)	15(28.3)	5(9.4)	0(0.0)	10.261** (0.002)
	연구/사업직	40	1(2.5)	12(30.0)	18(45.0)	8(20.0)	1(2.5)	

\*p<.05, \*\*p<.01, \*\*\*p<.001

③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3.6%(매우: 56.2% + 조금: 27.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4.8%(매우: 25.8% + 조금: 29.0%)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83.3%) 및 청소년전문가(84.9%)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9.0%)가 청소년전문가(36.6%)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4】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표 IV-92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77(56.2)	135(27.4)	67(13.6)	10(2.0)	4(0.8)	-
	시설종사자	400	226(56.5)	107(26.8)	57(14.3)	7(1.8)	3(0.8)	0.046
	청소년전문가	93	51(54.8)	28(30.1)	10(10.8)	3(3.2)	1(1.1)	(0.83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27(25.8)	143(29.0)	160(32.5)	51(10.3)	12(2.4)	-
	시설종사자	400	121(30.3)	115(28.8)	121(30.3)	33(8.3)	10(2.5)	23.062***
	청소년전문가	93	6(6.5)	28(30.1)	39(41.9)	18(19.4)	2(2.2)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법인(88.1%)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93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26(56.5)	107(26.8)	57(14.3)	7(1.8)	3(0.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8(60.9)	37(23.0)	24(14.9)	2(1.2)	0(0.0)	0.952 (0.434)
	경상권	86	44(51.2)	27(31.4)	10(11.6)	3(3.5)	2(2.3)	
	충청권	42	25(59.5)	12(28.6)	5(11.9)	0(0.0)	0(0.0)	
	전라권	41	21(51.2)	13(31.7)	6(14.6)	1(2.4)	0(0.0)	
	강원 제주권	70	38(54.3)	18(25.7)	12(17.1)	1(1.4)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8(60.1)	51(23.9)	26(12.2)	6(2.8)	2(0.9)	0.550
	청소년문화의집	187	98(52.4)	56(29.9)	31(16.6)	1(0.5)	1(0.5)	(0.459)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5(46.2)	38(31.9)	21(17.6)	3(2.5)	2(1.7)	2.476* (0.044)
	법인	109	70(64.2)	26(23.9)	13(11.9)	0(0.0)	0(0.0)	
	민간위탁	116	68(58.6)	28(24.1)	17(14.7)	2(1.7)	1(0.9)	
	지자체산하공단	51	31(60.8)	13(25.5)	5(9.8)	2(3.9)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9(54.3)	10(28.6)	5(14.3)	1(2.9)	0(0.0)	2.073 (0.127)
	간부	119	76(63.9)	28(23.5)	13(10.9)	2(1.7)	0(0.0)	
	일반직원	246	131(53.3)	69(28.0)	39(15.9)	4(1.6)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72(53.7)	38(28.4)	21(15.7)	3(2.2)	0(0.0)	0.171 (0.843)
	5~10년 미만	118	70(59.3)	28(23.7)	18(15.3)	1(0.8)	1(0.8)	
	10년 이상	148	84(56.8)	41(27.7)	18(12.2)	3(2.0)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1(54.8)	28(30.1)	10(10.8)	3(3.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6(48.5)	11(33.3)	5(15.2)	1(3.0)	0(0.0)	0.381 (0.537)
	비수도권	60	35(58.3)	17(28.3)	5(8.3)	2(3.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9(58.0)	14(28.0)	6(12.0)	1(2.0)	0(0.0)	0.806 (0.372)
	공공기관/법인	43	22(51.2)	14(32.6)	4(9.3)	2(4.7)	1(2.3)	
직무별	교수직	53	31(58.5)	14(26.4)	7(13.2)	1(1.9)	0(0.0)	0.803 (0.372)
	연구/사업직	40	20(50.0)	14(35.0)	3(7.5)	2(5.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74.5%)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39.4%)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4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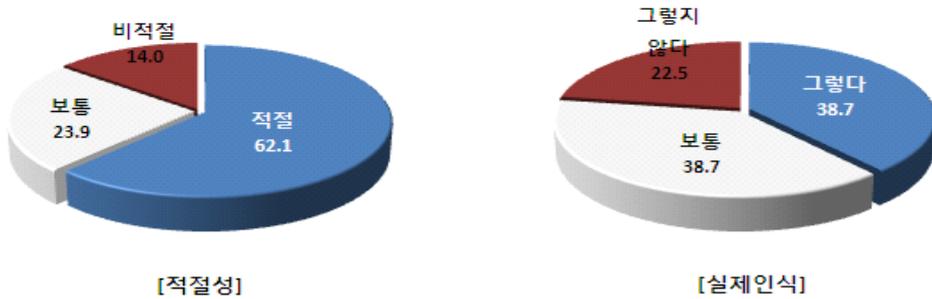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21(30.3)	115(28.8)	121(30.3)	33(8.3)	10(2.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7(35.4)	46(28.6)	45(28.0)	11(6.8)	2(1.2)	1.977 (0.097)
	경상권	86	27(31.4)	27(31.4)	24(27.9)	5(5.8)	3(3.5)	
	충청권	42	10(23.8)	14(33.3)	13(31.0)	3(7.1)	2(4.8)	
	전라권	41	10(24.4)	12(29.3)	10(24.4)	7(17.1)	2(4.9)	
	강원 제주권	70	17(24.3)	16(22.9)	29(41.4)	7(10.0)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1(28.6)	62(29.1)	63(29.6)	19(8.9)	8(3.8)	1.509 (0.220)
	청소년문화의집	187	60(32.1)	53(28.3)	58(31.0)	14(7.5)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7(22.7)	31(26.1)	45(37.8)	10(8.4)	6(5.0)	2.871* (0.023)
	법인	109	38(34.9)	29(26.6)	31(28.4)	10(9.2)	1(0.9)	
	민간위탁	116	35(30.2)	35(30.2)	33(28.4)	10(8.6)	3(2.6)	
	지자체산하공단	51	20(39.2)	18(35.3)	10(19.6)	3(5.9)	0(0.0)	
	기타	5	1(20.0)	2(4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1(31.4)	12(34.3)	8(22.9)	4(11.4)	0(0.0)	2.838 (0.060)
	간부	119	41(34.5)	39(32.8)	30(25.2)	8(6.7)	1(0.8)	
	일반직원	246	69(28.0)	64(26.0)	83(33.7)	21(8.5)	9(3.7)	
경력별	5년 미만	134	40(29.9)	35(26.1)	43(32.1)	15(11.2)	1(0.7)	0.164 (0.849)
	5~10년 미만	118	35(29.7)	36(30.5)	39(33.1)	5(4.2)	3(2.5)	
	10년 이상	148	46(31.1)	44(29.7)	39(26.4)	13(8.8)	6(4.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6.5)	28(30.1)	39(41.9)	18(19.4)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11(33.3)	9(27.3)	10(30.3)	1(3.0)	10.386** (0.001)
	비수도권	60	4(6.7)	17(28.3)	30(50.0)	8(13.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5(10.0)	17(34.0)	17(34.0)	10(20.0)	1(2.0)	1.522 (0.221)
	공공기관/법인	43	1(2.3)	11(25.6)	22(51.2)	8(18.6)	1(2.3)	
직무별	교수직	53	5(9.4)	18(34.0)	18(34.0)	11(20.8)	1(1.9)	1.221 (0.272)
	연구/사업직	40	1(2.5)	10(25.0)	21(52.5)	7(17.5)	1(2.5)	

\*p<.05, \*\*p<.01, \*\*\*p<.001

④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62.1%(매우: 36.7% + 조금: 25.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38.7%(매우: 11.2% + 조금: 27.6%)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68.8%)가 시설종사자(6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1.5%)가 청소년전문가(26.9%)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5]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표 IV-95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181(36.7)	125(25.4)	118(23.9)	45(9.1)	24(4.9)	-
	시설종사자	400	141(35.3)	101(25.3)	100(25.0)	37(9.3)	21(5.3)	2.380 (0.124)
	청소년전문가	93	43(46.2)	29(31.2)	14(15.1)	6(6.5)	1(1.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55(11.2)	136(27.6)	191(38.7)	86(17.4)	25(5.1)	-
	시설종사자	400	54(13.5)	112(28.0)	150(37.5)	64(16.0)	20(5.0)	9.167** (0.003)
	청소년전문가	93	1(1.1)	24(25.8)	41(44.1)	22(23.7)	5(5.4)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96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41(35.3)	101(25.3)	100(25.0)	37(9.3)	21(5.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5(34.2)	47(29.2)	31(19.3)	21(13.0)	7(4.3)	0.375 (0.826)
	경상권	86	31(36.0)	22(25.6)	25(29.1)	5(5.8)	3(3.5)	
	충청권	42	15(35.7)	14(33.3)	7(16.7)	2(4.8)	4(9.5)	
	전라권	41	13(31.7)	8(19.5)	14(34.1)	2(4.9)	4(9.8)	
	강원 제주권	70	27(38.6)	10(14.3)	23(32.9)	7(10.0)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6(35.7)	63(29.6)	49(23.0)	13(6.1)	12(5.6)	1.880 (0.171)
	청소년문화의집	187	65(34.8)	38(20.3)	51(27.3)	24(12.8)	9(4.8)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1(34.5)	30(25.2)	36(30.3)	9(7.6)	3(2.5)	0.939 (0.441)
	법인	109	44(40.4)	23(21.1)	26(23.9)	10(9.2)	6(5.5)	
	민간위탁	116	35(30.2)	31(26.7)	29(25.0)	11(9.5)	10(8.6)	
	자주체산하공단	51	21(41.2)	14(27.5)	8(15.7)	6(11.8)	2(3.9)	
	기타	5	0(0.0)	3(6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4(40.0)	6(17.1)	5(14.3)	7(20.0)	3(8.6)	0.825 (0.439)
	간부	119	36(30.3)	34(28.6)	34(28.6)	6(5.0)	9(7.6)	
	일반직원	246	91(37.0)	61(24.8)	61(24.8)	24(9.8)	9(3.7)	
경력별	5년 미만	134	50(37.3)	36(26.9)	33(24.6)	11(8.2)	4(3.0)	1.283 (0.278)
	5~10년 미만	118	47(39.8)	22(18.6)	31(26.3)	11(9.3)	7(5.9)	
	10년 이상	148	44(29.7)	43(29.1)	36(24.3)	15(10.1)	10(6.8)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0(43.0)	24(25.8)	18(19.4)	8(8.6)	3(3.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2(36.4)	9(27.3)	8(24.2)	3(9.1)	1(3.0)	0.063 (0.803)
	비수도권	60	28(46.7)	15(25.0)	10(16.7)	5(8.3)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20(40.0)	13(26.0)	12(24.0)	4(8.0)	1(2.0)	0.065 (0.800)
	공공기관/법인	43	20(46.5)	11(25.6)	6(14.0)	4(9.3)	2(4.7)	
직무별	교수직	53	22(41.5)	14(26.4)	12(22.6)	4(7.5)	1(1.9)	0.017 (0.896)
	연구/사업직	40	18(45.0)	10(25.0)	6(15.0)	4(10.0)	2(5.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27.3%)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7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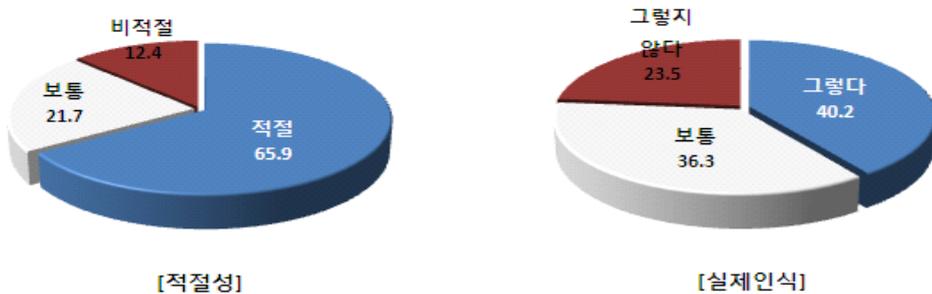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54(13.5)	112(28.0)	150(37.5)	64(16.0)	20(5.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3(14.3)	50(31.1)	56(34.8)	27(16.8)	5(3.1)	1.310 (0.266)
	경상권	86	15(17.4)	27(31.4)	27(31.4)	12(14.0)	5(5.8)	
	충청권	42	6(14.3)	8(19.0)	17(40.5)	6(14.3)	5(11.9)	
	전라권	41	6(14.6)	7(17.1)	20(48.8)	6(14.6)	2(4.9)	
	강원 제주권	70	4(5.7)	20(28.6)	30(42.9)	13(18.6)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1(14.6)	66(31.0)	72(33.8)	30(14.1)	14(6.6)	0.619 (0.432)
	청소년문화의집	187	23(12.3)	46(24.6)	78(41.7)	34(18.2)	6(3.2)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4(11.8)	30(25.2)	48(40.3)	19(16.0)	8(6.7)	1.569 (0.182)
	법인	109	21(19.3)	26(23.9)	40(36.7)	17(15.6)	5(4.6)	
	민간위탁	116	8(6.9)	37(31.9)	46(39.7)	19(16.4)	6(5.2)	
	자녀친화공간	51	10(19.6)	17(33.3)	14(27.5)	9(17.6)	1(2.0)	
	기타	5	1(20.0)	2(4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5(14.3)	12(34.3)	12(34.3)	6(17.1)	0(0.0)	0.989 (0.373)
	간부	119	14(11.8)	38(31.9)	46(38.7)	18(15.1)	3(2.5)	
	일반직원	246	35(14.2)	62(25.2)	92(37.4)	40(16.3)	17(6.9)	
경력별	5년 미만	134	22(16.4)	30(22.4)	52(38.8)	26(19.4)	4(3.0)	0.007 (0.993)
	5~10년 미만	118	18(15.3)	33(28.0)	39(33.1)	21(17.8)	7(5.9)	
	10년 이상	148	14(9.5)	49(33.1)	59(39.9)	17(11.5)	9(6.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1.1)	24(25.8)	41(44.1)	22(23.7)	5(5.4)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8(24.2)	10(30.3)	12(36.4)	2(6.1)	5.565* (0.019)
	비수도권	60	0(0.0)	16(26.7)	31(51.7)	10(16.7)	3(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1(2.0)	17(34.0)	18(36.0)	12(24.0)	2(4.0)	2.246 (0.137)
	공공기관/법인	43	0(0.0)	7(16.3)	23(53.5)	10(23.3)	3(7.0)	
직무별	교수직	53	1(1.9)	18(34.0)	19(35.8)	13(24.5)	2(3.8)	2.426 (0.123)
	연구/사업직	40	0(0.0)	6(15.0)	22(55.0)	9(22.5)	3(7.5)	

\*p<.05, \*\*p<.01, \*\*\*p<.001

⑤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절성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65.9%(매우: 38.7% + 조금: 2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0.2%(매우: 13.0% + 조금: 27.2%)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77.4%)가 시설종사자(6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3.0%)가 청소년전문가(28.0%)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6]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절성(%)

표 IV-98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절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191(38.7)	134(27.2)	107(21.7)	41(8.3)	20(4.1)	-
	시설종사자	400	148(37.0)	105(26.3)	93(23.3)	35(8.8)	19(4.8)	6.457*
	청소년전문가	93	43(46.2)	29(31.2)	14(15.1)	6(6.5)	1(1.1)	(0.01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 제 인 식	전체	493	64(13.0)	134(27.2)	179(36.3)	92(18.7)	24(4.9)	-
	시설종사자	400	62(15.5)	110(27.5)	143(35.8)	66(16.5)	19(4.8)	11.698**
	청소년전문가	93	2(2.2)	24(25.8)	36(38.7)	26(28.0)	5(5.4)	(0.00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경력이 낮을수록(5년 미만: 68.7%)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경력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99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절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48(37.0)	105(26.3)	93(23.3)	35(8.8)	19(4.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3(39.1)	46(28.6)	31(19.3)	16(9.9)	5(3.1)	0.872 (0.481)
	경상권	86	31(36.0)	24(27.9)	23(26.7)	5(5.8)	3(3.5)	
	충청권	42	15(35.7)	13(31.0)	9(21.4)	1(2.4)	4(9.5)	
	전라권	41	13(31.7)	8(19.5)	13(31.7)	4(9.8)	3(7.3)	
	강원 제주권	70	26(37.1)	14(20.0)	17(24.3)	9(12.9)	4(5.7)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9(37.1)	65(30.5)	43(20.2)	15(7.0)	11(5.2)	0.956 (0.329)
	청소년문화의집	187	69(36.9)	40(21.4)	50(26.7)	20(10.7)	8(4.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9(32.8)	34(28.6)	32(26.9)	11(9.2)	3(2.5)	1.590 (0.176)
	법인	109	51(46.8)	21(19.3)	23(21.1)	8(7.3)	6(5.5)	
	민간위탁	116	37(31.9)	30(25.9)	30(25.9)	11(9.5)	8(6.9)	
	지자체산하공단	51	21(41.2)	18(35.3)	6(11.8)	4(7.8)	2(3.9)	
	기타	5	0(0.0)	2(4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3(37.1)	10(28.6)	5(14.3)	4(11.4)	3(8.6)	0.496 (0.609)
	간부	119	38(31.9)	37(31.1)	28(23.5)	8(6.7)	8(6.7)	
	일반직원	246	97(39.4)	58(23.6)	60(24.4)	23(9.3)	8(3.3)	
경력별	5년 미만	134	56(41.8)	36(26.9)	28(20.9)	11(8.2)	3(2.2)	4.565* (0.011)
	5~10년 미만	118	48(40.7)	29(24.6)	29(24.6)	8(6.8)	4(3.4)	
	10년 이상	148	44(29.7)	40(27.0)	36(24.3)	16(10.8)	12(8.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3(46.2)	29(31.2)	14(15.1)	6(6.5)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39.4)	12(36.4)	5(15.2)	3(9.1)	0(0.0)	0.870 (0.351)
	비수도권	60	30(50.0)	17(28.3)	9(15.0)	3(5.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2(44.0)	14(28.0)	10(20.0)	4(8.0)	0(0.0)	0.561 (0.456)
	공공기관/법인	43	21(48.8)	15(34.9)	4(9.3)	2(4.7)	1(2.3)	
직무별	교수직	53	24(45.3)	15(28.3)	10(18.9)	4(7.5)	0(0.0)	0.178 (0.674)
	연구/사업직	40	19(47.5)	14(35.0)	4(10.0)	2(5.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경상권(48.8%)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00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62(15.5)	110(27.5)	143(35.8)	66(16.5)	19(4.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6(16.1)	50(31.1)	59(36.6)	21(13.0)	5(3.1)	2.785* (0.026)
	경상권	86	19(22.1)	23(26.7)	28(32.6)	12(14.0)	4(4.7)	
	충청권	42	7(16.7)	7(16.7)	16(38.1)	7(16.7)	5(11.9)	
	전라권	41	5(12.2)	12(29.3)	16(39.0)	6(14.6)	2(4.9)	
	강원 제주권	70	5(7.1)	18(25.7)	24(34.3)	20(28.6)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9(18.3)	61(28.6)	67(31.5)	33(15.5)	13(6.1)	1.016 (0.314)
	청소년문화의집	187	23(12.3)	49(26.2)	76(40.6)	33(17.6)	6(3.2)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7(14.3)	27(22.7)	45(37.8)	23(19.3)	7(5.9)	1.823 (0.124)
	법인	109	22(20.2)	23(21.1)	40(36.7)	20(18.3)	4(3.7)	
	민간위탁	116	11(9.5)	39(33.6)	42(36.2)	18(15.5)	6(5.2)	
	지자체산하공단	51	11(21.6)	21(41.2)	12(23.5)	5(9.8)	2(3.9)	
	기타	5	1(20.0)	0(0.0)	4(8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4(11.4)	14(40.0)	10(28.6)	6(17.1)	1(2.9)	0.772 (0.463)
	간부	119	17(14.3)	40(33.6)	41(34.5)	17(14.3)	4(3.4)	
	일반직원	246	41(16.7)	56(22.8)	92(37.4)	43(17.5)	14(5.7)	
경력별	5년 미만	134	25(18.7)	31(23.1)	50(37.3)	24(17.9)	4(3.0)	1.462 (0.233)
	5~10년 미만	118	22(18.6)	35(29.7)	38(32.2)	17(14.4)	6(5.1)	
	10년 이상	148	15(10.1)	44(29.7)	55(37.2)	25(16.9)	9(6.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2.2)	24(25.8)	36(38.7)	26(28.0)	5(5.4)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12(36.4)	7(21.2)	11(33.3)	2(6.1)	2.458 (0.118)
	비수도권	60	1(1.7)	12(20.0)	29(48.3)	15(25.0)	3(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4.0)	15(30.0)	17(34.0)	14(28.0)	2(4.0)	1.454 (0.231)
	공공기관/법인	43	0(0.0)	9(20.9)	19(44.2)	12(27.9)	3(7.0)	
직무별	교수직	53	2(3.8)	15(28.3)	19(35.8)	15(28.3)	2(3.8)	1.086 (0.300)
	연구/사업직	40	0(0.0)	9(22.5)	17(42.5)	11(27.5)	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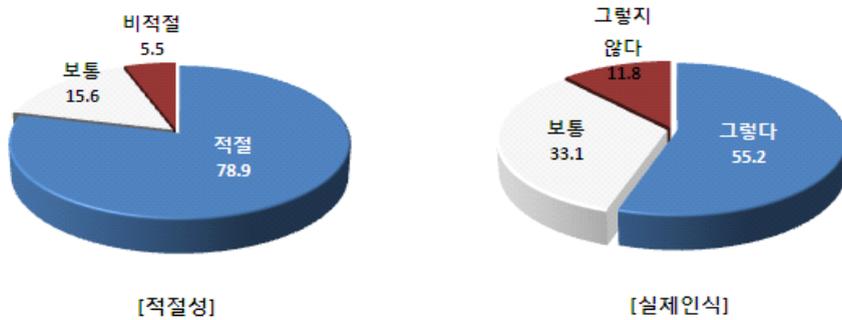
\*p<.05, \*\*p<.01, \*\*\*p<.001

(4) 다양성 영역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의 다양성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8.9%(매우: 52.5% + 조금: 2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5.2%(매우: 24.1% + 조금: 31.0%)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78.8%) 및 청소년전문가(79.6%)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60.8%)가 청소년전문가(31.2%)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7】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표 IV-10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절성	전체	493	259(52.5)	130(26.4)	77(15.6)	19(3.9)	8(1.6)	-
	시설종사자	400	220(55.0)	95(23.8)	65(16.3)	15(3.8)	5(1.3)	2.296
	청소년전문가	93	39(41.9)	35(37.6)	12(12.9)	4(4.3)	3(3.2)	(0.13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인식	전체	493	119(24.1)	153(31.0)	163(33.1)	49(9.9)	9(1.8)	-
	시설종사자	400	116(29.0)	127(31.8)	118(29.5)	31(7.8)	8(2.0)	33.469***
	청소년전문가	93	3(3.2)	26(28.0)	45(48.4)	18(19.4)	1(1.1)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02**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20(55.0)	95(23.8)	65(16.3)	15(3.8)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87(54.0)	38(23.6)	27(16.8)	6(3.7)	3(1.9)	0.353 (0.842)
	경상권	86	49(57.0)	18(20.9)	16(18.6)	1(1.2)	2(2.3)	
	충청권	42	26(61.9)	9(21.4)	3(7.1)	4(9.5)	0(0.0)	
	전라권	41	25(61.0)	10(24.4)	3(7.3)	3(7.3)	0(0.0)	
	강원 제주권	70	33(47.1)	20(28.6)	16(22.9)	1(1.4)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0(56.3)	48(22.5)	33(15.5)	9(4.2)	3(1.4)	0.023 (0.881)
	청소년문화의집	187	100(53.5)	47(25.1)	32(17.1)	6(3.2)	2(1.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60(50.4)	35(29.4)	23(19.3)	0(0.0)	1(0.8)	0.694 (0.596)
	법인	109	63(57.8)	22(20.2)	15(13.8)	7(6.4)	2(1.8)	
	민간위탁	116	65(56.0)	27(23.3)	17(14.7)	6(5.2)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0(58.8)	11(21.6)	8(15.7)	1(2.0)	1(2.0)	
	기타	5	2(40.0)	0(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20(57.1)	5(14.3)	8(22.9)	2(5.7)	0(0.0)	0.046 (0.955)
	간부	119	67(56.3)	26(21.8)	18(15.1)	8(6.7)	0(0.0)	
	일반직원	246	133(54.1)	64(26.0)	39(15.9)	5(2.0)	5(2.0)	
경력별	5년 미만	134	75(56.0)	32(23.9)	24(17.9)	3(2.2)	0(0.0)	1.669 (0.190)
	5~10년 미만	118	73(61.9)	24(20.3)	14(11.9)	3(2.5)	4(3.4)	
	10년 이상	148	72(48.6)	39(26.4)	27(18.2)	9(6.1)	1(0.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9(41.9)	35(37.6)	12(12.9)	4(4.3)	3(3.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9(27.3)	18(54.5)	5(15.2)	0(0.0)	1(3.0)	1.740 (0.188)
	비수도권	60	30(50.0)	17(28.3)	7(11.7)	4(6.7)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21(42.0)	20(40.0)	5(10.0)	3(6.0)	1(2.0)	0.112 (0.739)
	공공기관/법인	43	18(41.9)	15(34.9)	7(16.3)	1(2.3)	2(4.7)	
직무별	교수직	53	22(41.5)	21(39.6)	6(11.3)	3(5.7)	1(1.9)	0.073 (0.788)
	연구/사업직	40	17(42.5)	14(35.0)	6(15.0)	1(2.5)	2(5.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1.7%)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3**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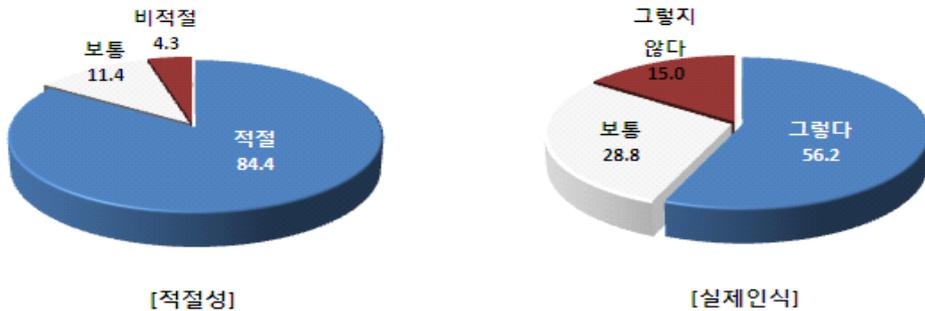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16(29.0)	127(31.8)	118(29.5)	31(7.8)	8(2.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5(28.0)	56(34.8)	44(27.3)	13(8.1)	3(1.9)	0.483 (0.749)
	경상권	86	25(29.1)	19(22.1)	34(39.5)	5(5.8)	3(3.5)	
	충청권	42	13(31.0)	18(42.9)	6(14.3)	4(9.5)	1(2.4)	
	전라권	41	14(34.1)	10(24.4)	10(24.4)	6(14.6)	1(2.4)	
	강원 제주권	70	19(27.1)	24(34.3)	24(34.3)	3(4.3)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1(28.6)	66(31.0)	64(30.0)	15(7.0)	7(3.3)	0.497 (0.481)
	청소년문화의집	187	55(29.4)	61(32.6)	54(28.9)	16(8.6)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8(23.5)	39(32.8)	39(32.8)	9(7.6)	4(3.4)	1.323 (0.261)
	법인	109	34(31.2)	32(29.4)	30(27.5)	11(10.1)	2(1.8)	
	민간위탁	116	39(33.6)	35(30.2)	33(28.4)	7(6.0)	2(1.7)	
	지자체산하공단	51	15(29.4)	20(39.2)	12(23.5)	4(7.8)	0(0.0)	
	기타	5	0(0.0)	1(20.0)	4(8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7(20.0)	13(37.1)	13(37.1)	2(5.7)	0(0.0)	1.016 (0.363)
	간부	119	40(33.6)	39(32.8)	28(23.5)	11(9.2)	1(0.8)	
	일반직원	246	69(28.0)	75(30.5)	77(31.3)	18(7.3)	7(2.8)	
경력별	5년 미만	134	47(35.1)	27(20.1)	49(36.6)	10(7.5)	1(0.7)	1.167 (0.312)
	5~10년 미만	118	33(28.0)	49(41.5)	25(21.2)	9(7.6)	2(1.7)	
	10년 이상	148	36(24.3)	51(34.5)	44(29.7)	12(8.1)	5(3.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26(28.0)	45(48.4)	18(19.4)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8(24.2)	13(39.4)	9(27.3)	1(3.0)	14.009*** (0.000)
	비수도권	60	1(1.7)	18(30.0)	32(53.3)	9(15.0)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0)	13(26.0)	23(46.0)	10(20.0)	1(2.0)	0.020 (0.887)
	공공기관/법인	43	0(0.0)	13(30.2)	22(51.2)	8(18.6)	0(0.0)	
직무별	교수직	53	3(5.7)	14(26.4)	25(47.2)	10(18.9)	1(1.9)	0.092 (0.762)
	연구/사업직	40	0(0.0)	12(30.0)	20(50.0)	8(20.0)	0(0.0)	

\*p<.05, \*\*p<.01, \*\*\*p<.001

②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4.4%(매우: 54.6% + 조금: 29.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6.2%(매우: 20.3% + 조금: 35.9%)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9.2%)가 시설종사자(8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9.3%)가 청소년전문가(43.0%)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8]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표 IV-104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69(54.6)	147(29.8)	56(11.4)	13(2.6)	8(1.6)	-
	시설종사자	400	212(53.0)	121(30.3)	52(13.0)	9(2.3)	6(1.5)	1.124 (0.290)
	청소년전문가	93	57(61.3)	26(28.0)	4(4.3)	4(4.3)	2(2.2)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00(20.3)	177(35.9)	142(28.8)	56(11.4)	18(3.7)	-
	시설종사자	400	95(23.8)	142(35.5)	109(27.3)	37(9.3)	17(4.3)	10.906** (0.001)
	청소년전문가	93	5(5.4)	35(37.6)	33(35.5)	19(20.4)	1(1.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05**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12(53.0)	121(30.3)	52(13.0)	9(2.3)	6(1.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0(55.9)	47(29.2)	18(11.2)	5(3.1)	1(0.6)	0.968 (0.452)
	경상권	86	43(50.0)	32(37.2)	9(10.5)	0(0.0)	2(2.3)	
	충청권	42	25(59.5)	10(23.8)	6(14.3)	0(0.0)	1(2.4)	
	전라권	41	21(51.2)	14(34.1)	4(9.8)	1(2.4)	1(2.4)	
	강원 제주권	70	33(47.1)	18(25.7)	15(21.4)	3(4.3)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2(57.3)	56(26.3)	29(13.6)	4(1.9)	2(0.9)	2.142 (0.144)
	청소년문화의집	187	90(48.1)	65(34.8)	23(12.3)	5(2.7)	4(2.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9(49.6)	36(30.3)	19(16.0)	3(2.5)	2(1.7)	0.601 (0.662)
	법인	109	59(54.1)	30(27.5)	15(13.8)	3(2.8)	2(1.8)	
	민간위탁	116	62(53.4)	39(33.6)	10(8.6)	3(2.6)	2(1.7)	
	자주체산하공단	51	30(58.8)	14(27.5)	7(13.7)	0(0.0)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7(48.6)	12(34.3)	3(8.6)	2(5.7)	1(2.9)	1.059 (0.348)
	간부	119	69(58.0)	31(26.1)	17(14.3)	2(1.7)	0(0.0)	
	일반직원	246	126(51.2)	78(31.7)	32(13.0)	5(2.0)	5(2.0)	
경력별	5년 미만	134	66(49.3)	40(29.9)	24(17.9)	3(2.2)	1(0.7)	1.414 (0.244)
	5~10년 미만	118	70(59.3)	34(28.8)	10(8.5)	2(1.7)	2(1.7)	
	10년 이상	148	76(51.4)	47(31.8)	18(12.2)	4(2.7)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7(61.3)	26(28.0)	4(4.3)	4(4.3)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8(54.5)	13(39.4)	1(3.0)	0(0.0)	1(3.0)	0.385 (0.535)
	비수도권	60	39(65.0)	13(21.7)	3(5.0)	4(6.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2(64.0)	13(26.0)	1(2.0)	3(6.0)	1(2.0)	0.053 (0.818)
	공공기관/법인	43	25(58.1)	13(30.2)	3(7.0)	1(2.3)	1(2.3)	
직무별	교수직	53	34(64.2)	14(26.4)	1(1.9)	3(5.7)	1(1.9)	0.160 (0.690)
	연구/사업직	40	23(57.5)	12(30.0)	3(7.5)	1(2.5)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66.5%) 지역, 지자체산하공단(78.4%)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45.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6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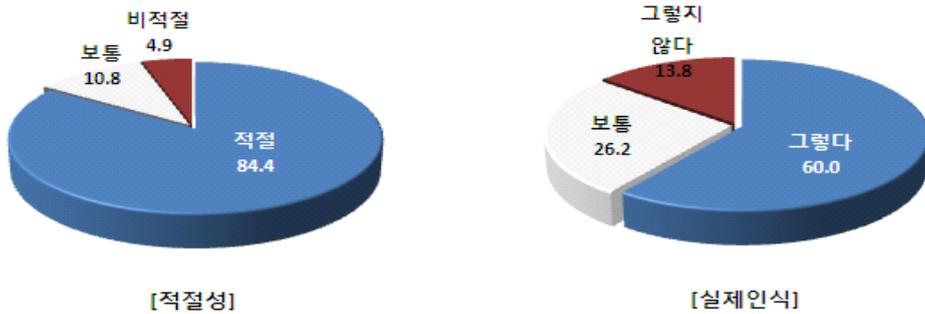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95(23.8)	142(35.5)	109(27.3)	37(9.3)	17(4.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3(32.9)	54(33.5)	39(24.2)	10(6.2)	5(3.1)	3.423** (0.009)
	경상권	86	19(22.1)	29(33.7)	27(31.4)	8(9.3)	3(3.5)	
	충청권	42	7(16.7)	19(45.2)	8(19.0)	5(11.9)	3(7.1)	
	전라권	41	5(12.2)	15(36.6)	12(29.3)	6(14.6)	3(7.3)	
	강원 제주권	70	11(15.7)	25(35.7)	23(32.9)	8(11.4)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57(26.8)	72(33.8)	61(28.6)	14(6.6)	9(4.2)	1.984 (0.160)
	청소년문화의집	187	38(20.3)	70(37.4)	48(25.7)	23(12.3)	8(4.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9(16.0)	41(34.5)	39(32.8)	13(10.9)	7(5.9)	3.988** (0.003)
	법인	109	29(26.6)	36(33.0)	29(26.6)	11(10.1)	4(3.7)	
	민간위탁	116	26(22.4)	44(37.9)	29(25.0)	11(9.5)	6(5.2)	
	지자체산하공단	51	20(39.2)	20(39.2)	9(17.6)	2(3.9)	0(0.0)	
	기타	5	1(20.0)	1(20.0)	3(6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5(14.3)	15(42.9)	9(25.7)	4(11.4)	2(5.7)	2.336 (0.098)
	간부	119	33(27.7)	45(37.8)	29(24.4)	11(9.2)	1(0.8)	
	일반직원	246	57(23.2)	82(33.3)	71(28.9)	22(8.9)	14(5.7)	
경력별	5년 미만	134	30(22.4)	44(32.8)	41(30.6)	15(11.2)	4(3.0)	0.888 (0.412)
	5~10년 미만	118	34(28.8)	41(34.7)	29(24.6)	9(7.6)	5(4.2)	
	10년 이상	148	31(20.9)	57(38.5)	39(26.4)	13(8.8)	8(5.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5.4)	35(37.6)	33(35.5)	19(20.4)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11(33.3)	9(27.3)	11(33.3)	0(0.0)	6.803** (0.009)
	비수도권	60	3(5.0)	24(40.0)	24(40.0)	8(13.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0)	22(44.0)	14(28.0)	11(22.0)	0(0.0)	0.929 (0.338)
	공공기관/법인	43	2(4.7)	13(30.2)	19(44.2)	8(18.6)	1(2.3)	
직무별	교수직	53	3(5.7)	22(41.5)	16(30.2)	12(22.6)	0(0.0)	0.301 (0.585)
	연구/사업직	40	2(5.0)	13(32.5)	17(42.5)	7(17.5)	1(2.5)	

\*p<.05, \*\*p<.01, \*\*\*p<.001

③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4.4%(매우: 57.0% + 조금: 27.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60.0%(매우: 25.2% + 조금: 34.9%)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84.3%) 및 청소년전문가(84.9%)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63.3%)가 청소년전문가(46.2%)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9]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표 IV-107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81(57.0)	135(27.4)	53(10.8)	18(3.7)	6(1.2)	-
	시설종사자	400	222(55.5)	115(28.8)	46(11.5)	13(3.3)	4(1.0)	0.165 (0.685)
	청소년전문가	93	59(63.4)	20(21.5)	7(7.5)	5(5.4)	2(2.2)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124(25.2)	172(34.9)	129(26.2)	54(11.0)	14(2.8)	-
	시설종사자	400	117(29.3)	136(34.0)	98(24.5)	36(9.0)	13(3.3)	13.963*** (0.000)
	청소년전문가	93	7(7.5)	36(38.7)	31(33.3)	18(19.4)	1(1.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08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22(55.5)	115(28.8)	46(11.5)	13(3.3)	4(1.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6(59.6)	44(27.3)	14(8.7)	5(3.1)	2(1.2)	0.414 (0.798)
	경상권	86	45(52.3)	28(32.6)	10(11.6)	1(1.2)	2(2.3)	
	충청권	42	22(52.4)	12(28.6)	6(14.3)	2(4.8)	0(0.0)	
	전라권	41	24(58.5)	10(24.4)	4(9.8)	3(7.3)	0(0.0)	
	강원 제주권	70	35(50.0)	21(30.0)	12(17.1)	2(2.9)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6(59.2)	56(26.3)	21(9.9)	7(3.3)	3(1.4)	0.942 (0.332)
	청소년문화의집	187	96(51.3)	59(31.6)	25(13.4)	6(3.2)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64(53.8)	35(29.4)	17(14.3)	2(1.7)	1(0.8)	0.679 (0.607)
	법인	109	62(56.9)	29(26.6)	10(9.2)	6(5.5)	2(1.8)	
	민간위탁	116	61(52.6)	36(31.0)	14(12.1)	4(3.4)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3(64.7)	13(25.5)	4(7.8)	1(2.0)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7(48.6)	12(34.3)	2(5.7)	4(11.4)	0(0.0)	0.524 (0.592)
	간부	119	66(55.5)	35(29.4)	13(10.9)	4(3.4)	1(0.8)	
	일반직원	246	139(56.5)	68(27.6)	31(12.6)	5(2.0)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79(59.0)	34(25.4)	18(13.4)	3(2.2)	0(0.0)	2.031 (0.133)
	5~10년 미만	118	72(61.0)	30(25.4)	11(9.3)	3(2.5)	2(1.7)	
	10년 이상	148	71(48.0)	51(34.5)	17(11.5)	7(4.7)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9(63.4)	20(21.5)	7(7.5)	5(5.4)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5(45.5)	12(36.4)	4(12.1)	1(3.0)	1(3.0)	1.279 (0.259)
	비수도권	60	44(73.3)	8(13.3)	3(5.0)	4(6.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9(58.0)	15(30.0)	3(6.0)	2(4.0)	1(2.0)	0.006 (0.941)
	공공기관/법인	43	30(69.8)	5(11.6)	4(9.3)	3(7.0)	1(2.3)	
직무별	교수직	53	31(58.5)	15(28.3)	4(7.5)	2(3.8)	1(1.9)	0.012 (0.914)
	연구/사업직	40	28(70.0)	5(12.5)	3(7.5)	3(7.5)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74.5%) 지역, 지자체산하공단(84.3%)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09**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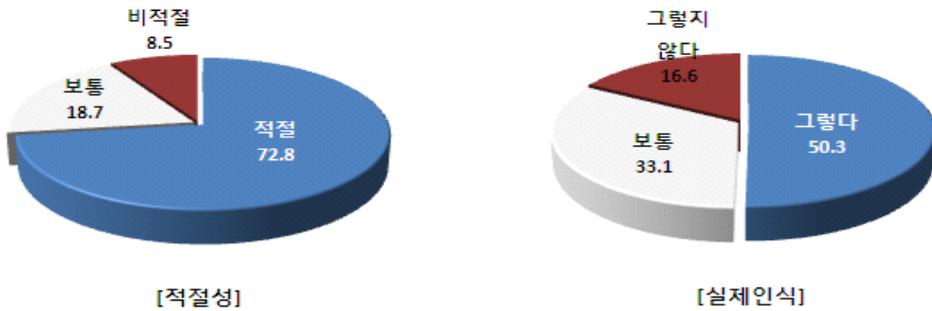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17(29.3)	136(34.0)	98(24.5)	36(9.0)	13(3.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6(34.8)	64(39.8)	27(16.8)	9(5.6)	5(3.1)	3.837** (0.005)
	경상권	86	23(26.7)	24(27.9)	30(34.9)	5(5.8)	4(4.7)	
	충청권	42	10(23.8)	13(31.0)	12(28.6)	5(11.9)	2(4.8)	
	전라권	41	6(14.6)	12(29.3)	14(34.1)	8(19.5)	1(2.4)	
	강원 제주권	70	22(31.4)	23(32.9)	15(21.4)	9(12.9)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4(30.0)	74(34.7)	47(22.1)	18(8.5)	10(4.7)	0.000 (0.999)
	청소년문화의집	187	53(28.3)	62(33.2)	51(27.3)	18(9.6)	3(1.6)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0(25.2)	38(31.9)	33(27.7)	11(9.2)	7(5.9)	3.120* (0.015)
	법인	109	35(32.1)	33(30.3)	27(24.8)	11(10.1)	3(2.8)	
	민간위탁	116	29(25.0)	43(37.1)	31(26.7)	10(8.6)	3(2.6)	
	지자체산하공단	51	22(43.1)	21(41.2)	5(9.8)	3(5.9)	0(0.0)	
	기타	5	1(20.0)	1(2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8(22.9)	15(42.9)	10(28.6)	2(5.7)	0(0.0)	1.468 (0.232)
	간부	119	34(28.6)	49(41.2)	27(22.7)	8(6.7)	1(0.8)	
	일반직원	246	75(30.5)	72(29.3)	61(24.8)	26(10.6)	1(4.9)	
경력별	5년 미만	134	41(30.6)	35(26.1)	37(27.6)	17(12.7)	4(3.0)	0.794 (0.453)
	5~10년 미만	118	38(32.2)	42(35.6)	25(21.2)	9(7.6)	4(3.4)	
	10년 이상	148	38(25.7)	59(39.9)	36(24.3)	10(6.8)	5(3.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7(7.5)	36(38.7)	31(33.3)	18(19.4)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4(12.1)	13(39.4)	9(27.3)	7(21.2)	0(0.0)	2.181 (0.140)
	비수도권	60	3(5.0)	23(38.3)	22(36.7)	11(18.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23(46.0)	16(32.0)	7(14.0)	0(0.0)	3.311 (0.072)
	공공기관/법인	43	3(7.0)	13(30.2)	15(34.9)	11(25.6)	1(2.3)	
직무별	교수직	53	4(7.5)	23(43.4)	19(35.8)	7(13.2)	0(0.0)	2.563 (0.113)
	연구/사업직	40	3(7.5)	13(32.5)	12(30.0)	11(27.5)	1(2.5)	

\*p<.05, \*\*p<.01, \*\*\*p<.001

④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72.8%(매우: 44.4% + 조금: 28.4%)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50.3%(매우: 22.9% + 조금: 27.4%)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77.4%)가 시설종사자(7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4.3%)가 청소년전문가(33.3%)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0]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표 IV-110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19(44.4)	140(28.4)	92(18.7)	27(5.5)	15(3.0)	-
	시설종사자	400	175(43.8)	112(28.0)	79(19.8)	22(5.5)	12(3.0)	0.532
	청소년전문가	93	44(47.3)	28(30.1)	13(14.0)	5(5.4)	3(3.2)	(0.466)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 제 인 식	전체	493	113(22.9)	135(27.4)	163(33.1)	65(13.2)	17(3.4)	-
	시설종사자	400	109(27.3)	108(27.0)	122(30.5)	47(11.8)	14(3.5)	17.119***
	청소년전문가	93	4(4.3)	27(29.0)	41(44.1)	18(19.4)	3(3.2)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수련관(79.8%) 유형, 지자체산하공단(88.2%)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III**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75(43.8)	112(28.0)	79(19.8)	22(5.5)	12(3.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76(47.2)	48(29.8)	23(14.3)	8(5.0)	6(3.7)	1.342 (0.254)
	경상권	86	38(44.2)	23(26.7)	18(20.9)	5(5.8)	2(2.3)	
	충청권	42	21(50.0)	12(28.6)	6(14.3)	3(7.1)	0(0.0)	
	전라권	41	15(36.6)	10(24.4)	12(29.3)	3(7.3)	1(2.4)	
	강원 제주권	70	25(35.7)	19(27.1)	20(28.6)	3(4.3)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05(49.3)	65(30.5)	29(13.6)	10(4.7)	4(1.9)	11.521** (0.001)
	청소년문화의집	187	70(37.4)	47(25.1)	50(26.7)	12(6.4)	8(4.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5(37.8)	30(25.2)	32(26.9)	7(5.9)	5(4.2)	3.307* (0.011)
	법인	109	54(49.5)	27(24.8)	20(18.3)	4(3.7)	4(3.7)	
	민간위탁	116	46(39.7)	37(31.9)	20(17.2)	10(8.6)	3(2.6)	
	지자체산하공단	51	29(56.9)	16(31.4)	6(11.8)	0(0.0)	0(0.0)	
	기타	5	1(20.0)	2(4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6(45.7)	8(22.9)	5(14.3)	4(11.4)	2(5.7)	1.178 (0.309)
	간부	119	54(45.4)	38(31.9)	21(17.6)	4(3.4)	2(1.7)	
	일반직원	246	105(42.7)	66(26.8)	53(21.5)	14(5.7)	8(3.3)	
경력별	5년 미만	134	50(37.3)	37(27.6)	33(24.6)	11(8.2)	3(2.2)	1.969 (0.141)
	5~10년 미만	118	61(51.7)	28(23.7)	19(16.1)	5(4.2)	5(4.2)	
	10년 이상	148	64(43.2)	47(31.8)	27(18.2)	6(4.1)	4(2.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4(47.3)	28(30.1)	13(14.0)	5(5.4)	3(3.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4(42.4)	11(33.3)	6(18.2)	0(0.0)	2(6.1)	0.000
	비수도권	60	30(50.0)	17(28.3)	7(11.7)	5(8.3)	1(1.7)	(0.983)
소속 직장별	대학	50	22(44.0)	17(34.0)	6(12.0)	4(8.0)	1(2.0)	0.081
	공공기관/법인	43	22(51.2)	11(25.6)	7(16.3)	1(2.3)	2(4.7)	(0.777)
직무별	교수직	53	24(45.3)	18(34.0)	6(11.3)	4(7.5)	1(1.9)	0.001
	연구/사업직	40	20(50.0)	10(25.0)	7(17.5)	1(2.5)	2(5.0)	(0.97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66.5%) 지역, 청소년수련관(59.2%) 유형, 지자체산하공단(80.4%) 및 기타(80.0%) 주체별, 간부(63.9%) 직위에 따라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5% 수준,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1% 수준,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2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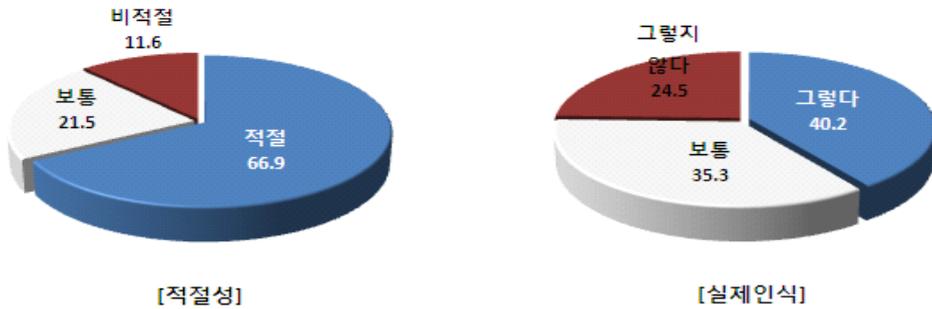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09(27.3)	108(27.0)	122(30.5)	47(11.8)	14(3.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0(37.3)	47(29.2)	37(23.0)	14(8.7)	6.179*** (0.000)
	경상권	86	19(22.1)	25(29.1)	29(33.7)	8(9.3)	
	충청권	42	10(23.8)	13(31.0)	12(28.6)	5(11.9)	
	전라권	41	6(14.6)	5(12.2)	19(46.3)	8(19.5)	
	강원 제주권	70	14(20.0)	18(25.7)	25(35.7)	12(17.1)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1(33.3)	55(25.8)	65(30.5)	15(7.0)	9.869** (0.002)
	청소년문화의집	187	38(20.3)	53(28.3)	57(30.5)	32(17.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9(16.0)	24(20.2)	42(35.3)	25(21.0)	12.237*** (0.000)
	법인	109	37(33.9)	32(29.4)	30(27.5)	8(7.3)	
	민간위탁	116	28(24.1)	32(27.6)	39(33.6)	14(12.1)	
	지자체산하공단	51	23(45.1)	18(35.3)	10(19.6)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6(17.1)	14(40.0)	9(25.7)	5(14.3)	4.573* (0.011)
	간부	119	39(32.8)	37(31.1)	35(29.4)	6(5.0)	
	일반직원	246	64(26.0)	57(23.2)	78(31.7)	36(14.6)	
경력별	5년 미만	134	30(22.4)	31(23.1)	49(36.6)	19(14.2)	2.354 (0.096)
	5~10년 미만	118	37(31.4)	33(28.0)	33(28.0)	11(9.3)	
	10년 이상	148	42(28.4)	44(29.7)	40(27.0)	17(11.5)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21(22.6)	42(45.2)	20(21.5)	7(7.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9(27.3)	15(45.5)	5(15.2)	3.068 (0.080)
	비수도권	60	2(3.3)	12(20.0)	27(45.0)	15(2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0)	11(22.0)	21(42.0)	10(20.0)	2.080 (0.153)
	공공기관/법인	43	0(0.0)	10(23.3)	21(48.8)	10(23.3)	
직무별	교수직	53	3(5.7)	11(20.8)	24(45.3)	10(18.9)	1.866 (0.175)
	연구사업직	40	0(0.0)	10(25.0)	18(45.0)	10(25.0)	

\*p<.05, \*\*p<.01, \*\*\*p<.001

⑤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66.9%(매우: 39.1% + 조금: 27.8%)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0.2%(매우: 14.4% + 조금: 25.8%)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72.0%)가 시설종사자(6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43.5%)가 청소년전문가(25.8%)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1]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표 IV-113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193(39.1)	137(27.8)	106(21.5)	31(6.3)	26(5.3)	-
	시설종사자	400	158(39.5)	105(26.3)	88(22.0)	27(6.8)	22(5.5)	0.490 (0.484)
	청소년전문가	93	35(37.6)	32(34.4)	18(19.4)	4(4.3)	4(4.3)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71(14.4)	127(25.8)	174(35.3)	82(16.6)	39(7.9)	-
	시설종사자	400	68(17.0)	106(26.5)	132(33.0)	62(15.5)	32(8.0)	8.040** (0.005)
	청소년전문가	93	3(3.2)	21(22.6)	42(45.2)	20(21.5)	7(7.5)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전라권(75.6%) 지역, 지자체산하공단(78.4%)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4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58(39.5)	105(26.3)	88(22.0)	27(6.8)	22(5.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71(44.1)	43(26.7)	30(18.6)	10(6.2)	7(4.3)	2.687* (0.031)
	경상권	86	31(36.0)	24(27.9)	19(22.1)	7(8.1)	5(5.8)	
	충청권	42	15(35.7)	13(31.0)	8(19.0)	3(7.1)	3(7.1)	
	전라권	41	19(46.3)	12(29.3)	8(19.5)	2(4.9)	0(0.0)	
	강원 제주권	70	22(31.4)	13(18.6)	23(32.9)	5(7.1)	7(1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89(41.8)	60(28.2)	41(19.2)	15(7.0)	8(3.8)	3.140 (0.077)
	청소년문화의집	187	69(36.9)	45(24.1)	47(25.1)	12(6.4)	14(7.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6(30.3)	31(26.1)	34(28.6)	8(6.7)	10(8.4)	3.208* (0.013)
	법인	109	53(48.6)	24(22.0)	19(17.4)	7(6.4)	6(5.5)	
	민간위탁	116	42(36.2)	34(29.3)	26(22.4)	9(7.8)	5(4.3)	
	지자체산하공단	51	27(52.9)	13(25.5)	8(15.7)	2(3.9)	1(2.0)	
	기타	5	0(0.0)	3(6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2(34.3)	9(25.7)	7(20.0)	4(11.4)	3(8.6)	1.158 (0.315)
	간부	119	52(43.7)	30(25.2)	24(20.2)	9(7.6)	4(3.4)	
	일반직원	246	94(38.2)	66(26.8)	57(23.2)	14(5.7)	15(6.1)	
경력별	5년 미만	134	48(35.8)	35(26.1)	38(28.4)	7(5.2)	6(4.5)	2.453 (0.087)
	5~10년 미만	118	57(48.3)	28(23.7)	22(18.6)	6(5.1)	5(4.2)	
	10년 이상	148	53(35.8)	42(28.4)	28(18.9)	14(9.5)	11(7.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5(37.6)	32(34.4)	18(19.4)	4(4.3)	4(4.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0(30.3)	11(33.3)	10(30.3)	0(0.0)	2(6.1)	0.147 (0.701)
	비수도권	60	25(41.7)	21(35.0)	8(13.3)	4(6.7)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17(34.0)	19(38.0)	9(18.0)	3(6.0)	2(4.0)	0.214 (0.645)
	공공기관/법인	43	18(41.9)	13(30.2)	9(20.9)	1(2.3)	2(4.7)	
직무별	교수직	53	19(35.8)	19(35.8)	10(18.9)	3(5.7)	2(3.8)	0.063 (0.802)
	연구/사업직	40	16(40.0)	13(32.5)	8(20.0)	1(2.5)	2(5.0)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57.1%) 지역, 청소년수련관(48.4%) 유형, 지자체산하공단(70.6%) 주체별, 간부(47.9%) 직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5% 수준, 직위에 따라 1% 수준,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5**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68(17.0)	106(26.5)	132(33.0)	62(15.5)	32(8.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6(22.4)	56(34.8)	48(29.8)	14(8.7)	7(4.3)	6.088*** (0.000)
	경상권	86	12(14.0)	20(23.3)	31(36.0)	13(15.1)	10(11.6)	
	충청권	42	5(11.9)	8(19.0)	15(35.7)	7(16.7)	7(16.7)	
	전라권	41	7(17.1)	6(14.6)	16(39.0)	10(24.4)	2(4.9)	
	강원 제주권	70	8(11.4)	16(22.9)	22(31.4)	18(25.7)	6(8.6)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42(19.7)	61(28.6)	67(31.5)	30(14.1)	13(6.1)	5.624* (0.018)
	청소년문화의집	187	26(13.9)	45(24.1)	65(34.8)	32(17.1)	19(10.2)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2(10.1)	24(20.2)	39(32.8)	28(23.5)	16(13.4)	7.296*** (0.000)
	법인	109	23(21.1)	27(24.8)	41(37.6)	11(10.1)	7(6.4)	
	민간위탁	116	19(16.4)	32(27.6)	39(33.6)	19(16.4)	7(6.0)	
	지자체산하공단	51	13(25.5)	23(45.1)	10(19.6)	4(7.8)	1(2.0)	
	기타	5	1(20.0)	0(0.0)	3(60.0)	0(0.0)	1(20.0)	
직위별	관장	35	3(8.6)	8(22.9)	8(22.9)	12(34.3)	4(11.4)	4.862** (0.008)
	간부	119	25(21.0)	32(26.9)	43(36.1)	15(12.6)	4(3.4)	
	일반직원	246	40(16.3)	66(26.8)	81(32.9)	35(14.2)	24(9.8)	
경력별	5년 미만	134	23(17.2)	33(24.6)	55(41.0)	11(8.2)	12(9.0)	1.582 (0.207)
	5~10년 미만	118	21(17.8)	39(33.1)	31(26.3)	21(17.8)	6(5.1)	
	10년 이상	148	24(16.2)	34(23.0)	46(31.1)	30(20.3)	14(9.5)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21(22.6)	42(45.2)	20(21.5)	7(7.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9(27.3)	15(45.5)	5(15.2)	3(9.1)	1.362 (0.244)
	비수도권	60	2(3.3)	12(20.0)	27(45.0)	15(25.0)	4(6.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0)	11(22.0)	21(42.0)	10(20.0)	5(10.0)	0.029 (0.866)
	공공기관/법인	43	0(0.0)	10(23.3)	21(48.8)	10(23.3)	2(4.7)	
직무별	교수직	53	3(5.7)	11(20.8)	24(45.3)	10(18.9)	5(9.4)	0.049 (0.826)
	연구/사업직	40	0(0.0)	10(25.0)	18(45.0)	10(25.0)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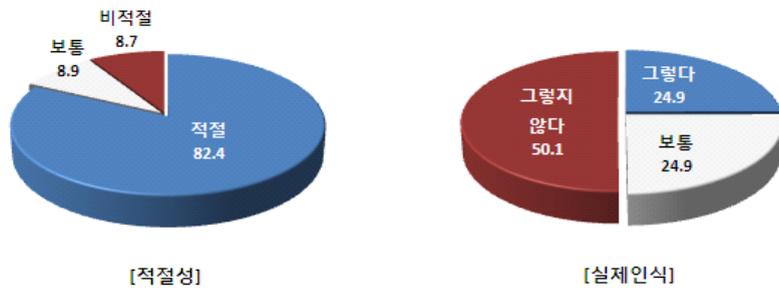
\*p<.05, \*\*p<.01, \*\*\*p<.001

(5) 지속가능성 영역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청소년수련시설은 적절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2.4%(매우: 64.7% + 조금: 17.6%)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24.9%(매우: 10.1% + 조금: 14.8%)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90.3%)가 시설종사자(80.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25.8%)가 청소년전문가(21.5%)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4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표 IV-11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19(64.7)	87(17.6)	44(8.9)	27(5.5)	16(3.2)	-
	시설종사자	400	256(64.0)	66(16.5)	39(9.8)	24(6.0)	15(3.8)	3.164 (0.076)
	청소년전문가	93	63(67.7)	21(22.6)	5(5.4)	3(3.2)	1(1.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50(10.1)	73(14.8)	123(24.9)	147(29.8)	100(20.3)	-
	시설종사자	400	47(11.8)	56(14.0)	90(22.5)	119(29.8)	88(22.0)	0.125 (0.723)
	청소년전문가	93	3(3.2)	17(18.3)	33(35.5)	28(30.1)	12(12.9)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수련관(85.0%)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7**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56(64.0)	66(16.5)	39(9.8)	24(6.0)	15(3.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8(67.1)	29(18.0)	14(8.7)	5(3.1)	5(3.1)	1.199 (0.311)
	경상권	86	53(61.6)	12(14.0)	12(14.0)	5(5.8)	4(4.7)	
	충청권	42	29(69.0)	6(14.3)	2(4.8)	4(9.5)	1(2.4)	
	전라권	41	26(63.4)	8(19.5)	2(4.9)	3(7.3)	2(4.9)	
	강원 제주권	70	40(57.1)	11(15.7)	9(12.9)	7(10.0)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7(69.0)	34(16.0)	19(8.9)	8(3.8)	5(2.3)	8.021** (0.005)
	청소년문화의집	187	109(58.3)	32(17.1)	20(10.7)	16(8.6)	10(5.3)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2(60.5)	17(14.3)	12(10.1)	11(9.2)	7(5.9)	1.118 (0.348)
	법인	109	75(68.8)	16(14.7)	9(8.3)	4(3.7)	5(4.6)	
	민간위탁	116	76(65.5)	21(18.1)	12(10.3)	5(4.3)	2(1.7)	
	지자체산하공단	51	30(58.8)	11(21.6)	5(9.8)	4(7.8)	1(2.0)	
	기타	5	3(60.0)	1(2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6(74.3)	6(17.1)	0(0.0)	1(2.9)	2(5.7)	1.448 (0.236)
	간부	119	81(68.1)	15(12.6)	16(13.4)	3(2.5)	4(3.4)	
	일반직원	246	149(60.6)	45(18.3)	23(9.3)	20(8.1)	9(3.7)	
경력별	5년 미만	134	75(56.0)	27(20.1)	15(11.2)	12(9.0)	5(3.7)	1.992 (0.138)
	5~10년 미만	118	77(65.3)	20(16.9)	12(10.2)	5(4.2)	4(3.4)	
	10년 이상	148	104(70.3)	19(12.8)	12(8.1)	7(4.7)	6(4.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3(67.7)	21(22.6)	5(5.4)	3(3.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0(60.6)	10(30.3)	2(6.1)	1(3.0)	0(0.0)	0.563 (0.454)
	비수도권	60	43(71.7)	11(18.3)	3(5.0)	2(3.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5(70.0)	11(22.0)	1(2.0)	3(6.0)	0(0.0)	0.171 (0.680)
	공공기관/법인	43	28(65.1)	10(23.3)	4(9.3)	0(0.0)	1(2.3)	
직무별	교수직	53	37(69.8)	11(20.8)	2(3.8)	3(5.7)	0(0.0)	0.073 (0.787)
	연구/사업직	40	26(65.0)	10(25.0)	3(7.5)	0(0.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수련관(31.5%) 유형, 지자체산하공단(45.1%)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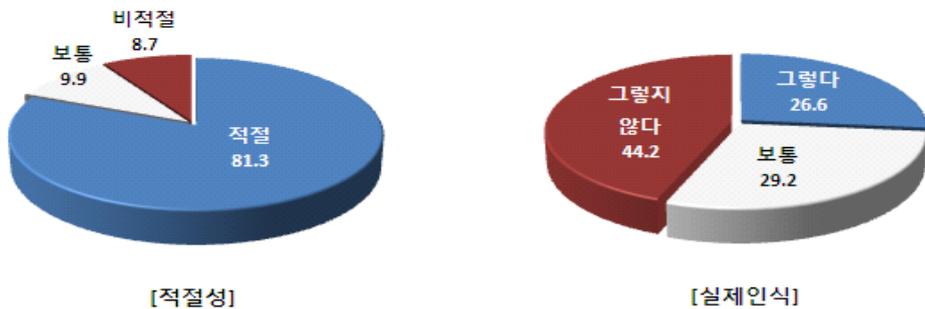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47(11.8)	56(14.0)	90(22.5)	119(29.8)	88(22.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1(13.0)	29(18.0)	37(23.0)	45(28.0)	29(18.0)	2.067 (0.084)
	경상권	86	11(12.8)	14(16.3)	21(24.4)	21(24.4)	19(22.1)	
	충청권	42	5(11.9)	4(9.5)	8(19.0)	15(35.7)	10(23.8)	
	전라권	41	4(9.8)	3(7.3)	8(19.5)	18(43.9)	8(19.5)	
	강원 제주권	70	6(8.6)	6(8.6)	16(22.9)	20(28.6)	22(3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6(16.9)	31(14.6)	46(21.6)	57(26.8)	43(20.2)	8.534** (0.004)
	청소년문화의집	187	11(5.9)	25(13.4)	44(23.5)	62(33.2)	45(24.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9(7.6)	14(11.8)	28(23.5)	31(26.1)	37(31.1)	3.235* (0.012)
	법인	109	16(14.7)	12(11.0)	25(22.9)	36(33.0)	20(18.3)	
	민간위탁	116	13(11.2)	15(12.9)	25(21.6)	39(33.6)	24(20.7)	
	지자체산하공단	51	8(15.7)	15(29.4)	10(19.6)	12(23.5)	6(11.8)	
	기타	5	1(20.0)	0(0.0)	2(40.0)	1(20.0)	1(20.0)	
직위별	관장	35	1(2.9)	8(22.9)	8(22.9)	11(31.4)	7(20.0)	0.625 (0.536)
	간부	119	15(12.6)	16(13.4)	30(25.2)	40(33.6)	18(15.1)	
	일반직원	246	31(12.6)	32(13.0)	52(21.1)	68(27.6)	63(25.6)	
경력별	5년 미만	134	17(12.7)	20(14.9)	34(25.4)	30(22.4)	33(24.6)	0.491 (0.612)
	5~10년 미만	118	17(14.4)	18(15.3)	17(14.4)	43(36.4)	23(19.5)	
	10년 이상	148	13(8.8)	18(12.2)	39(26.4)	46(31.1)	32(21.6)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3(3.2)	17(18.3)	33(35.5)	28(30.1)	12(12.9)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0(0.0)	4(12.1)	12(36.4)	11(33.3)	6(18.2)	1.139 (0.286)
	비수도권	60	3(5.0)	13(21.7)	21(35.0)	17(28.3)	6(1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2(4.0)	9(18.0)	14(28.0)	15(30.0)	10(20.0)	1.717 (0.193)
	공공기관/법인	43	1(2.3)	8(18.6)	19(44.2)	13(30.2)	2(4.7)	
직무별	교수직	53	2(3.8)	9(17.0)	17(32.1)	15(28.3)	10(18.9)	1.263 (0.264)
	연구/사업직	40	1(2.5)	8(20.0)	16(40.0)	13(32.5)	2(5.0)	

\*p<.05, \*\*p<.01, \*\*\*p<.001

②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청소년수련시설은 적정한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1.3%(매우: 63.1% + 조금: 18.3%)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26.6%(매우: 9.1% + 조금: 17.4%)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91.4%)가 시설종사자(7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29.0%)가 청소년전문가(16.1%)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4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표 IV-1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11(63.1)	90(18.3)	49(9.9)	26(5.3)	17(3.4)	-
	시설종사자	400	249(62.3)	67(16.8)	45(11.3)	23(5.8)	16(4.0)	4.190*
	청소년전문가	93	62(66.7)	23(24.7)	4(4.3)	3(3.2)	1(1.1)	(0.04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45(9.1)	86(17.4)	144(29.2)	129(26.2)	89(18.1)	-
	시설종사자	400	43(10.8)	73(18.3)	107(26.8)	104(26.0)	73(18.3)	2.133
	청소년전문가	93	2(2.2)	13(14.0)	37(39.8)	25(26.9)	16(17.2)	(0.145)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수련관(82.6%)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0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49(62.3)	67(16.8)	45(11.3)	23(5.8)	16(4.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6(65.8)	33(20.5)	15(9.3)	3(1.9)	4(2.5)	1.825 (0.123)
	경상권	86	52(60.5)	10(11.6)	16(18.6)	4(4.7)	4(4.7)	
	충청권	42	26(61.9)	5(11.9)	5(11.9)	4(9.5)	2(4.8)	
	전라권	41	26(63.4)	6(14.6)	3(7.3)	3(7.3)	3(7.3)	
	강원 제주권	70	39(55.7)	13(18.6)	6(8.6)	9(12.9)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3(67.1)	33(15.5)	23(10.8)	9(4.2)	5(2.3)	6.569* (0.011)
	청소년문화의집	187	106(56.7)	34(18.2)	22(11.8)	14(7.5)	11(5.9)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65(54.6)	22(18.5)	17(14.3)	9(7.6)	6(5.0)	1.053 (0.380)
	법인	109	72(66.1)	20(18.3)	7(6.4)	4(3.7)	6(5.5)	
	민간위탁	116	78(67.2)	15(12.9)	13(11.2)	6(5.2)	4(3.4)	
	자주체산하공단	51	31(60.8)	10(19.6)	6(11.8)	4(7.8)	0(0.0)	
	기타	5	3(60.0)	0(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6(74.3)	5(14.3)	1(2.9)	2(5.7)	1(2.9)	1.725 (0.180)
	간부	119	80(67.2)	16(13.4)	15(12.6)	2(1.7)	6(5.0)	
	일반직원	246	143(58.1)	46(18.7)	29(11.8)	19(7.7)	9(3.7)	
경력별	5년 미만	134	71(53.0)	26(19.4)	21(15.7)	11(8.2)	5(3.7)	2.594 (0.076)
	5~10년 미만	118	78(66.1)	20(16.9)	9(7.6)	5(4.2)	6(5.1)	
	10년 이상	148	100(67.6)	21(14.2)	15(10.1)	7(4.7)	5(3.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62(66.7)	23(24.7)	4(4.3)	3(3.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7(51.5)	13(39.4)	2(6.1)	1(3.0)	0(0.0)	0.157 (0.692)
	비수도권	60	45(75.0)	10(16.7)	2(3.3)	2(3.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72.0)	10(20.0)	1(2.0)	3(6.0)	0(0.0)	0.456 (0.501)
	공공기관/법인	43	26(60.5)	13(30.2)	3(7.0)	0(0.0)	1(2.3)	
직무별	교수직	53	37(69.8)	11(20.8)	2(3.8)	3(5.7)	0(0.0)	0.076 (0.784)
	연구/사업직	40	25(62.5)	12(30.0)	2(5.0)	0(0.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수도권(37.3%) 지역, 지자체산하공단(58.8%)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 수련시설 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 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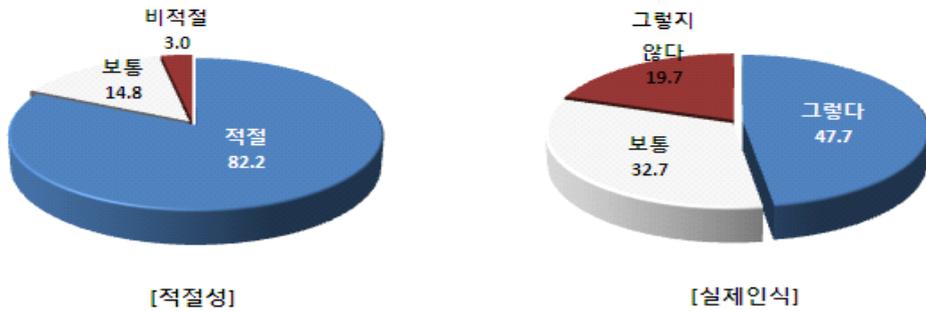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43(10.8)	73(18.3)	107(26.8)	104(26.0)	73(18.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0(12.4)	40(24.8)	38(23.6)	41(25.5)	22(13.7)	3.531** (0.008)
	경상권	86	9(10.5)	14(16.3)	29(33.7)	19(22.1)	15(17.4)	
	충청권	42	4(9.5)	5(11.9)	11(26.2)	14(33.3)	8(19.0)	
	전라권	41	2(4.9)	1(2.4)	13(31.7)	12(29.3)	13(31.7)	
	강원 제주권	70	8(11.4)	13(18.6)	16(22.9)	18(25.7)	15(2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1(14.6)	36(16.9)	56(26.3)	56(26.3)	34(16.0)	3.276 (0.071)
	청소년문화의집	187	12(6.4)	37(19.8)	51(27.3)	48(25.7)	39(20.9)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9(7.6)	26(21.8)	31(26.1)	28(23.5)	25(21.0)	8.377*** (0.000)
	법인	109	12(11.0)	15(13.8)	30(27.5)	31(28.4)	21(19.3)	
	민간위탁	116	10(8.6)	12(10.3)	31(26.7)	37(31.9)	26(22.4)	
	지자체산하공단	51	11(21.6)	19(37.3)	13(25.5)	7(13.7)	1(2.0)	
	기타	5	1(20.0)	1(20.0)	2(4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1(2.9)	6(17.1)	9(25.7)	13(37.1)	6(17.1)	1.072 (0.343)
	간부	119	10(8.4)	20(16.8)	37(31.1)	32(26.9)	20(16.8)	
	일반직원	246	32(13.0)	47(19.1)	61(24.8)	59(24.0)	47(19.1)	
경력별	5년 미만	134	15(11.2)	31(23.1)	39(29.1)	21(15.7)	28(20.9)	1.179 (0.309)
	5~10년 미만	118	17(14.4)	19(16.1)	24(20.3)	39(33.1)	19(16.1)	
	10년 이상	148	11(7.4)	23(15.5)	44(29.7)	44(29.7)	26(17.6)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2.2)	13(14.0)	37(39.8)	25(26.9)	16(17.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0(0.0)	5(15.2)	10(30.3)	10(30.3)	8(24.2)	3.354 (0.068)
	비수도권	60	2(3.3)	8(13.3)	27(45.0)	15(25.0)	8(1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1(2.0)	8(16.0)	14(28.0)	16(32.0)	11(22.0)	1.825 (0.180)
	공공기관/법인	43	1(2.3)	5(11.6)	23(53.5)	9(20.9)	5(11.6)	
직무별	교수직	53	1(1.9)	8(15.1)	17(32.1)	16(30.2)	11(20.8)	1.180 (0.280)
	연구/사업직	40	1(2.5)	5(12.5)	20(50.0)	9(22.5)	5(12.5)	

\*p<.05, \*\*p<.01, \*\*\*p<.001

③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에 대해 청소년이나 주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2.2%(매우: 55.0% + 조금: 27.2%)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47.7%(매우: 14.0% + 조금: 33.7%)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84.9%)가 시설종사자(8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51.5%)가 청소년전문가(31.2%)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표 IV-12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271(55.0)	134(27.2)	73(14.8)	10(2.0)	5(1.0)	-
	시설종사자	400	223(55.8)	103(25.8)	62(15.5)	8(2.0)	4(1.0)	0.010
	청소년전문가	93	48(51.6)	31(33.3)	11(11.8)	2(2.2)	1(1.1)	(0.922)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 인식	전체	493	69(14.0)	166(33.7)	161(32.7)	70(14.2)	27(5.5)	-
	시설종사자	400	67(16.8)	139(34.8)	122(30.5)	51(12.8)	21(5.3)	13.919***
	청소년전문가	93	2(2.2)	27(29.0)	39(41.9)	19(20.4)	6(6.5)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23(55.8)	103(25.8)	62(15.5)	8(2.0)	4(1.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91(56.5)	43(26.7)	23(14.3)	3(1.9)	1(0.6)	0.498 (0.737)
	경상권	86	46(53.5)	22(25.6)	13(15.1)	3(3.5)	2(2.3)	
	충청권	42	26(61.9)	10(23.8)	5(11.9)	1(2.4)	0(0.0)	
	전라권	41	22(53.7)	11(26.8)	7(17.1)	0(0.0)	1(2.4)	
	강원 제주권	70	38(54.3)	17(24.3)	14(20.0)	1(1.4)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28(60.1)	50(23.5)	28(13.1)	4(1.9)	3(1.4)	1.929 (0.166)
	청소년문화의집	187	95(50.8)	53(28.3)	34(18.2)	4(2.1)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8(48.7)	33(27.7)	25(21.0)	1(0.8)	2(1.7)	1.120 (0.347)
	법인	109	67(61.5)	26(23.9)	14(12.8)	1(0.9)	1(0.9)	
	민간위탁	116	64(55.2)	31(26.7)	17(14.7)	3(2.6)	1(0.9)	
	자주체산하공단	51	32(62.7)	11(21.6)	5(9.8)	3(5.9)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7(20.0)	6(17.1)	1(2.9)	0(0.0)	0.315 (0.730)
	간부	119	69(58.0)	31(26.1)	15(12.6)	3(2.5)	1(0.8)	
	일반직원	246	133(54.1)	65(26.4)	41(16.7)	4(1.6)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65(48.5)	39(29.1)	26(19.4)	3(2.2)	1(0.7)	2.229 (0.109)
	5~10년 미만	118	77(65.3)	20(16.9)	19(16.1)	2(1.7)	0(0.0)	
	10년 이상	148	81(54.7)	44(29.7)	17(11.5)	3(2.0)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48(51.6)	31(33.3)	11(11.8)	2(2.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7(51.5)	14(42.4)	1(3.0)	1(3.0)	0(0.0)	0.406 (0.524)
	비수도권	60	31(51.7)	17(28.3)	10(16.7)	1(1.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8(56.0)	18(36.0)	2(4.0)	2(4.0)	0(0.0)	2.093 (0.151)
	공공기관/법인	43	20(46.5)	13(30.2)	9(20.9)	0(0.0)	1(2.3)	
직무별	교수직	53	29(54.7)	20(37.7)	2(3.8)	2(3.8)	0(0.0)	2.147 (0.146)
	연구/사업직	40	19(47.5)	11(27.5)	9(22.5)	0(0.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68.6%)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비수도권(31.7%)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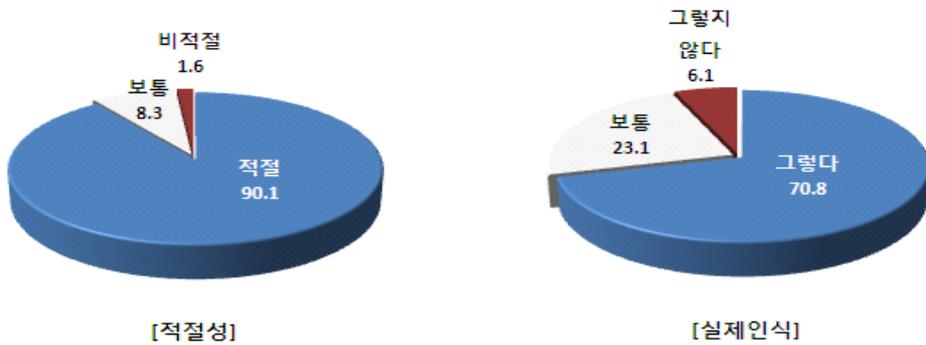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67(16.8)	139(34.8)	122(30.5)	51(12.8)	21(5.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9(18.0)	59(36.6)	45(28.0)	22(13.7)	6(3.7)	1.472 (0.210)
	경상권	86	16(18.6)	29(33.7)	25(29.1)	12(14.0)	4(4.7)	
	충청권	42	6(14.3)	16(38.1)	13(31.0)	4(9.5)	3(7.1)	
	전라권	41	4(9.8)	10(24.4)	17(41.5)	5(12.2)	5(12.2)	
	강원 제주권	70	12(17.1)	25(35.7)	22(31.4)	8(11.4)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8(17.8)	70(32.9)	61(28.6)	30(14.1)	14(6.6)	0.535 (0.465)
	청소년문화의집	187	29(15.5)	69(36.9)	61(32.6)	21(11.2)	7(3.7)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6(13.4)	34(28.6)	41(34.5)	17(14.3)	11(9.2)	3.181* (0.014)
	법인	109	22(20.2)	34(31.2)	33(30.3)	15(13.8)	5(4.6)	
	민간위탁	116	13(11.2)	51(44.0)	36(31.0)	11(9.5)	5(4.3)	
	지자체산하공단	51	16(31.4)	19(37.3)	8(15.7)	8(15.7)	0(0.0)	
	기타	5	0(0.0)	1(20.0)	4(8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5(14.3)	14(40.0)	13(37.1)	3(8.6)	0(0.0)	1.972 (0.141)
	간부	119	14(11.8)	60(50.4)	29(24.4)	13(10.9)	3(2.5)	
	일반직원	246	48(19.5)	65(26.4)	80(32.5)	35(14.2)	18(7.3)	
경력별	5년 미만	134	22(16.4)	49(36.6)	35(26.1)	20(14.9)	8(6.0)	0.136 (0.873)
	5~10년 미만	118	26(22.0)	31(26.3)	37(31.4)	16(13.6)	8(6.8)	
	10년 이상	148	19(12.8)	59(39.9)	50(33.8)	15(10.1)	5(3.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2.2)	27(29.0)	39(41.9)	19(20.4)	6(6.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0)	9(27.3)	9(27.3)	9(27.3)	5(15.2)	11.843** (0.001)
	비수도권	60	1(1.7)	18(30.0)	30(50.0)	10(16.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1(2.0)	16(32.0)	18(36.0)	12(24.0)	3(6.0)	0.000 (1.000)
	공공기관/법인	43	1(2.3)	11(25.6)	21(48.8)	7(16.3)	3(7.0)	
직무별	교수직	53	1(1.9)	17(32.1)	20(37.7)	12(22.6)	3(5.7)	0.051 (0.821)
	연구/사업직	40	1(2.5)	10(25.0)	19(47.5)	7(17.5)	3(7.5)	

\*p<.05, \*\*p<.01, \*\*\*p<.001

④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의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90.1%(매우: 67.5% + 조금: 22.5%)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70.8%(매우: 33.7% + 조금: 37.1%)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0.5%)가 청소년전문가(88.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75.0%)가 청소년전문가(52.7%)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5】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표 IV-125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절성	전체	493	333(67.5)	111(22.5)	41(8.3)	5(1.0)	3(0.6)	-
	시설종사자	400	277(69.3)	85(21.3)	34(8.5)	2(0.5)	2(0.5)	3.210 (0.074)
	청소년전문가	93	56(60.2)	26(28.0)	7(7.5)	3(3.2)	1(1.1)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제인식	전체	493	166(33.7)	183(37.1)	114(23.1)	23(4.7)	7(1.4)	-
	시설종사자	400	153(38.3)	147(36.8)	81(20.3)	13(3.3)	6(1.5)	25.414*** (0.000)
	청소년전문가	93	13(14.0)	36(38.7)	33(35.5)	10(10.8)	1(1.1)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94.3%), 5~10년 미만(94.9%)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 및 경력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6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77(69.3)	85(21.3)	34(8.5)	2(0.5)	2(0.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10(68.3)	42(26.1)	9(5.6)	0(0.0)	0(0.0)	0.817 (0.515)
	경상권	86	59(68.6)	17(19.8)	7(8.1)	1(1.2)	2(2.3)	
	충청권	42	32(76.2)	4(9.5)	5(11.9)	1(2.4)	0(0.0)	
	전라권	41	31(75.6)	7(17.1)	3(7.3)	0(0.0)	0(0.0)	
	강원 제주권	70	45(64.3)	15(21.4)	10(14.3)	0(0.0)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9(70.0)	43(20.2)	18(8.5)	2(0.9)	1(0.5)	0.000 (0.992)
	청소년문화의집	187	128(68.4)	42(22.5)	16(8.6)	0(0.0)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6(63.9)	28(23.5)	13(10.9)	0(0.0)	2(1.7)	1.097 (0.358)
	법인	109	77(70.6)	22(20.2)	9(8.3)	1(0.9)	0(0.0)	
	민간위탁	116	80(69.0)	27(23.3)	9(7.8)	0(0.0)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40(78.4)	8(15.7)	2(3.9)	1(2.0)	0(0.0)	
	기타	5	4(80.0)	0(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8(80.0)	5(14.3)	2(5.7)	0(0.0)	0(0.0)	3.628* (0.027)
	간부	119	91(76.5)	20(16.8)	7(5.9)	1(0.8)	0(0.0)	
	일반직원	246	158(64.2)	60(24.4)	25(10.2)	1(0.4)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83(61.9)	32(23.9)	17(12.7)	1(0.7)	1(0.7)	3.274* (0.039)
	5~10년 미만	118	82(69.5)	30(25.4)	6(5.1)	0(0.0)	0(0.0)	
	10년 이상	148	112(75.7)	23(15.5)	11(7.4)	1(0.7)	1(0.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6(60.2)	26(28.0)	7(7.5)	3(3.2)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9(57.6)	12(36.4)	1(3.0)	1(3.0)	0(0.0)	0.306 (0.581)
	비수도권	60	37(61.7)	14(23.3)	6(10.0)	2(3.3)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33(66.0)	12(24.0)	2(4.0)	3(6.0)	0(0.0)	0.725 (0.397)
	공공기관/법인	43	23(53.5)	14(32.6)	5(11.6)	0(0.0)	1(2.3)	
직무별	교수직	53	34(64.2)	13(24.5)	3(5.7)	3(5.7)	0(0.0)	0.291 (0.591)
	연구/사업직	40	22(55.0)	13(32.5)	4(10.0)	0(0.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지자체산하공단(88.2%) 주체별, 간부(84.0%) 직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64.6%)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 및 직위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7**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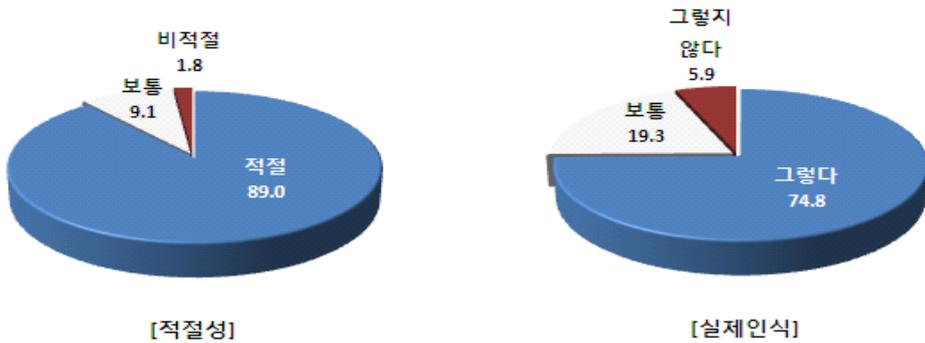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53(38.3)	147(36.8)	81(20.3)	13(3.3)	6(1.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3(39.1)	58(36.0)	34(21.1)	5(3.1)	1(0.6)	1.124 (0.345)
	경상권	86	31(36.0)	30(34.9)	17(19.8)	4(4.7)	4(4.7)	
	충청권	42	20(47.6)	17(40.5)	3(7.1)	1(2.4)	1(2.4)	
	전라권	41	18(43.9)	10(24.4)	10(24.4)	3(7.3)	0(0.0)	
	강원 제주권	70	21(30.0)	32(45.7)	17(24.3)	0(0.0)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81(38.0)	71(33.3)	48(22.5)	8(3.8)	5(2.3)	1.980 (0.160)
	청소년문화의집	187	72(38.5)	76(40.6)	33(17.6)	5(2.7)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4(28.6)	50(42.0)	27(22.7)	5(4.2)	3(2.5)	2.503* (0.042)
	법인	109	43(39.4)	36(33.0)	26(23.9)	3(2.8)	1(0.9)	
	민간위탁	116	48(41.4)	40(34.5)	22(19.0)	4(3.4)	2(1.7)	
	지자체산하공단	51	26(51.0)	19(37.3)	5(9.8)	1(2.0)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4(40.0)	13(37.1)	7(20.0)	1(2.9)	0(0.0)	4.253* (0.015)
	간부	119	52(43.7)	48(40.3)	18(15.1)	0(0.0)	1(0.8)	
	일반직원	246	87(35.4)	86(35.0)	56(22.8)	12(4.9)	5(2.0)	
경력별	5년 미만	134	49(36.6)	41(30.6)	37(27.6)	6(4.5)	1(0.7)	1.632 (0.197)
	5~10년 미만	118	51(43.2)	44(37.3)	19(16.1)	2(1.7)	2(1.7)	
	10년 이상	148	53(35.8)	62(41.9)	25(16.9)	5(3.4)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3(14.0)	36(38.7)	33(35.5)	10(10.8)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5(15.2)	16(48.5)	8(24.2)	3(9.1)	1(3.0)	4.477* (0.035)
	비수도권	60	8(13.3)	20(33.3)	25(41.7)	7(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10(20.0)	21(42.0)	12(24.0)	6(12.0)	1(2.0)	2.005 (0.160)
	공공기관/법인	43	3(7.0)	15(34.9)	21(48.8)	4(9.3)	0(0.0)	
직무별	교수직	53	10(18.9)	21(39.6)	15(28.3)	6(11.3)	1(1.9)	1.092 (0.299)
	연구/사업직	40	3(7.5)	15(37.5)	18(45.0)	4(10.0)	0(0.0)	

\*p<.05, \*\*p<.01, \*\*\*p<.001

⑤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에 대한 적절성 조사 결과, '적절'하다는 응답이 89.0%(매우: 64.3% + 조금: 24.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에 대한 인식은 '그렇다'는 응답이 74.8%(매우: 38.3% + 조금: 36.5%)로 적절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적절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시설종사자(90.3%)가 청소년전문가(83.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인식은 시설종사자(79.0%)가 청소년전문가(57.0%)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6]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표 IV-128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적 절 성	전체	493	317(64.3)	122(24.7)	45(9.1)	6(1.2)	3(0.6)	-
	시설종사자	400	266(66.5)	95(23.8)	32(8.0)	5(1.3)	2(0.5)	4.743*
	청소년전문가	93	51(54.8)	27(29.0)	13(14.0)	1(1.1)	1(1.1)	(0.030)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실 제 인 식	전체	493	189(38.3)	180(36.5)	95(19.3)	21(4.3)	8(1.6)	-
	시설종사자	400	175(43.8)	141(35.3)	66(16.5)	11(2.8)	7(1.8)	29.474***
	청소년전문가	93	14(15.1)	39(41.9)	29(31.2)	10(10.8)	1(1.1)	(0.000)

\*p<.05, \*\*p<.01, \*\*\*p<.001

적절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29**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의 적절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266(66.5)	95(23.8)	32(8.0)	5(1.3)	2(0.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09(67.7)	39(24.2)	12(7.5)	1(0.6)	0(0.0)	0.927 (0.448)
	경상권	86	57(66.3)	18(20.9)	9(10.5)	1(1.2)	1(1.2)	
	충청권	42	29(69.0)	7(16.7)	3(7.1)	3(7.1)	0(0.0)	
	전라권	41	30(73.2)	9(22.0)	2(4.9)	0(0.0)	0(0.0)	
	강원 제주권	70	41(58.6)	22(31.4)	6(8.6)	0(0.0)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146(68.5)	44(20.7)	17(8.0)	5(2.3)	1(0.5)	0.000 (0.992)
	청소년문화의집	187	120(64.2)	51(27.3)	15(8.0)	0(0.0)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2(60.5)	36(30.3)	9(7.6)	0(0.0)	2(1.7)	1.334 (0.256)
	법인	109	77(70.6)	24(22.0)	6(5.5)	2(1.8)	0(0.0)	
	민간위탁	116	75(64.7)	26(22.4)	13(11.2)	2(1.7)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40(78.4)	7(13.7)	3(5.9)	1(2.0)	0(0.0)	
	기타	5	2(4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24(68.6)	11(31.4)	0(0.0)	0(0.0)	0(0.0)	1.794 (0.168)
	간부	119	87(73.1)	19(16.0)	12(10.1)	1(0.8)	0(0.0)	
	일반직원	246	155(63.0)	65(26.4)	20(8.1)	4(1.6)	2(0.8)	
경력별	5년 미만	134	82(61.2)	36(26.9)	14(10.4)	2(1.5)	0(0.0)	1.294 (0.275)
	5~10년 미만	118	82(69.5)	29(24.6)	6(5.1)	1(0.8)	0(0.0)	
	10년 이상	148	102(68.9)	30(20.3)	12(8.1)	2(1.4)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51(54.8)	27(29.0)	13(14.0)	1(1.1)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5(45.5)	15(45.5)	3(9.1)	0(0.0)	0(0.0)	1.292 (0.256)
	비수도권	60	36(60.0)	12(20.0)	10(16.7)	1(1.7)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28(56.0)	16(32.0)	5(10.0)	1(2.0)	0(0.0)	0.644 (0.424)
	공공기관/법인	43	23(53.5)	11(25.6)	8(18.6)	0(0.0)	1(2.3)	
직무별	교수직	53	29(54.7)	17(32.1)	6(11.3)	1(1.9)	0(0.0)	0.295 (0.588)
	연구/사업직	40	22(55.0)	10(25.0)	7(17.5)	0(0.0)	1(2.5)	

\*p<.05, \*\*p<.01, \*\*\*p<.001

실제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문화의집(82.9%)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수도권(63.6%)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0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의 실제에 대한 인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75(43.8)	141(35.3)	66(16.5)	11(2.8)	7(1.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72(44.7)	58(36.0)	26(16.1)	4(2.5)	1(0.6)	0.645 (0.631)
	경상권	86	37(43.0)	26(30.2)	17(19.8)	2(2.3)	4(4.7)	
	충청권	42	18(42.9)	19(45.2)	2(4.8)	2(4.8)	1(2.4)	
	전라권	41	22(53.7)	10(24.4)	6(14.6)	3(7.3)	0(0.0)	
	강원 제주권	70	26(37.1)	28(40.0)	15(21.4)	0(0.0)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86(40.4)	75(35.2)	40(18.8)	6(2.8)	6(2.8)	4.394* (0.037)
	청소년문화의집	187	89(47.6)	66(35.3)	26(13.9)	5(2.7)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3(36.1)	48(40.3)	20(16.8)	4(3.4)	4(3.4)	1.834 (0.121)
	법인	109	51(46.8)	33(30.3)	20(18.3)	4(3.7)	1(0.9)	
	민간위탁	116	50(43.1)	43(37.1)	19(16.4)	2(1.7)	2(1.7)	
	지자체산하공단	51	29(56.9)	16(31.4)	5(9.8)	1(2.0)	0(0.0)	
	기타	5	2(40.0)	1(20.0)	2(4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8(51.4)	10(28.6)	7(20.0)	0(0.0)	0(0.0)	2.428 (0.089)
	간부	119	54(45.4)	47(39.5)	17(14.3)	0(0.0)	1(0.8)	
	일반직원	246	103(41.9)	84(34.1)	42(17.1)	11(4.5)	6(2.4)	
경력별	5년 미만	134	61(45.5)	42(31.3)	24(17.9)	7(5.2)	0(0.0)	0.223 (0.800)
	5~10년 미만	118	50(42.4)	47(39.8)	18(15.3)	1(0.8)	2(1.7)	
	10년 이상	148	64(43.2)	52(35.1)	24(16.2)	3(2.0)	5(3.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4(15.1)	39(41.9)	29(31.2)	10(10.8)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7(21.2)	14(42.4)	8(24.2)	3(9.1)	1(3.0)	5.183* (0.023)
	비수도권	60	7(11.7)	25(41.7)	21(35.0)	7(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10(20.0)	24(48.0)	10(20.0)	5(10.0)	1(2.0)	2.933 (0.090)
	공공기관/법인	43	4(9.3)	15(34.9)	19(44.2)	5(11.6)	0(0.0)	
직무별	교수직	53	10(18.9)	24(45.3)	13(24.5)	5(9.4)	1(1.9)	1.701 (0.195)
	연구/사업직	40	4(10.0)	15(37.5)	16(40.0)	5(12.5)	0(0.0)	

\*p<.05, \*\*p<.01, \*\*\*p<.001

## 5)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

### (1)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47]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표 IV-131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 수 [명]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주체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52(10.5)	114(23.1)	48(9.7)	211(42.8)	67(13.6)	1(0.2)	-
시설종사자	400	42(10.5)	83(20.8)	41(10.3)	178(44.5)	55(13.8)	1(0.3)	7.452 (0.189)
청소년전문가	93	10(10.8)	31(33.3)	7(7.5)	33(35.5)	12(12.9)	0(0.0)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민간위탁(55.2%)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에서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32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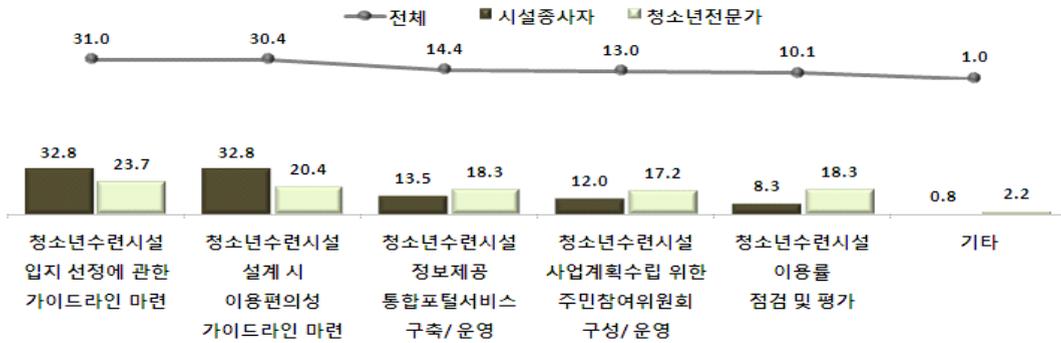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주체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42(10.5)	83(20.8)	41(10.3)	178(44.5)	55(13.8)	1(0.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6(9.9)	34(21.1)	16(9.9)	65(40.4)	29(18.0)	1(0.6)
	경상권	86	12(14.0)	19(22.1)	8(9.3)	38(44.2)	9(10.5)	0(0.0)
	충청권	42	7(16.7)	8(19.0)	6(14.3)	16(38.1)	5(11.9)	0(0.0)
	전라권	41	2(4.9)	5(12.2)	6(14.6)	25(61.0)	3(7.3)	0(0.0)
	강원·제주권	70	5(7.1)	17(24.3)	5(7.1)	34(48.6)	9(12.9)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21(9.9)	41(19.2)	24(11.3)	94(44.1)	32(15.0)	1(0.5)
	청소년문화의집	187	21(11.2)	42(22.5)	17(9.1)	84(44.9)	23(12.3)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5(12.6)	24(20.2)	16(13.4)	51(42.9)	13(10.9)	0(0.0)
	법인	109	15(13.8)	19(17.4)	10(9.2)	48(44.0)	17(15.6)	0(0.0)
	민간위탁	116	7(6.0)	22(19.0)	8(6.9)	64(55.2)	15(12.9)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4(7.8)	18(35.3)	6(11.8)	13(25.5)	10(19.6)	0(0.0)
	기타	5	1(20.0)	0(0.0)	1(20.0)	2(40.0)	0(0.0)	1(20.0)
직위별	관장	35	3(8.6)	7(20.0)	5(14.3)	18(51.4)	2(5.7)	0(0.0)
	간부	119	11(9.2)	22(18.5)	8(6.7)	56(47.1)	22(18.5)	0(0.0)
	일반직원	246	28(11.4)	54(22.0)	28(11.4)	104(42.3)	31(12.6)	1(0.4)
경력별	5년 미만	134	19(14.2)	25(18.7)	18(13.4)	54(40.3)	18(13.4)	0(0.0)
	5~10년 미만	118	12(10.2)	27(22.9)	12(10.2)	51(43.2)	16(13.6)	0(0.0)
	10년 이상	148	11(7.4)	31(20.9)	11(7.4)	73(49.3)	21(14.2)	1(0.7)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0(10.8)	31(33.3)	7(7.5)	33(35.5)	12(12.9)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3(9.1)	7(21.2)	3(9.1)	15(45.5)	5(15.2)	0(0.0)
	비수도권	60	7(11.7)	24(40.0)	4(6.7)	18(30.0)	7(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18(36.0)	3(6.0)	20(40.0)	5(10.0)	0(0.0)
	공공기관/법인	43	6(14.0)	13(30.2)	4(9.3)	13(30.2)	7(16.3)	0(0.0)
직무별	교수직	53	6(11.3)	18(34.0)	3(5.7)	20(37.7)	6(11.3)	0(0.0)
	연구/사업직	40	4(10.0)	13(32.5)	4(10.0)	13(32.5)	6(15.0)	0(0.0)

\*p<.05, \*\*p<.01, \*\*\*p<.001

(2) 개방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31.0%), ‘청소년수련시설 설계 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30.4%), ‘청소년수련시설 정보제공 통합포털서비스 구축·운영’(14.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수련시설 설계 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요소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8】 개방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표 IV-133 개방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청소년수련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수련 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수련 시설 이용률 점검 및 평가	청소년수련 시설 설계 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수련 시설 정보제공 통합포털 서비스 구축·운영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153(31.0)	64(13.0)	50(10.1)	150(30.4)	71(14.4)	5(1.0)	-
시설종사자	400	131(32.8)	48(12.0)	33(8.3)	131(32.8)	48(12.0)	3(0.8)	17.490**
청소년전문가	93	22(23.7)	16(17.2)	17(18.3)	19(20.4)	17(18.3)	2(2.2)	(0.004)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민간위탁(35.3%) 주체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의 비수도권(35.0%)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4 개방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 례 수 [명]	청소년수련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률 점검 및 평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 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 정보제공 통합포털 서비스 구축·운영	기타	$\chi^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31(32.8)	48(12.0)	33(8.3)	131(32.8)	54(13.5)	3(0.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5(28.0)	20(12.4)	8(5.0)	60(37.3)	25(15.5)	3(1.9)	16.292 (0.698)
	경상권	86	32(37.2)	11(12.8)	8(9.3)	24(27.9)	11(12.8)	0(0.0)	
	충청권	42	16(38.1)	5(11.9)	4(9.5)	12(28.6)	5(11.9)	0(0.0)	
	전라권	41	11(26.8)	6(14.6)	6(14.6)	14(34.1)	4(9.8)	0(0.0)	
	강원 제주권	70	27(38.6)	6(8.6)	7(10.0)	21(30.0)	9(12.9)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4(30.0)	29(13.6)	15(7.0)	71(33.3)	31(14.6)	3(1.4)	5.868 (0.319)
	청소년문화의집	187	67(35.8)	19(10.2)	18(9.6)	60(32.1)	23(12.3)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9(32.8)	16(13.4)	10(8.4)	35(29.4)	19(16.0)	0(0.0)	34.892* (0.021)
	법인	109	37(33.9)	15(13.8)	11(10.1)	34(31.2)	12(11.0)	0(0.0)	
	민간위탁	116	41(35.3)	12(10.3)	8(6.9)	41(35.3)	13(11.2)	1(0.9)	
	지자체산하공단	51	13(25.5)	5(9.8)	4(7.8)	19(37.3)	9(17.6)	1(2.0)	
	기타	5	1(20.0)	0(0.0)	0(0.0)	2(40.0)	1(20.0)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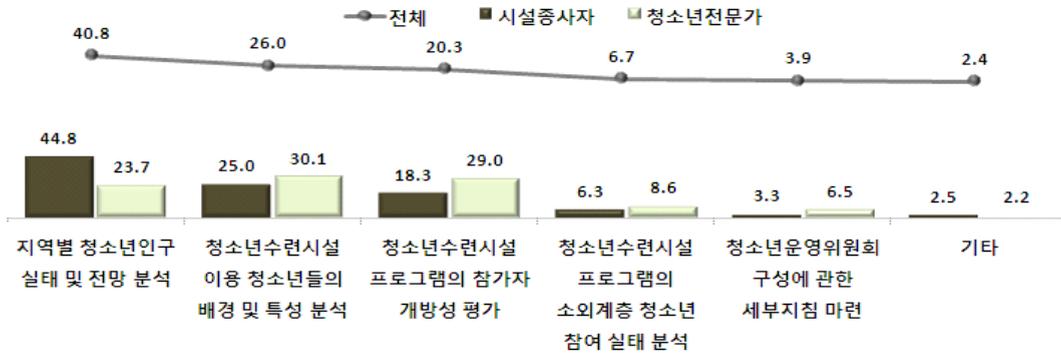
구분[%]		사 례 수 [명]	청소년수련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위 원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률 점검 및 평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계 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 정보제공 통합포털 서비스 구축·운영	기타	x2 (유의도)
직위별	관장	35	13(37.1)	3(8.6)	5(14.3)	11(31.4)	3(8.6)	0(0.0)	10.916 (0.364)
	간부	119	41(34.5)	11(9.2)	9(7.6)	45(37.8)	11(9.2)	2(1.7)	
	일반직원	246	77(31.3)	34(13.8)	19(7.7)	75(30.5)	40(16.3)	1(0.4)	
경력별	5년 미만	134	37(27.6)	21(15.7)	16(11.9)	39(29.1)	21(15.7)	0(0.0)	13.120 (0.217)
	5~10년 미만	118	40(33.9)	9(7.6)	10(8.5)	42(35.6)	16(13.6)	1(0.8)	
	10년 이상	148	54(36.5)	18(12.2)	7(4.7)	50(33.8)	17(11.5)	2(1.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2(23.7)	16(17.2)	17(18.3)	19(20.4)	17(18.3)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7(21.2)	8(24.2)	4(12.1)	6(18.2)	6(18.2)	2(6.1)	15.665** (0.008)
	비수도권	60	15(25.0)	8(13.3)	13(21.7)	13(21.7)	11(18.3)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11(22.0)	10(20.0)	8(16.0)	7(14.0)	12(24.0)	2(4.0)	6.768 (0.238)
	공공기관/법인	43	11(25.6)	6(14.0)	9(20.9)	12(27.9)	5(11.6)	0(0.0)	
직무별	교수직	53	11(20.8)	11(20.8)	10(18.9)	7(13.2)	12(22.6)	2(3.8)	7.303 (0.199)
	연구/사업직	40	11(27.5)	5(12.5)	7(17.5)	12(30.0)	5(12.5)	0(0.0)	

\*p<.05, \*\*p<.01, \*\*\*p<.001

### (3)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26.0%),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개방성 평가’(2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는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44.8%) 요소를, 청소년전문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30.1%) 및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개방성 평가’(29.0%) 요소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49】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표 IV-135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 례 수 [명]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	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개방성 평가	청소년운영 위원회 구성 관련 세부지침 마련	청소년수련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	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의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실태 분석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201(40.8)	100(20.3)	19(3.9)	128(26.0)	33(6.7)	12(2.4)	-
시설종사자	400	179(44.8)	73(18.3)	13(3.3)	100(25.0)	25(6.3)	10(2.5)	15.986**
청소년전문가	93	22(23.7)	27(29.0)	6(6.5)	28(30.1)	8(8.6)	2(2.2)	(0.007)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36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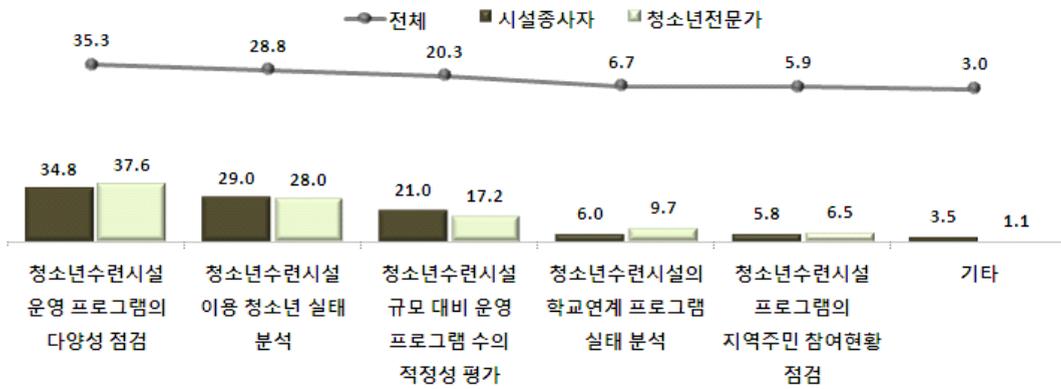
구분[%]	사 례 수 [명]	지역별 청소년 친구 상태 및 전망 분석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 개방성 평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 에 관 한 세 부 자 침 마 련	청소년수련 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상태 분석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79(44.8)	73(18.3)	13(3.3)	100(25.0)	25(6.3)	10(2.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66(41.0)	36(22.4)	7(4.3)	40(24.8)	10(6.2)	14.064 (0.827)
	경상권	86	38(44.2)	14(16.3)	2(2.3)	23(26.7)	7(8.1)	
	충청권	42	22(52.4)	4(9.5)	2(4.8)	10(23.8)	2(4.8)	
	전라권	41	19(46.3)	10(24.4)	1(2.4)	7(17.1)	3(7.3)	
	강원 제주권	70	34(48.6)	9(12.9)	1(1.4)	20(28.6)	3(4.3)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93(43.7)	40(18.8)	9(4.2)	51(23.9)	16(7.5)	3.593 (0.609)
	청소년문화의집	187	86(46.0)	33(17.6)	4(2.1)	49(26.2)	9(4.8)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55(46.2)	16(13.4)	2(1.7)	35(29.4)	8(6.7)	23.339 (0.272)
	법인	109	51(46.8)	21(19.3)	5(4.6)	26(23.9)	5(4.6)	
	민간위탁	116	49(42.2)	30(25.9)	4(3.4)	25(21.6)	5(4.3)	
	지자체산하공단	51	22(43.1)	6(11.8)	2(3.9)	11(21.6)	7(13.7)	
	기타	5	2(40.0)	0(0.0)	0(0.0)	3(60.0)	0(0.0)	
직위별	관장	35	21(60.0)	3(8.6)	1(2.9)	7(20.0)	1(2.9)	8.574 (0.573)
	간부	119	51(42.9)	26(21.8)	3(2.5)	27(22.7)	9(7.6)	
	일반직원	246	107(43.5)	44(17.9)	9(3.7)	66(26.8)	15(6.1)	
경력별	5년 미만	134	59(44.0)	21(15.7)	5(3.7)	35(26.1)	10(7.5)	5.656 (0.843)
	5~10년 미만	118	52(44.1)	29(24.6)	3(2.5)	26(22.0)	6(5.1)	
	10년 이상	148	68(45.9)	23(15.5)	5(3.4)	39(26.4)	9(6.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2(23.7)	27(29.0)	6(6.5)	28(30.1)	8(8.6)	2(2.2)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2(36.4)	7(21.2)	2(6.1)	10(30.3)	1(3.0)	1.648 (0.895)
	비수도권	60	10(16.7)	20(33.3)	4(6.7)	18(30.0)	7(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12(24.0)	15(30.0)	2(4.0)	17(34.0)	3(6.0)	2.455 (0.783)
	공공기관/법인	43	10(23.3)	12(27.9)	4(9.3)	11(25.6)	5(11.6)	
직무별	교수직	53	13(24.5)	16(30.2)	2(3.8)	17(32.1)	4(7.5)	1.824 (0.873)
	연구/사업직	40	9(22.5)	11(27.5)	4(10.0)	11(27.5)	4(10.0)	

\*p<.05, \*\*p<.01, \*\*\*p<.001

(4)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 분석'(28.8%),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운영 프로그램 수의 적정성 평가'(20.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 분석'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50】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표 IV-137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 례 수 [명]	청소년수련 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 분석	청소년수련 시설 규모 대비 운영 프로그램 수의 적정성 평가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	청소년수련 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실태 분석	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현황 점검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142(28.8)	100(20.3)	174(35.3)	33(6.7)	29(5.9)	15(3.0)	-
시설종사자	400	116(29.0)	84(21.0)	139(34.8)	24(6.0)	23(5.8)	14(3.5)	3.788 (0.580)
청소년전문가	93	26(28.0)	16(17.2)	35(37.6)	9(9.7)	6(6.5)	1(1.1)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 및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38 다양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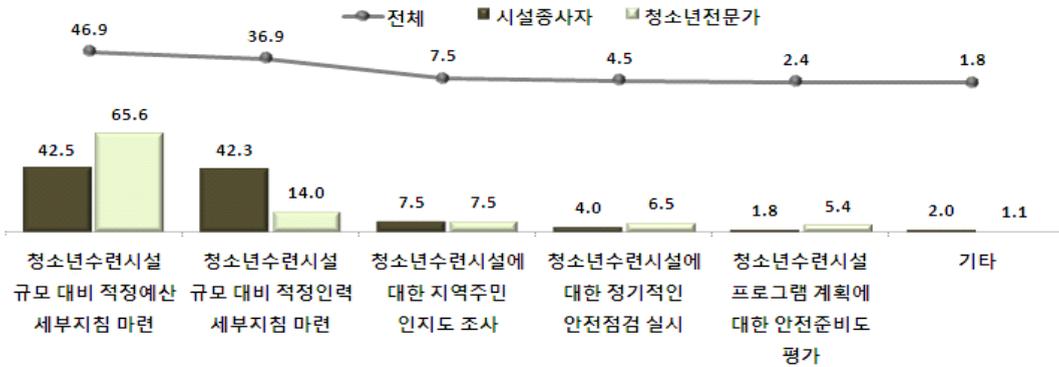
구분[%]	사 례 수 [명]	청소년수련 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 분석	청소년수련 시설 규모 대비 운영 프로그램 수의 적정성 평가	청소년수련 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	청소년 수련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실태 분석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상황 점검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16(29.0)	84(21.0)	139(34.8)	24(6.0)	23(5.8)	14(3.5)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45(28.0)	32(19.9)	61(37.9)	8(5.0)	10(6.2)	23.605 (0.260)
	경상권	86	26(30.2)	22(25.6)	29(33.7)	4(4.7)	4(4.7)	
	충청권	42	10(23.8)	11(26.2)	16(38.1)	1(2.4)	2(4.8)	
	전라권	41	13(31.7)	12(29.3)	7(17.1)	6(14.6)	1(2.4)	
	강원 제주권	70	22(31.4)	7(10.0)	26(37.1)	5(7.1)	6(8.6)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62(29.1)	40(18.8)	86(40.4)	9(4.2)	7(3.3)	9.514 (0.090)
	청소년문화의집	187	54(28.9)	44(23.5)	53(28.3)	15(8.0)	14(7.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37(31.1)	22(18.5)	39(32.8)	8(6.7)	9(7.6)	26.623 (0.146)
	법인	109	35(32.1)	22(20.2)	39(35.8)	7(6.4)	4(3.7)	
	민간위탁	116	35(30.2)	28(24.1)	34(29.3)	7(6.0)	5(4.3)	
	자치예산하공단	51	8(15.7)	12(23.5)	25(49.0)	2(3.9)	3(5.9)	
	기타	5	1(20.0)	0(0.0)	2(40.0)	0(0.0)	2(40.0)	
직위별	관장	35	13(37.1)	7(20.0)	10(28.6)	4(11.4)	0(0.0)	6.126 (0.805)
	간부	119	31(26.1)	26(21.8)	43(36.1)	7(5.9)	7(5.9)	
	일반직원	246	72(29.3)	51(20.7)	86(35.0)	13(5.3)	16(6.5)	
경력별	5년 미만	134	38(28.4)	27(20.1)	48(35.8)	8(6.0)	5(3.7)	2.028 (0.996)
	5~10년 미만	118	31(26.3)	29(24.6)	41(34.7)	7(5.9)	4(3.4)	
	10년 이상	148	47(31.8)	28(18.9)	50(33.8)	9(6.1)	9(6.1)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26(28.0)	16(17.2)	35(37.6)	9(9.7)	6(6.5)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13(39.4)	4(12.1)	9(27.3)	4(12.1)	3(9.1)	6.435 (0.266)
	비수도권	60	13(21.7)	12(20.0)	26(43.3)	5(8.3)	3(5.0)	
소속 직장별	대학	50	15(30.0)	9(18.0)	19(38.0)	3(6.0)	3(6.0)	2.610 (0.760)
	공공기관/법인	43	11(25.6)	7(16.3)	16(37.2)	6(14.0)	3(7.0)	
직무별	교수직	53	16(30.2)	9(17.0)	19(35.8)	5(9.4)	3(5.7)	1.209 (0.944)
	연구/사업직	40	10(25.0)	7(17.5)	16(40.0)	4(10.0)	3(7.5)	

\*p<.05, \*\*p<.01, \*\*\*p<.001

(5)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46.9%),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3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및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요소를, 청소년전문가는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요소의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1】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표 IV-139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 례 수 [명]	청소년수련 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청소년수련 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조사	청소년수련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전준비도 평가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182(36.9)	231(46.9)	37(7.5)	22(4.5)	12(2.4)	9(1.8)	-
시설종사자	400	170(42.5)	169(42.3)	30(7.5)	16(4.0)	7(1.8)	8(2.0)	30.370***
청소년전문가	93	61(65.6)	13(14.0)	7(7.5)	6(6.5)	5(5.4)	1(1.1)	(0.000)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기타(60.0%) 및 민간위탁(57.8%) 주체별, 직위가 높을수록(관장: 62.9%)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전문가의 비수도권(71.7%)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5% 수준, 수련시설운영 주체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0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필요요소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 례 수 [명]	청소년 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조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전준비도 평가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69(42.3)	170(42.5)	30(7.5)	16(4.0)	7(1.8)	8(2.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9(36.6)	71(44.1)	16(9.9)	6(3.7)	4(2.5)	31,222 (0.052)	
	경상권	86	38(44.2)	42(48.8)	4(4.7)	2(2.3)	0(0.0)		
	충청권	42	21(50.0)	16(38.1)	3(7.1)	1(2.4)	0(0.0)		
	전라권	41	11(26.8)	23(56.1)	4(9.8)	3(7.3)	0(0.0)		
	강원 제주권	70	40(57.1)	18(25.7)	3(4.3)	4(5.7)	3(4.3)		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81(38.0)	102(47.9)	12(5.6)	9(4.2)	5(2.3)	8,170 (0.147)	
	청소년문화의집	187	88(47.1)	68(36.4)	18(9.6)	7(3.7)	2(1.1)		4(2.1)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73(61.3)	33(27.7)	5(4.2)	4(3.4)	2(1.7)	45,509** (0.001)	
	법인	109	36(33.0)	50(45.9)	13(11.9)	6(5.5)	2(1.8)		
	민간위탁	116	34(29.3)	67(57.8)	9(7.8)	2(1.7)	1(0.9)		3(2.6)
	지자체산하공단	51	25(49.0)	17(33.3)	2(3.9)	4(7.8)	2(3.9)		1(2.0)
	기타	5	1(20.0)	3(60.0)	1(2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11(31.4)	22(62.9)	1(2.9)	0(0.0)	0(0.0)	22,491* (0.013)	
	간부	119	45(37.8)	61(51.3)	6(5.0)	2(1.7)	1(0.8)		4(3.4)
	일반직원	246	113(45.9)	87(35.4)	23(9.3)	14(5.7)	6(2.4)		3(1.2)
경력별	5년 미만	134	58(43.3)	47(35.1)	17(12.7)	5(3.7)	3(2.2)	18,275 (0.050)	
	5~10년 미만	118	56(47.5)	47(39.8)	9(7.6)	4(3.4)	1(0.8)		1(0.8)
	10년 이상	148	55(37.2)	76(51.4)	4(2.7)	7(4.7)	3(2.0)		3(2.0)

구분[%]		사 례 수 [명]	청소년 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자침 미련	청소년 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자침 미련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조사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전준비도 평가	기타	x2 (유의도)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3(14.0)	61(65.6)	7(7.5)	6(6.5)	5(5.4)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8(24.2)	18(54.5)	4(12.1)	0(0.0)	3(9.1)	0(0.0)	11.652*
	비수도권	60	5(8.3)	43(71.7)	3(5.0)	6(10.0)	2(3.3)	1(1.7)	(0.040)
소속 직장별	대학	50	9(18.0)	33(66.0)	4(8.0)	2(4.0)	2(4.0)	0(0.0)	3.837
	공공기관/법인	43	4(9.3)	28(65.1)	3(7.0)	4(9.3)	3(7.0)	1(2.3)	(0.573)
직무별	교수직	53	9(17.0)	36(67.9)	4(7.5)	2(3.8)	2(3.8)	0(0.0)	4.181
	연구/사업직	40	4(10.0)	25(62.5)	3(7.5)	4(10.0)	3(7.5)	1(2.5)	(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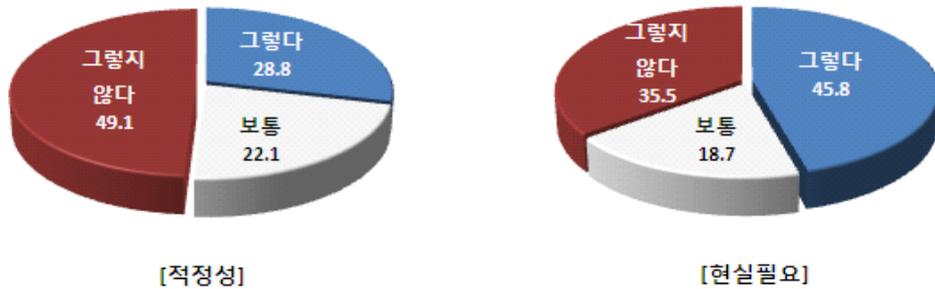
\*p<.05, \*\*p<.01, \*\*\*p<.001

## 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운영 관련 제반 인식

### (1)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필요성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 조사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28.8%(매우: 8.1% + 조금: 20.7%), 현실적 필요성은 '그렇다'는 응답이 45.8%(매우: 16.8% + 조금: 29.0%)로 적정성에 비해 현실적 필요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적정성에 대해 대상별로 긍정 응답을 살펴보면, 청소년전문가(35.5%)가 시설종사자(27.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실적 필요성에서도 청소년전문가(50.5%)가 시설종사자(44.8%)보다 긍정 응답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52】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필요성(%)

표 IV-141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필요성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적 정 성	전체	493	40(8.1)	102(20.7)	109(22.1)	138(28.0)	104(21.1)	-
	시설종사자	400	32(8.0)	77(19.3)	89(22.3)	113(28.3)	89(22.3)	2.464
	청소년전문가	93	8(8.6)	25(26.9)	20(21.5)	25(26.9)	15(16.1)	(0.117)
현실 필요	전체	493	83(16.8)	143(29.0)	92(18.7)	99(20.1)	76(15.4)	-
	시설종사자	400	66(16.5)	113(28.3)	73(18.3)	77(19.3)	71(17.8)	3.335
	청소년전문가	93	17(18.3)	30(32.3)	19(20.4)	22(23.7)	5(5.4)	(0.068)

\*p<.05, \*\*p<.01, \*\*\*p<.001

적정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수련관(32.9%)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42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적정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32(8.0)	77(19.3)	89(22.3)	113(28.3)	89(22.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16(9.9)	34(21.1)	29(18.0)	45(28.0)	37(23.0)	1.077 (0.367)
	경상권	86	5(5.8)	16(18.6)	28(32.6)	30(34.9)	7(8.1)	
	충청권	42	4(9.5)	7(16.7)	10(23.8)	9(21.4)	12(28.6)	
	전라권	41	3(7.3)	5(12.2)	8(19.5)	13(31.7)	12(29.3)	
	강원 제주권	70	4(5.7)	15(21.4)	14(20.0)	16(22.9)	21(3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20(9.4)	50(23.5)	48(22.5)	56(26.3)	39(18.3)	8.505** (0.004)
	청소년문화의집	187	12(6.4)	27(14.4)	41(21.9)	57(30.5)	50(26.7)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9(7.6)	24(20.2)	27(22.7)	32(26.9)	27(22.7)	1.585 (0.178)
	법인	109	11(10.1)	22(20.2)	26(23.9)	27(24.8)	23(21.1)	
	민간위탁	116	6(5.2)	18(15.5)	25(21.6)	36(31.0)	31(26.7)	
	지자체산하공단	51	4(7.8)	13(25.5)	11(21.6)	15(29.4)	8(15.7)	
	기타	5	2(40.0)	0(0.0)	0(0.0)	3(60.0)	0(0.0)	
직위별	관장	35	1(2.9)	3(8.6)	10(28.6)	12(34.3)	9(25.7)	2.645 (0.072)
	간부	119	9(7.6)	21(17.6)	24(20.2)	33(27.7)	32(26.9)	
	일반직원	246	22(8.9)	53(21.5)	55(22.4)	68(27.6)	48(19.5)	
경력별	5년 미만	134	10(7.5)	28(20.9)	29(21.6)	42(31.3)	25(18.7)	1.253 (0.287)
	5~10년 미만	118	11(9.3)	26(22.0)	26(22.0)	30(25.4)	25(21.2)	
	10년 이상	148	11(7.4)	23(15.5)	34(23.0)	41(27.7)	39(26.4)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8(8.6)	25(26.9)	20(21.5)	25(26.9)	15(16.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3(9.1)	9(27.3)	6(18.2)	7(21.2)	8(24.2)	0.186 (0.667)
	비수도권	60	5(8.3)	16(26.7)	14(23.3)	18(30.0)	7(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5(10.0)	10(20.0)	7(14.0)	20(40.0)	8(16.0)	2.066 (0.154)
	공공기관/법인	43	3(7.0)	15(34.9)	13(30.2)	5(11.6)	7(16.3)	
직무별	교수직	53	5(9.4)	12(22.6)	8(15.1)	20(37.7)	8(15.1)	1.047 (0.309)
	연구/사업직	40	3(7.5)	13(32.5)	12(30.0)	5(12.5)	7(17.5)	

\*p<.05, \*\*p<.01, \*\*\*p<.001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의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종사자는 청소년수련관(54.5%) 유형, 직위가 낮을수록(일반직원: 47.6%)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직위에 따라 5% 수준, 수련시설유형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43** 청소년수련시설의 수익사업 기능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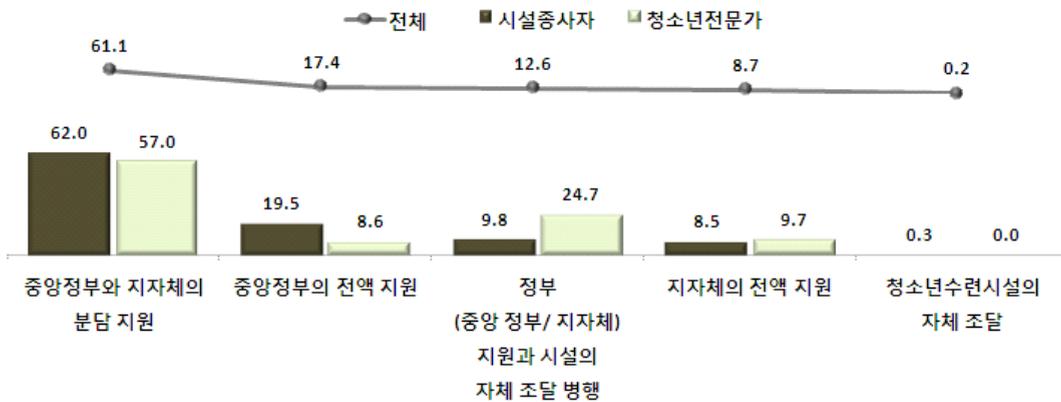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F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66(16.5)	113(28.3)	73(18.3)	77(19.3)	71(17.8)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6(22.4)	48(29.8)	25(15.5)	25(15.5)	27(16.8)	1.919 (0.107)
	경상권	86	9(10.5)	27(31.4)	22(25.6)	19(22.1)	9(10.5)	
	충청권	42	6(14.3)	11(26.2)	8(19.0)	5(11.9)	12(28.6)	
	전라권	41	8(19.5)	7(17.1)	9(22.0)	10(24.4)	7(17.1)	
	강원 제주권	70	7(10.0)	20(28.6)	9(12.9)	18(25.7)	16(22.9)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46(21.6)	70(32.9)	36(16.9)	32(15.0)	29(13.6)	19.246*** (0.000)
	청소년문화의집	187	20(10.7)	43(23.0)	37(19.8)	45(24.1)	42(22.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11(9.2)	35(29.4)	20(16.8)	30(25.2)	23(19.3)	1.622 (0.168)
	법인	109	25(22.9)	33(30.3)	16(14.7)	17(15.6)	18(16.5)	
	민간위탁	116	20(17.2)	28(24.1)	26(22.4)	20(17.2)	22(19.0)	
	지자체산하공단	51	8(15.7)	17(33.3)	11(21.6)	7(13.7)	8(15.7)	
	기타	5	2(40.0)	0(0.0)	0(0.0)	3(60.0)	0(0.0)	
직위별	관장	35	1(2.9)	5(14.3)	13(37.1)	7(20.0)	9(25.7)	3.672* (0.026)
	간부	119	22(18.5)	34(28.6)	21(17.6)	14(11.8)	28(23.5)	
	일반직원	246	43(17.5)	74(30.1)	39(15.9)	56(22.8)	34(13.8)	
경력별	5년 미만	134	24(17.9)	38(28.4)	22(16.4)	32(23.9)	18(13.4)	1.831 (0.162)
	5~10년 미만	118	20(16.9)	40(33.9)	20(16.9)	19(16.1)	19(16.1)	
	10년 이상	148	22(14.9)	35(23.6)	31(20.9)	26(17.6)	34(23.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7(18.3)	30(32.3)	19(20.4)	22(23.7)	5(5.4)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6(18.2)	9(27.3)	8(24.2)	7(21.2)	3(9.1)	0.311 (0.578)
	비수도권	60	11(18.3)	21(35.0)	11(18.3)	15(25.0)	2(3.3)	
소속 직장별	대학	50	9(18.0)	12(24.0)	9(18.0)	18(36.0)	2(4.0)	2.661 (0.106)
	공공기관/법인	43	8(18.6)	18(41.9)	10(23.3)	4(9.3)	3(7.0)	
직무별	교수직	53	9(17.0)	14(26.4)	10(18.9)	18(34.0)	2(3.8)	2.149 (0.146)
	연구/사업직	40	8(20.0)	16(40.0)	9(22.5)	4(10.0)	3(7.5)	

\*p<.05, \*\*p<.01, \*\*\*p<.001

(2)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중앙정부의 전액 지원’(17.4%), ‘정부(중앙정부/지자체) 지원과 시설의 자체 조달 병행’(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3】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

표 IV-144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중앙정부의 전액 지원	지자체의 전액 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	정부(중앙정부/지자체) 지원과 시설의 자체 조달 병행	청소년수련 시설의 자체 조달	x2 (유의도)
전체	493	86(17.4)	43(8.7)	301(61.1)	62(12.6)	1(0.2)	-
시설종사자	400	78(19.5)	34(8.5)	248(62.0)	39(9.8)	1(0.3)	19.266**
청소년전문가	93	8(8.6)	9(9.7)	53(57.0)	23(24.7)	0(0.0)	(0.001)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 응답은 시설종사자에서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의 수도권(60.6%)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근무지역에 따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5**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 예산 조달방식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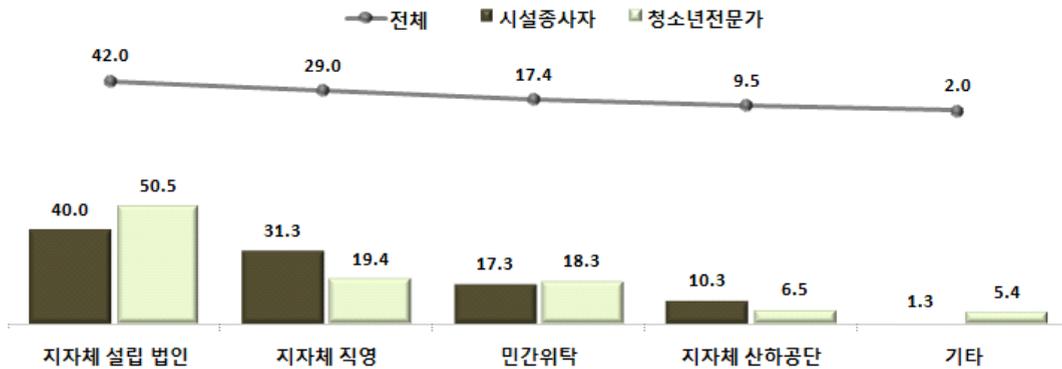
구분[%]		사 례 수 [명]	중앙정부의 전액 지원	지자체의 전액 지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과 시설의 자체 조달 병행	청소년수련 시설의 자체 조달	$\chi^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78(19.5)	34(8.5)	248(62.0)	39(9.8)	1(0.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3(14.3)	17(10.6)	105(65.2)	16(9.9)	0(0.0)	22.742 (0.121)
	경상권	86	20(23.3)	8(9.3)	49(57.0)	9(10.5)	0(0.0)	
	충청권	42	6(14.3)	3(7.1)	26(61.9)	7(16.7)	0(0.0)	
	전라권	41	13(31.7)	2(4.9)	22(53.7)	3(7.3)	1(2.4)	
	강원 제주권	70	16(22.9)	4(5.7)	46(65.7)	4(5.7)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40(18.8)	18(8.5)	130(61.0)	25(11.7)	0(0.0)	3.176 (0.529)
	청소년문화의집	187	38(20.3)	16(8.6)	118(63.1)	14(7.5)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8(23.5)	4(3.4)	71(59.7)	16(13.4)	0(0.0)	18.334 (0.305)
	법인	109	22(20.2)	10(9.2)	66(60.6)	10(9.2)	1(0.9)	
	민간위탁	116	23(19.8)	14(12.1)	72(62.1)	7(6.0)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5(9.8)	6(11.8)	35(68.6)	5(9.8)	0(0.0)	
	기타	5	0(0.0)	0(0.0)	4(8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7(20.0)	5(14.3)	21(60.0)	2(5.7)	0(0.0)	8.052 (0.428)
	간부	119	18(15.1)	12(10.1)	78(65.5)	10(8.4)	1(0.8)	
	일반직원	246	53(21.5)	17(6.9)	149(60.6)	27(11.0)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25(18.7)	10(7.5)	83(61.9)	16(11.9)	0(0.0)	4.591 (0.800)
	5~10년 미만	118	23(19.5)	11(9.3)	75(63.6)	8(6.8)	1(0.8)	
	10년 이상	148	30(20.3)	13(8.8)	90(60.8)	15(10.1)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8(8.6)	9(9.7)	53(57.0)	23(24.7)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2(6.1)	1(3.0)	20(60.6)	10(30.3)	0(0.0)	12.851*
	비수도권	60	6(10.0)	8(13.3)	33(55.0)	13(21.7)	0(0.0)	(0.012)
소속 직장별	대학	50	3(6.0)	6(12.0)	29(58.0)	12(24.0)	0(0.0)	1.497 (0.683)
	공공기관/법인	43	5(11.6)	3(7.0)	24(55.8)	11(25.6)	0(0.0)	
직무별	교수직	53	3(5.7)	7(13.2)	31(58.5)	12(22.6)	0(0.0)	3.093 (0.378)
	연구/사업직	40	5(12.5)	2(5.0)	22(55.0)	11(27.5)	0(0.0)	

\*p<.05, \*\*p<.01, \*\*\*p<.001

### (3)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자체 설립 법인’이 4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자체 직영’(29.0%), ‘민간위탁’(1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지자체 설립 법인’, ‘지자체 직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4】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

표 IV-146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사례수 [명]	지자체 직영	지자체 설립 법인	민간위탁	지자체 산하공단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143(29.0)	207(42.0)	86(17.4)	47(9.5)	10(2.0)	-
시설종사자	400	125(31.3)	160(40.0)	69(17.3)	41(10.3)	5(1.3)	13.198* (0.010)
청소년전문가	93	18(19.4)	47(50.5)	17(18.3)	6(6.5)	5(5.4)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지자체 설립 법인’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수도권(48.4%) 지역, 법인(49.5%) 및 지자체산하공단(49.0%) 주체별, 관장(42.9%) 직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에서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근무지역 및 수련시설운영주체 및 직위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47** 청소년수련시설의 적절한 운영주체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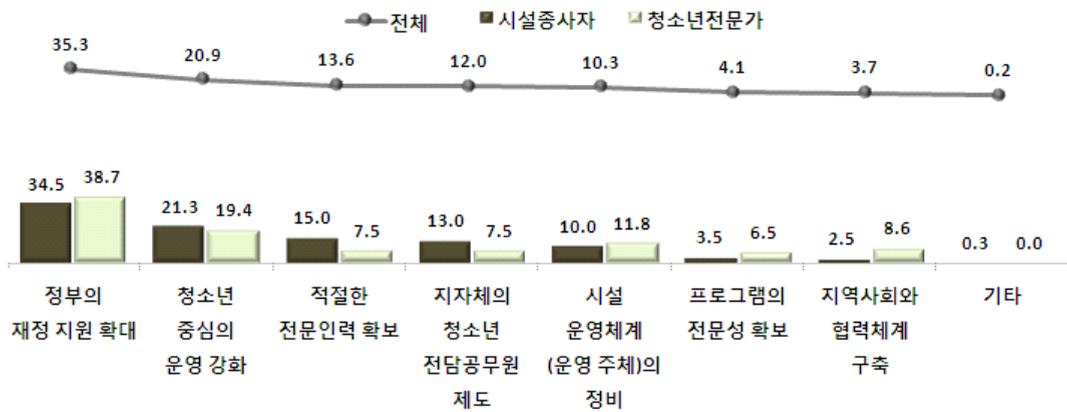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지자체 직영	지자체 설립 법인	민간위탁	지자체 산하공단	기타	$\chi^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125(31.3)	160(40.0)	69(17.3)	41(10.3)	5(1.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36(22.4)	78(48.4)	35(21.7)	12(7.5)	0(0.0)	47.354*** (0.000)
	경상권	86	26(30.2)	37(43.0)	12(14.0)	9(10.5)	2(2.3)	
	충청권	42	11(26.2)	20(47.6)	3(7.1)	6(14.3)	2(4.8)	
	전라권	41	21(51.2)	3(7.3)	10(24.4)	6(14.6)	1(2.4)	
	강원 제주권	70	31(44.3)	22(31.4)	9(12.9)	8(11.4)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70(32.9)	84(39.4)	31(14.6)	25(11.7)	3(1.4)	3.410
	청소년문화의집	187	55(29.4)	76(40.6)	38(20.3)	16(8.6)	2(1.1)	(0.492)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48(40.3)	45(37.8)	9(7.6)	17(14.3)	0(0.0)	65.634*** (0.000)
	법인	109	24(22.0)	54(49.5)	25(22.9)	6(5.5)	0(0.0)	
	민간위탁	116	38(32.8)	34(29.3)	34(29.3)	6(5.2)	4(3.4)	
	지자체산하공단	51	12(23.5)	25(49.0)	1(2.0)	12(23.5)	1(2.0)	
	기타	5	3(60.0)	2(40.0)	0(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5(14.3)	15(42.9)	12(34.3)	2(5.7)	1(2.9)	32.082*** (0.000)
	간부	119	36(30.3)	43(36.1)	31(26.1)	6(5.0)	3(2.5)	
	일반직원	246	84(34.1)	102(41.5)	26(10.6)	33(13.4)	1(0.4)	
경력별	5년 미만	134	53(39.6)	52(38.8)	18(13.4)	10(7.5)	1(0.7)	12.531 (0.129)
	5~10년 미만	118	34(28.8)	52(44.1)	17(14.4)	14(11.9)	1(0.8)	
	10년 이상	148	38(25.7)	56(37.8)	34(23.0)	17(11.5)	3(2.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8(19.4)	47(50.5)	17(18.3)	6(6.5)	5(5.4)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6(18.2)	16(48.5)	9(27.3)	1(3.0)	1(3.0)	5.487
	비수도권	60	12(20.0)	31(51.7)	8(13.3)	5(8.3)	4(6.7)	(0.241)
소속 직장별	대학	50	7(14.0)	26(52.0)	11(22.0)	3(6.0)	3(6.0)	2.579
	공공기관/법인	43	11(25.6)	21(48.8)	6(14.0)	3(7.0)	2(4.7)	(0.631)
직무별	교수직	53	9(17.0)	26(49.1)	12(22.6)	3(5.7)	3(5.7)	1.833
	연구/사업직	40	9(22.5)	21(52.5)	5(12.5)	3(7.5)	2(5.0)	(0.766)

\*p<.05, \*\*p<.01, \*\*\*p<.001

(4)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1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35.3%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20.9%),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13.6%), ‘지자체의 청소년 전담공무원 제도’(12.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5】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1순위)(%)

표 IV-148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1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1순위 기준	사례 수 [명]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	프로 그램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전문 인력 확보	시설 운영 체계 (운영 주체)의 정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의 청소년 전담공무 원 제도	지역 사회와 협력체 계 구축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103(20.9)	20(4.1)	67(13.6)	51(10.3)	174(35.3)	59(12.0)	18(3.7)	1(0.2)	-
시설종사자	400	85(21.3)	14(3.5)	60(15.0)	40(10.0)	138(34.5)	52(13.0)	10(2.5)	1(0.3)	15,290*
청소년전문가	93	18(19.4)	6(6.5)	7(7.5)	11(11.8)	36(38.7)	7(7.5)	8(8.6)	0(0.0)	(0.032)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응답은 시설종사자의 전라권(51.2%) 지역, 민간위탁(48.3%) 주체별, 5~10년 미만(41.5%)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의 대학(46.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경력에 따라 5% 수준, 근무지역에 따라 1% 수준, 수련시설운영주체에 따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소속직장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9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1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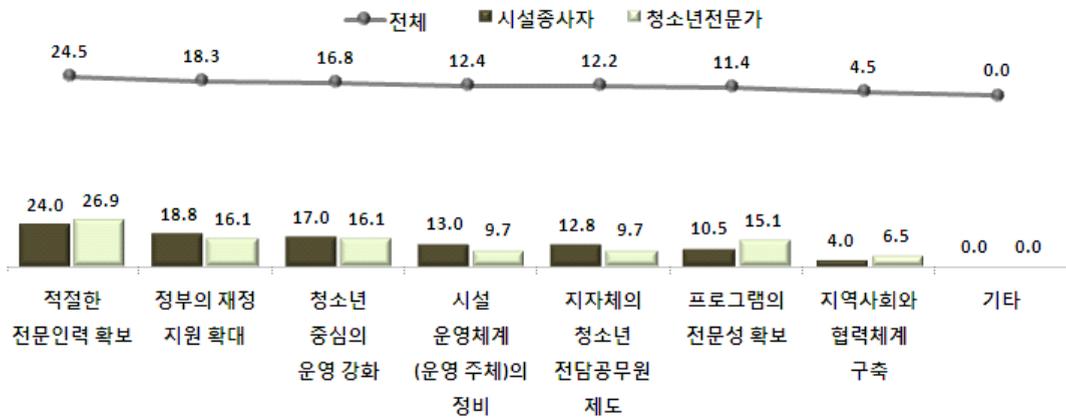
구분[%] 1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	프로 그램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전문 인력 확보	시설운영 체계 (운영 주체)의 정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의 청소년 전담 공무원 제도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기타	x <sup>2</sup>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85(21.3)	14(3.5)	60(15.0)	40(10.0)	138(34.5)	52(13.0)	10(2.5)	1(0.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50(31.1)	5(3.1)	19(11.8)	16(9.9)	53(32.9)	13(8.1)	5(3.1)	0(0.0)
	경상권	86	20(23.3)	4(4.7)	10(11.6)	7(8.1)	29(33.7)	14(16.3)	2(2.3)	0(0.0)
	충청권	42	2(4.8)	2(4.8)	13(31.0)	2(4.8)	16(38.1)	6(14.3)	1(2.4)	0(0.0)
	전라권	41	5(12.2)	1(2.4)	4(9.8)	5(12.2)	21(51.2)	5(12.2)	0(0.0)	0(0.0)
	강원 제주권	70	8(11.4)	2(2.9)	14(20.0)	10(14.3)	19(27.1)	14(20.0)	2(2.9)	1(1.4)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49(23.0)	7(3.3)	24(11.3)	22(10.3)	73(34.3)	30(14.1)	8(3.8)	0(0.0)
	청소년문화의집	187	36(19.3)	7(3.7)	36(19.3)	18(9.6)	65(34.8)	22(11.8)	2(1.1)	1(0.5)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1(17.6)	4(3.4)	22(18.5)	14(11.8)	27(22.7)	28(23.5)	2(1.7)	1(0.8)
	법인	109	26(23.9)	7(6.4)	20(18.3)	9(8.3)	41(37.6)	3(2.8)	3(2.8)	0(0.0)
	민간위탁	116	17(14.7)	2(1.7)	14(12.1)	13(11.2)	56(48.3)	9(7.8)	5(4.3)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21(41.2)	1(2.0)	3(5.9)	3(5.9)	12(23.5)	11(21.6)	0(0.0)	0(0.0)
	기타	5	0(0.0)	0(0.0)	1(20.0)	1(20.0)	2(40.0)	1(20.0)	0(0.0)	0(0.0)
직위별	관장	35	7(20.0)	0(0.0)	8(22.9)	4(11.4)	15(42.9)	1(2.9)	0(0.0)	0(0.0)
	간부	119	20(16.8)	5(4.2)	13(10.9)	15(12.6)	51(42.9)	13(10.9)	2(1.7)	0(0.0)
	일반직원	246	58(23.6)	9(3.7)	39(15.9)	21(8.5)	72(29.3)	38(15.4)	8(3.3)	1(0.4)
경력별	5년 미만	134	42(31.3)	4(3.0)	18(13.4)	10(7.5)	38(28.4)	18(13.4)	4(3.0)	0(0.0)
	5~10년 미만	118	17(14.4)	5(4.2)	24(20.3)	10(8.5)	49(41.5)	9(7.6)	3(2.5)	1(0.8)
	10년 이상	148	26(17.6)	5(3.4)	18(12.2)	20(13.5)	51(34.5)	25(16.9)	3(2.0)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8(19.4)	6(6.5)	7(7.5)	11(11.8)	36(38.7)	7(7.5)	8(8.6)	0(0.0)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5(15.2)	1(3.0)	3(9.1)	7(21.2)	14(42.4)	2(6.1)	1(3.0)	0(0.0)
	비수도권	60	13(21.7)	5(8.3)	4(6.7)	4(6.7)	22(36.7)	5(8.3)	7(11.7)	0(0.0)
소속 직장별	대학	50	6(12.0)	0(0.0)	7(14.0)	5(10.0)	23(46.0)	5(10.0)	4(8.0)	0(0.0)
	공공기관/법인	43	12(27.9)	6(14.0)	0(0.0)	6(14.0)	13(30.2)	2(4.7)	4(9.3)	0(0.0)
직무별	교수직	53	6(11.3)	2(3.8)	7(13.2)	6(11.3)	23(43.4)	5(9.4)	4(7.5)	0(0.0)
	연구/사업직	40	12(30.0)	4(10.0)	0(0.0)	5(12.5)	13(32.5)	2(5.0)	4(10.0)	0(0.0)

\*p<.05, \*\*p<.01, \*\*\*p<.001

(4)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2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18.3%),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1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청소년 중심의 운영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56】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2순위)(%)

표 IV-150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2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2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청소년 중심 의 운영 강화	프로 그램 의 전문 성 확보	적절한 전문 인력 확보	시설 운영 체계 (운영 주체) 의 정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의 청소년 전담공 무원 제도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기타	x <sup>2</sup> (유의도)
전체	493	83(16.8)	56(11.4)	121(24.5)	61(12.4)	90(18.3)	60(12.2)	22(4.5)	0(0.0)	-
시설종사자	400	68(17.0)	42(10.5)	96(24.0)	52(13.0)	75(18.8)	51(12.8)	16(4.0)	0(0.0)	4.226 (0.646)
청소년전문가	93	15(16.1)	14(15.1)	25(26.9)	9(9.7)	15(16.1)	9(9.7)	6(6.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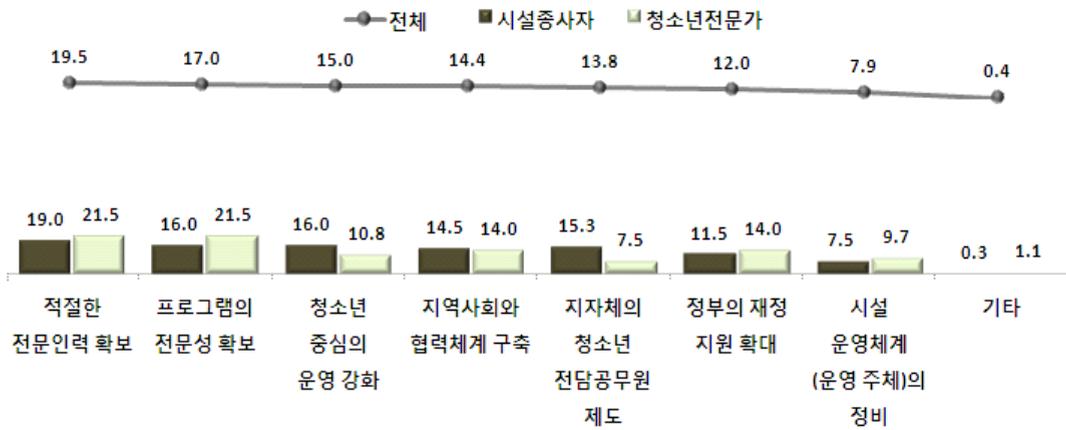
\*p<.05, \*\*p<.01, \*\*\*p<.001



(4)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3순위)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19.5%),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17.0%),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1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모두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상별 차이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IV-57]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3순위)(%)

표 IV-152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3순위) - 대상별 차이검증

구분[%] 3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	프로 그램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전문 인력 확보	시설 운영 체계 (운영 주체의 정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의 청소년 전담 공무원 제도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기타	x2 (유의도)
전체	493	74(15.0)	84(17.0)	96(19.5)	39(7.9)	59(12.0)	68(13.8)	71(14.4)	2(0.4)	-
시설종사자	400	64(16.0)	64(16.0)	76(19.0)	30(7.5)	46(11.5)	61(15.3)	58(14.5)	1(0.3)	8.353 (0.302)
청소년전문가	93	10(10.8)	20(21.5)	20(21.5)	9(9.7)	13(14.0)	7(7.5)	13(14.0)	1(1.1)	

\*p<.05, \*\*p<.01, \*\*\*p<.001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결과, ‘적절한 전문 인력 확보’ 응답은 시설종사자에서는 응답자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청소년전문가의 대학(24.0%), 교수직(22.6%) 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시설종사자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청소년전문가 집단에서는 직무에 따라 5% 수준, 소속직장에 따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3**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인(3순위) - 배경변인별 차이검증

구분[%] 3순위 기준		사 례 수 [명]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	프로 그램의 전문성 확보	적절한 전문 인력 확보	시설운영 체계 (운영 주체) 의 정비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지자체의 청소년 전담 공무원 제도	지역 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기타	x2 (유의도)
시설종사자 전체		400	64(16.0)	64(16.0)	76(19.0)	30(7.5)	46(11.5)	61(15.3)	58(14.5)	1(0.3)	-
근무 지역별	수도권	161	21(13.0)	25(15.5)	34(21.1)	9(5.6)	19(11.8)	25(15.5)	27(16.8)	1(0.6)	19,052 (0.897)
	경상권	86	14(16.3)	13(15.1)	13(15.1)	7(8.1)	13(15.1)	14(16.3)	12(14.0)	0(0.0)	
	충청권	42	9(21.4)	7(16.7)	8(19.0)	5(11.9)	4(9.5)	4(9.5)	5(11.9)	0(0.0)	
	전라권	41	9(22.0)	7(17.1)	12(29.3)	2(4.9)	4(9.8)	5(12.2)	2(4.9)	0(0.0)	
	강원 제주권	70	11(15.7)	12(17.1)	9(12.9)	7(10.0)	6(8.6)	13(18.6)	12(17.1)	0(0.0)	
수련시설 유형별	청소년수련관	213	31(14.6)	36(16.9)	53(24.9)	14(6.6)	21(9.9)	30(14.1)	27(12.7)	1(0.5)	13,043 (0.071)
	청소년문화의집	187	33(17.6)	28(15.0)	23(12.3)	16(8.6)	25(13.4)	31(16.6)	31(16.6)	0(0.0)	
수련시설 운영주체별	지자체직영	119	24(20.2)	18(15.1)	18(15.1)	12(10.1)	15(12.6)	18(15.1)	14(11.8)	0(0.0)	27,204 (0.507)
	법인	109	16(14.7)	17(15.6)	15(13.8)	10(9.2)	11(10.1)	14(12.8)	25(22.9)	1(0.9)	
	민간위탁	116	17(14.7)	19(16.4)	28(24.1)	7(6.0)	12(10.3)	22(19.0)	11(9.5)	0(0.0)	
	지자체산하공단	51	6(11.8)	9(17.6)	14(27.5)	1(2.0)	8(15.7)	6(11.8)	7(13.7)	0(0.0)	
	기타	5	1(20.0)	1(20.0)	1(20.0)	0(0.0)	0(0.0)	1(20.0)	1(20.0)	0(0.0)	
직위별	관장	35	7(20.0)	5(14.3)	7(20.0)	2(5.7)	5(14.3)	5(14.3)	4(11.4)	0(0.0)	9,633 (0.788)
	간부	119	21(17.6)	18(15.1)	20(16.8)	8(6.7)	11(9.2)	25(21.0)	15(12.6)	1(0.8)	
	일반직원	246	36(14.6)	41(16.7)	49(19.9)	20(8.1)	30(12.2)	31(12.6)	39(15.9)	0(0.0)	
경력별	5년 미만	134	22(16.4)	18(13.4)	22(16.4)	12(9.0)	19(14.2)	19(14.2)	22(16.4)	0(0.0)	12,524 (0.564)
	5~10년 미만	118	17(14.4)	27(22.9)	21(17.8)	9(7.6)	10(8.5)	17(14.4)	16(13.6)	1(0.8)	
	10년 이상	148	25(16.9)	19(12.8)	33(22.3)	9(6.1)	17(11.5)	25(16.9)	20(13.5)	0(0.0)	
청소년전문가 전체		93	10(10.8)	20(21.5)	20(21.5)	9(9.7)	13(14.0)	7(7.5)	13(14.0)	1(1.1)	-
근무 지역별	수도권	33	6(18.2)	6(18.2)	6(18.2)	4(12.1)	4(12.1)	3(9.1)	4(12.1)	0(0.0)	1,926 (0.964)
	비수도권	60	4(6.7)	14(23.3)	14(23.3)	5(8.3)	9(15.0)	4(6.7)	9(15.0)	1(1.7)	
소속 직장별	대학	50	4(8.0)	9(18.0)	12(24.0)	9(18.0)	8(16.0)	5(10.0)	2(4.0)	1(2.0)	19,191** (0.008)
	공공기관/법인	43	6(14.0)	11(25.6)	8(18.6)	0(0.0)	5(11.6)	2(4.7)	11(25.6)	0(0.0)	
직무별	교수직	53	5(9.4)	9(17.0)	12(22.6)	9(17.0)	9(17.0)	5(9.4)	3(5.7)	1(1.9)	16,483* (0.021)
	연구/사업직	40	5(12.5)	11(27.5)	8(20.0)	0(0.0)	4(10.0)	2(5.0)	10(25.0)	0(0.0)	

\*p<.05, \*\*p<.01, \*\*\*p<.001



## 제 V 장

---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대한 AHP 분석

1. 분석개요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관한 AHP 분석결과



# 제 V 장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대한 AHP 분석

### 1. 분석개요

#### 1) 조사대상 및 조사설계

- 조사대상 : 청소년학계 및 청소년 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청소년전문가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구축 후 설문 URL 이메일 발송
- 표본수 : 37명
- 조사기간 : 2017년 8월 24일 ~ 8월 29일

#### 2) 분석대상 공공성 영역 및 지표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및 지표는 적절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공성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각 영역이 포괄하고 있는 지표들의 의미를 대표하고 포괄하여 함축하기 위해서 일부 대영역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공공성 영역 중 정당성은 타당성으로, 개방성은 편의성으로, 다양성은 포용성으로 바꾸었고,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은 원래의 명칭을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대영역과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시설종사자 및 청소년전문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 표와 같이 5개 대영역, 25개 공공성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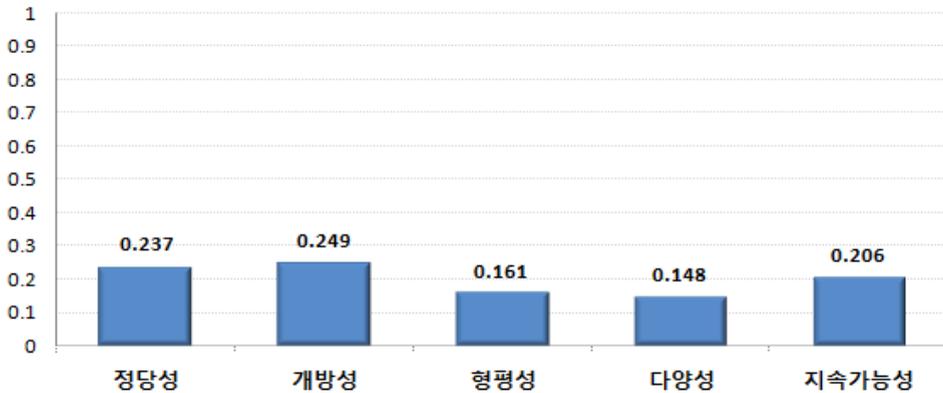
표 V-1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및 지표(안)

대영역	정의	공공성 지표
타당성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설립되었는가	1.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1.3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1.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편의성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편리한가	2.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2.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2.3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2.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2.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형평성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운영되는가	3.1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3.2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3.3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3.4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3.5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포용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4.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4.2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4.3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4.4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4.5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	5.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5.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5.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5.4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5.5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관한 AHP 분석결과

### 1) 공공성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영역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편의성' 영역의 중요도가 0.249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어서 '타당성'(0.237), '지속가능성'(0.206), '형평성'(0.161), '포용성'(0.148)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V-1】 공공성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표 V-2 공공성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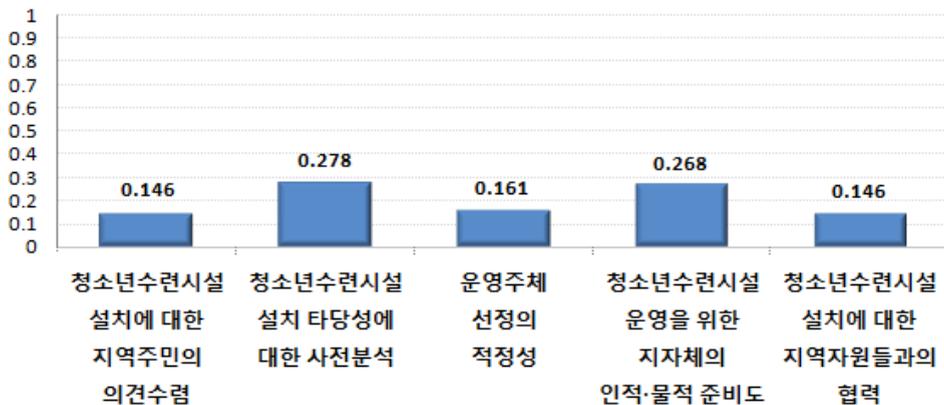
공공성 영역	전체(N=37)		
	중요도	우선 순위	CI
타당성	0.237	2	0.007
편의성	0.249	1	
형평성	0.161	4	
포용성	0.148	5	
지속가능성	0.206	3	

\* CI(Consistency Index, 일관성 지수) 0.10 이하 : 계층분석 결과 일관성 확보 - 조사 결과 유효

## 2) 공공성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 ① 타당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타당성 지표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의 중요도가 0.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0.268),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0.161)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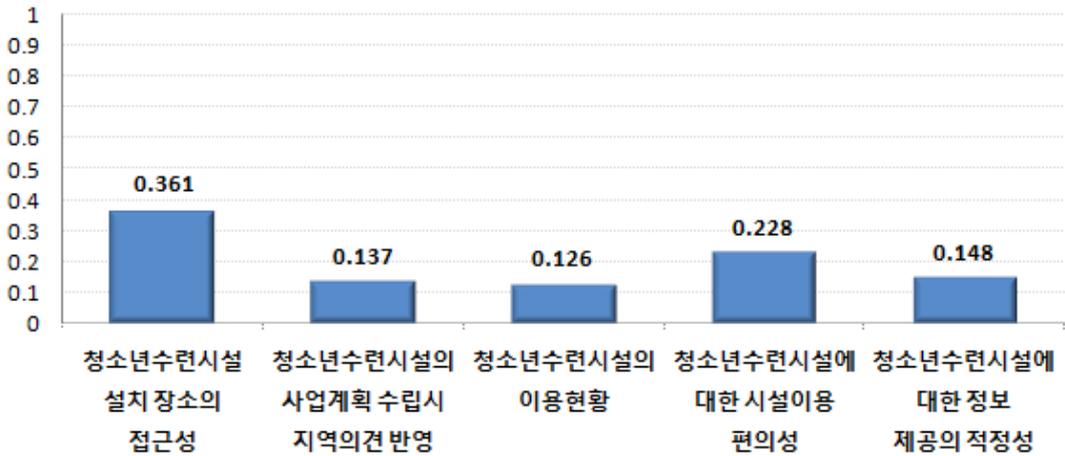
【그림 V-2】 타당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표 V-3 타당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타당성 지표	전체(N=37)		
	중요도	우선 순위	C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0.146	5	0.003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0.278	1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0.161	3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0.268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0.146	4	

② 편의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편의성 지표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의 중요도가 0.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0.228),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0.148),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0.137),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0.126) 순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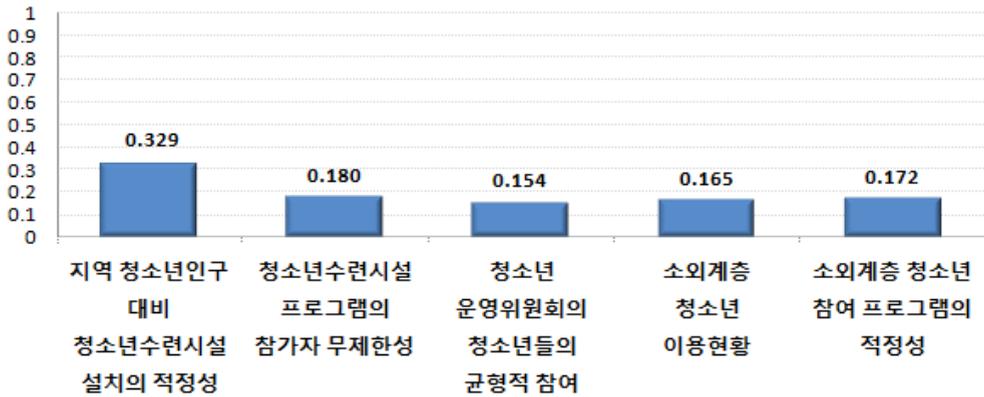
【그림 V-3】 편의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표 V-4 편의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편의성 지표	전체(N=37)		
	중요도	우선 순위	CI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0.361	1	0.007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0.137	4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0.126	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0.228	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0.148	3	

③ 형평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형평성 지표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의 중요도가 0.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0.180),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적정성'(0.172),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0.16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0.154) 순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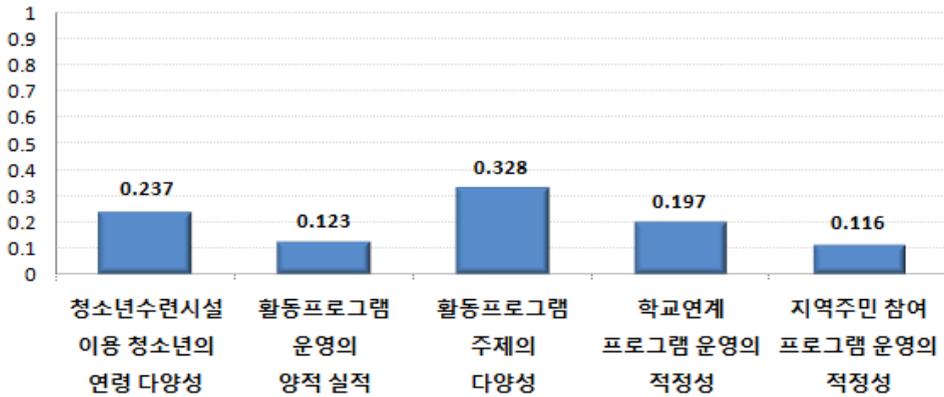
【그림 V-4】 형평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표 V-5 형평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형평성 지표	전체(N=37)		
	중요도	우선 순위	CI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0.329	1	0.002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0.180	2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0.154	5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0.165	4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적정성	0.172	3	

④ 포용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포용성 지표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포용성’의 중요도가 0.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0.237),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0.197),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0.123),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0.116) 순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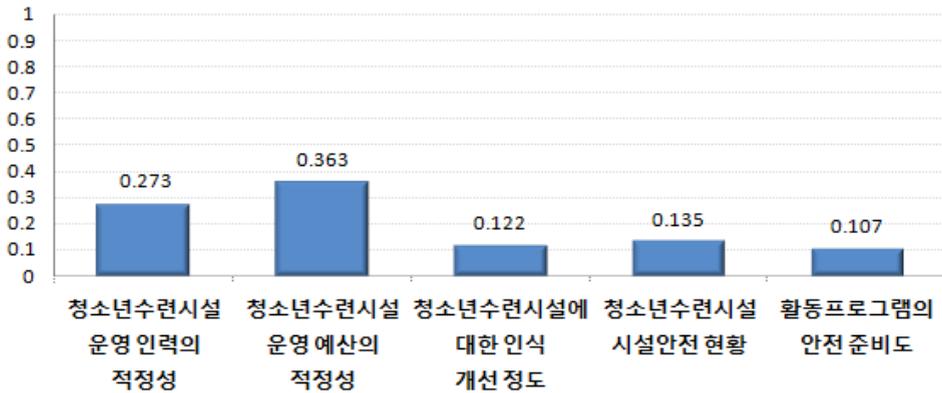
【그림 V-5】 포용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표 V-6 포용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포용성 지표	전체(N=37)		
	중요도	우선 순위	CI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0.237	2	0.003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0.123	4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0.328	1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0.197	3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0.116	5	

⑤ 지속가능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지속가능성 지표별로 중요도를 산출한 결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의 중요도가 0.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0.273),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0.13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0.122),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0.107)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V-6】 지속가능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표 V-7 지속가능성 영역의 지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비교

지속가능성 지표	전체(N=37)		
	중요도	우선 순위	CI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0.273	2	0.005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0.363	1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0.122	4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0.135	3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0.107	5	

### 3) 공공성 영역 및 지표에 대한 통합 분석결과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영역 및 지표에 대한 최종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 '편의성 영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의 중요도가 0.0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지속가능성 영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0.075), '타당성 영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0.066)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V-8 공공성 영역 및 지표에 대한 통합 분석결과

대영역		공공성 지표		최종 중요도	
영역	중요도	지표	중요도	중요도	우선 순위
타당성	0.237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0.146	0.035	1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0.278	0.066	3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0.161	0.038	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0.268	0.064	4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0.146	0.035	11
편의성	0.24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0.361	<b>0.090</b>	1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0.137	0.034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0.126	0.031	1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0.228	0.057	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0.148	0.037	10
형평성	0.161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0.329	0.053	7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0.180	0.029	16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0.154	0.025	21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0.165	0.027	20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적정성	0.172	0.028	18
포용성	0.148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0.237	0.035	11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0.123	0.018	24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0.328	0.048	8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0.197	0.029	16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0.116	0.017	25
지속 가능성	0.20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0.273	0.056	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0.363	0.075	2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0.122	0.025	21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0.135	0.028	18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0.107	0.022	23



# 제 VI 장

---

## 정책방안 및 결론

1. 정책방안
2. 결론 및 시사점



# 제 VI 장

## 정책방안 및 결론

### 1. 정책방안

#### 1) 정책비전 및 목표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라는 비전과 목표 하에 정책방안을 5대 영역, 10개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b>비 전</b>	<b>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b>	
<b>목 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모든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 도모</li> <li>■ 청소년에게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 제공</li> <li>■ 청소년수련시설의 성과와 가치의 사회적 공유</li> </ul>	
<b>중 점 과 제</b>	<b>5대 영역 : 10개 정책과제</b>	
청소년수련시설의 타당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1 : 시설 설치시 지자체 예산/인력 준비도 평가</li> <li>■ 정책과제 2 : 시설 설치시 지자체 사전타당성 분석</li> </ul>	
청소년수련시설의 편의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3 : 수련시설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li> <li>■ 정책과제 4 : 수련시설 이용편의성 설계가이드라인 마련</li> </ul>	
청소년수련시설의 형평성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5 :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li> <li>■ 정책과제 6 :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배경 및 특성 분석</li> </ul>	
청소년수련시설의 포용성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7 : 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 다양성 점검</li> <li>■ 정책과제 8 : 수련시설 참여 청소년 다양성 분석</li> </ul>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속가능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9 : 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li> <li>■ 정책과제 10 : 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li> </ul>	

【그림 VI-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의 정책비전과 정책과제

2) 정책과제

(1) 과제 1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기관인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지원 여력 및 준비상황에 대한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운영 및 지원 역량 완비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예산 및 인력 적정수준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가용 예산 상황 분석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직영, 법인, 위탁운영 등에 따른 가용 인력 지원 여력에 대한 분석
- 추진방법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요구시 지자체의 가용 예산 및 인력 준비 상황 보고 → 전문가 평가 →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판정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중앙정부) → 지자체 관련 서류 제출(지자체) → 최종 판정(중앙정부)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국비	50	50
	지방비	100	100
계		150	15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관할 지자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학계)

(2) 과제 2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 추진목표

- 지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요구 시,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설치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사회적·경제적 유용성 확보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과정 및 절차 검토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 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 사회적·경제적 가치 및 유용성에 대한 분석보고서 작성

○ 추진방법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검토 시 사전타당성 분석보고서 작성 → 수련시설 설치 요구 → 사전타당성 분석보고서에 기초한 설치 및 지원 여부 판정

○ 추진일정

- 사전타당성 계획 수립(지자체) → 사전타당성 분석 보고서 작성(전문가 그룹) → 사전타당성 보고서 검토(중앙정부)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국비	-	-
	지방비	100	100
계		100	10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관할 지자체, 타당성 분석 전문가 그룹

(3) 과제 3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선정 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수련시설의 편의성과 이용 효율성 확보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역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종합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최적 입지에 대한 표준안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입지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추진방법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입지 표준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배포

○ 추진일정

- 수련시설 입지 표준안 연구 추진(중앙정부) → 수련시설 유형별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 그룹) →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활용(지자체)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국비	70	30
	지방비	-	-
계		70	3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관할 지자체, 입지 선정 전문가 그룹,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4) 과제 4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계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 시, 이용 청소년들의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기존 청소년수련시설 설계의 이용편의성 측면의 장단점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건축설계 프로토타입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방법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 설계 프로토타입 구축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배포

○ 추진일정

- 수련시설 설계 프로토타입 연구 추진(중앙정부) → 수련시설 유형별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 그룹) →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활용(지자체)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계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국비	80	40
	지방비	-	-
계		80	4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관할 지자체, 이용편의성 설계 전문가 그룹,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5) 과제 5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및 전망 분석

## □ 추진목표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및 향후 전출입·진학 등의 인구전망에 대해 분석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추진계획

## ○ 추진내용

- 지역별 인구 및 청소년인구 실태 분석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역별 청소년인구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에 대한 정책방향 도출

## ○ 추진방법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분석 연구 →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 예측 → 전망치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촉진 및 지원방향 결정

## ○ 추진일정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연구 추진(중앙정부) → 지역별 청소년 인구구조 예측(전문가 그룹) → 인구 전망치의 정책활용(지자체)

##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	국비	60	60
	지방비	-	-
계		60	60

##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학계)

(6) 과제 6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수련시설의 이용 형평성 확대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에 대한 실태 분석
  - 지역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차이 분석
  - 지역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도출
- 추진방법
  - 생활권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 연구 → 지역별 이용 청소년 특성 분석 → 지역별 이용 청소년 특성에 따른 시설의 균형적 운영 지원방향 결정
- 추진일정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 파악(중앙정부) → 지역별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특성 분석(전문가 그룹) → 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특성 정책반영(지자체)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	국비	50	50
	지방비	30	30
계		80	8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학계)

(7) 과제 7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이 이용 청소년들의 요구와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가에 대한 분석과 점검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실태 분석
- 지역별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요구 및 수요조사
-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

○ 추진방법

- 생활권 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실태 분석 → 지역별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및 수요 분석 → 수련시설의 활동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정책 반영

○ 추진일정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실태조사 추진(중앙정부) → 지역별 활동프로그램 요구 및 수요조사(지자체) → 수련시설 활동프로그램 다양성 확보정책 추진(중앙정부/지자체)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	국비	100	100
	지방비	150	150
계		250	25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 과제 8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참여 청소년 포용성 분석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에 다양한 청소년들이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의견수렴 반영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참여 청소년 실태 분석
- 수련시설 참여 청소년들의 요구 및 수요분석
- 청소년수련시설에 다양한 청소년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 추진방법

- 생활권 수련시설 참여 청소년 실태 분석 → 수련시설 참여 청소년들의 요구 및 수요 분석 → 수련시설에 다양한 청소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 마련

○ 추진일정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참여 실태조사 및 요구조사 추진(중앙정부) → 수련시설에의 다양한 청소년 참여 촉진 정책 추진(중앙정부/지자체)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참여 청소년 포용성 분석	국비	100	100
	지방비	-	-
계		100	10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학계)

(9) 과제 9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시설 규모 대비 적정한 운영예산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의 안정화 토대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예산 실태조사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규모별 적정예산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 추진방법

- 생활권 수련시설 운영 예산 실태 분석 → 수련시설 적정예산 분석 → 수련시설의 규모 대비 적정예산 지침 마련

○ 추진일정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 실태조사 추진(중앙정부) → 수련시설 규모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중앙정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세부지침에 따른 지자체 시설 운영 지원예산 조정(지자체)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국비	70	70
	지방비	-	-
계		70	7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학계)

(10) 과제 10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 추진목표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시설 규모 대비 적정한 인력구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의 안정적 인적자원 기초 마련

□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인력 실태조사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유형별, 규모별 적정 인력구조 분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 대비 적정 인력구조 세부지침 마련

○ 추진방법

- 생활권 수련시설 운영 인력 실태 분석 → 수련시설 적정 인력구조 분석 → 수련시설의 규모 대비 적정 인력구조 지침 마련

○ 추진일정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 실태조사 추진(중앙정부) → 수련시설 규모별 적정 인력구조 세부지침 마련(중앙정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세부지침에 따른 지역별 시설 운영 인력구조 조정(지자체)

□ 추진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회계	1차년도	2차년도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국비	50	50
	지방비	-	-
계		50	50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학계)

## 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다수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최근 사회적·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의 토대가 되는 것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를 구체화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다양한 문헌과 문화공공성 등의 유관 분야들을 살펴보았고 청소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이란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인 공공복리적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방식을 통해 그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개념화에서 중점을 둔 것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재로 그 가치를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그 운영주체가 지자체 직영이든, 법인이든, 민간단체 위탁운영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국민들이 함께 그 가치와 혜택을 공유하는 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적지 않은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익형 프로그램을 하거나 전체 운영예산의 일정 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등 수지분석을 해야 하는 현실이 엄연히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서 갖는 가치는 부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히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도 청소년수련관과의 기능중복이나 일부 지역의 저조한 이용률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에 대한 시설종사자와 청소년전문가 대상의 인식조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인지에 대해서 93.7%의 응답자가 공공시설로서 인식하고 있었고,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하여 인식하는 키워드로는 지역사회, 정부지원, 지자체, 서비스, 참여, 전문성, 복지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서 공공시설로서의 인식하는 것과 비교할 때 67.5%만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공공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는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사회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가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들 각각에 대해서 대체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이에 비하여 각 공공성 지표의 내용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로서의 책무성을 갖춰야 하는 이유임과 동시에 앞으로서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타당성, 편의성, 형평성, 포용성, 지속가능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타당성이란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설립되었는가, 편의성이란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편리한가, 형평성이란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운영되는가, 포용성이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지속가능성이란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각각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현재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와 청소년학계/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청소년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사전타당성을 갖추고 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이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입지 선정이 적정해야 하며, 이용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련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청소년수련시설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청소년 인구구조와 이용이 예상되는 지역 청소년들의 배경과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소외계층과 다문화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이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개발·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청소년들의 요구를 부합하도록 다양하고 적절한 양적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과 인력을 갖추도록 정책적으로 안내되어야 하고, 수련시설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며, 안전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HP 분석결과 이와 같은 5대 공공성 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편의성, 타당성, 지속가능성, 형평성, 포용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것을 살펴보면, 타당성 지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이, 편의성 지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이, 형평성 지표에서는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이, 포용성 지표에서는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포용성이, 지속가능성 지표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도출되었다. 전체 공공성 지표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5가지 지표로 나타난 것은 편의성 지표 중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지속가능성 지표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지표 중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 분석, 타당성 지표 중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편의성 지표 중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순으로 도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성 관련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인식결과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으로서 5대 영역, 10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10개 정책과제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편의성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배경 및 특성 분석,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 다양성 점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참여 청소년 포용성 분석,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등이다. 이와 같은 정책과제는 각 공공성 영역마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안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 것인데 앞으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금석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다수 공공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성 논의와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을 담았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의 한 유형인 청소년수련원은 대부분 민간시설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사업운영의 변화가 심하고, 일반 규격화된 재화처럼 최저가 입찰 등의 제도적 문제가 상존하며, 민간시설이다 보니 시설안전을 위한 재투자가 미흡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정책에 모두 적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추후에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도 공공적 기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더 늦기 전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서 공공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 자체의 인지도 향상과 지역밀착적인 시설 운영 등의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의 타당하고 준비된 시설 지원 역량 함양과 이를 전국적으로 설계하여 안내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시설정책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이와 같은 현안과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참 고 문 헌

- 강내희 (2003). 경제적 이성 비판과 사회발전:문화적 권리, 공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개혁과제 및 대안 정책 제시를 위한 공개토론회. 문화연대·한겨레신문사.
- 강황선, 주운현 (2009). 공공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효율산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13권 제3호 : 179-205.
- 고재학 (2004).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영실태에 관한 연구 - 경기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세운 (2008). 청소년시설 종합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화, 조용하 (200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응천, 김재범(2014).예술 공론장 개념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14집:5-25. 예술경영학회.
- 김지혜 (2014).마을단위 어린이 공공공간 건축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 연구 : 광진구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김진석, 민소영, 유동철, 홍영준 (2015). 서울시 공공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방안. 서울복지재단.
- 김창수 (2013). 공공 문예회관의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수, 김준호 (2013).인천광역시 문예회관의 문화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학춘 (2006). 청소년수련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자연권수련시설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철, 임희진, 정효진, 민경석 (201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황진구, 김정주, 권순달 (2012).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 청소년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2011a). 청소년수련관 평가지표 가중치 분석방법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18(3), 181-202.
- 김형주 (2011b).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평가지표 중요도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9(4), 49-55.
- 김형주, 김정주, 김인규 (201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임지연, 한도희, 김영애, 김혁진, 김인규 (20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Ⅱ :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호순 (2011). 청소년문화의 집 평가에 관한 고찰. 청소년학연구, 18(8), 187-215.
-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박신의 (2009). 문화예술시설에서의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문화예술경영학연구. 2(2):28-39.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 법제처. www.law.go.kr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017. 5. 25 검색.
- 양미선, 정주영, 임지희 (2013).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양병모 (2003).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자연권수련시설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욱 (2015).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에 관한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에서의 공공가치 실현.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양지연 (2016). 박물관·미술관 공공지원의 근거와 방향에 대한 재성찰. 예산경영연구 제40집 : 233-256. 예술경영학회.
- 여성가족부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2015).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통계편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유경희 (2016).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차이와 관리방안 연구 : 전라북도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이 (2009).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7(4), 77-84.

- 윤준선, 정현균, 김지훈 (2009). 청소년 시설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성남시 청소년 시설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7(4), 85-95.
- 이경아, 허준, 김창엽, 노경란, 박진영 (2007). 평생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평생교육 협력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민희 (2007). 청소년시설의 평가지표 표준화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5(3), 77-78.
- 이민희, 김경준, 황진구, 최창욱, 성운숙 (2006). 2006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최종보고서.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상철, 고수정, 장철영 (2006). 조직운영주체별 상대적 효율성 분석 :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44권3호 : 180~205.
- 이은미, 정영기 (2010). 지역 공연장 운영주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술경영연구 제17집 : 85-110. 예술경영학회.
- 이은미, 정영기 (2009).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미션 수립과 평가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제14집 : 157-184. 예술경영학회.
- 이재희 (2009). 공연예술경제학. 서울 : 삼영사.
- 이진숙 (2012). 보육아젠다를 통해 본 공공성의 동학. 보건사회연구, 32(4), 361-390.
- 이환범, 이수창, 이완교 (2006). 청소년 수련시설 지자체 직영과 민간위탁간의 SERVQUAL 비교평가. 한국지방자치연구 8(1), 17-36.
- 임지연, 송병국, 이교, 김영석 (2010). 청소년활동시설 평가 모형 개발연구 I : 청소년수련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0-R0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남익 (2010). 청소년기 제도적 사회자본 형성과 청소년 시민성 개발 : 공공성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7(2), 67-85.
- 조혜영 (2012).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지도자 및 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0(4), 1410155.
- 최진희 (2013). 청소년수련관과 지역 공공시설의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과천시 지역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4), 235-242.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한승준 (2016). 문화예술기관 경영평가에서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5권 제1호:125-146.





# 부 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지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 중요도 조사지(AHP)



# 부 록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관련 설문조사

(이하 모든 질문의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을 가리킴)

### I. 공공시설로서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1.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공공적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공공적 역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 ① 정부지원 ② 지자체 ③ 지역사회 ④ 참여 ⑤ 전문성 ⑥ 서비스 ⑦ 복지 ⑧ 기타 : ( )

4.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시설로서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1. [3번 문항 ①, ②에 응답한 사람만] 실제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측면에서(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2개를 선택해 주세요.

- ①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지역사회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③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무료이거나 소액이기 때문에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설치)하기 때문에  
⑤ 운영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⑥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⑦ 기타 : ( )



## II.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개념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고 할 때, 각 세부정의의 적절성과 실제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이란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인 공공복지적 서비스를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합리적 운영방식을 통해 그 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다.

공공성의 세부정의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3. 보편적인 공공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시설의 운영은 국가나 지방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한다										
5. 시설 운영의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한다										
6. 시설 운영주체와 운영방식은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7. 시설의 성과와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한다										

8.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정의할 때 수정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 )

### Ⅲ.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와 실제에 대한 인식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영역의 적절성과 실제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련시설 공공성의 주요영역	공공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영역으로 적절합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런 점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b>정당성</b>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설립되었는가)										
2. <b>개방성</b>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편리한가)										
3. <b>형평성</b>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운영되는가)										
4. <b>다양성</b>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5. <b>지속가능성</b>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										

1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주요영역으로 “정당성 개방성 형평성 다양성 지속가능성”이란 5가지 영역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함 ② 조금 적절함 ③ 보통 ④ 다소 적절치 않음 ⑤ 전혀 적절치 않음

18.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느냐를 판단한다고 할 때 “정당성 개방성 형평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중에서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 IV.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의 적절성과 실제에 대한 인식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정당성”(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설립되었는가)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적절한지와 실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성 영역 중 “정당성”의 하위 지표	“정당성”의 하위 지표로 적절합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주체 선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가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해 지자체는 인적·물적자원을 적절히 준비하고 있는가										
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해 지역자원들과 적절히 협력하는가										

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정당성”(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설립되었는가)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의무화
- ②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사전타당성 분석 실시
- ③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주체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④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시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 준비도 평가
- 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⑥ 기타 : ( )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개방성”(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편리한가)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적절한지와 실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성 영역 중 “개방성”의 하위 지표	“개방성”의 하위 지표로 적절합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된 장소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가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 계획 수립시에 지역의 견을 반영하고 있는가										
3.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은 높은 편인가										
4.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										
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개방성”(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편리한가)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② 청소년수련시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③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 점검 및 평가
- ④ 청소년수련시설 설계 시 이용편의성 가이드라인 마련
- ⑤ 청소년수련시설 정보제공 통합포털서비스 구축·운영
- ⑥ 기타 : ( )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형평성”(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운영되는가)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적절한지와 실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성 영역 중 “형평성”의 하위 지표	“형평성”의 하위 지표로 적절합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지역의 청소년인구에 부합하게 설치되고 있는가										
2.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들은 참가자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가										
3.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균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4.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많은 편인가										
5.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형평성”(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운영되는가)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지역별 청소년인구 실태 및 전망 분석
- ②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편의성 평가
- ③ 청소년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 ④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들의 배경 및 특성 분석
- 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실태 분석
- ⑥ 기타 : ( )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다양성”(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가)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적절한지와 실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성 영역 중 “다양성”의 하위 지표	“다양성”의 하위 지표로 적절합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 하는 청소년들의 연령은 다양한 편인가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하는 활동프로그램은 충분한가										
3.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양한 주제의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4.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적정 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5.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다양성”(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 실태 분석
- ②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운영 프로그램 수의 적정성 평가
- ③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다양성 점검
- ④ 청소년수련시설의 학교연계 프로그램 실태 분석
- 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지역주민 참여현황 점검
- ⑥ 기타 : ( )

◎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지속가능성”(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을 구성하는 하위 지표로서 적절한지와 실제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공성 영역 중 “지속가능성”의 하위지표	“지속가능성”의 하위지표로 적절합니까?					실제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함	조금 적절함	보통	다소 적절치 않음	전혀 적절치 않음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청소년수련시설은 적정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2. 청소년수련시설은 적정한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는가										
3.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에 대해 청소년이나 주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가										
4.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안전을 위해 잘 대비하여 갖춰놓고 있는가										
5. 청소년수련시설의 활동 프로그램은 안전계획을 잘 갖춰놓고 있는가										

부  
록

6.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영역 중 “지속가능성”(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인력 세부지침 마련
- ② 청소년수련시설 규모 대비 적정예산 세부지침 마련
- ③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조사
- ④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전준비도 평가
- ⑥ 기타 : ( )

## V.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적 운영 관련 기타 인식

1. 청소년수련시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적절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앙정부의 전액 지원 ② 지자체의 전액 지원 ③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 지원  
④ 정부(중앙정부/지자체) 지원과 시설의 자체 조달 병행 ⑤ 청소년수련시설의 자체 조달

4.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주체는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자체 직영 ② 지자체 설립 법인 ③ 민간위탁  
④ 지자체 산하공단 ⑤ 기타 : ( )

5. 청소년수련시설이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1~3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 ① 청소년 중심의 운영 강화  
②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③ 적절한 전문인력 확보  
④ 시설 운영체계(운영주체)의 정비  
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⑥ 지자체의 청소년전담공무원 제도  
⑦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⑧ 기타 : ( )

□ 배경문항 - 시설종사자

A.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수련시설이 속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 ⑨ 경기    ⑩ 충북    ⑪ 충남    ⑫ 강원    ⑬ 경북    ⑭ 경남    ⑮ 전북    ⑯ 전남
- ⑰ 제주

B.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수련시설의 입지적 특징은 어떠합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산어촌

C.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수련시설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수련관    ② 청소년문화의집    ③ 청소년수련원

D.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수련시설의 운영주체는 어떠합니까?

- ① 지자체 직영    ② 법인    ③ 민간위탁    ④ 지자체 산하공단    ⑤ 기타 : (                    )

E. 귀하의 직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관장            ② 간부            ③ 일반직원

F. 귀하의 청소년 분야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3년 미만        ② 3 ~ 5년 미만        ③ 5 ~ 10년 미만        ④ 10년 ~ 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G. 귀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1급 자격증 보유    ② 2급 자격증 보유    ③ 3급 자격증 보유    ④ 자격증 없음

□ 배경문항 - 청소년전문가

A.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직장이 속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 ⑨ 경기 ⑩ 충북 ⑪ 충남 ⑫ 강원 ⑬ 경북 ⑭ 경남 ⑮ 전북 ⑯ 전남
- ⑰ 제주

B. 귀하의 현재 소속 직장은?

- ① 대학 ② 공공기관(연구소 포함) ③ 민간회사(법인) ④ 기타 : ( )

C. 귀하의 현재 직무는?

- ① 교수(강사)직 ② 연구직 ③ 사업운영직 ④ 기타 : ( )

D. 귀하의 청소년 분야에서의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3년 미만 ② 3 ~ 5년 미만 ③ 5 ~ 10년 미만 ④ 10년 ~ 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지표 중요도 조사(AHP)

### 우선순위 분석에 사용되는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지표에 대한 설명

※ 다음은 우선순위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 설문 전에 꼼꼼히 읽고 내용을 숙지하신 뒤 설문에 임해주시면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영역	정의	공공성 지표
타당성	청소년수련시설이 실제 필요에 의해 적절하게 설립되었는가	1.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1.3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차·물적 준비도
		1.5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편의성	지역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은 편리한가	2.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2.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2.3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현황
		2.4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2.5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형평성	청소년수련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평등하게 운영되는가	3.1 지역 청소년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3.2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3.3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3.4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 현황
		3.5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포용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참여가 이루어지는가	4.1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4.2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4.3 활동프로그램 주체의 다양성
		4.4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4.5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지속가능성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가능한가	5.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5.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5.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5.4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5.5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 설문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 ○ 설문 작성 요령

- 1단계 : 제시된 공공성 영역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공공성 영역	A	B
순위		

- 2단계 :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공공성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공공성 영역	왼쪽 영역이 더 중요					오른쪽 영역이 더 중요					공공성 영역
	매우중요		중요		동등		중요		매우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A										B	

※ 주의사항 :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 설문 작성 예시

문)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중 어떤 영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타당성 = 편의성 > 형평성’ 순으로 고르고자 할 경우

- 1단계 : 제시된 공공성 영역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공공성 영역	타당성	편의성	형평성
순위	1	1	2

- 2단계 :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공공성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공공성 영역	왼쪽 영역이 더 중요					오른쪽 영역이 더 중요					공공성 영역
	매우중요		중요		동등		중요		매우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타당성					0					편의성	
타당성		0								형평성	
편의성		0								형평성	

※ 주의사항 :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본 설문

### 1. 대영역 간 상대적 중요도

- 1단계. 제시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대영역 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공공성 영역	A. 타당성	B. 편의성	C. 형평성	D. 포용성	E. 지속가능성
순위					

-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 대영역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할 경우, **대영역간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신 후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공공성 영역 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공공성 대영역	왼쪽 대영역이 더 중요				오른쪽 대영역이 더 중요					공공성 대영역	
	←				→						
	매우중요		중요		동등		중요		매우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A. 타당성											B. 편의성
A. 타당성											C. 형평성
A. 타당성											D. 포용성
A. 타당성											E. 지속가능성
B. 편의성											C. 형평성
B. 편의성											D. 포용성
B. 편의성											E. 지속가능성
C. 형평성											D. 포용성
C. 형평성											E. 지속가능성
D. 포용성											E. 지속가능성

※ 주의사항: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2.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 (1) 타당성

- 1단계. 제시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타당성 지표 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타당성 지표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B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C.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D.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E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순위					

-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타당성 지표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할 경우, 지표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판단하신 후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지표 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타당성 지표	왼쪽 지표가 더 중요				동등	오른쪽 지표가 더 중요				타당성 지표
	←					→				
	매우 중요	중요	중요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중요	매우 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B.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C.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D.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E.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B.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C.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B.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D.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B.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사전분석										E.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C.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D.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C. 운영주체 선정의 적정성										E.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D.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인적·물적 준비도										E.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자원들과의 협력

※ 주의사항: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2) 편의성

- 1단계 제시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편의성 지표 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편의성 지표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B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C.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D.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E.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순위					

-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편의성 지표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할 경우, 지표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신 후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지표 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편의성 지표	왼쪽 지표가 더 중요				동등	오른쪽 지표가 더 중요				편의성 지표
	←					→				
	매우 중요		중요				중요		매우 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B.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C.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D.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A.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장소의 접근성										E.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B.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C.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B.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D.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B.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의견 반영										E.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C.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D.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C.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현황										E.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D.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설이용 편의성										E.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의 적정성

※ 주의사항 :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3) 형평성

- 1단계. 제시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형평성 지표 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형평성 지표	A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B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C.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D. 소의 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E. 소의 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순위					

-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형평성 지표**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할 경우, **지표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신 후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지표 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형평성 지표	왼쪽 지표가 더 중요				동등	오른쪽 지표가 더 중요				형평성 지표
	매우 중요		중요				중요		매우 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A.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B.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A.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C.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A.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D.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A. 지역 청소년인구 대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적정성										E.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B.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C.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B.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D.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B.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참가자 무제한성										E.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C.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D.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C.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청소년들의 균형적 참여										E.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D. 소외계층 청소년 이용현황										E. 소외계층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

※ 주의사항: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4) 포용성**

- 1단계 제시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포용성 지표 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포용성 지표	A.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B.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C.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D.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E.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순위					

-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포용성 지표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할 경우, 지표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신 후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지표 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포용성 지표	왼쪽 지표가 더 중요				동등	오른쪽 지표가 더 중요				포용성 지표
	←					→				
	매우중요		중요				중요		매우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A.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B.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A.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C.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A.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D.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A.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청소년의 연령 다양성										E.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B.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C.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B.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D.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B. 활동프로그램 운영의 양적 실적										E.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C.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D.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C. 활동프로그램 주제의 다양성										E.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D.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E.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 주의사항: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5) 지속가능성

- 1단계 제시된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지속가능성 지표 간 중요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지속가능성 지표	A.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B.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C.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D.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E.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순위					

- 2단계.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성에서 지속가능성 지표 간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할 경우, 지표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판단하신 후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를 바탕으로 지표 별 상대적 중요도를 표기해 주십시오.

지속가능성 지표	왼쪽 지표가 더 중요				오른쪽 지표가 더 중요				지속가능성 지표	
	매우 중요		중요		동등		중요	매우 중요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A.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B.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A.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C.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A.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D.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A.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인력의 적정성										E.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B.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C.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B.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D.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안전 현황
B.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예산의 적정성										E.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C.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D.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안전 현황
C.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도										E.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D.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안전 현황										E. 활동프로그램의 안전 준비도

※ 주의사항 : 1단계 문항에서 표기한 순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Abstract

### A Study on Supporting Operation Activation through Enhancing the Publicness of Youth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youth facility, which is a public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policy plan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the youth facilities by improving the publicness of the youth facilities, reflecting the recent social and policy needs for youth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nalyzes were conducted using research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expert consultation and workshop, survey, and policy councils. First, as a review of trends in the role and operation of youth facilities, we examined the evaluation of youth facilities in terms of publicness of youth facilities. Second, we analyze the case related to cultural publicness. Third, the concept of pending issues and publicness of youth facilities were analyzed. Fourth, AHP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ublicness of the youth facilities and their perceptions about the revitaliz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publicness indicators propos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presented 5 major areas and 10 policy tasks. The ten policy tasks include assessment of local government budgets and manpower preparation at the establishment of youth facilities, conducting preliminary feasibility analysis at the establishment of youth facilities, setting guideline for selection of youth facilities, analysis of the youth actual condition and prospect according to the region, analysis of the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youth using the youth facility, examination of diversity of the youth facility operation program, analysis of the youth inclusion in the youth facility, and provision of detailed budget guidelines for the size of youth facilities.

In order for youth facilitie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as public facilities in our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governments to support the operation of youth facility in addition to the quality management of the facilities themselves.

Key words: Youth training facility, publicness, indicators, activation of operation

##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연보라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한지형 · 정윤미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보고서 / 최용환 · 한지형 · 박상현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정윤미 · 고강혁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용환 · 최승주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2016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조사 조사틀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욱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 · 하형석 · 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 · 이유진 · 정은진 · 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 · 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집필진 ◆

강 영 배 (대구한의대학교)

김 인 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조 남 역 (광운대학교)

※ 집필진 순서는 가나다순임

연구보고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인 쇄** 2017년 12월 24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병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식회사 다원기획 전화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57-8 93330

연구보고 17-R07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79-11-5654-157-8 93330